

CBETA電子佛典集成

CBETA Chinese Electronic Tripitaka Collection
eBook

X78n1549

淨土聖賢錄

清 彭希涑述

目次

- [編輯說明](#)
- [章節目次](#)
 - [No. 1549-A 淨土聖賢錄敘](#)
 - [淨土聖賢錄發凡](#)
 - [淨土聖賢錄偈](#)
 - [淨土聖賢錄目次](#)
 - [淨土教主第一](#)
 - [阿彌陀佛](#)
 - [闡教聖眾第二](#)
 - [觀世音菩薩](#)
 - [大勢至菩薩](#)
 - [普賢菩薩](#)
 - [文殊師利菩薩](#)
 - [祁婆伽尊者](#)
 - [馬鳴尊者](#)
 - [龍樹尊者](#)
 - [天親論師](#)
 - [覺明妙行菩薩](#)
 - [往生比丘第三之一](#)
 - [慧遠](#)
 - [慧永](#)
 - [僧顯](#)
 - [慧虔](#)
 - [僧濟](#)
 - [慧恭](#)
 - [曇恒](#)
 - [道敬](#)
 - [曇順](#)
 - [佛馱跋陀羅](#)
 - [道暉](#)
 - [僧叡](#)
 - [曇詵](#)
 - [慧崇](#)
 - [曇鑒](#)

- [慧通](#)
- [曇宏](#)
- [慧進](#)
- [道珍](#)
- [曇鸞](#)
- [法琳](#)
- [慧光](#)
- [僧柔](#)
- [道憑](#)
- [慧命](#)
- [靜靄](#)
- [慧敬](#)
- [曇延](#)
- [道喻](#)
- [智舜](#)
- [登法師](#)
- [智顓](#)
- [慧成](#)
- [慧命](#)
- [慧海](#)
- [智通](#)
- [直慧](#)
- [法智](#)
- [善貴](#)
- [道傑](#)
- [灌頂](#)
- [僧藏](#)
- [法喜](#)
- [道昂](#)
- [智琰](#)
- [等觀](#)
- [壽洪](#)
- [道綽](#)
- [僧衍](#)
- [普明](#)
- [二沙彌](#)
- [德美](#)
- [慧滿](#)

- [神素](#)
- [明瞻](#)
- [元會](#)
- [慧璿](#)
- [明濬](#)
- [善導](#)
- [懷感](#)
- [法祥](#)
- [寶相](#)
- [功迴](#)
- [惟岸](#)
- [法持](#)
- [懷玉](#)
- [慧日](#)
- [常愍](#)
- [法善](#)
- [神皓](#)
- [道光](#)
- [飛錫](#)
- [齊翰](#)
- [白覺](#)
- [往生比丘第三之二](#)
 - [承遠](#)
 - [法照](#)
 - [少康](#)
 - [辯才](#)
 - [善道](#)
 - [智欽](#)
 - [知元](#)
 - [端甫](#)
 - [雄俊](#)
 - [惟恭](#)
 - [太行](#)
 - [志通](#)
 - [可止](#)
 - [紹巖](#)
 - [守直](#)
 - [延壽](#)

- [晤恩](#)
- [文輦](#)
- [義通](#)
- [有基](#)
- [省常](#)
- [知禮](#)
- [遵式](#)
- [義懷](#)
- [本如](#)
- [仁岳](#)
- [處謙](#)
- [慧才](#)
- [靈照](#)
- [思義](#)
- [宗隨](#)
- [元淨](#)
- [從雅](#)
- [可久](#)
- [擇瑛](#)
- [宗本](#)
- [有嚴](#)
- [妙生](#)
- [曇異](#)
- [善本](#)
- [宗坦](#)
- [中立](#)
- [元照](#)
- [法宗](#)
- [了然](#)
- [智仙](#)
- [智深](#)
- [思照](#)
- [若愚](#)
- [仲閔](#)
- [介然](#)
- [往生比丘第三之三](#)
 - [齊玉](#)
 - [蘊齊](#)

- [道言](#)
- [元肇](#)
- [思淨](#)
- [如湛](#)
- [宗利](#)
- [道琛](#)
- [子元](#)
- [妙雲](#)
- [晞顏](#)
- [道因](#)
- [有朋](#)
- [惟月](#)
- [思敏](#)
- [慧亨](#)
- [行誥](#)
- [用欽](#)
- [惟渥](#)
- [仲明](#)
- [冲益](#)
- [本空](#)
- [法因](#)
- [智廉](#)
- [慧明](#)
- [了義](#)
- [慧誠](#)
- [祖南](#)
- [晞湛](#)
- [法持](#)
- [了宣](#)
- [曇懿](#)
- [祖朗](#)
- [太微](#)
- [思聰](#)
- [淨觀](#)
- [利先](#)
- [師安](#)
- [如寶](#)
- [顯超](#)

- [有開](#)
- [道生](#)
- [若觀](#)
- [瑩珂](#)
- [智印](#)
- [戒度](#)
- [祖輝](#)
- [如鑑](#)
- [祖新](#)
- [妙文](#)
- [善住](#)
- [旨公](#)
- [性澄](#)
- [蒙潤](#)
- [明本](#)
- [優曇](#)
- [宏濟](#)
- [必才](#)
- [悅可](#)
- [維則](#)
- [善繼](#)
- [子文](#)
- [盤谷](#)
- [文慧](#)
- [妙叶](#)
- [往生比丘第三之四](#)
 - [梵琦](#)
 - [可授](#)
 - [慧日](#)
 - [普智](#)
 - [景隆](#)
 - [寶珠](#)
 - [本明](#)
 - [義秀](#)
 - [雪梅](#)
 - [性專](#)
 - [祖香](#)
 - [圓果](#)

- [直清](#)
- [明證](#)
- [明玉](#)
- [法祥](#)
- [袞宏](#)
- [如榮](#)
- [如清](#)
- [廣製](#)
- [直緣](#)
- [傳記](#)
- [德清](#)
- [傳燈](#)
- [古松](#)
- [仲光](#)
- [金童廟僧](#)
- [海寶](#)
- [太雲](#)
- [無名僧](#)
- [往牛比邱第三之五](#)
 - [智旭](#)
 - [如會](#)
 - [太勳](#)
 - [太直](#)
 - [道樞](#)
 - [崇文](#)
 - [具宗](#)
 - [譚體](#)
 - [林谷](#)
 - [萬緣](#)
 - [勝慈](#)
 - [成時](#)
 - [行策](#)
 - [海潤](#)
 - [指南](#)
 - [超城](#)
 - [明宏](#)
 - [明德](#)
 - [寶賢](#)

- [明悟](#)
- [德峻](#)
- [聞言](#)
- [道徹](#)
- [成註](#)
- [了庵](#)
- [實定](#)
- [實圓](#)
- [恒一](#)
- [慧端](#)
- [法直](#)
- [佛安](#)
- [往生比丘尼第四](#)
 - [慧木](#)
 - [法盛](#)
 - [淨直](#)
 - [法藏](#)
 - [悟性](#)
 - [能奉](#)
 - [慧安](#)
 - [袿錦](#)
 - [廣覺](#)
 - [成靜](#)
 - [潮音](#)
- [往生人王第五](#)
 - [烏菴國王](#)
- [往生王臣第六](#)
 - [七萬釋種](#)
 - [劉程之](#)
 - [干昶](#)
 - [馬子雲](#)
 - [韋文晉](#)
 - [張抗](#)
 - [文彥博](#)
 - [楊傑](#)
 - [王古](#)
 - [鍾離瑾](#)
 - [馬圩](#)

- [江公望](#)
- [陳瓘](#)
- [王衷](#)
- [張昞](#)
- [胡闔](#)
- [馮楫](#)
- [吳秉信](#)
- [張掄](#)
- [李秉](#)
- [陸沅](#)
- [錢象祖](#)
- [咎定國](#)
- [梅汝能](#)
- [朱綱](#)
- [陳瓚](#)
- [嚴澂](#)
- [蔡承植](#)
- [盧淳熙](#)
- [唐時](#)
- [袁宏道](#)
- [丁明登](#)
- [黃翼聖](#)
- [金光前](#)
- [往生居士第七](#)
 - [差摩竭](#)
 - [關公則](#)
 - [張野](#)
 - [張詮](#)
 - [何曇遠](#)
 - [魏世子](#)
 - [庾誨](#)
 - [宋滿](#)
 - [鄭牧卿](#)
 - [高浩象](#)
 - [李知遙](#)
 - [孫忠](#)
 - [左伸](#)
 - [孫良](#)

- [賈純仁](#)
- [范儼](#)
- [孫忞](#)
- [唐世良](#)
- [陸浚](#)
- [王闡](#)
- [王日休](#)
- [樓汾](#)
- [張元祥](#)
- [元子平](#)
- [姚約](#)
- [梅福](#)
- [胡嵩](#)
- [陸偉](#)
- [閻邦榮](#)
- [吳克己](#)
- [陳君璋](#)
- [王九蓮](#)
- [楊嘉禧](#)
- [陳道民](#)
- [唐廷任](#)
- [戈以安](#)
- [孫叔子](#)
- [郭大林](#)
- [劉通志](#)
- [郝熙載](#)
- [杜居士](#)
- [吳大恩](#)
- [吳繼勛](#)
- [華居士](#)
- [顧原](#)
- [朱元正](#)
- [周廷璋](#)
- [程見山](#)
- [張守約](#)
- [莊廣還](#)
- [鮑宗肇](#)
- [莊嚴](#)

- [黃承惠](#)
- [聞啟初](#)
- [沈咸](#)
- [朱鷺](#)
- [吳瞻樓](#)
- [吳鳴珙](#)
- [王醇](#)
- [陳至善](#)
- [張光緯](#)
- [袁列星](#)
- [皇甫十坊](#)
- [羅允枚](#)
- [周夢顏](#)
- [沈中旭](#)
- [楊廣文](#)
- [顧天瑞](#)
- [姜見龍](#)
- [沈炳](#)
- [王恭](#)
- [往生雜流第八](#)
 - [張鍾馗](#)
 - [張善和](#)
 - [金奭](#)
 - [馮氓](#)
 - [吳瓊](#)
 - [李彥通](#)
 - [黃生](#)
 - [徐六公](#)
 - [沈三郎](#)
 - [師贊](#)
 - [倪道](#)
 - [大善寺行童](#)
 - [張愛](#)
 - [吳灤燭](#)
 - [吳毛](#)
 - [王仰泉](#)
 - [梁維周](#)
- [往生女人第九](#)

- [韋提希夫人](#)
- [樂音老母](#)
- [紀氏](#)
- [魏氏女](#)
- [獨孤皇后](#)
- [王氏](#)
- [姚婆](#)
- [溫靜文妻](#)
- [任氏](#)
- [王氏](#)
- [陳媪](#)
- [袁媪](#)
- [陳媪](#)
- [干媪](#)
- [王氏](#)
- [馮氏](#)
- [吳氏](#)
- [龔氏](#)
- [孫氏女](#)
- [郭氏](#)
- [施氏](#)
- [姚婆](#)
- [王氏](#)
- [王百娘](#)
- [朱氏](#)
- [陸氏](#)
- [蔡氏](#)
- [項氏](#)
- [沈氏](#)
- [鍾婆](#)
- [梁氏女](#)
- [黃婆](#)
- [崔婆](#)
- [陶氏](#)
- [李氏](#)
- [盛媪](#)
- [黃氏](#)
- [王氏女](#)

- [樓氏](#)
- [周婆](#)
- [朱氏](#)
- [裴氏女](#)
- [孫媪](#)
- [秦媪](#)
- [蔣十八妻](#)
- [沈媪](#)
- [孟氏](#)
- [陳氏](#)
- [胡媪](#)
- [周氏](#)
- [鄭氏](#)
- [周婆](#)
- [張夫人](#)
- [薛氏](#)
- [方氏](#)
- [徐氏](#)
- [許氏婦](#)
- [于媪](#)
- [潘氏](#)
- [朱氏](#)
- [祝氏](#)
- [張太宜人](#)
- [楊選一妻](#)
- [鍾氏](#)
- [吳氏女](#)
- [盧氏](#)
- [費氏](#)
- [李氏](#)
- [李氏](#)
- [陳媪](#)
- [張寡婦](#)
- [陸寡婦](#)
- [楊氏](#)
- [江氏](#)
- [徐太宜人](#)
- [凌氏](#)

- [余媪](#)
- [楊媪](#)
- [余氏](#)
- [往生物類第十](#)
 - [鸚鵡](#)
 - [鸚谷鳥](#)
 - [白鸚鵡](#)
- [卷目次](#)
 - [1.](#)
 - [2.](#)
 - [3.](#)
 - [4.](#)
 - [5.](#)
 - [6.](#)
 - [7.](#)
 - [8.](#)
 - [9.](#)
- [贊助資訊](#)

編輯說明

- 本電子書以「CBETA 電子佛典集成 Version 2023. Q4」為資料來源。
- 漢字呈現以 Unicode 3.0 為基礎，不在此範圍的字則採用組字式表達。
- 梵文悉曇字及蘭札字均採用羅馬轉寫字，如無轉寫字則提供字型圖檔。
- CBETA 對底本所做的修訂用字以紅色字元表示。
- 若有發現任何問題，歡迎來函 service@cbeta.org 回報。
- 版權所有，歡迎自由流通，但禁止營利使用。

No. 1549-A 淨土聖賢錄敘

至哉淨土之教。其諸聖人所由以踐形者乎。孟子曰。形色。天性也。知形色之為天性。則不容離土以言心。知天性之為形色。則不容外心以求土。離土以言心。是以天性為有外也。其所謂心。一介然者而已矣。外心以求土。是以形色為有外也。其所謂土。一塊然者而已矣。是皆不明乎踐形之說者也。華嚴圓教。理事無礙。事事無礙。普賢偈曰。一切剎海劫無邊。以一方便皆清淨。此踐形之極則也。又曰。願我臨欲命終時。盡除一切諸障礙。面見彼佛阿彌陀。即得往生安樂剎。此踐形之正軌也。或以毗盧遮那徧一切處。何得徧指西方。有乖全體。曾不知華藏海中。一塵一毛。具足十方無邊器界。極樂莊嚴。亦復如是。然則但見阿彌陀一佛。即已徧見十方諸佛。但生西方極樂一土。即已徧歷十方佛土。何以故。即一即多。無二無差別故。唯此法門。我釋迦尊金口所宣。十方恒河沙諸佛所共讚。諸大菩薩流通護持。轉轉無盡。自大教東來。單傳直指外。以念佛得度者。若緇若白。未易悉數。際清素服儒風。兼修淨行。常欲薈萃舊聞。用資警策。而日力倉卒。因循至今。會兄子希涑。初發信心。願成此錄。以堅向往。因為標指體要。載稽經論。次支那著述。續以耳目所及。斟酌損益。勒成一編。名之曰淨土聖賢錄。庶幾見聞隨喜。得預法流。一念歸誠。同登彼岸。豈不善哉。詩有之。緡蠻黃鳥。止于邱隅。夫淨土。亦聖賢之邱隅也。隨其心淨。則佛土淨。得所止矣。而下學之功。莫先於知止。故曰。於止知其所止。可以人而不如鳥乎。經云。彼國常有白鶴孔雀鸚鵡舍利迦陵頻伽共命之鳥。晝夜六時。出和雅音。其音演暢。五根五力七菩提分八聖道分如是等法。其土眾生聞是音已。皆悉念佛念法念僧。心邪。土邪。形色邪。天性邪。直下知歸。絕諸戲論。蓮華種子。只在當人。覽是錄者。其諸有樂於踐形之說矣乎。踐形者。往生之謂也。

乾隆四十八年孟春之月淨業學人彭際清撰

淨土聖賢錄發凡

- 凡錄往生者。祇載支那著述。至經論所明淨教緣起。多從闕略。譬之治河不由積石。導江不自岷山。既昧其原。其流將壅。茲首標教主。著所宗也。次觀音勢至。明有輔也。普賢文殊。左右遮那。而同讚西方。同揚淨業。故知十方諸大菩薩。莫不以淨土為歸矣。至如西天諸祖及諸論師。即不盡著往生之驗。而既登果

地。豈局東西。凡諸議論有關斯教者。亦並著之。廣資勸誘云爾。

- 華嚴入法界品。如德雲比丘。解脫長者。鞞瑟胝羅居士。俱不離念佛而入解脫門。乃至一念之頃。現無邊剎土。見無量諸佛。斯唯達自心原。窮諸行海。方能親證如斯三昧。修淨業人。決當剝心頂受。然事屬通塗。不專一剎。理周沙界。匪局西方。倘濫入此編。恐有乖全例。故概略其文。獨標其義如此。
- 歷代高僧傳。佛祖統紀。佛祖通載諸書。但載諸師事蹟。而議論激揚。概從簡棄。雲棲往生集。又唯標事驗。行實罕詳。遂可合張李為一身。溷淄澠而同味。覽未及終。倦而思臥者多矣。茲則該羅細行。圓具全身。綜貫千章。獨標警策。如智者十疑論。紫閣寶王論。永明萬善同歸。虎溪蓮宗寶鑑。天如或問。鄞江直指。西齋淨土詩。雲棲法彙。截流警語。以及方內諸公種種論述。網全帙而難周。扼片言而奚欠。用代適人之詔。宛同天鼓之鳴。願諸仁者。敬而聽之。
- 向之錄往生者。必著事驗。事驗無聞。遂多闕漏。雖然。不覩其形。願察其景。但自淨心。往生何待。首楞嚴經云。若飛心中兼福兼慧。自然心開見十方佛。一切淨土。隨願往生。故知紫閣天衣中峯天如妙叶空谷憨山諸尊宿。及陳瑩中馮濟川諸前輩。密因有在。正果非虛。撒手便行。不移跬步。何待臨終十念。始能決定往生。不宜逐迹而求。轉乖教理。
- 往生集唯以吉祥善逝為高。其有捐軀舍命者。概斥而不錄。獨尊庸行。曲為時宜。雖慮出萬全。而事難一概。普賢行願品言。毗盧遮那如來。從初發心。精進不退。以不可說不可說身命而為布施。六度經中。廣明斯事。故如此錄。靜藹為法捐軀。常愍忘身濟物。悲心深廣。淨願堅牢。載覽遺言。猶懷悚厲。他如善導志通文輦慧誠超城諸公。速捨報身。求生淨土。神明安定。不震不撓。是則以普賢願王。回向彌陀法界。憑茲猛烈。不退菩提。如斯榜樣。祇應隨學。詎可輕排。然則魔可毋慮乎。曰。魔之與佛。只在一心。但辨正因。決成正果。了知四大本空。五蘊非有。當捨身時。如遺迹等。如委蛻等。誰為能捨。誰為所捨。然則刀山火聚。悉是道場。寶樹華池。不離當處。是心是佛。是心作佛。夫何遠之有。如其三昧未成。我孰未化。祇因欣厭之情。激成取捨之行。竊恐痛苦所逼。煩惱轉強。九品難期。波旬得便。雲棲所慮。良在於斯。末法行人。切宜自審。
- 從上諸家紀述。繁簡不齊。雅俗並奏。不經甄別。難免淆訛。茲斟酌舊文。參稽往牒。加之潤飾。就我準繩。要於本旨初無乖刺。仍各注原書。以明左證。

- 淨土諸書。標指古德。概以師稱。而高僧傳則凡屬二名。但舉一字。此錄前有佛菩薩。後有宰官居士。若不書名。頗難合轍。故於出家二眾。準高僧傳但書一字。其在家者。準前史例。仍書二名。
- 往生集載周續之臨終見佛。合掌而逝。攷諸前史及東林傳。都無此文。當屬後人和會。又載白樂天蘇子瞻張天覺三人。謂據因攷果。當生西方。夫白公雖有繪圖回向之誠。而平生信樂。多在兜率。集中文句。確然可徵(集中畫彌勒上生幀記次畫西方幀記之後並題開成五年三月或謂白先斬兜率後歸安養者非也)。子瞻臥病時。向徑山長老口占偈言。灑然解脫。洵為希有。至語及西方。則曰西方不無。然箇裏著力不得。夫修淨業者。必具三心。所謂深心。至誠心。回向發願心。乃至臨終十念。未有不由著力而得者。至云著力不得。則三心未具。難保往生。無盡居士深入法原。眼空四海。今所錄發願文。有類童蒙。頗同寒乞。與他所傳文字不類。亦未可信。故并刪之。
- 居士傳善女人傳所錄諸賢。必徵素行。苟有瑕疵。概從簡斥。茲則但以末後為憑。不論既往之失。故如雄俊惟恭之輩。鍾馗善和之徒。既登末品。便預聖流。其他概可知矣。是知彌陀願力。極樂莊嚴。如大海不拒夫百川。杲日不遺於一孔。但肯回心。都無棄物。凡屬有情。普應信受。

右鄙見數條。當是錄草創之始。即口授希凍。每一篇成。輒為隨手勘定。全帙既具。大旨無乖。復筆之簡端以告來者。

淨業學人彭際清記

淨土聖賢錄偈

淨業弟子 彭希凍 述

大哉眾生心	微妙難思議	究竟如虛空
無一法可得	普能作佛事	成熟菩提果
一念不自覺	迷妄起空華	由諸業力持
建立十方土	眾方於其中	顛倒靡已時
百萬有八千	亂想無根緒	七趣如輪轉
了達唯一心	心心互周徧	剎剎分勝劣
或淨寶莊嚴	或瓦礫穢聚	或照曜明朗
或無日月光	或菩薩住處	安隱壽無量
或是雜生居	苦多而樂少	或餓鬼充滿

幽魄長叫喚	或純現地獄	碾礫受苦楚
諸佛普住持	隨所宜說法	彌陀大願王
發心取淨土	成就安樂剎	十方莫能比
備諸珍寶性	有情所愛樂	正覺華化生
聞法悟無上	他方諸眾生	起心信慕者
佛力悉加護	命終得往生	嗟彼無智人
聞言盡狂惑	不知是淨土	我心所畢具
凡夫一念閒	諸佛悉炳現	香水無邊剎
光明互徧滿	念佛便見佛	求生便往生
如取自家珍	東西非窒礙	良哉諸上人
善能了實相	知諸法如夢	而不趨寂滅
隨順修多羅	嚴淨佛國土	我今普歸依
讚歎并隨喜	迺以至誠心	深心回向心
願捨此堪忍	疾生清淨域	佛力不可說
心力不可說	轉彼穢濁居	悉作蓮華藏
我今說偈已	頂禮諸賢聖	願舒白毫光
攝盡微塵眾	華開彈指頃	畢入菩提場

淨土聖賢錄目次

- 卷一
 - 淨土教主第一
 - 阿彌陀佛
 - 闡教聖眾第二
 - 觀世音菩薩
 - 大勢至菩薩
 - 普賢菩薩
 - 文殊師利菩薩
 - 祈婆迦尊者
 - 馬鳴尊者
 - 龍樹尊者
 - 天親論師
 - 覺明妙行菩薩
- 卷二
 - 往生比丘第三之一
 - 慧遠(慧持)
 - 慧永
 - 僧顯

- 慧虔
- 僧濟
- 慧恭(僧光 慧蘭)
- 曇恒
- 道敬
- 曇順
- 佛馱跋陀羅
- 道昞
- 僧叡
- 曇詵
- 慧崇
- 曇鑒(道海 惠龕 惠恭 曇汭 道廣 道光)
- 慧通
- 曇宏
- 慧進
- 道珍
- 曇鸞
- 法琳
- 慧光
- 僧柔
- 道憑
- 慧命(法音)
- 靜靄
- 慧敬
- 曇延
- 道喻
- 智舜
- 登法師
- 智顓
- 慧成
- 慧命
- 慧海
- 智通
- 真慧
- 法智
- 善胃
- 道傑(樊綽)
- 灌頂

- 僧藏
- 法喜
- 道昂
- 智琰
- 等觀
- 壽洪
- 道綽(道撫)
- 僧衍(啟芳 圓果)
- 普明
- 二沙彌
- 德美
- 慧滿
- 神素
- 明瞻
- 元會
- 慧璿
- 明濬
- 善導
- 懷感
- 法祥
- 寶相
- 功迴
- 惟岸
- 法持
- 懷玉
- 慧日
- 常愍
- 法善
- 神皓
- 道光
- 飛錫
- 齊翰
- 自覺
- 卷三
 - 往生比丘第三之二
 - 承遠
 - 法照
 - 少康

- 辯才
- 善道
- 智欽
- 知元
- 端甫
- 雄俊
- 惟恭
- 大行
- 志通
- 可止
- 紹巖
- 守真
- 延壽
- 晤恩(文備)
- 文輦
- 義通
- 有基
- 省常
- 知禮
- 遵式
- 義懷
- 本如
- 仁岳
- 處謙
- 慧才
- 靈照
- 思義
- 宗蹟
- 元淨
- 從雅
- 可久(勳公 孫十二郎 徐道姑)
- 擇瑛
- 宗本
- 有嚴
- 妙生
- 曇異
- 善本
- 宗坦

- 中立
- 元照
- 法宗
- 了然
- 智仙
- 智深
- 思照
- 若愚(則章)
- 仲閔
- 介然
- 卷四
 - 往生比丘第三之三
 - 齊玉
 - 蘊齊
 - 道言
 - 元肇
 - 思淨
 - 如湛
 - 宗利
 - 道琛
 - 子元
 - 妙雲
 - 晞顏
 - 道因
 - 有朋
 - 惟月
 - 思敏
 - 慧亨
 - 行誦
 - 用欽
 - 惟渥
 - 仲明
 - 冲益
 - 本空
 - 法因
 - 智廉
 - 慧明
 - 了義

- 慧誠
- 祖南
- 晞湛
- 法持
- 了宣(善榮)
- 曇懿
- 祖朗
- 太微
- 思聰
- 淨觀
- 利先
- 師安
- 如寶
- 顯超
- 有開
- 道生
- 若觀
- 瑩珂
- 智印
- 戒度
- 祖輝
- 如鑑
- 祖新
- 妙文
- 善住
- 旨公
- 性澄
- 蒙潤
- 明本
- 優曇
- 宏濟
- 必才
- 悅可
- 維則
- 善繼
- 子文
- 盤谷
- 文慧

- 妙叶
- 卷五
 - 往生比丘第三之四
 - 梵琦
 - 可授
 - 慧日
 - 普智
 - 景隆(琴公)
 - 寶珠
 - 本明
 - 義秀
 - 雪梅
 - 性專
 - 祖香
 - 圓果
 - 真清
 - 明證(真定)
 - 明玉
 - 法祥
 - 袞宏
 - 如榮
 - 如清
 - 廣製
 - 真緣
 - 傳記
 - 德清
 - 傳燈
 - 古松
 - 仲光
 - 金童廟僧
 - 海寶
 - 大雲
 - 無名僧
- 卷六
 - 往生比丘第三之五
 - 智旭
 - 如會
 - 大勅

- 大真
- 道樞
- 崇文
- 具宗
- 讀體
- 林谷
- 萬緣
- 勝慈
- 成時
- 行策
- 海潤(長涇僧)指南
- 超城
- 明宏
- 明德
- 實賢
- 明悟
- 德峻
- 聞言
- 道徹
- 成註
- 了庵
- 實定(際會)
- 實圓
- 恒一
- 慧端
- 法真
- 佛安
- 往生比丘尼第四
 - 慧木
 - 法盛
 - 淨真
 - 法藏
 - 悟性
 - 能奉
 - 慧安
 - 祿錦
 - 廣覺
 - 成靜

- 潮音
- 卷七
 - 往生人王第五
 - 烏菘國王
 - 往生王臣第六
 - 七萬釋種
 - 劉程之
 - 于昶
 - 馬子雲
 - 韋文晉
 - 張抗
 - 文彥博
 - 楊傑(王仲回)王古(葛繁)
 - 鍾離瑾(景融松)
 - 馬圩(永逸)
 - 江公望
 - 陳瓘
 - 王衷
 - 張廸
 - 胡闔
 - 馮楫
 - 吳秉信
 - 張揄
 - 李秉
 - 陸沅
 - 錢象祖
 - 咎家國(計公)梅汝能
 - 朱綱
 - 陳瓚
 - 嚴澂(樸)
 - 蔡承植
 - 虞涇熙
 - 唐時
 - 袁宏道(中道登)
 - 丁明登
 - 黃翼聖
 - 金光前(龔氏)
- 卷八

。往生居士第七

- 差摩竭
- 關公則
- 張野
- 張詮
- 何曇遠
- 魏世子
- 庾詵
- 宋滿
- 鄭牧卿
- 高浩象
- 李知遙
- 孫忠
- 左伸
- 孫良
- 賈純仁
- 范儼
- 孫忭
- 唐世良
- 陸浚
- 王闐
- 王日休
- 樓汾
- 張元祥
- 元子平
- 姚約
- 梅福
- 胡嵩
- 陸偉
- 閻邦榮
- 吳克己
- 陳君璋
- 王九蓮
- 楊嘉禕
- 陳道民
- 唐廷任
- 戈以安
- 孫叔子

- 郭大林
- 劉通志
- 郝熙載
- 杜居士
- 吳大恩
- 吳繼勛
- 華居士
- 顧原
- 朱元正
- 周廷璋
- 程見山
- 張守約
- 莊廣還
- 鮑宗肇
- 莊嚴
- 黃承惠
- 聞啟初
- 沈咸(宏)
- 朱鷺
- 吳瞻樓
- 吳鳴珙
- 王醇
- 陳至善
- 張光緯
- 袁列星
- 皇甫士坊
- 羅允枚
- 周夢顏(王孟隣 余鶴亭)
- 沈中旭
- 楊廣文
- 顧天瑞(陸氏 俞氏)姜見龍
- 沈炳
- 王恭
- 卷九
 - 往生雜流第八
 - 張鍾馗
 - 張善和
 - 金爽

- 馮岷
- 吳瓊
- 李彥通
- 黃生
- 徐六公
- 沈三郎
- 師贊
- 倪道者
- 大善寺行童
- 張愛
- 吳澆燭
- 吳毛
- 王仰泉
- 梁維周
- 往生女人第九
 - 韋提希夫人(五百侍女)
 - 樂音老母
 - 紀氏
 - 魏氏女
 - 獨孤皇后
 - 王氏
 - 姚婆
 - 溫靜文妻
 - 任氏
 - 王氏
 - 陳媪
 - 袁媪
 - 陳媪
 - 于媪
 - 王氏
 - 馮氏
 - 吳氏
 - 龔氏
 - 孫氏女
 - 郭氏
 - 施氏
 - 姚婆
 - 王氏

- 王百娘
- 朱氏
- 陸氏
- 蔡氏
- 項氏
- 沈氏
- 鍾婆
- 梁氏女
- 黃婆
- 崔婆
- 陶氏
- 李氏
- 盛媪
- 黃氏
- 王氏女
- 樓氏
- 周婆
- 朱氏
- 裴氏女
- 孫媪
- 秦媪
- 蔣十八妻
- 沈媪
- 孟氏
- 陳氏
- 胡媪
- 周氏
- 鄭氏
- 周婆
- 張夫人
- 薛氏
- 方氏
- 徐氏
- 許氏婦
- 于媪
- 潘氏
- 朱氏
- 祝氏

- 張太宜人
- 楊選一妻
- 鍾氏
- 吳氏女
- 盧氏
- 費氏
- 李氏
- 李氏
- 陳嫗
- 張寡婦
- 陸寡婦
- 楊氏
- 江氏
- 徐太宜人
- 凌氏
- 余媪
- 楊媪
- 余氏
- 往生物類第十
 - 鸚鵡
 - 鳩鵲
 - 白鸚鵡

淨土聖賢錄目次(終)

No. 1549

淨土聖賢錄卷一

淨土教主第一

阿彌陀佛

阿彌陀佛。西方極樂世界之教主也。梵語阿彌陀。此云無量。彼佛光明無量。壽命無量。故號阿彌陀。按無量壽經。過去久遠世自在王佛世中。有一國王。聞佛說法。心懷悅豫。發無上正真道意。棄國捐王而作沙門。號曰法藏。詣世自在王佛所。求佛說法。時世自在王佛。為廣說二百一十億諸佛刹土。天人之善惡。國土之麤妙。應其心願。悉現與之。時彼比丘。聞佛所說嚴淨國土。皆悉覩見。起發無上殊勝之願。其志寂靜。志無所著。具足五劫。思惟攝取莊

嚴佛國清淨之行。如是修已。詣彼佛所。白佛言唯願聽察。如我所願當具說之。第一願。設我得佛。國有地獄餓鬼畜生者。不取正覺。第二願。設我得佛。國中天人。壽終之後。復更三惡道者。不取正覺。第三願。設我得佛。國中天人。不悉真金色者。不取正覺。第四願。設我得佛。國中天人。形色不同。有好醜者。不取正覺。第五願。設我得佛。國中天人。不識宿命。下至知百千億那由他諸劫事者。不取正覺。第六願。設我得佛。國中天人。不得天眼。下至見百千億那由他諸佛國者。不取正覺。第七願。設我得佛。國中天人。不得天耳。下至聞百千億那由他諸佛所說。不悉受持者。不取正覺。第八願。設我得佛。國中天人。不得見他心智。下至知百千億那由他諸佛國中眾生心念者。不取正覺。第九願。設我得佛。國中天人。不得神足。於一念頃。下至不能超過百千億那由他諸佛國者。不取正覺。第十願。設我得佛。國中天人。若起想念貪計身者。不取正覺。第十一願。設我得佛。國中天人。不住定聚。必滅度者。不取正覺。第十二願。設我得佛。光明有限量。下至不照百千億那由他諸佛國者。不取正覺。第十三願。設我得佛。壽命有限量。下至百千億那由他劫者。不取正覺。第十四願。設我得佛。國中聲聞。有能計量。乃至三千大千世界眾生悉成緣覺。於百千劫悉共計校。知其數者。不取正覺。第十五願。設我得佛。國中天人。壽命無能限量。除其本願。修短自在。若不爾者。不取正覺。第十六願。設我得佛。國中天人。乃至聞有不善名者。不取正覺。第十七願。設我得佛。十方世界無量諸佛。不悉咨嗟稱我名者。不取正覺。第十八願。設我得佛。十方眾生。至心信樂。欲生我國。乃至十念。若不生者。不取正覺。唯除五逆誹謗正法。第十九願。設我得佛。十方眾生。發菩提心。修諸功德。至心發願。欲生我國。臨壽終時。假令不與大眾圍遶。現其人前者。不取正覺。第二十願。設我得佛。十方眾生聞我名號。繫念我國。植眾德本。至心回向。欲生我國。不果遂者。不取正覺。第二十一願。設我得佛。國中天人。不悉成滿三十二大人相者。不取正覺。第二十二願。設我得佛。他方佛土諸菩薩眾。來生我國。究竟必至一生補處。除其本願。自在所化。為眾生故。被宏誓鎧。積累德本。度脫一切。遊諸佛國。修菩薩行。供養十方諸佛如來。開化恒沙無量眾生。使立無上正真之道。超出常倫諸地之行。現前修習普賢之德。若不爾者。不取正覺。第二十三願。國中菩薩。承佛神力。供養諸佛。一食之頃。不能徧至無數無量億那由他諸佛國者。不取正覺。第二十四願。設我得佛。國中菩薩。在諸佛前現其德本。諸所求欲供養之具若不如意者。不取正覺。第二十五願。設我得佛。國中菩薩。不能演說一切智者。不取正覺。第二十六願。設我得佛。國中

菩薩。不得金剛那羅延身者。不取正覺。第二十七願。設我得佛。國中天人一切萬物。嚴淨光潔。形色殊特。窮微極妙。無能稱量。其諸眾生。乃至逮得天眼。有能明了辨其名數者。不取正覺。第二十八願。設我得佛。國中菩薩。乃至少功德者。不能知見其道場樹無量光色。高四百萬里者。不取正覺。第二十九願。設我得佛。國中菩薩。若受讀經法。諷誦持說。而不得辯才智慧者。不取正覺。第三十願。設我得佛。國中菩薩。智慧辯才。若可限量者。不取正覺。第三十一願。設我得佛。國土清淨。皆悉照見十方一切無量無數不可思議諸佛世界。猶如明鏡。覩其面像。若不爾者。不取正覺。第三十二願。設我得佛。自地以上。至於虛空。宮殿樓觀。池流華樹。國土所有一切萬物。皆以無量雜寶百千種香而共合成。嚴飾奇妙。超諸天人。其香普熏十方世界。菩薩聞者。皆修佛行。若不如是。不取正覺。第三十三願。設我得佛。十方無量不可思議諸佛世界眾生之類。蒙我光明觸其身者。身心柔輒。超過天人。若不爾者。不取正覺。第三十四願。設我得佛。十方無量不可思議諸佛世界。眾生之類。聞我名字。不得菩薩無生法忍諸深總持者。不取正覺。第三十五願。設我得佛。十方無量不可思議諸佛世界。其有女人。聞我名字。歡喜信樂。發菩提心。厭惡女身。壽終之後。復為女像者。不取正覺。第三十六願。設我得佛。十方無量不可思議諸佛世界諸菩薩眾。聞我名字。壽終之後。常修梵行。至成佛道。若不爾者。不取正覺。第三十七願。設我得佛。十方無量不可思議諸佛世界諸天人人民。聞我名字。五體投地。稽首作禮。歡喜信樂。修菩薩行。諸天世人。莫不致敬。若不爾者。不取正覺。第三十八願。設我得佛。國中天人。欲得衣服。隨念即至。如佛所讚應法妙服。自然在身。有求裁縫擣染浣濯者。不取正覺。第三十九願。設我得佛。國中天人。所受快樂。不如漏盡比丘者。不取正覺。第四十願。設我得佛。國中菩薩。隨意欲見十方無量嚴淨佛土。應時如願。於寶樹中。悉皆照見。猶如明鏡。覩見面像。若不爾者。不取正覺。第四十一願。設我得佛。他方國土諸菩薩眾。聞我名字。至於得佛。諸根缺陋不具足者。不取正覺。第四十二願。設我得佛。他方國土諸菩薩眾。聞我名字。皆悉逮得清淨解脫三昧。住是三昧。一發意頃。供養無量不可思議諸佛世尊。而不失定意。若不爾者。不取正覺。第四十三願。設我得佛。他方國土諸菩薩眾。聞我名字。壽終之後。生尊貴家。若不爾者。不取正覺。第四十四願。設我得佛。他方國土諸菩薩眾。聞我名字。歡喜踴躍。修菩薩行。具足德本。若不爾者。不取正覺。第四十五願。設我得佛。他方國土諸菩薩眾。聞我名字。皆悉逮得普等三昧。住是三昧。至於成佛。常見無量不可思議一切諸佛。若不爾者。不取正覺。第四十六

願。設我得佛。國中菩薩。隨其志願。所欲聞法。自然得聞。若不爾者。不取正覺。第四十七願。設我得佛。他方國土諸菩薩眾。聞我名字。不即得至不退轉者。不取正覺。第四十八願。設我得佛。他方國土諸菩薩眾。聞我名字。不即得至第一忍第二第三法忍。於諸佛法。不能即得不退轉者。不取正覺。時法藏比丘說此四十八願已。普地六種震動。天雨妙華。空中讚言。決定必成無上正覺。法藏比丘建此願已。一向專志莊嚴妙土。所修佛國。開廓廣大。超勝獨妙。建立常然。無衰無變。於不可思議兆載永劫。積植菩薩無量德行。不生欲覺瞋覺害覺。不起欲想瞋想害想。不著色聲香味觸法。忍力成就。不計眾苦。少欲知足。無染恚癡。三昧常寂。智慧無礙。無有虛偽諂曲之心。和顏愛語。先意承問。勇猛精進。志願無倦。專求清白之法。以惠利羣生。恭敬三寶。奉事師長。以大莊嚴。具足眾行。令諸眾生功德成就。住空無相無願之法。無作無起。觀法如化。遠離羸言。自害害彼。彼此俱害。修習善語自利利人。人我兼利。棄國捐王。絕去財色。自行六波羅蜜。教人令行。無央數劫。積功累德。隨其生處。任意所欲。無量寶藏。自然發應。教化安立無數眾生。住於無上正真之道。或為長者居士豪姓尊貴。或為剎剎國君。轉輪聖帝。或為六欲天主。乃至梵王。常以四事供養恭敬一切諸佛。如是功德。不可稱說。口氣香潔。如優鉢羅華。身諸毛孔。出栴檀香。其香普熏無量世界。容色端正。相好殊妙。其手常出無盡之寶。衣服飲食珍妙華香繒蓋幢幡莊嚴之具。如是等事。超諸天人。於一切法而得自在。法藏菩薩。今已成佛。規在西方。去此十萬億剎。其佛世界。名曰安樂。成佛以來。凡歷十劫。又悲華經言。往昔過恒河沙阿僧祇劫。有世界名刪提嵐。劫名善持。有轉輪王名無諍念。於寶藏如來所。發菩提心。願取淨土。佛即授記。西方過百千萬億佛土。有尊音王如來世界。過一恒河沙阿僧祇劫。入第二恒河沙阿僧祇劫。是時世界。轉名安樂。汝於是時。當得作佛。號無量壽如來。其所發願言。略與無量壽經相似。一向出生菩薩經又言。阿彌陀佛。於無量阿僧祇劫前。為輪王太子。名不思議勝功德。生年十六。從寶功德星宿劫王如來所。聞法本陀羅尼。於七萬歲中。精勤修習。未曾睡眠。亦不偃側。得值九十億百千那由他佛。諸佛說法。盡能聞持修習。厭家雜髮而作沙門。作已。復於九萬歲中。修習此陀羅尼。復為眾生分別顯示。一生之中。力精教化。令八十億那由他眾生得發道心。積功累德至不退地。法華經亦言。過去大通智勝佛。未出家時。有十六子。皆以童子出家而為沙彌。時彼佛說法華經已。即入靜室八萬四千劫。是時十六菩薩。各升法座。為四部眾廣說分別妙法華經。一一皆度六百八十萬億那由他恒河沙等眾生。是十六菩薩。一名阿彌陀。第十

六。我釋迦牟尼。是知阿彌陀佛。由本願力。起諸勝行。無量億劫。成就莊嚴。唯此經文。略標梗概。其他依正等報。備具諸經。今不盡錄。往生品三。準無量壽經云。其上輩者。捨家棄欲而作沙門。發菩提心。一向專念無量壽佛。修諸功德。願生彼國。此等眾生。臨壽終時。無量壽佛與大眾現其人前。即隨彼佛。往生其國。便於七寶華中。自然化生。住不退轉。智慧勇猛。神通自在。是故阿難。其有眾生欲於今世見無量壽佛。應發無上菩提之心。修行功德。願生彼國。其中輩者。十方世界諸天人民。其有至心願生彼國。雖不能行作沙門。大修功德。當發無上菩提之心。一向專念無量壽佛。多少修善。奉持齋戒。起立塔像。飯食沙門。懸繒然燈。散華燒香。以此迴向。願生彼國。其人臨終。無量壽佛化見其身。光明相好。具如真佛。與諸大眾。現其人前。即隨化佛。往生其國。住不退轉。功德智慧。次如上輩者也。其下輩者。十方世界諸天人民。其有至心求生彼國。假使不能作諸功德。當發無上菩提之心。一向專意。乃至十念。念無量壽佛。願生其國。若聞深法。歡喜信樂不生疑惑。乃至一念念於彼佛。以至誠心願生其國。此人臨終夢見彼佛。亦得往生。功德智慧。次如中輩者也。按觀無量壽經所分九品。其上中二品。略攝此三輩中。其下三品俱係一生造孽。末後回心。又三輩所未及。準涅槃經闡提亦有佛性之旨。必合觀經九品。義類始圓。讀者詳之。

論曰。諸佛法身。徧一切處。遮那既爾。彌陀亦然。本無淨穢。安有東西。然方便門中。全分勝劣。在凡夫階不退者。唯極樂同居則然。非餘佛土所能及也。五濁眾生。但發肯心。十念功成。頓超塵劫。我佛慈悲。於斯為極。幸逢大法。得聞彌陀如來本願功德。而不能發希有心。生慕樂想。背父逃逝。躑躅窮途。長劫漂流。莫能哀救。可不懼哉。可不勸哉。

闡教聖眾第二

觀世音菩薩

觀世音。梵語阿那婆婁吉低輸。現在西方極樂世界。為補處菩薩。按悲華經。往昔劫中。阿彌陀佛為轉輪王時。觀世音菩薩為王第一太子。名曰不眴。爾時寶藏如來為輪王授記已。不眴太子前白佛言。世尊。今我以大音聲。告諸眾生。我之所有一切善根。盡迴向阿耨多羅三藐三菩提。願我行菩薩道時。若有眾生。受諸苦惱恐怖等事。退失正法。墮大暗處。憂愁孤窮。無有救護。無依無舍。若能念我。稱我名字。若其為我天耳所聞。天眼所見。是眾生等。若

不得免斯苦惱者。我終不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世尊。我今復當為眾生故發上勝願。願令轉輪聖王於安樂世界作佛事已。入無餘涅槃。乃至正法住時。我於其中。修菩薩道。是佛正法。於初夜滅。即其後夜。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時寶藏佛尋為授記曰。汝觀天人三惡一切眾生。生大悲心。欲斷眾生諸苦惱故。欲令眾生住安樂故。今當字汝為觀世音。無量壽佛般涅槃已。第二恒河沙等阿僧祇劫。彼土轉名一切珍寶所成就世界。所有種種莊嚴。無量無邊。安樂世界。所不及也。汝於菩提樹下。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號徧出一切光明功德山王如來。又觀世音菩薩得大勢菩薩受記經云。佛言。乃往過去廣遠無量不可思議阿僧祇劫。有世界名無量德聚安樂示現。佛號金光師子遊戲如來。國土清淨莊嚴說不可盡。其佛法中有王名曰威德。王千世界。彼威德王。於其園觀。入於三昧。其王左右有二蓮華。從地湧出。有二童子化生其中。與威德王俱詣佛所。頭面禮足。聽佛說法。時二童子即說偈云。諸天龍鬼神。聽我師子吼。今於如來前。宏誓發菩提。生死無量劫。本際不可知。為一眾生故。爾數劫行道。況此諸劫中。度脫無量眾。修行菩提道。而生疲倦心。我若從今始。起於貪欲心。是則為欺誑。十方一切佛。瞋恚愚癡垢。慳嫉亦復然。今我說實語。遠離於虛妄。我若於今始。起於聲聞心。不樂修菩提。是則欺世尊。亦不求緣覺。自濟利已身。當於萬億劫。大悲度眾生。如今日佛土。清淨妙莊嚴。令我得道時。超踰億百千。國無聲聞眾。亦無緣覺乘。純有諸菩薩。其數無限量。眾生淨無垢。悉具上妙樂。出生於正覺。總持諸法藏。此誓若誠實。當動大千界。說如是偈已。應時普震動。百千眾妓樂。演發和雅音。光曜微妙服。旋轉而來降。諸天於空中。雨散眾末香。其香普流熏。悅可眾生心。爾時威德王者。豈異人乎。我身是也。時二童子。今觀世音及得大勢菩薩摩訶薩是也。是二菩薩。於彼佛所。初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當來曠遠不可計劫。阿彌陀佛當般涅槃。般涅槃後。正法住世。等佛壽命。在世滅後。所度眾生。悉皆同等。佛涅槃後。或有眾生不見佛者。有諸菩薩得念佛三昧。常見阿彌陀佛。彼佛滅後。一切寶物。浴池蓮華。眾寶行樹。常演法音。與佛無異。正法滅後。過中夜分。明相出時。觀世音菩薩。於七寶菩提樹下。結跏趺坐。成等正覺。號普光功德山王如來。其佛國土。自然七寶。眾妙合成。莊嚴之事。諸佛世尊於恒沙劫。說不可盡。國中無有聲聞緣覺之名。純諸菩薩。充滿其國。國土號眾寶普集莊嚴。普光功德山王隨其壽命。得大勢菩薩親近供養。至於涅槃。般涅槃後。奉持正法。乃至滅盡。法滅盡已。即於其國。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號善住功德寶王如來。如普光功德山王如來國土光明壽命。諸菩薩眾乃至法住。等無有異。如上二經

載觀世音菩薩。本願功德。取淨佛土。與阿彌陀佛本因。了無差別。故其果地莊嚴。如是如是。他如三十二應。十四施無畏力。四不思議無作妙德。具足神通。廣修方便。具如楞嚴法華及諸經所說。今不具錄。又大悲經言。佛在補陀落伽山觀世音宮殿寶莊嚴道場。觀世音菩薩放光普照十方刹土。自言過去無量億劫。於千光王靜住如來所。受大悲心大陀羅尼。即從初地超第八地。應時具足千手千眼。由持此呪故。所生之處。恒在佛前。蓮華化生。故其誓云。若有眾生誦持大悲神呪。不得往生諸佛國者。我誓不成正覺。佛告大眾。此觀世音菩薩。於過去無量劫中。已作佛竟。號正法明如來。大悲願力。為欲發起一切菩薩。安樂成熟諸眾生故。現作菩薩。汝等大眾。常須供養。專稱名號。得無量福。滅無量罪。命終往生阿彌陀佛國。據此經文。當知恭敬供養觀世音菩薩。及專稱名號。回向極樂者。其與一向專念阿彌陀佛。果報略同。福德正等。行者思之。

大勢至菩薩

大勢至。梵語摩訶那鉢。現在極樂世界。第二補處菩薩也。按悲華經。昔阿彌陀佛為輪王時。大勢至菩薩為第二王子。名曰尼摩。爾時寶藏如來。為王及第一太子授記已。第二王子亦白佛言。世尊如我所有身口意業清淨福德。盡以回向阿耨多羅三藐三菩提。願徧出功德光明佛。始初成道。我當先請轉於法輪。隨其說法所經時節。於其中間行菩薩道。是佛涅槃後。正法滅已。我於其後。次第成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我作佛時。所作佛事。世界所有種種莊嚴。涅槃後正法住世。悉如彼佛等無有異。爾時佛告第二王子。汝今所願取大世界。如法所願。當於如是最大世界。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號曰善住珍寶山王如來。由汝願取大世界故。因是字汝為得大勢。合上篇所錄受記因緣觀之。當知大勢至。與觀世音。同行同願。歷劫以來。不相違遠。乃至嚴淨佛土。先後成佛。功德亦等。首楞嚴經所陳念佛法門。尤為切要。大勢至白佛言。我憶往昔恆河沙劫。有佛出世。名無量光。十二如來相繼一劫。名超日月光。彼佛教我念佛三昧。譬如有人。一專為憶。一人專忘。如是二人。若逢不逢。或見非見。二人相憶。二憶念深。如是乃至從生至生。同於形影。不相乖異。十方如來憐念眾生。如母憶子。若子逃逝。雖憶何為。子若憶母。如母憶時。母子歷生。不相違遠。若眾生心。憶佛念佛。現前當來。必定見佛。去佛不遠。不假方便。自得心開。如染香人身有香氣。此則名曰香光莊嚴。我本因地。以念佛心。入無生忍。今於此界。攝念佛人。歸於淨土。佛問圓通。我無

選擇都攝六根。淨念相繼。得三摩提。斯為第一。夫大勢至菩薩。以念佛入道。乃至修菩薩行。化度眾生。皆不離此法門。修淨土者。當知效法焉。

普賢菩薩

普賢。梵語邨輸跋陀。悲華經。阿彌陀佛為轉輪王時。第八王子泯圖。於寶藏佛前。願於是不淨世界。修菩薩行。復當修治莊嚴十千不淨世界。令其嚴淨。如青香光明無垢世界。亦當教化無量菩薩。令心清淨。皆趣大乘。悉使充滿我之世界。佛即改泯圖字。號為普賢。授記未來於北方知水善淨功德世界。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號智剛吼自在相王如來。普賢行願品。普賢菩薩。稱讚如來勝功德已。告諸菩薩及善財言。善男子。若欲成就此功德者。當修十種廣大行願。一者禮敬諸佛。二者稱讚如來。三者廣修供養。四者懺悔業障。五者隨喜功德。六者請轉法輪。七者請佛住世。八者常隨佛學。九者恒順眾生。十者普皆回向。若諸菩薩於此大願。隨順趨入。則能成熟一切眾生。則能隨順阿耨多羅三藐三菩提。則能成滿普賢菩薩諸行願海。或復有人以深信心。於此大願。受持讀誦。乃至書寫一四句偈。速能除滅五無間業。臨命終時。最後剎那。一切諸根。悉皆散壞。唯此願王。不相捨離。於一切時。引導其前。一剎那中。即得往生極樂世界。到已。即見阿彌陀佛。文殊師利菩薩。普賢菩薩。觀自在菩薩。彌勒菩薩等。此諸菩薩。色相端嚴。功德具足所共圍繞。其人自見生蓮華中。蒙佛授記。得受記已。經於無數百千萬億那由他劫。普於十方不可說不可說世界。以智慧力。隨眾生心而為利益。不久當坐菩提道場。降伏魔軍。成等正覺。轉妙法輪。能令佛剎極微塵數眾生。發菩提心。隨其根性。教化成熟。乃至盡於未來劫海。廣能利益一切眾生。偈曰。願我臨欲命終時。盡除一切諸障礙。面見彼佛阿彌陀。即得往生安樂剎。我既往生彼國已。現前成就此大願。一切圓滿盡無餘。利樂一切眾生界。據此經文。誠欲長菩提苗。行殊勝行。而不知回向極樂。發願往生者。猶却行而求前也。至普賢所示念佛三昧。別見如來不思議境界經。經言。爾時世尊入於三昧。名如來不思議境界。普賢菩薩告德藏菩薩言。若善男子善女人。為求無上菩提。發心欲證此三昧者。是人要須先修智慧。以此三昧。由慧得故。修智慧者。應當遠離妄語綺語。及諸散亂無益之事。詣精舍中。覩佛形像。金色莊嚴。或純金成。身相具足。無量化佛。在圓光中。次第而坐。即於像前。頭面禮足。作是思惟。我聞十方無量諸佛。今現在世。所謂一切義成佛。阿彌陀佛。寶幢佛。阿閼佛。毗盧遮那佛。寶月佛。

寶光佛等。於彼諸佛。隨心所樂。尊重之處。生大淨信。想佛形像。作彼如來。真實之身。恭敬尊重。如現前見。上下諦觀。一心不亂。往空閒處。端坐思惟。如佛現前。一手量許。心常繫念。不令忘失。若暫忘失。復應往觀。如是觀時。生極尊重恭敬之心。如佛真身。現在其前。了了明見。不復於彼作形像解。見已即應於彼佛所。以妙華鬘末香塗香。恭敬右繞。種種供養。彼應如是一心繫念。常如世尊現其前住。然佛世尊。一切見者。一切聞者。一切知者。悉知我心。如是審復。想見成已。還詣空處。繫念在前。不令忘失。一心勤修。滿三七日。若福德者。即見如來現在其前。其有先世造惡業障。不得見者。若能一心精勤不退。更無異想。還得速見。何以故。若有為求無上菩提。於一事中。專心修習。無不成辦。譬如有人於大海中。飲一掬水。即為已飲閻浮提中一切河水。菩薩若能修習此菩提海。則為已修一切三昧諸忍諸地諸陀羅尼。是故應常勤修匪懈。離於放逸。繫念一心。要令自得現前見佛。如是修習。初見佛時。作是思惟。為真佛邪。為形像邪。知所見像由想生故。乃至虛空毛端量處一切真佛。皆亦如是。猶如虛空。平等無異。自心作佛。離心無佛。乃至三世一切諸佛。亦復如是。皆無所有。唯依自心。菩薩若能了知諸佛。及一切法。皆唯心量。得隨順忍。或入初地。捨身速生妙喜世界。或生極樂淨佛土中。常見如來。親承供養。按此經文。與觀無量壽佛經相發。修淨業者。其毋忽也。

文殊師利菩薩

文殊師利。或云曼殊室利。此云妙德。亦云妙吉祥。生於舍衛國。多羅聚落梵德婆羅門家。從母右脅出。身紫金色。墮地能語。尋於佛所出家(見文殊般若經)。首楞嚴三昧經言。過去無量阿僧祇劫。南方世界。名曰平等。佛號龍種上如來。即文殊是。央掘經言。現在北方常喜世界歡喜藏摩尼寶積佛。即文殊是。而悲華經言。阿彌陀佛為轉輪王時。第三王子。名曰王眾。於寶藏佛所。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願於來世。行菩薩道。無有齊限。莊嚴佛刹。令三千大千世界。恒河沙等十方佛土為一佛刹。大寶填廁。又無惡觸。及諸女人。及其名字。亦無聲聞辟支佛等。一生菩薩。充滿其中。佛即號為文殊師利。於未來世南方世界。名曰清淨無垢寶實。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號普現如來。觀佛三昧海經言。時世尊為諸大眾說觀佛三昧已。文殊菩薩復告大眾言。過去寶威德如來時。有長者子。名曰戒護。在母胎時。受三歸依。年至八歲。父母請佛於家供養。童子見佛安行徐步。足下生華。有大光明。見已歡喜。為佛

作禮。禮已諦觀。目不暫捨。一見佛已。即能除却百萬億那由他劫生死之罪。從是已後。恒得值遇百億那由他恒河沙佛。是諸世尊。皆說如是觀佛三昧。其後有百萬佛出。皆同一字。名栴檀海。時彼童子。親侍諸佛。間無空缺。禮佛供養。合掌觀佛。觀佛功德因緣力故。復得值遇百萬阿僧祇佛。從是已後。即得百萬億念佛三昧。得百萬阿僧祇旋陀羅尼。既得此已。諸佛現前說無相法。須臾之間。得首楞嚴三昧。時彼童子受三歸依。一禮佛故。諦觀佛相。心無疲厭。由此因緣。值無數佛。何況繫念。具足思惟。觀佛色身。時彼童子。豈異人乎。即我身是。佛告阿難。汝持文殊師利語。徧告大眾。及未來世眾生。若能禮拜者。若能念佛者。若能觀佛者。當知此人與文殊師利等無有異。又文殊發願經。與普賢行願品末後偈略同。終云。願我命終時。滅除諸障礙。面見阿彌陀。往生安樂剎。生彼佛國已。成滿諸大願。阿彌陀如來。現前授我記。嚴淨普賢行。滿足文殊願。盡未來際劫。究竟菩薩行。夫文殊普賢。華嚴二聖。所陳行願。說法度人。莫不以念佛為基。以淨土為歸。世有執華嚴薄淨土者。當知所鑑焉。

祁婆迦尊者

佛在拘尸那城力士生地娑羅雙樹間。臨般涅槃。為諸天人說種種法。復告阿難。我滅度後。於未來世北天竺國。當有比丘。名祁婆迦。出興於世。曾於過去無量百佛。植諸善根。供養恭敬。深信具足。安住大乘。為欲憐愍利益安樂諸眾生故。發如是心。多聞持菩薩藏。稱揚大乘。顯發大乘。興造如來無量形像。及諸塔廟。能令諸天人眾。心生信樂。彼祁婆迦比丘。修習無量種種最勝菩提善根已。而取命終。生於西方過億百千諸佛世界無量壽國。於彼佛所。種諸善根。復經八十億諸如來所修諸梵行。以此善根。於未來世。過九十九億劫。而成正覺。佛號無垢光。世界名一切功德莊嚴(大悲經)。

馬鳴尊者

馬鳴。梵語阿濕矩沙。東天竺桑岐多國婆羅門也。得法於夜奢尊者。嘗製大乘起信論。末後勸人求生淨土曰。眾生以往此娑婆世界。自畏不能常值諸佛。親承供養。懼謂信心難可成就。意欲退者。當知如來有勝方便。攝護信心。謂以專意念佛因緣。隨願得生他方佛土。常見於佛。永離惡道。如修多羅說。若人專念西方極樂世界阿彌陀佛。所修善根。回向願求生彼世界。即得往生。常見佛

故。終無有退。若觀彼佛真如法身。常勤修習。畢竟得生。住正定故。後付法於迦毗摩羅尊者已。即入龍奮迅三昧。挺身虛空。如日輪相。還復本位。而取涅槃(傳燈錄大乘起信論)。

龍樹尊者

龍樹。梵語那伽曷樹那。南天竺國梵志之裔。得法於迦毗摩羅尊者。意欲廣演經教。時大龍菩薩。即以神力接入海宮。開七寶函。與諸方等經典。九十日中。通解甚多。龍即送之出宮。還天竺國。大宏法施。嘗造毗婆沙論。論中有稱讚彌陀偈。其略云。若人願作佛。心念阿彌陀。應時為現身。是故我歸命。彼佛本願力。十方諸菩薩。來供養聽法。是故我稽首。彼土諸菩薩。具足諸相好。以自莊嚴身。我今歸命禮。彼諸大菩薩。日日於三時。供養十方佛。是故稽首禮。若人種善根。疑則華不開。信心清淨者。華開則見佛。十方現在佛。以種種因緣。歎彼佛功德。我今歸命禮。其土具嚴飾。殊彼諸天宮。功德甚深厚。是故禮佛足。又造大智度論示修念佛法門云。念佛三昧。能除種種煩惱。及先世罪。餘諸三昧。有能除婬。不能除瞋。有能除瞋。不能除婬。有能除癡。不能除婬恚。有能除三毒。不能除先世罪。是念佛三昧。能除種種煩惱種種罪。復次。念佛三昧。有大福德。能度眾生。是諸菩薩欲度眾生。諸餘三昧。無如此念佛三昧福德能速滅諸罪。復次。佛為法王。菩薩為法將。所尊所重。唯佛世尊。是故應常念佛。譬如大臣。特蒙恩寵。常念其主。菩薩亦如是。知種種功德。無量智慧。皆從佛得。知恩重故常念佛。又云。當欲不離諸佛者。菩薩世世所生。常值諸佛。問曰。菩薩當化眾生。何故常欲值佛。答曰。有未入菩薩位。未得阿鞞跋致。受記荊故。若遠離諸佛。便壞諸善根。沒在煩惱。不能自度。安能度人。如人乘船。中流壞敗。欲度他人。反自沒水。又如少湯。投大冰池。雖消少處。反更成冰。菩薩未入法位。若遠離諸佛。以少功德。無方便力。欲化眾生。雖少利益。反更墜落。聲聞辟支。雖有涅槃利益。無一切智故。不能教導菩薩。諸佛一切種智故。能教導菩薩。如象沒泥。非象不能出。菩薩若入非道中。唯佛能救。同大道故。復次。菩薩作是念。我未得佛眼。如盲無異。若不為佛所引導。則無所趣。錯入餘道。設聞佛法。異處行者。未知教化時節行法多少。復次。菩薩見佛。或眼見。心清淨。若聞所說。心則樂法。得大智慧。隨法修行而得解脫。如是等值佛無量益利。豈不一心求欲見佛。如嬰兒不應離母。行道不離糧食。大熱不離涼風冷水。大寒不離火。度深水不離船。病人不離良醫。菩薩不離諸佛。過於上事。父母親屬知識人天王等。皆不能如佛益

利。佛益利諸菩薩。離諸苦處。住世尊之地。問云。何得不離諸佛。答。眾生有無量劫罪因緣。雖行福德。智慧薄少。雖行智慧。福德薄少。菩薩求佛道。要行生忍法忍。行生忍故。一切眾生中發慈悲心。滅無量劫罪。得無量福德。行法忍故。破諸法無明。得無量智慧。二行和合。世世不離諸佛。復次。菩薩常愛樂念佛故。捨身受身。恒得值佛。如眾生習欲心重。受姪鳥身。瞋恚偏多。生毒蟲中。菩薩不貴轉輪聖王人天福樂。但念諸佛故。隨心所重而受身形。復次。菩薩常善修念佛三昧因緣故。所生常值諸佛。如般舟般三昧中說。菩薩入是三昧。即見生阿彌陀國。後付法於迦那提婆尊者已。入三昧。如蟬蛻而去。按入楞伽經。佛告大慧云。大慧汝當知。善逝涅槃後。未來世當有。持於我法者。南天竺國中。大名德比丘。厥號為龍樹。能破有無宗。世間中顯我。無上大乘法。得初歡喜地。往生安樂國。自世尊入寂七百年。而龍樹出世。適符佛記（傳燈錄毗婆沙論大智度論）。

天親論師

天親。梵語婆藪盤豆。天竺富婁叉國人也。出家樂聞小乘。輒毀大乘經典。後聞其兄無著。誦十地經。聞已感悟。追悔前愆。欲自斷舌。無著止之曰。昔以舌毀大乘。今以舌讚大乘。補過自新。猶為善矣。斷舌絕言。其利安在。天親於是研精覃思。製大乘論。凡百餘部。竝行於世。所製無量壽經論。開示淨土。立五念門。一禮拜。二讚歎。三作願。四觀察。五迴向。冠以偈曰。世尊我一心。歸命盡十方。無礙光如來。願生安樂國。我依修多羅。真實功德相。說願偈總持。與佛教相應。觀彼世界相。勝過三界道。究竟如虛空。廣大無邊際。正道大慈悲。出世善根生。淨光明滿足。如鏡日月輪。備諸珍寶性。具足妙莊嚴。無垢光炎熾。明淨曜世間。寶性功德草。柔軟左右旋。觸者生勝樂。過迦旃隣陀。寶華千萬種。彌覆池流泉。微風動華葉。交錯光亂轉。宮殿諸樓閣。觀十方無礙。雜樹異光色。寶欄遍圍繞。無量寶交絡。羅網徧虛空。種種鈴發響。宣吐妙法音。雨華衣莊嚴。無量香普熏。佛慧明淨日。除世癡闇冥。梵聲悟深遠。微妙聞十方。正覺阿彌陀。法王善住持。如來淨華眾。正覺華化生。愛樂佛法味。禪三昧為食。永離身心惱。愛樂常無間。大乘善根界。等無譏嫌名。女人及根缺。二乘種不生。眾生所願樂。一切能滿足。故我願往生。阿彌陀佛國。無量大寶王。微妙淨華臺。相好光一尋。色像超羣生。如來微妙聲。梵響聞十方。同地水火風。虛空無分別。天人不動眾。清淨智海生。如須彌山王。勝妙無過者。天人丈夫眾。恭敬遶瞻仰。觀佛本願力。

遇無空過者。能令速滿足。功德大寶海。安樂國清淨。常轉無垢輪。化佛菩薩日。如須彌住持。無垢莊嚴光。一念及一時。普照諸佛會。利益諸羣生。雨天樂華衣。妙香等供養。讚佛諸功德。無有分別心。何等世界無。佛法功德寶。我願皆往生。示佛法如佛。我作論說偈。願見彌陀佛。普共諸眾生。往生安樂國。平居兼修兜率觀。願覲慈氏。後捨壽經六月。現形告無著曰。吾已生慈氏前矣(無量壽經論翻譯名義)。

覺明妙行菩薩

覺明妙行菩薩。明崇禎十六年降於吳門。迄本朝順治四年。以往昔因緣。應機說法。開闡淨土法門。首說偈曰。諸佛之法要。微密不思議。以非思議故。無能盡宣說。牟尼大慈父。悲憫眾生者。說所不能說。導彼今後世。更以異方便。顯示安樂剎。令發願往生。橫截諸惡趣。由佛阿彌陀。大願攝羣品。聞名能受持。決定生無惑。若有大力人。專念心常一。成就深三昧。現前亦見佛。今我如佛教。將開化導門。念爾等迷倒。確指正修路。是非弱小緣。應生難遭想。西方萬億程。一念信即是。又云。所示淨土一門。真諸佛心宗。人天徑路。今汝等雖求往生。若發願不切。如入海而不獲寶珠。徒勞無益也。我昔於晉明帝時。受貧子身。為貧苦故。乃發大願云。我以夙業。受此苦報。若我今日。不得見阿彌陀佛。生極樂國。成就一切功德者。縱令喪身。終不退息。誓已。七日七夜專精憶念。便得心開。見阿彌陀佛。相好光明。徧十方世界。我於佛前。親蒙授記。後年七十五而坐脫。竟生極樂。後以度生願重。再來此土。隨方顯化。或為比丘。或為居士。或為國王。或為臣宰。或為女人。或為屠勾。或隱或顯。或順或逆。皆隨順說法。導諸羣品。今則又為汝等發明邪正。闡揚淨土。汝等當一意一心。堅修此門。必不相悞。若心志一堅。又不待隔世而生。現前亦得見佛。有偈曰。少說一句話。多念一句佛。打得念頭死。許汝法身活。有問念佛不能一心。當作何方便。菩薩曰。汝但息想定慮。徐徐念去。要使聲合乎心。心隨乎聲。念久自得諸念澄清。心境絕照。證入念佛三昧。然平日必須多念。從千至萬。心無間斷。則根器最易成熟。若強之使一。終不一也。又曰。心行處滅。是諸佛常住真心。心行處有。是眾生生死業心。其間不容絲髮。若汝等能綿密加工。使此心無些子空隙。方得幾分相應。莫略做半年十月。便謂我能苦心修道。不知此正障道處。切宜慎之。又工夫雖加。若未到銅山鐵壁推不倒移不動處。猶未是打成一片。切莫見些影響。便即歇手。是為半塗而廢。必至棄其前功。毫無所益。此又學道人大病。不可

不知。要知佛法如大海。轉入轉深。斷非小小知見之所能盡。應盡形修習。造極為則。切莫作容易想。顧定成求教。示曰。善男子。心本無念。念逐想生。此想虛妄。流轉生死。汝當知此一句。阿彌陀佛。不從想生。不從念有。不住內外。無有相貌。即是盡諸妄想。諸佛如來清淨微妙真實之身。非一非異。不可分別。如是念者。煩惱塵勞。無斷無縛。止是一心。必得一心。方得名為執持名號。方得名為一心不亂。淨業功成。直趨上品。汝今當發大願。願生極樂。然後至誠懇惻。稱於阿彌陀佛。必使聲緣於心。心緣於聲。聲心相依。如貓捕鼠。久久不失。則入正憶念三昧。更欲上進。當廣參知識。博詢高明。自悟即心是佛妙諦。示無朽曰。大抵修淨業人。行住坐臥。起居飲食。俱宜西向。則機感易成。根境易熟。室中止供一佛一經。一爐一桌。一牀一椅。不得放一多餘物件。庭中亦埽除潔淨。使經行無礙。要使此心一絲不挂。萬慮俱忘。空洞洞地。不知有身。不知有世。并不知我今日所作是修行之事。如是則與道日親。與世日隔。可以趨向淨業。蓋汝生時撇得乾淨。拋得乾淨。念頭上不存一些子根節。大限到來。洒洒落落。不作兒女子顧戀身家子孫之態。豈不是大丈夫舉動。所以要汝一意修行。別無沾滯。正為此一大關目也。至於修淨土之法。不出專勤二字。專則不別為一事。勤則不虛棄一時。汝今晨起。即誦彌陀經一卷。持阿彌陀佛一千聲。向佛前回向。念一心歸命文。以此文言簡而意備也。此為一時之課。若初起或身心未寧。日止四時。稍寧。增至六時。又漸增至十二時。合經十二卷。佛號一萬二千聲。更於回向時禮佛百拜。亦可分作四時。此為每日常課。餘工不必計數。或默或聲。但攝心諦念而已。又持名之法。必須字字句句。聲心相依。不雜分毫世念。久久成熟。決定得生極樂。坐寶蓮華。登不退地。勉之勉之。菩薩說法凡二十四會。弟子常攝等。集其語為西方確指。刊板行世(西方確指)論曰。維摩經云。雖知諸佛國。及與眾生空。而常修淨土。教化於眾生。蓋大乘菩薩。莫不以菩提心為根本。即莫不以淨土為莊嚴。不如是。無以滿普賢行願故。入法界品言。諸大聲聞。本不讚說十方佛刹清淨功德。本不稱歎諸佛世尊種種神變。本不得嚴淨佛刹諸神通智。故於華藏莊嚴。不聞不見。是知博地凡夫。但能發清淨心。回向諸佛者。勝彼聲聞所有功德。百千萬億倍。決能疾入華嚴不思議境界。至如文殊師利。令善財童子徧參知識。首於德雲所。聞念佛法門。其卒也。普賢以十大願王。導歸極樂。一念圓融。頓周塵刹。修行軌則。無過於斯。彼唯證偏空。高談無佛者。智果出文殊普賢上邪。

淨土聖賢錄卷一

往生比丘第三之一

慧遠

慧遠。姓賈。雁門樓煩人。幼而好學。博綜六經。尤善莊老。時釋道安建刹於太行恒山。遠往歸之。聞安講般若經。豁然開悟。因投簪受業。精思諷誦。以夜繼晝。安歎曰。使道流東國者。其在遠乎。晉太元六年。過潯陽。見廬山閒曠。可以棲止。乃立精舍。號龍泉寺。時遠同門慧永。先居廬山西林。欲邀同止。而遠學侶寢眾。西林隘不可處。刺史桓伊為遠更立寺於山東。遂號東林。遠於是率眾行道。鑿池種蓮。於水上立十二葉蓮華。因波隨轉。分刻晝夜。以為行道之節。既而四方清信之士。聞風而至者。百二十三人。遠曰。諸君之來。能無意於淨土乎。乃造西方三聖像。建齋立社。令劉遺民著發願文。勒之石。時王喬之等數人。復為念佛三昧詩以見志。遠為作序曰。夫稱三昧者何。專思寂想之謂也。思專則志一不分。想寂則氣虛神朗。氣虛則智悟其照。神朗則無幽不徹。是二者自然之元符。會一而致用也。又諸三昧。其名甚眾。功高易進。念佛為先。何者。窮元極寂。尊號如來。體神合變。應不以方。故令人斯定者。昧然忘知。即所緣以成鑒。鑒明則內照交暎而萬象生焉。非耳目之所暨而聞見行焉。於是靈相湛一。清明自然。元音叩心。滯情融朗。非天下之至妙。孰能與於此哉。所以奉法諸賢。咸思一揆之契。感寸陰之將頽。懼來儲之未積。洗心法堂。整襟清向。夜分忘寢。夙興唯勤。庶夫貞詣之功。以通三乘之志。仰援超步。拔茅之興。俯引弱進。垂策其後。以此覽眾篇之揮翰。豈徒文詠而已哉。遠以江東經藏多闕。遣弟子遠越葱嶺。購諸梵本。竝傳關中所有經律。出諸廬山。幾至百卷。嘗造法性論。以明泥洹常住之旨。鳩摩羅什見而歎曰。邊方未見大經。便闇與理合。居山三十年。跡不入俗。專志淨土。澄心觀想。三見聖相。而沈厚不言。義熙十二年七月晦夕。於般若臺之東龕。方從定起。見阿彌陀佛。身滿虛空。圓光之中。有諸化佛。觀音勢至。左右侍立。又見水流光明。分十四支。回注上下。演說苦空無常無我之音。佛告遠曰。我以本願力故。來安慰汝。汝後七日。當生我國。又見社中先化者。佛陀邪舍慧持慧永劉遺民等。皆在側。前揖曰。師早發心。何來之晚。遠謂弟子法淨惠寶曰。吾始居此十一年中。三覩聖相。今復再見。吾生淨土必矣。即自製遺戒。至八月六日。端坐入寂。年八十三。慧持。遠同母弟。與遠同事安公。徧學眾經。亦有高

行。隆安中。辭兄入蜀。以西方為期。住[郟-卑+((白-日+田)/升)]縣龍淵寺。大宏佛化。義熙八年入寂。年七十六。遺命諸弟子。務嚴律儀。專心淨業云(東林傳廬山集)。

慧永

慧永。姓潘。河內人。年十二出家。事沙門竺曇現。初習禪於恒山。既而與遠公同依安法師。太元初。至廬山。刺史陶範捨宅為西林以居之。永布衣蔬食。精心克己。容常含笑。語不傷物。峯頂別立茅室。時往禪思。至其室者。輒聞異香。因號香谷。一虎同居。人至輒驅去。平時厲行勤苦。願生安養。義熙十年。示疾。忽斂衣求屣欲起。眾問故。答曰。佛來也。言訖而化。年八十三。異香七日乃寂(東林傳)。

僧顯

僧顯。姓傅。北地人。貞苦善戒。誦經業禪。常獨處山林。或數日入定。晉太興末。南遊江左。經歷名山修己恒業。後遇疾綿篤。乃屬想西方。心甚苦至。見無量壽佛光照其身。所苦頓愈。是夕起澡浴。為同住及侍疾者。說己所見。并陳誠因果。至清晨。平坐而化。室內有殊香。旬餘乃歇(高僧傳)。

慧虔

慧虔。姓皇甫。北地人也。少出家。奉持戒行。志操確然。憩廬山十有餘年。義熙初。投山陰嘉祥寺。克己導物。苦身率眾。五載。寢疾。自知將盡。乃屬想安養。祈誠觀音。山陰北寺有尼名淨嚴者。宿德有戒行。夢觀世音從西郭門入。清暉妙狀。光映日月。幢幡華蓋。七寶莊嚴。淨嚴作禮問曰。不審大士何所之。答云。往嘉祥寺迎虔公。虔亦預覩聖相。疾雖綿篤。神色如平日。侍者咸聞異香。頃之入寂。道俗聞見者。莫不歎羨(高僧傳)。

僧濟

僧濟。不詳其所出。入廬山。從遠公學。精悟法要。年過三十。便出邑開講。歷當元匠。遠公歎曰。與吾共宏大法者。其在爾乎。後疾篤。憩期淨土。想像彌陀。遠公遺濟燭一枝曰。汝可運心安養。濟執燭憑几。停想無亂。又請眾僧為轉無量壽經。至五更。濟以燭

授弟子元弼。令隨眾行道。於是暫臥。夢自乘一燭。乘空而行。見阿彌陀佛。接置於掌。遍至十方。歛然而覺。喜曰。吾以一夕觀念。便蒙接引。自省四大。了無疾苦。明夕忽起立。目逆虛空。如有所見。謂弼曰。佛來也。吾其去矣。轉身西向而逝。時方炎暑。三日而體不變。異香郁然。年四十五(高僧傳東林傳)。

慧恭

慧恭。豫章豐城人。入廬山蓮社。與僧光慧蘭等同學。光等學不逮恭。而繫心淨土。較為虔切。蘭謂恭曰。君雖力學博聞。豈不知經云。如響奏音樂。悅彼不自聞。恭未之信也。後七年中。蘭等先逝。去時皆有奇應。又五年。恭病且篤。歎曰。六道沿洄。何時可止。死生去來。吾何歸哉。於是兩淚叩頭。誓心安養。志不少閒。忽見阿彌陀佛。以金臺前迎。覺自身乘其上。又見蘭等於臺上光明中告恭曰。長老受生。已居上品。吾等不勝喜慰。但恨五濁淹延。相依之晚耳。恭於是日告眾。欣然奮迅而滅。時義熙十一年也(東林傳)。

曇恒

曇恒。河東人。童年依遠公出家。內外典籍。無不通貫德行清孤。常有羣鹿馴遶座隅。自入廬山。專志念佛。義熙十四年。端坐合掌。厲聲念佛而化(東林傳)。

道敬

道敬。瑯琊王氏子。祖凝之為江州刺史。因從遠公出家。年十七。博通經論。日記萬言。每歎戒律難全。願淨六根。但稟一戒。以為得度之要。遠公知其堅正。許之。篤志念佛。日夜弗替。遠公既歸寂。乃入若邪山。宋永初元年。謂眾曰。先師見命。吾其行矣。端坐唱佛而化。眾見光明滿室。彌時方滅。年五十二(東林傳)。

曇順

曇順。黃龍人。幼出家。從羅什法師。講釋羣經。妙盡色空無著之旨。什歎曰。此子奇器也。後入廬山修淨業。時寧蠻校尉劉遵孝創寺江陵。延順居焉。盛宏念佛三昧。宋元嘉二年。別眾坐逝。異香滿室。年七十九(東林傳)。

佛馱跋陀羅

佛馱跋陀羅。此云覺賢。迦維羅衛國人。甘露飯王之裔也。幼為沙彌。年十六。博學羣經。深達禪律。姚秦沙門智嚴至西域。要與俱東。泛海達青州。至長安。秦太子延請演法東宮。與羅什論色空義。深詣元奧。復入廬山。預遠公蓮社。譯出觀佛三昧經。般泥洹經。修行方便論等。凡十五部。元嘉六年。念佛而化(東林傳)。

道昞

道昞。姓陳。潁川人。幼出家。為遠公弟子。該通經律。言與行合。究心念佛三昧。日夜無閒。晉義熙十四年。豫章太守王虔入山致謁。請紹遠師之席。眾咸宗仰。宋元嘉二十二年。集眾念佛。就座而化。年七十一(東林傳)。

僧叡

僧叡。魏郡長樂人。少樂出家。年十八。始獲從志。投僧賢法師為弟子。至二十外。博通經論。遊歷名邦。隨處講說。後羅什法師至關。因請出禪法要三卷。叡既獲之。日夜修習。遂精練五門。善入六靜。羅什所翻經。叡竝參正。入廬山。依遠公修淨業。後適京師。止烏衣寺。講說眾經。聽者推服。叡善攝威儀。宏讚經法。常迴此諸業。願生安養。行住坐臥。不敢背西。元嘉十六年。無疾。忽集僧眾告別。遂入房洗浴。燒香禮拜。還座面西。合掌而化。是日同寺咸見五色香烟。從叡房出。年六十七(高僧傳)。

曇詵

曇詵。廣陵人。幼從遠公出家。勤修淨業。兼善講說。注維摩詰經行於世。嘗述蓮社錄。記往生靈蹟。元嘉十七年。集眾謂曰。自建寺以來。至此五十年。吾之西行。最在其後。即跏趺稱佛百聲。閉息而寂。年八十(東林傳)。

慧崇

慧崇涼州人。拓跋魏武帝時。為尚書韓萬德門師。與釋世高。竝為時所尊重。會太子晃得罪。事連高及崇。遂并見法。僧法達素欽高德。號泣哀慕。累日不食。高忽飛空而至。達頂禮已。因問師與

崇公。竝生何處。高曰。吾願生惡世。救護眾生。即已還生此閻浮提。崇公常祈歸安養。今果心矣。言訖而隱(高僧傳)。

曇鑒

曇鑒。姓趙。冀州人。少出家。事竺道祖為師。蔬食布衣。律行精苦。後遊方宣化。達自荊州。止江陵辛寺。年六十餘矣。平生片善。必迴向西方。誓願見佛。一日定中見阿彌陀佛。以水灑其面曰。滌汝塵垢。清汝心念。汝之身口。俱悉嚴淨。又於瓶中出蓮華一枝授之。定起。乃屬付後事。與寺僧共敘無常。夜深。眾僧歸房。獨步廊下。念佛至五鼓。其聲益厲。及旦。弟子依常問訊。跌坐不動。就而視之。逝矣。年七十。時又有江陵釋道海。北州釋惠龕。東州釋惠恭。淮南釋曇泓。東轅山釋道廣。宏農釋道光等。竝願生安養。臨終咸有瑞應(高僧傳淨土文)。

慧通

慧通。關中人。少止長安太后寺。蔬食持呪。誦增一阿含經。從涼州慧紹禪師。咨受禪業。法門觀行。多所遊刃。常祈心安養。一日微疾。於禪定中。見一人來。形甚端嚴。語通云。良時至矣。須臾見無量壽佛。光明赫然。定起。具告同學。言訖便化。異香三日乃歇。年五十九(高僧傳)。

曇宏

曇宏。黃龍人。少修戒行。專精律部。南遊交趾。誦觀經不記數。永初中。遊番禺。止臺寺。晚又適交趾之仙山寺。誦無量壽及觀音經。誓心安養。孝建二年。於山上聚薪。密往[廿/積]中。以火自焚。弟子抱持而還。半身已爛。經月小差。復入谷燒身。弟子追救。命已終矣。於是積薪進火。明旦乃盡。爾日邨居民。咸見宏身黃金色。乘一金鹿。西行甚急。道俗方悟其神異。收骨葬焉(高僧傳)。

慧進

慧進。姓姚。吳興人。少任性遊俠。年四十。忽悟心自啟。遂出家。止京師高座寺。蔬食素衣。誓誦法華。用心勞苦。執卷輒病。乃發願造法華百部以懺前障。於是集諸信施。造經滿百部。病亦尋

瘥。厲操愈堅。常迴諸福業。願生安養。忽聞空中聲曰。汝願已足。必得生西方也。齊永明三年。無病而卒。年八十五(高僧傳)。

道珍

道珍。未詳其所出。梁初。住廬山中。作彌陀觀。然心尚猶豫。一夕夢有人乘船大海中。云往阿彌陀佛國。珍願隨去。船人云。汝未營浴室。及誦彌陀經。淨業未成。未可去也。既覺。乃營室浴僧。誦彌陀經。歷年不輟。後於房中入觀。見有攜白銀臺而至者。曰法師報盡。當陞此臺。又曰。師之功行。當乘金臺。奈初心猶豫。故止此耳。珍喜。因默記其事。藏於經函。命盡之夕。半山以上。如列數千炬火。近邨人望見。謂是諸王禮覲。及旦。乃聞珍卒。後搜檢經函。方知往生瑞應(續高僧傳樂邦文類)。

曇鸞

曇鸞。雁門人。少遊五臺山。見神迹靈異。因發信心出家。讀大集經。以其詞義深密。因為注解。文言過半。便感氣疾。周行醫療。既而歎曰。人命危脆。旦夕無常。吾聞長年神仙。往往間出。得是法已。方崇佛教。不亦可乎。遂往江南陶隱居所。懇求仙術。隱居授以仙經十卷。欣然而還。至洛下。遇三藏菩提留支。鸞問曰。佛法中頗有長生不死法。勝此仙經者乎。留支曰。此方何處有長生不死法。縱得長年。少時不死。卒歸輪轉。曷足貴乎。夫長生不死。吾佛道也。乃以十六觀經授之曰。學此則三界無復生。六道無復往。盈虛消息。禍福成敗。無得而至。其為壽也。河沙劫量莫能比也。此吾金仙氏之長生也。鸞大喜。遂焚仙經。而專修淨觀。自行化他。流布彌廣。撰禮淨土十二偈。續龍樹偈。又撰安樂集兩卷傳於世。魏主重之。號為神鸞。勅住并州大寺。晚移汾州元中寺。興和四年。一夕室中見梵僧謂曰。吾龍樹也。久居淨土。以汝同志。故來相見。鸞自知時至。集眾教誡曰。勞生役役。其止無日。地獄諸苦。不可不懼。九品淨業。不可不修。因令弟子高聲唱佛。西向稽顙而終。在寺者俱見幡華幢蓋。自西而來。天樂盈空。良久乃已。事聞於朝。勅葬汾西文谷。建塔立碑(續高僧傳樂邦文類)。

法琳

法琳。姓樂。臨邛人。少出家。止蜀郡裴寺。專好戒品。研心十誦。時隱公至蜀。琳從之學。克已厲志。以日兼夜。及隱還陝西。

復隨從數年。諸部毗尼。洞悉心曲。後還蜀。止靈建寺。修淨業。常持無量壽觀音二經。轉誦之時。輒見一偉貌沙門。形甚殊大。屹然在前。齊建武二年。寢疾。注念西方。禮懺不息。見諸賢聖皆集。乃向弟子述其所見。令死後焚身。言訖。合掌而卒(高僧傳)。

慧光

慧光居洛陽。著華嚴涅槃十地等疏。妙盡權實之旨。一日有疾。見天眾來迎。光曰。我所願歸安養耳。已而淨土化佛。充滿虛空。光曰。唯願我佛攝受。遂我本願。彈指而寂(佛祖統紀)。

僧柔

僧柔。姓陶。丹陽人。少有出塵之志。出家為法師宏稱弟子。精勤戒品。博綜經部。後入剡白山靈鷲寺。未至之夜。沙門僧緒夢神人彩旗素甲。滿山而出。曰法師將至矣。明旦柔果至。蕭齊之世。應諸王請。出居京師定林寺。躬為元匠。四遠欽服。柔誓生安養。每至懸輪西次。輒嘖容合掌。至臨卒之日。體無所患。語弟子曰。吾應去矣。鋪席於地。西向虔禮而化。室內外俱聞異香。時延興元年也。年六十四(高僧傳)。

道憑

道憑。姓韓。平恩人。年十二出家。通貫經論。徧叩講席。日臻元奧。宏法魏趙之間。講涅槃華嚴諸律論。目不尋文。洞中肯綮。居常福智雙習。袒肩跣足。乞食自資。發願回向。求生西方。齊天保十年三月十七日。卒於鄴城西南寶山寺。年七十有二。臨終。佛光滿室。異香充庭(續高僧傳)。

慧命

慧命。姓郭。太原晉陽人。出家後。專行方等普賢等懺。投恩光先路二禪師。後遊仙城山。先是有道士孟壽者。祈心返正。捨所居館。改建寺塔。及命將至山。壽忽恍焉如夢。見神祇嚴衛館側。覺而命至。即捨所住為善光寺供事之。眾侶咸集。未幾。辭反故林。時有法音禪師者。與命善。同就長沙果願寺能禪師所。修學禪定。後俱還仙城。居五載。命與音自知亡日。攜手於松林之下。相顧笑曰。即此處便可終焉。侍者初聞。未之悟也。不盈旬。二人同時遇

疾。周天和三年十一月五日。命正坐跏趺。面西念佛。眾咸見佛來。合掌而卒。眾有夢天人下臨。幡幢耀日。又聞房宇中唱善哉。奇香異樂。聞熏非一。音以其月十七日。亦坐本處。念佛而卒。所現瑞相亦同。年皆三十八。即於樹下。構甃成墳(續高僧傳)。

靜靄

靜靄。姓鄭。滎陽人。少。遊寺觀。觀地獄變相。悚然求出家。遂往瓦棺寺依和禪師。年十七。受具戒。嚴護律儀。通貫經論。行大慈門。繒纊皮革。一無踐服。惟履毳布終其身。周武帝將滅法。靄詣闕上表理訴。面坑上旨。既不見用。乃攜其門人入終南山居焉。後又潛遁太一山錫谷中。躬被斬衰。潛闡大乘。多諸撰述。藏巖洞中。悼大法淪廢。謂弟子曰。吾無益世將。事捨身身。一日獨據別巖。令侍者下山。明日當早至。靄乃跏坐盤石。自割身肉。段段布於石上。引腸挂於松枝。五臟皆外見。筋肉手足頭面。鬻析都盡。以刀割心。捧之而卒。時宣政元年七月十六日也。年四十有五。侍人明晨至。猶見合掌捧心。西向跏坐如初。骸無遺血。但白乳滂流。凝於石上。又見手書遺偈。在於石壁。其文云。諸有緣者。在家出家。若男若女。皆悉好住。於佛法中。莫生退轉。若退轉者。即失善利。吾以三因緣。捨此身命。一見身多過。二不能護法。三欲速見佛。偈云。無益之身。惡煩人功。解形窮石。散體巖松。天人脩羅。山神樹神。有求道者。觀我捨身。願令眾生。見我骸骨。煩惱大船。皆為覆沒。願令眾生。聞我捨命。天耳成就。菩提究竟。願令眾生。憶念我時。具足念力。多聞總持。此報一罷。四大凋零。泉林逕絕。巖室無聲。普施禽獸。乃至昆蟲。食肉飲血。善根內充。願我未來。速成善逝。身心自在。要相拔濟。此身不淨。底下屎囊。九孔常流。如漏隄塘。此身可惡。不可瞻觀。薄皮裹血。垢污塗漫。此身臭穢。猶如死狗。六六合成。不從他有。觀此臭身。無常所囚。進退無免。會遇蟻螻。此身難保。有命必輸。狐狼所噉。終成蟲蛆。天人男女。好醜貴賤。死火所燒。暫見如電。死法侵人。怨中之怨。吾以為讎。誓斷根原。此身無樂。毒蛇之篋。四大圍繞。百病交涉。有名苦聚。老病死藪。身心熱惱。多諸過咎。此身無我。以不自在。無實橫計。凡夫所宰。久遠迷惑。妄倒所使。喪失善根。畜生同死。棄捨百千。血乳成海。骨積太山。當來兼倍。未曾為利。虛受勤苦。眾生無益。於法無補。忍痛捨施。功用無邊。誓不退轉。出離四淵。捨此穢形。願生淨土。一念華開。彌陀佛所。速見十方。諸佛賢聖。長辭三塗。正道決定。報得五通。自在飛行。寶樹餐法。證大無生。法身自在。不斷三有。

殄除魔道。護法為首。十地滿足。神化無方。德備四勝。號稱法王。願捨此身已。早令身自在。法身自在已。在在諸趣中。隨有利益處。護法救眾生。又復業應盡。有為法皆然。三界皆無常。時來不自在。他殺及自死。終歸如是處。智者所不樂。應當如是思。眾緣既運湊。業盡於今日(續高僧傳)。

慧敬

慧敬。南海人。少遊學荆楚。博通經論。常以福業為務。所至輒興立塔像。後還鄉。復修理雲岑永安諸寺。志操嚴明。精於戒律。被勅為僧主。訓領有功。凡興福業。皆迴向西方。臨終之日。室有奇香。經久乃歇(高僧傳)。

曇延

曇延。姓王。蒲州桑泉人。年十六出家。游歷講肆。深悟法要。著涅槃大疏。既成。卷軸放光徹夜。塔中舍利又放異光。魏相宇文泰為立寺京西。名曰雲居。周建德中。授為僧統。隋開皇初。勅主延興寺。八年八月十三日終。年七十三。延恒以西方為正觀。語默之際。注想不移。若在深定。遺命以身骨肉。施諸禽獸。示寂時。寺側有任金寶者。云見空中幡蓋。列於延前。兩行而引。從延興寺達於山西(續高僧傳)。

道喻

道喻。不詳其所出。居開覺寺。念阿彌陀佛。造栴檀像。長僅三寸。後於定中見佛。謂曰。汝造我像。何太小邪。曰。心大即大。心小即小。言訖。遂見佛身徧滿虛空。佛告曰。汝當澡浴。明星出時。我來迎汝。至時見佛來迎。光明滿室。乃寂。時開皇八年也(淨土文)。

智舜

智舜。不詳其所出。入廬山。踵遠師淨業。大業初。講觀經畢。即示疾。見鸚鵡孔雀。念佛法僧。出微妙音。告弟子曰。吾今日往生矣。遂化去(佛祖統紀)。

登法師

登法師。不詳其所出。講涅槃經於并州興國寺。來聽經者。普勸念佛往生。開皇十二年卒。臨終。異香滿室。及殯。香雲徧諸聚落(往生集)。

智顓

智顓。字德安。姓陳。潁川人。母孕時。夢烟五采。縈繞懷抱。及誕。室內光明洞然。眼有重瞳。臥必合掌。坐必面西。少長。見像即禮。逢僧必敬。年十八。投湘州果願寺法緒出家。誦法華經。兼通律藏。性樂禪悅。詣光州大蘇山禮慧思禪師。思一見曰。昔日靈山同聽法華。宿緣所迫。今復來矣。即示以普賢道場。為說四安樂行。顓乃於此山修法華三昧。始經三夕。誦至藥王品。是真精進。是真法供養如來。身心豁然。寂而入定。照了法華。達諸法相。陳光大元年。初至金陵。居瓦官寺。創宏禪法。太建七年。往臨海天台山。結庵於北峯居焉。未幾。奉詔入金陵。陳亡。去之廬山。又周遊荊揚間。隋開皇十四年。歸天台。前後造寺三十六所。佛像八十萬軀。親度僧一萬四千人。贖魚[竺-二+(一/(尸@邑))]溪梁六十餘所。作放生池。表聞於朝。嚴禁採捕。龍天致敬。道俗向化。法教於斯大盛。晉王廣從受菩薩戒。奉以名曰智者。嘗著淨土十疑論。其末篇示欣厭二義曰。欲決定生西方者。具二種行。定得生彼。一厭離行。二欣願行。厭離行者。凡夫無始以來。為五欲纏縛。輪迴六道。備受眾苦。不起心厭離五欲。未有出期。為此常觀此身。膿血屎尿。一切惡露。不淨臭穢。涅槃經云。如是身城。愚癡羅剎。止住其中。誰有智者。當樂此身。又經云。此身眾苦所集。一切皆不淨。扼縛癰瘡等。根本無義利。至諸天身。皆亦如是。行者若行若坐。若睡若覺。常觀此身。唯苦無樂。深生厭離。縱妻房不能頓斷。漸漸生厭。作七種不淨觀。一觀此淫欲身。從貪愛煩惱生。是種子不淨。二父母赤白和合。是受生不淨。三住母胎藏。是住處不淨。四在胎唯食母血。是食噉不淨。五十月滿足。從產門出。是初生不淨。六薄皮覆上。其內膿血徧一切處。是舉體不淨。七死後降脹爛壞。是究竟不淨。觀身既爾。觀人亦然。所愛境界男女身等。深生厭離。常觀不淨。能如此觀者。淫欲煩惱。漸漸減少。又發願。願我永離三界雜食臭穢膿血不淨耽荒五欲男女等身。願得淨土法性生身。此為厭離行。欣願行復二種。一先明求往生之意。二觀彼淨土莊嚴等事。欣心願求。明往生意者。所以求生淨土。為欲救拔一切眾生苦。即是思忖。我今無力。若在惡世。煩惱境強。自為業縛。淪溺三塗。動經劫數。如是輪輪。無始來未曾休歇。何時得救苦眾生。為此求生淨土。親近諸佛。若證無生忍。

方能於惡世救苦眾生。故往生論。發菩提心者。正是願作佛心。願作佛心。則是度眾生心。度生心。則是攝眾生佛國心。又願生淨土。須具二行。一須遠離三種障菩提門法。二須得三種順菩提門法。何為遠離三種障菩提法。一依智慧門。不求自樂。遠離我心貪著自身故。二依慈悲門。拔一切眾生苦。遠離無安眾生心故。三依方便門。憐憫一切眾生。欲與其樂。遠離恭敬供養自身心故。若能遠離三種菩提障。則得三種順菩提法。一無染清淨心。不為自身求諸樂故。菩提是無染清淨處。若為自身求樂。即染身心。障菩提門。故無染清淨心。是順菩提門。二安清淨心。為拔眾生苦故。菩提是安隱一切眾生清淨處。若不作心拔一切眾生。令離生死苦。即違菩提門。故安清淨心。是順菩提門。三樂清淨心。欲令一切眾生證大菩提涅槃故。菩提涅槃。是畢竟常樂處。若不作心令一切眾生得畢竟常樂。即遮菩提門。故樂清淨心。是順菩提門。此菩提因何而得。要因生淨土。常不離佛。得無生忍已。於生死國中。救苦眾生。悲智內融。定而常用。自在無礙。即菩提心。此是願生之意。二欣心願求者。希心起想。緣彌陀佛。若法身若報身等。金色光明八萬四千相。一一相八萬四千好。一一好放八萬四千光明。常照法界。攝取念佛眾生。又觀彼土七寶莊嚴妙樂等。備如無量壽經十六觀經等。常行念佛三昧。及施戒修等一切善行。悉以迴施眾生。同生彼國。決定得生。此欣願門也。顓化緣既畢。往剡東石城寺。謂弟子曰。吾當卒於此矣。命施牀東壁。面向西方。專稱阿彌陀佛。波若觀音。又合多然香火。唱無量壽佛經。及觀經題竟。讚曰。四十八願。莊嚴淨土。華池寶樹。易往無人。火車相現。一念改悔者。尚得往生。況戒慧熏修。聖行道力。功不唐捐矣。弟子請云。未審大師證入何位。沒此何生。顓曰。吾不領眾。必淨六根。損己利人。但登五品。吾諸師友。今從觀音勢至。皆來迎我。言訖端坐。如入三昧。年六十七。時開皇十七年十一月二十四日也。天鄉寺釋慧延。聞顓遷化。感咽無已。欲知顓生處。因寫法華經以求冥示。夜夢顓從觀音西來。顧謂曰。疑心遣否。其外靈異數著類如此(續高僧傳佛祖統紀十疑論)。

慧成

慧成。姓段。澧陽人。初受業於十住寺。後聞南岳思禪師闡化之盛。即往依之。開眼坐禪。夜以達旦。南岳令人方等觀音法華般舟三昧。以消宿障。行之三年。得解眾生語言三昧。後於荊州枝江。創寺居焉。誦彌陀經。修西方觀。三十年常坐不臥。每入定。常見淨土蓮臺寶樹。一日語門人。急覓殿堦。吾當講涅槃。及事竣建

講。適智者大師自玉泉來。共談元理。良久入滅。是夕人夢成坐蓮臺。隱隱西去(佛祖統紀)。

慧命

慧命。天台仙城人。參南岳思禪師。聞說三觀。深悟元旨。得無礙辯。說法如瀉。將終。誡門人精修淨行。眾忽見阿彌陀佛與大士來迎。命隨佛向西而去(佛祖統紀)。

慧海

慧海。姓張。清和武城人。少年入道。師事鄴都廣國寺問法師。聽講涅槃楞伽再遍。即能覆述。慧辯過人。學徒皆推服。以周大象二年來儀濤浦。修葺伽藍。莊嚴佛事。嘗以淨土為期。精誠致感。忽有齊州僧道詮者。齋阿彌陀佛畫像來。微妙工巧。世所未有。云是天竺雞頭摩寺五通菩薩。乘空往安樂世界。圖繪而來。海冥會素情。虔篤禮敬。見神光炤爍。於是模寫懇苦。願生彼國。沒齒為念。隋大業五年五月旦。有疾。謂弟子曰。吾當滅矣。伸五指以表終期。至五日夜。歛然而起。面西禮竟。跏坐至曉而逝。年六十九。海自少精苦。老而愈篤。兼以仁慈接物。誘勸後進。其沒也。道俗悲涼。散香華施金寶者無算(續高僧傳)。

智通

智通。姓程。河東猗氏人。生而樂道。志求出家。父母異而許之。十歲後剃落。接事師長。執履謙沖。嚴戒行。晝夜詠法言不輟。誦諸經中讚佛要偈三千餘首。已而從俊律師延法師受業。立孤老寺。等心賑贍。間復授戒說法。廣修眾善。大業七年十月有疾。命侍者稱阿彌陀佛名。迴向願生彼國。已而開目正視。良久不眴。如有所覩。云不可思議也。侍僧頂蓋問故。云見寶幢華蓋塔廟莊嚴。初夜又云。何故大然燈燭。遂掩燈令暗。須臾復云。光明何為轉盛。蓋曰是師淨相。不可怪也。乃合掌達旦。曰。吾生淨土矣。遂逝。山地動搖。窗戶皆震裂。時寺僧道慧適假寐。夢見西嶺上樓閣殿堂。乘空而去(續高僧傳)。

真慧

真慧。姓陳。陝州河北人。早厭身世。年二十。往大通寺清禪師所。出家受具。遊學四方。道業日進。後築室於蒲版首山麻谷。居十八年。設四柱寶幢以奉三聖。每挺身正念。依像作觀。隋仁壽四年。召住棲巖寺。為人清儉退讓。獨處樂靜。坐禪禮懺。晝夜勤苦。大業十一年十月。寢疾。神色如常。曰。吾將生淨土。見蓮華相候。又聞異鐘聲幽遠。異香充蔚。潛然而絕(續高僧傳佛祖統紀)。

法智

法智。不詳其所出。髫年出家。凡百講肆。無不留神。晚歲聞徑直之門。莫如念佛。乃謂人曰。我聞經言。犯一吉羅。歷一中劫地獄。可信。又聞經言。一稱阿彌陀佛。滅八十億劫生死重罪。則未之信。有明者示云。汝大邪見。俱是佛言。何得不信。遂於國清寺兜率臺。晝夜精勤念佛。感觀音勢至二菩薩現身。異日又感天冠寶瓶。光映其身。一日辭道俗云。吾生西方有日矣。何以餞我。遂尅三日後會食。食罷。或宿其房以候之。中夜。智於繩牀念佛。安坐而化。時有金色光。自西而來。照數百里。江上漁人謂已天曉。遲久方明。始驗智之往生云(宋高僧傳樂邦文類)。

善胄

善胄。姓淮。瀛州人。少出家。通敏易悟。屢涉講會。尤善涅槃。多摧服座主。隋初度北。依遠師止於京邑淨影寺。遠亡後。勅令於淨影寺為涅槃眾主。大業間。廣選德僧。胄應選屢開法席。然常潛修淨業。人莫知也。因感風疾。唇口偏向。後患忽損。如恒日。胄曰。吾患既差。命必終矣。唐武德三年三月。病革。謂門人曰。吾一生正信。心心在佛。不慮不生淨土。即令拂拭房宇。燒香嚴待。起坐合掌。語侍人曰。安置高座。世尊來也。胄今懺悔慚愧。如是良久。旋就臥曰。向者阿彌陀佛來。汝等見否。吾當去矣。語訖便卒(續高僧傳)。

道傑

道傑。姓楊。河東安邑人。少有出世志。隋開皇十一年。歲將冠。投瑩法師剃落受具。繼往青州何記論師所。聽講成實。記師化去。遂周遊齊土。搜求論學。屢開講席。久之忽自惟曰。徒事言說。心路迷茫。至於起慧。非定不發。遂停講。往麻谷依真慧禪師學坐。深入緣起。慧歎為利根。傑為人少欲希言。疎財薄食。苦樂不以累

意。晚為棲巖僧主。貞觀元年七月二十八日卒於山。年五十五。初有桑泉樊綽者。前周廢教僧也。雖為白衣。常參法宇。傑深器之。綽已先亡。有二女同夢其父乘虛而至曰。吾生西方極樂土矣。知傑師將逝。故來相迎。因向棲巖而去。其日。傑適患病停講。臨終。見綽竚空中。合寺聞異香及天樂聲(續高僧傳)。

灌頂

灌頂。姓吳。臨海章安人。始生三月。能稱三寶名。七歲入攝靜寺出家。陳至德初。謁智者於修禪寺。稟受觀法。研繹既久。頓蒙印可。因為侍者。隨所聞法。悉能領解。隋開皇間。智者入寂。頂宣揚遺教。勤修定慧。每宴坐誦經。常有天華飄墜其側。嘗於攝靜寺講涅槃經。羣盜突至。見寺門旌旗蔽日。神兵皆長丈餘。盜驚而潰。貞觀六年。八月七日。終於國清寺。初示疾。室有異香。臨終。命弟子曰。可多爇名香。吾將去矣。忽起合掌。如有所敬。三稱阿彌陀佛。顏色愉然。就臥而逝。頂暖經日。年七十二(續高僧傳佛祖統紀)。

僧藏

僧藏。西河人。幼出家。屈己事人。一切恭敬。不辭勞苦。見他僧衣故。則潛為澣濯而縫紉之。天暑。脫衣坐草中。以身血肉施諸蚊蚋。日念佛號。不紀其數。確志冥心。未嘗少廢。及報盡。見諸天次第來迎。皆不赴。俄告人曰。適往淨土。見諸上善人。散華空中。乃合掌念佛而化(宋高僧傳)。

法喜

法喜。不詳其所出。徧參知識。力學無倦。年六十。始於大蘇山遇智者大師。一聞法音。頓獲深證。於是專修禪慧。嘗行方等三昧。忽一雉來索命。有神人呵曰。法師當生淨土。豈償汝命邪。後於病中發願。以一生行業。迴向淨土。至心念佛。即見佛菩薩眾來迎。端坐而化(佛祖統紀)。

道昂

道昂。魏郡人。風神清徹。慧解夙成。投靈裕法師出家。鑽研大教。嘗於寒陵山寺講華嚴地論。昏夜無燭。昂舉掌高示。便發異

光。明照堂宇。眾驚異。昂曰。此光手中恒有耳。何足怪邪。平時志結西方。願生安養。後在報應寺。自知時至。預告有緣。八月初當來取別。至期無所患苦。問齋時至未。即升高座。爐發異香。引四眾受菩薩戒。詞理切要。聽者神竦。昂舉目高視。見天眾繽紛。管弦繁會中。有清音遠亮。告眾曰。兜率陀天迎我。然天道乃生死根本。非所願也。常祈心淨土。如何此願不果遂邪。言訖。天樂上騰。須臾還滅。便見西方香華伎樂。充塞如雲。飛湧而來。旋環頂上。舉眾皆見。昂曰。大眾好住。今西方靈相來迎。吾往矣。言訖。但見香爐墜手。即於高座而逝。年六十九。時貞觀七年也(續高僧傳)。

智琰

智琰。字明燦。姓朱。吳郡人。梁散騎侍郎獻之孫也。生有異質。八歲出家。事通元寺璩法師為弟子。遍歷名剎。開宏經論。陳亡。歸虎邱。面巖壑者三十載。後避兵他徙。武德七年。蘇州總管李世嘉迎還山寺。行三種淨業。修十六妙觀。集善侶五百餘人。至寺念佛。每月一集。將逾十載。貞觀八年十月。見梵僧手執寶瓶。前謂之曰。我無邊光也。却後淨土所稱功德寶王。乃我爾。琰謂寺眾曰。無邊光乃勢至大士。功德寶王。其成佛之號也。我其西歸乎。其夕遂逝。年七十一(佛祖統紀武邱志)。

等觀

等觀。姓孫。富陽人。受心觀於智者禪師。居天台。常誦法華。貞觀九年冬。餘杭法忍寺請觀講演。明年正月旦。有王服者至。謂觀曰。弟子為臯亭廟神。昨師過廟庭。適弟子巡遊。未及奉迎。今故遠來。專求戒法。觀乃然香為授菩薩大戒。禮謝而退。明日夜半。沐浴更衣。面西趺坐。稱西方三聖尊號。及智者號。各百餘聲。復為弟子說三觀法門。言畢而終(佛祖統紀)。

壽洪

壽洪。汾陽人。常勤持念。求生西方。將亡。兜率天童子來迎。洪曰。我心期西往。不生天上。即令眾唱佛。遽云佛從西來矣。言訖而化(佛祖統紀)。

道綽

道綽。姓衛。并州汶水人。年十四出家。習經論。又事瓚禪師學禪。後居汶水石壁谷元中寺。曇鸞法師之所立也。綽慕鸞法師淨土之業。於是潛心觀想。坐常向西。六時禮敬不缺。念佛日以七萬計。有僧定中覩西方靈相。見綽手持數珠。赫如七寶山。他諸瑞應。未可殫述。綽為眾講無量壽經觀經幾二十遍。聽講者各捏珠。稱佛號。若潮汐聲。或時散席。響彌林谷。平時激勸淨業。理致泉湧。勸人攝慮靜緣。一心念佛。著淨土論二卷。統該龍樹天親。彌及慧遠曇鸞文句。詞旨切要。當世重之。貞觀二年。眾咸見鸞法師坐七寶船上。謂綽曰。汝淨土堂成。但餘報未盡耳。又見化佛住空。天華下散。眾皆忻仰歎異。綽自此報力愈強。容色盛發。道俗嚮風者日眾。年八十餘卒。時有釋道撫者。與綽同志。每相見。必指淨土為期。綽亡三日。撫聞之曰。吾常期先行。今乃在後。吾加一息之功。可追而及矣。於佛像前叩頭祝願。退就座而化(續高僧傳佛祖統紀)。

僧銜

僧銜。并州人。本學該通。解行相副。年九十六。見道綽禪師著安樂集。講觀經。始迴心念佛。恐壽將終。日夜禮佛一千拜。念佛八九萬聲。於五年間。一心無怠。後有疾。告弟子曰。阿彌陀佛來。授我香衣。觀音勢至。行列在前。化佛徧滿虛空。吾其行矣。言訖而終。七日異香不散。時有啟芳圓果二法師。目擊斯事。乃於藍田縣悟真寺。一夏結期。念阿彌陀佛。共折一楊枝。置觀音手中。祝曰。若得生淨土者。願七日不萎。至期益鮮翠。芳果慶扑。晝夜觀念不捨。閱五月。於觀想中覺身臨寶池。見觀音勢至。坐二大寶蓮華。有千萬蓮華。彌滿其間。阿彌陀佛從西來。坐一最大蓮華。光明映照。芳果作禮問曰。閻浮提眾生。依經念佛。得生此否。佛言。勿疑。定生我國也。又聞釋迦世尊與文殊菩薩讚法華經。其前有三道寶階。其一白衣。其二僧俗相半。其三唯僧也。云皆是念佛人。來生此矣。芳果既出定。歷與其徒言之如此(宋高僧傳)。

普明

普明。姓衛。蒲州安邑人。年十三出家。周遊肆席。大業四年。召入大禪定道場。武德元年。住蒲州仁壽寺。每日常誦戒本一遍。金剛般若二十遍。六時禮懺。所有善根。迴向淨土。如是終其身。凡造檀像數十龕。寫金剛般若千餘部。講涅槃八十餘遍。攝論勝鬘諸經論。不記其數。年八十六。卒於住寺(續高僧傳)。

二沙彌

汶州二沙彌。不知何許人。同志念佛。經五年。長者先亡。至淨土。見佛白言。有小沙彌與我同修。可得生否。佛言。由彼勸汝。汝方發心。汝今可歸。益修淨業。三年後當同來此。至期。二人見佛與聖眾。自西而來。大地震動。天華飄舞。一時同化(佛祖統紀)。

德美

德美。姓王。清河臨清人。年十六出家。十九剃染。隋開皇中。觀化京師。受持戒律。日以禮懺為務。常誦萬五千佛名。大業中。住京師慧靈寺。普興福業。多諸感應。唐武德初。居會昌寺。於院西造懺悔堂。行般舟三昧。終夏不坐。或止口過。三年不言。或行不輕。通禮七眾。斷絕世想。專念西方。持佛號終身不輟。貞觀十一年十二月。忽合掌念佛而卒。年六十三(續高僧傳)。

慧滿

慧滿。姓梁。雍州長安人。七歲出家。明慎威儀。遊講四方。貞觀中奉勅住宏濟寺。專宏律訓。獎勸僧徒。嘗願生安養。浴僧為業。貞觀十六年四月二十日。微疾。自知將盡。出所用物。盡歸常住。正坐繩牀。召寺眾訣別而終。年七十五(續高僧傳)。

神素

神素。姓王。安邑鳴條人。少興道傑齊名。每相攜問道。遊學講肆。大業四年。傑公停講素繼之。講阿毗曇成實論。共六十餘座。貞觀二年。主棲巖。十七年二月二十三日卒於山。年七十二。素一生行業。屬想西方。臨終日。召大眾與別。跏趺正坐。令讀觀音經兩遍。一心靜聽。自稱南無阿彌陀佛。如是五六聲。又令一人唱餘人和。迄夜。端坐儼然。視之逝矣。是夕仁壽寺智寬法師夜坐。如見素來告別。囑以護持正法。報如來恩。及旦。始知素示寂云(續高僧傳)。

明瞻

明瞻。姓杜。恒州石邑人。少有超世之志。年十七。州縣舉為進士。不就。投飛龍山應覺寺出家。隋初。居京師。屢主法座。唐貞

觀初。詔入內殿。昇御牀。食訖。廣論明君御世之術。以慈護為宗。上大悅。下詔年三月六。普斷屠殺。竝於行陳之所。廣建佛寺。瞻私以施物。歲飯千僧。書寫大乘經論。後入太乙山智炬寺而隱焉。晚歲。刻志安養。或譏其遲暮。瞻曰。十念功成。猶得見佛。吾何慮乎。貞觀二年冬。遇疾。自知時至。就京邑興善寺。設齋別眾。時僕射房元齡杜如晦皆與焉。即日返智炬寺。觀想西方。竭誠不替。十月二十七日。忽告侍者曰。佛來也。須臾又云。二大菩薩亦至。吾於觀經。成就第十二觀。餘者不了。今見善相。當逝矣。怡然合掌而化。年七十(續高僧傳佛祖統紀)。

元會

元會。字懷默。姓席。京兆樊川人。年十二。欣志捐俗。出家海覺寺為總法師弟子。落髮後。即預講席。專志涅槃。義解通釋。造涅槃義章四卷。時新建慈悲寺。延會為寺主。講揚經教。接引後學。貞觀八年。勅住宏福寺。輒廢講事。專修定業。夢無量壽佛以手承之。遂造阿彌陀佛像。繫心作觀。常坐不臥。十四年五月。遘疾返慈悲寺。見佛來迎。遂逝。年五十九(續高僧傳)。

慧璿

慧璿。姓董。少出家襄州。周滅法後。南入茅山。歷棲霞。往安州聽講諸經論。竝契幽極。晚歸襄州。住光福寺。寺居山頂。引汲為勞。將移他寺。夜見神人衣紫袍。身長一丈。頂禮璿曰。奉請住此。常講大乘。勿以小乘為念。其小乘者。亦如高山無水。不能利人。大乘經者。猶如大海。若一人講說。能令所住之地。珍寶光明。眷屬榮勝。飲食豐饒。若念小乘。前事俱失。唯願宏持。勿孤所望。法師須水。此易得耳。來月八日。定當得之。自往劍南慈母大泉。請一龍王去也。言已不見。至來月七日初夜。大風卒起。從西南來。雷震雨注。通夜相續。至明方住。唯見寺北窪處。清泉香美。合寺相慶。璿慈育為懷。容常含笑。居山久之。道俗翹敬。貞觀二十三年四月八日。夜見山神告曰。法師不久。當生西方。至七月十四日。講盂蘭盆經竟。斂手曰。生受信施。今須通散。一毫以上。捨與十方眾僧。及窮獨乞人。并諸異道。言已終於法座。年七十九(續高僧傳)。

明濬

明濬。姓孫。齊人。常誦金剛般若為業。永徽元年二月十二日夜。暴卒。心尚煖。周時復蘇。云初見二青衣童子將至王所。問一生作何業。答云。但誦金剛般若經。王曰。功德不可言。師可更誦滿十萬遍。明年必生淨土。弟子不見師也。令二青衣送之還寺。濬自是精勤愈倍。至二年三月卒。寺眾咸聞異香(續高僧傳)。

善導

善導。不詳其所出。貞觀中。見西河綽禪師淨土九品道場。喜曰。此真入佛之津要。修餘行業。迂僻難成。唯此法門。速超生死。於是勤篤精苦。晝夜禮誦。旋至京師。激發四眾。每入室。長跪唱佛。非力竭不休。出則演說淨土法門。三十餘年。未嘗睡眠。護持戒品。纖毫不犯。好食供眾。粗惡自奉。所有贖施。用寫阿彌陀經十萬餘卷。畫淨土變相三百壁。修營塔寺。然燈續明。道俗從其化者甚眾。有誦彌陀經十萬至五十萬遍者。有日課佛名自一萬至十萬者。其間得三昧生淨土者。不可紀述。或問念佛生淨土邪。導曰。如汝所念。遂汝所願。乃自念一聲。有一光明從其口出。十至於百。光亦如之。其勸世偈曰。漸漸雞皮鶴髮。看看行步龍鍾。假饒金玉滿堂。豈免衰殘病苦。任汝千般快樂。無常終是到來。唯有徑路修行。但念阿彌陀佛。或問何故不令人作觀。直遣專稱名號邪。答曰。眾生障重。境細心麤。識颺神飛。觀難成就。是以大聖悲憐。直勸專稱名字。正由稱名易故。相續即生。若能念念相續。畢命為期者。十即十生。百即百生。何以故。無外襍緣。得正念故。與佛本願相應故。不違教故。順佛語故。若捨專念。修襍業者。百中希得一二。千中希得三四。何以故。襍緣亂動。失正念故。與佛本願不相應故。與教相違故。不順佛語故。繫念不相續故。心不續念報佛恩故。雖作業行。常與名利相應故。樂近襍緣。自障障他往生正行故。比見諸方道俗。解行不同。專襍有異。但使專意作者。十即十生。修襍不至心者。千中無一。願一切人等。善自思惟。行住坐臥。必須厲心克己。晝夜莫廢。畢命為期。前念命終。後念即生。長時永劫。受無為法樂。乃至成佛。豈不快哉。又作臨終正念文曰。凡人臨終欲生淨土者。須是不得怕死。常念此身多苦。不淨惡緣。種種交纏。若得捨此穢身。超生淨土。受無量快樂。解脫生死苦趣。乃是稱意之事。如脫弊衣。得換珍服。放下身心。莫生戀著。纔遇有病。便念無常。一心待死。須囑家人。及問候人。來我前者。為我念佛。不得說眼前閒襍之話。家中長短之事。亦不須輕語安慰。祝願安樂。此皆虛華無益。若病重將終。親屬不得垂淚哭泣。及發嗟歎懊恨聲。惑亂心神。失其正念。但教記取阿彌陀佛。

守令氣盡。若得明解淨土之人。頻來策勵。極為大幸。用此法者。決定往生。無疑慮也。死門甚大。須自家著力始得。一念差錯。歷劫受苦。誰人相代。思之思之。導一日忽謂人曰。此身可厭。吾將西歸。乃登寺前柳樹。向西祝曰。願佛接我。菩薩助我。令我不失正念。得生安養。言已。投身而逝。高宗知其神異。賜寺額曰光明云(佛祖統紀樂邦文類)。

懷感

懷感。不詳其所出。秉持強毅。精苦力學。聞經言念佛少時。得生安養。疑情未決。還叩善導。導曰。念佛往生。諸佛誠言。子能信入。至心念佛。當有證驗。乃入道場三七日。不覩靈瑞。自恨障深。欲絕食畢命。導不許。勸令益加精進。三年。感佛化金色光。覩眉間毫相。證念佛三昧。著決疑論七卷。臨終見化佛來迎。面西而卒(宋高僧傳)。

法祥

法祥。同州人。少出家。周遊訪道。清貧寡欲。棲止無定處。後住揚州大興國寺。三十餘年。立身凝肅。常坐臥一大房。開通前後。當風而住。以讀經為業。道俗有問訊者。非盡卷不交一言。以安養為期。凡有饒益事。必迴向淨土。後疾甚。侍者參立。聞祥連稱佛像。侍者回顧。瞥見佛現形。佇立西壁。光明若鏡。須臾漸隱。俄而香樂盈空。又見白鶴西來。繞屋三匝。還向西去。少時祥卒(續高僧傳佛祖統紀)。

寶相

寶相。姓馬。雍州長安人。年十九出家。行頭陀行。六時禮懺。四十餘年。每夜分課誦阿彌陀經七遍。持佛號六萬聲。先後讀涅槃一千八十遍。兼誦金剛經般若經。終於即世。平居冷食粗衣。一心正念。晨宵翹注。及病既革。誦念自剋。終斯不捨。囑道俗曰。念佛為先。勿慮度世。當於西方相待。又曰。燒散吾尸。不勞銘塔。言訖而逝。年八十三(續高僧傳)。

功迴

功迴。浚儀人。行普賢懺。身不倚牀者三十年。一日見普賢大士。乘六牙象。地白金色。晚年專講法華。至藥草譬喻品。天輒降雨。又撰佛地論疏。願迴詮疏功德。求生淨土。疏成。五色異光照其室。迴曰。得於此時乘光見佛。所願足矣。乃繫念西方。不食而化(佛祖統紀)。

惟岸

惟岸。并州人。平生行方等懺。迴向淨土。遇微疾。禪觀無閒。一日見觀音勢至二菩薩現空中。遲久不滅。岸頂禮兩淚曰。幸以肉眼。得覩聖容。所恨後世無傳。乃召畫工。無能畫者。忽有二人。自言從西京來。欲往五臺。願畫菩薩像。畫畢忽不見。岸知西方緣熟。告諸弟子曰。吾今往生。誰偕行者。有小童子。稽顙曰。願隨師去。岸令辭父母。父母謂為戲言。未信也。頃之。沐浴更衣。入道場坐。念佛而化。岸撫其背曰。小子先我行邪。因索筆作偈。讚所畫二菩薩像。讚畢。別諸弟子。入道場。命門徒助稱佛名。端坐而逝。年八十。時垂拱元年正月七日也(宋高僧傳)。

法持

法持。姓張。潤州江寧人。幼出家。年十三。謁黃梅忍禪師。蒙示法要。領解幽元。後事方禪師為入室弟子。已而專修淨業。長安二年九月五日。終於金陵延祚寺。臨終遺命。露屍松林之下。施與烏鳶螻蟻。使食吾血肉者。起淨土因。言已瞑目。寺僧見神幡數首。從西而來。幡出異光以燭其室。年六十八(宋高僧傳佛祖統紀)。

懷玉

懷玉。姓高。丹邱人。執持律法。名節峭然。一食長坐。蚤虱恣生。誦彌陀經三十萬遍。日課佛號五萬聲。常行懺悔。天寶元年六月九日。見西方聖像。數如恒沙。一人擎銀臺來迎。玉曰。吾一生念佛。誓取金臺。何為不然。聖眾遂隱。玉倍加精進。忽聞空中云。頭上已有光暈矣。請趺坐結印以俟佛來。越三日。異光滿室。玉云。若聞異香。我報將盡。書偈云。清淨皎潔無塵垢。上品蓮臺為父母。我修道來經十劫。出示閻浮厭眾苦。一生苦行超十劫。永離娑婆歸淨土。說偈已。香氣盈空。聖眾遍滿。見阿彌陀佛。觀音勢至。身紫金色。共御金剛臺來迎。玉含笑而逝。郡太守段懷然作

偈贊曰。我師一念登初地。佛國笙歌兩度來。唯有門前古槐樹。枝低只為罽金臺(宋高僧傳)。

慧日

慧日。姓辛。東萊人。唐中宗時得度。見義淨三藏。詣西域求法。心慕之。於是泛舶渡海。經三年。得達天竺。禮如來聖跡。尋求梵本。日既閱歷艱苦。深厭閻浮。思何國何方有樂無苦。何法何行。能速見佛。徧問天竺三藏。皆勸修淨土法門。日聞已頂受。漸至北印度健馱羅國。王城東北有大山。山有觀世音像。有至誠祈請者。每見大士現身。日至山叩頭七日。又斷食。畢命為期。至七日夜。觀音於空中現紫金身。長一丈餘。坐寶蓮華。垂右手摩日頂曰。汝欲傳法。自利利他。唯念西方極樂世界。阿彌陀佛。發願往生。到彼國已。見佛及我。得大利益。汝當知淨土法門。勝過諸行。說已忽滅。日既困憊。聞已。精神頓壯。及登嶺東歸。計行七十餘國。閱一十八年。開元七年達長安。詣闕獻佛真容梵夾等。賜號曰慈愍三藏。日勤修淨業。唱導一時。著往生淨土集行於世。天寶七年卒。將終。見蓮華在前。狀如日輪(宋高僧傳佛祖統紀)。

常慙

常慙。并州人。落髮後。精勤匪懈。念誦無歇。嘗發大誓。願生極樂。專修淨業。稱念佛名。後遊京洛。專崇斯業。輒有冥應。遂發願寫般若經滿萬卷。又欲遠詣西域。禮如來聖跡。以此勝福。迴向淨土。遂至海濱附舶。從訶陵國至末羅瑜國。欲往中天。商舶載重。解纜未達。風起。舟且覆。商人爭上小舶。互相排擠。舶主高聲喚慙上舶。慙曰可載餘人。我不去也。所以者何。若輕生為物。順菩提心。亡已濟人。斯大士行。於是合掌稱阿彌陀佛。舟沈身沒。聲盡而終。年五十餘。有從遊弟子一人。亦念佛名。與之俱沒。其得濟之人。具陳其事如此(西域求法高僧傳)。

法善

法善。不詳其所出。天寶間遊京師。習天台教。常誦法華。所居之處。瓶水自滿。臨終見金蓮華從空下迎。天樂競鳴。隱隱向西去(佛祖統紀)。

神皓

神皓。字恒度。姓徐。蘇州人。天性耿潔。依錢塘龍泉一公出家。天寶六年得度。乾元初。住蘇州開元寺。結道俗為西方社。其有懈怠者退之。時以為栴檀林中。常材自枯。後示疾。謂弟子曰。淨土聖相已現。吾今夕必往生矣。澡身易衣。端坐而逝。香氣滿室。是夜天瑠璃色。星靄如雨。年七十五(宋高僧傳佛祖統紀)。

道光

道光。姓褚。幼出家。長而受具。學通毗尼。持法華經。創建塔廟。沒身不怠。上元元年仲秋。示疾。其月三日。質明。支疾凝神。觀阿彌陀佛。忽見佛身現在其前。滿庭碧華。昔所未覩。四日昧爽。有一異人見請。遂開目彈指曰。但發菩提心。五日。曼陀羅華自天而雨。五色雲氣。覆映其廬。遂卒。年七十九(宋高僧傳)。

飛錫

飛錫。不詳其所出。初學律儀。後與楚金法師。研習天台教觀。天寶初。遊京師。止終南紫閣草堂。撰念佛三昧寶王論三卷。其上卷明通念三世一切佛門。略言。夫帝網未張。千璽焉覩。宏綱忽舉。萬目齊開。浴大海者。已用於百川。念佛名者。必成於三昧。而世人念過去釋迦。想現在彌陀。獨未聞念未來諸佛。何邪。以諸佛為至尊也。眾生為至卑也。高下出焉。羣妄興矣。敬傲立焉。一真隱矣。般若云。一切有情。皆如來藏。普賢菩薩自體徧故。夫貧女懷王。米在糠[禾*會]。鏡然可觀。人皆侮未來玉毫。不敢侮過現金色。起罪之由。在當來佛上。非已今佛上也。眾生苟非。當佛焉在。若知母因子貴。米以糠全。有叶法華不輕之心。則念佛三昧。不速而成。是故嬖女羣盜。不可或輕。鬼獄畜生。亦宜普敬。乃至無善可擇。無惡可棄。故隨所念。無非佛矣。其中卷明念現在佛專注一境門。略言。悲華經言。密蘇王子發心已來。行時步步。心心數法。常念諸佛。今登正覺。生妙樂剎。即阿閼佛是。吾謂經行廣陌。徒步幽林。固當如密蘇之見。即鳴珂入仗。動佩朝天。肅肅羽儀。駸駸車馬。又安得不用心於步步間哉。夫含齒戴髮。死生交際。未有無出入息者。世人多以寶玉木槌等為數珠。吾以出入息為念珠焉。稱佛名號。隨之於息。有大恃怙。安懼一息不還。即屬後世者哉。余行住坐臥。常用此珠。縱令昏寐。念佛而寢。覺即續之。必於夢中得見彼佛。如鑽燧煙飛。火之前相。夢之不已。三昧成焉。面覩玉毫。親蒙授記。萬無一失也。問。然則但能繼想。無取高聲乎。答。辟散之要。要存乎聲。聲之不厲。心竊無定。有五

義焉。拔茅連茹。乘策其後。畢命一對。長謝百憂。一也。聲光所及。萬禍冰消。功德叢林。千山松茂。二也。金容煒煌以散彩。寶華淅瀝而雨空。若指諸掌。皆聲致焉。三也。如牽木石。重而不前。洪音發號。颯然輕舉。四也。與魔軍戰。旗鼓相望。用聲律於戎軒。以定破於強敵。五也。喧靜兩全。止觀雙運。叶夫佛意。不亦可乎。華嚴經。寧受無量苦。得聞佛音聲。不受一切樂。而不聞佛名。然則佛聲遠震。開善萌芽。猶春雷之動百草。安得輕誣哉。其下卷明理事雙修即生無生門。略言。世人謂念佛有念也。吾則謂念佛無念也。又念即是空。焉得有。非念滅空。焉得無。念性自空。焉得生滅。又無所念心者。應無所住也。而修念佛者。而生其心也。無所念心者。從無住本也。而修念佛者。立一切法也。無所念心者。念即是空也。而修念佛者。空即是念也。此明中道雙寂雙照。照而常寂。無所念心矣。寂而常照。而修念佛焉。如來寂照三摩地。念佛三昧究竟之位也。故此三昧。能生首楞嚴王師子吼定。菩薩念佛三昧經破相偈曰。念佛真空色。安住無著心。觀法何名佛。攝心恒相續。金色非如來。四陰亦如是。離色非如來。想色應當知。此是佛世尊。最勝寂靜處。善能滅一切。外道諸邪見。如龍王降雨。澤及於一切。此經明六度萬行。未有一法不是念佛三昧也。大品經。佛為鈍根人說諸法空寂。以其動生執見也。為利根人說諸佛相好。知其蓮不染塵也。坐禪三昧經。菩薩坐禪。不念一切。唯念一佛。如清冷海中金須彌山。乃至功德法身。亦如是念。故知不得以不念為無念。觀佛實相。觀身亦然。遇境皆真。無心不佛。必不離念存於無念。離生立於無生。若離而別立者。斯不了煩惱即菩提。眾生即諸佛矣。既離之不可。即念佛真無念也。即往生真無生也。其義煥然。若秋天澄霽。明月出雲矣。永泰初。詔於大明宮內。同良賁等參譯仁王護國般若經。及密嚴經。充證義正員。後不知其終(宋高僧傳寶王三昧論)。

齊翰

齊翰。字等至。姓沈。湖州人。天寶八年。出家永定寺。道性淵默。跡不近名。身不關事。長在一室。寂如無人。專門相部義疏。精敏罕儔。明法華經。主蘇湖戒壇。大歷十年。入流水念佛道場。一念之頃。即見淨土境相。迺作歌曰。流水動兮波漣漪。芙蕖輝映兮寶光隨。乘光西邁兮偕者誰。未幾遇疾。謂弟子曰。有鶴從空飛下。迴翔我前。爾曹見否。弟子問曰。和尚捨生。何乃抱病。翰曰。必謝之軀。雖聖未免。即回瞻聖像而亡。年六十八(宋高僧傳佛祖統紀)。

自覺

自覺。博陵望都人。少出家開元寺。至德二年。往靈壽縣禪法寺。習律經論。勤瘁九年。皆造精微。大歷元年。往平山縣界。得重林山院居焉。拾果采蔬。日唯一食。歲大旱。恒陽節度使張公。聞其精苦。躬入山。請其祈雨。覺虔告龍神。大雨立下。張甚尊禮之。初欲鑄大悲菩薩像。并建佛寺。至是施者駢集。鑄像高四十九尺。梵□端嚴。迨年稔。寺亦隨成。遂於壇前矢願。願承聖力。早生淨土。夜三更。見金光二道。中有阿彌陀佛。白光中下。二大士左右隨之。佛垂金臂摩覺頂曰。守願勿易。利物為先。寶池生處。任從汝願。貞元十一年二月望夜。見神人現半身雲中。俯謂覺曰。師西歸之期至矣。覺舉手謝之。六月十四日。即於觀音像前趺坐而化。覺所鑄大悲像。屢著顯應。至周顯德初。勅令天下銅像一例除燬。及是像。匠氏暴卒。後宋太祖令重鑄於寺焉(宋高僧傳佛祖統紀)。

淨土聖賢錄卷二

淨土聖賢錄卷三

往生比丘第三之二

承遠

承遠。不詳其所出。始學於成都唐公。次資川詵公。至荊州。進學於玉泉真公。真公令居衡山設教。人從而化者萬計。始居山西南巖石下。人遺之食則食。不遺則食土泥。羸形垢面。躬負薪樵。凡化人。立中道而教之。俾得以疾至。故示專念法門。書塗巷。刻谿谷。不勤誘掖。人皆負布帛。斬木石。委之巖戶。不拒不營祠宇既具。是為彌陀寺。營造之餘。則施與餓疾者。貞元十八年七月十九日終於寺。年九十一。先是有釋法照者。居廬山。由正定中。趨安樂國。見蒙惡衣侍佛者。佛告曰。此衡山承遠也。出而求之。尚焉。乃從之學。傳教天下。照在代宗時為國師。言其師有至德。天子南嚮而禮焉。度其德不可徵。乃名其居曰般舟道場。柳宗元為製碑。立石寺門之右(柳子厚文集)。

法照

法照。不知何許人也。大歷二年。居衡州雲峯寺。勤修不懈。一日於僧堂粥鉢中。覩五色祥雲。雲內現山寺。寺東北有山。山下有澗。澗北有石門。門內復有一寺。榜曰。大聖竹林寺。他日。復於鉢中見雲中數寺。池臺樓觀。萬菩薩眾雜處其中。以所見問知識。有一僧曰。聖神變化。不可情測。若論山川勢面。乃五臺也。四年。照於郡之湖東寺。開五會念佛道場。感祥雲彌覆。雲中現樓閣。阿彌陀佛及二菩薩。身滿虛空。衡州舉郭。咸焚香瞻禮。良久方滅。照復遇一老人謂曰。汝曾發願往金色世界。禮覩大聖。今何輒止。言訖不見。照遂與同志數人。遠詣五臺。五年四月六日。至五臺縣佛光寺。其夕四更。遙見異光照身。即之。行五十里。得一山。山下有澗。澗北有一石門。見二童子。自稱善財難陀。引至一寺。榜曰大聖竹林寺。如鉢中所見。金地寶樹以為莊嚴。入寺登講堂。見文殊在西。普賢在東。各據師子座。萬眾圍繞而為說法。照作禮問曰。末代凡夫。去聖時遠。知識隘劣。障垢尤深。佛性無由顯現。佛法浩瀚。未審修何法門。最為其要。文殊告曰。汝今念佛。今正是時。諸修行門。無過念佛。供養三寶。福慧雙修。此之二門。最為善要。我於過去劫中。因觀佛故。因念佛故。因供養故。得一切種智。是故。一切諸法。般若波羅蜜。甚深禪起。乃至

諸佛。皆從念佛而生。故知念佛。諸法之王。照問當云何念。文殊言。此世界西有阿彌陀佛。彼佛願力不可思議。汝當繼念。令無間斷。命終決定往生。永不退轉。語已。二大聖同舒金臂摩照頂曰。汝以念佛故。不久證無上正等菩提。若善男女等。願疾成佛者。無過念佛。則能速證無上菩提。照歡喜作禮。辭而退。二童子送出寺門。舉頭忽失所在。乃立石標記其處。至四月十三日。照與五十餘僧。同往金剛窟。虔心禮三十五佛名。照禮纔十徧。忽見其處廣大嚴淨琉璃宮殿。文殊普賢俱在一處。復獨詣金剛窟所。願見大聖。以身撲地。見梵僧佛陀波利。引入一院。額曰金剛般若寺。異寶莊嚴。光明閃爍。照雖歷覩靈異。而未語人也。是年十二月。於華嚴寺。入念佛道場。絕粒要期。誓生淨土。至七日初夜。正念佛時。見一梵僧入謂曰。汝所見臺山境界。胡不傳示世人。言畢不見。照心異之。翌日又見梵僧語如前。照曰。非敢秘密聖道。恐生疑謗耳。僧曰。大聖文殊。現在此山。尚招人謗。汝何惜焉。但以所見境界。普告眾生。使見聞者。發菩提心。作毒鼓緣耳。照遂憶所見。錄以傳世。明年。江東釋慧從。與華嚴寺諸僧。隨照至金剛窟。及立石標記處。瞻仰舊跡。大眾悲喜未已。忽聞鐘聲。其音雅亮。節解分明。眾愈驚異。知照所見不虛。因書於屋壁。願見聞者共發勝心。後於化竹林寺題額處。建寺一區。仍號竹林焉。照於是篤志念佛。日夜無曠。忽見佛陀波利謂曰。汝華已就。後三年華開矣。至期謂眾曰。吾行矣。端坐而逝。或言照嘗於并州五會念佛。德宗時詔入京師。教宮人念佛。亦及五會。號五會法師(宋高僧傳樂邦文類)。

少康

少康。姓周。縉雲仙都山人。生而不言。七歲。入靈山寺禮佛。母問識否。忽發言曰。釋迦牟尼佛。父母遂捨之出家。年十五。能通五部經。貞元初。詣洛陽白馬寺。見殿中文字放光。探之。則善導和尚西方化導文也。康祝曰。若於淨土有緣。當使此文再現光明。言已。光復閃爍。光中隱隱有化菩薩。康曰。劫石可磨。我願無易矣。遂之長安光明寺善導和尚影堂瞻禮。忽見導真像升空。謂曰。汝依吾教。廣化有情。他日功成。必生安養。南至江陵。遇一法師謂曰。汝欲化人。當往新定。緣在於彼。言訖不見。乃適新定。乞錢誘小兒念佛。念佛一聲。即與一錢。如是年餘。凡男女少長見康者。皆云阿彌陀佛。念佛之聲。盈於道路。遂於烏龍山建淨土道場。築壇三級。每遇齋日。善信畢集。所化三千許人。每升座。高聲唱佛。眾共和之。康一唱佛。眾見一佛從其口出。十聲。則有十

佛。若貫珠焉。康謂眾曰。汝見佛者。必得往生。眾皆欣慰。二十一年十月。囑道俗曰。當於淨土起增進心。於閻浮提起厭離心。汝曹此時見我光明。真我弟子。遂放異光數道。寂然而逝。塔於臺巖。號臺巖法師(宋高僧傳樂邦文類)。

辯才

辯才。姓李。襄陽人。其誕也。異香發於室。七歲。依峴山寂禪師出家。周遊列郡。師事長安安國寺懷威律師。報恩寺義頒律師。剖析經義。無所不通。後為章信寺僧主。密修淨土二十年。未嘗告人。獨與護戎任公善。謂曰。才必生淨土。期在十年。至期。使弟子報任公曰向所期已及矣。任公至。才曰。吾去矣。安坐繩牀。默然歸寂。眾聞天樂西來。異香滿室。年五十六(宋高僧傳佛祖統紀)。

善道

善道。臨淄人。嘗入大藏信手探卷。得觀無量壽佛經。乃專心念佛。修十六妙觀。及往廬山。觀遠公遺跡。愾然增思。後遁跡終南。修般舟三昧數載。覩寶閣瑤池。宛然在目。復往晉陽。從綽禪師授無量壽經。入定七日。綽請觀所生處。道報曰。師當懺悔三罪。方可往生。師嘗安佛像在檐牖下。自處深房。此一罪也。當於佛前懺。又嘗役使出家人。此二罪也。當於四方僧前懺。又因造屋。多損蟲命。此三罪也。當於一切眾生前懺。綽靜思往答。洗心悔謝。久之。道因定出。謂綽曰。師罪滅矣。後有白光來照時。是往生相也。道行化京師。歸者如市。忽微疾。即掩室。怡然念佛而逝。異香天樂。向西而隱(佛祖統紀)。

智欽

智欽。不詳其人。專習禪業。又禮念萬五千佛名至萬遍。後於柳州阿育王塔前。然一臂。求生淨土。弟子僧護。夜半見庭前光照異常。因問何人秉炬。凡三問。空中應曰。來迎欽法師耳。護急啟戶。見佛身放大光明。旛華寶蓋。騰空飛下。欽即時化去(佛祖統紀)。

知元

知元。字後覺。姓陳。眉州洪雅人。七歲在寧夷寺聽講涅槃經。宛如宿習。是夕夢佛手摩其頂。年十一出家。授以經疏。通達深奧。年十三。即升堂講論。黑白傾聽。宣宗朝。召入京。賜紫袈裟。奏復天下廢寺。尋乞歸故山。僖宗朝。錫號悟達國師。賜沈香座。膝上忽生人面瘡。時蜀僧迦羅摩。令元以泉水洗之。瘡忽語曰。公知袁盎殺晁錯乎。公即盎。我乃錯也。累世求報。而公十世為高僧。戒律精嚴。不得其便。今公受賜過奢。故能害之。而迦諾尊者以三昧水洗我。我去汝。不為怨矣。瘡遂差。元少欲。過中不食。六時行道。累致顯應。一日忽聞空中聲曰。必生淨土。乃訊曰。孰之語邪。空又應曰。佛也。又見一菩薩降庭中。丁寧讚諭。忽不見。臨終時。囑令棄屍飼魚鳥。曰吾久與西方淨土有期。今其時矣。言訖右脅面西而沒。年七十三(宋高僧傳神僧傳)。

端甫

端甫。姓趙。天水人。母夢梵僧授舍利令吞之。遂誕甫。十歲。依道悟禪師出家崇福寺。十七剃染。隸安國寺。徧參講座。兼通經律。夢梵僧以瑠璃器盛滿舍利。令吞之曰。三藏大教。盡貯汝腹矣。自是才辯無礙。演經太原。傾都畢會。德宗徵入。賜紫方袍。迄順憲兩朝。俱見尊禮。講涅槃唯識。凡一百六十座。日持諸部。以淨土為息肩之地。所得供施數十百萬。悉以嚴飾殿宇。而方丈單牀。泊然自得。開成元年六月一日。西向右脇而滅。異香鬱然。茶毗得舍利三百餘粒(宋高僧傳)。

雄俊

雄俊。姓周。成都人。善講說。無戒行。嘗罷道從戎。尋復為僧。亦頗知愧悔。常持佛名。大歷中。暴亡。入冥。主者呵責。命付地獄。俊大呼曰。觀經言。造五逆罪。臨終十念。即得往生。雄俊雖造罪。不犯五逆。若準念佛之功。合生淨土。不然。三世諸佛。即成妄語。遂合掌諦念。寶臺忽現。乘空西去。同時有自冥還者。傳其事云(宋高僧傳○佛祖統紀載雄俊入冥自陳念佛功主者放還乃入西山專意念佛居四年別眾坐逝與此互異)。

惟恭

惟恭。荊州人。常事酒博。暇則誦經。祈生安養。同寺有靈巖者。迹頗類之。里人為之語曰。靈巖作盡業。惟恭繼其跡。地獄千萬

重。莫厭排頭入。恭聞曰。我雖罪無所逃。然仰賴佛力。十念往生。豈復墮惡道邪。一日恭病。歸出寺。見少年手執樂器。問所從來。曰西來迎恭上人耳。一人懷中出蓮華。華合如拳。葉出異光。望寺而馳。次日至寺。恭已亡矣。歸因感悟改節。以名德著(佛祖統紀)。

大行

大行。齊州人初學天台教。後入泰山居焉。結草為衣。拾果為食。行法華三昧。感普賢大士現身。一日歎曰。人命無常。不久磨滅。未知來世。何處受生。遂入大藏叩禱。信手探之得阿彌陀經。於是專心思念阿彌陀佛。閱三七日。夜半忽覩琉璃地。心眼洞明。又見佛及二大士湧立空中。僖宗聞行名。詔入內。賜號常精進菩薩。後一年。琉璃地復現。謂左右曰。寶地復現。安養之期至矣。即日右脅而終(宋高僧傳佛祖統紀)。

志通

志通。姓張。鳳翔人。出家遊洛下。遇罽日囉三藏。行瑜伽教法。通禮事之。錢文穆王時。東遊吳越。入天台山。於智者道場。覽淨土靈瑞傳。發心願生彼國。自是不向西唾。不背西坐。一日登山中招手巖。誦四十八願。願速生淨土。投身而下。墮一大樹中。枝輒幹柔。殊無少損。乃復整身登巖。誓曰。大願已發。餘生可厭。唯望聖眾。同來接引。再投而下。栖於草上。久之蘇矣。眾僧尋至掖歸。往越州法華山。默修淨業。後見白鶴孔雀成行而下。又見蓮華開合於前。通曰。白鶴孔雀。淨土境也。蓮華光相。受生處也。淨相見矣。乃起禮佛而終。荼毗。有五色祥雲環覆火上。舍利鱗砌於身(宋高僧傳佛祖統紀)。

可止

可止。姓馬。范陽大房山人。年十二出家。十九抵五臺山求戒。感文殊靈光燭身。二十三。往并部習法華經百法論。後於長安開演。化導日眾。未幾。歸故鄉。母猶在堂。持盂乞食以養母。長誦金剛經。晚居長壽淨土院。後周廣順元年正月二十二日。微疾。召弟子念阿彌陀佛。助吾往生。奄然而化。年七十五(宋高僧傳)。

紹巖

紹巖。姓劉。雍州人。七歲出家。依高安禪師。徧覽經書。有如宿習。後居錢塘湖心寺。恒諷持法華經。晝夜無間。期滿萬部。得生淨土。俄感蓮華生於陸地。誓焚身供養西方三聖。吳越王俶力勸止之。又投身曹娥江中。如有物藉其足。得不死。吳越王於寶塔寺。建淨土院以居之。宋開寶四年七月。有疾。不求藥石。作偈累篇。示門徒曰。吾誦經二萬部。決生安養。跏趺而化。荼毗。舍利無算。年七十三(宋高僧傳佛祖統紀)。

守真

守真。姓紀。字法燈。永興萬年人。出家聖壽寺。謁從朗師學起信論。次依性光師傳華嚴法界觀。後禮演秘閣黎授瑜伽教。竝得心要。明達諸法。宣暢妙典。四十年無少怠。賜號曰昭信。常於中夜習西方無量壽觀。修念佛三昧。期生淨域。開寶四年秋八月九日。命眾同唱佛名。久之令止。奄然歸寂。年七十八。闍維獲舍利焉(宋高僧傳)。

延壽

延壽。字冲元。錢塘王氏子也。少誦法華。錢文穆王時。知稅務。多用官錢買放生命。罪當死。引赴市曹。王使人矚之。色不變。命釋之。投四明翠巖禪師出家。復參天台韶國師。發明心要。嘗於國清寺行法華懺。禪觀中。見觀音菩薩以甘露灌其口。因是獲大辯才。以宿願未決。登智者禪院。作二鬮。一曰一心禪定。一曰萬行莊嚴淨土。冥心精禱。七拈皆得淨土鬮。於是一意修淨業。建隆二年。忠懿王請住永明寺。賜號智覺禪師。日課一百八事。夜往別峯。行道念佛。旁人時聞螺貝天樂之音。誦法華經。積一萬三千部。居永明十五年。弟子一千七百人。常與眾授菩薩戒。施鬼神食。買贖生命。皆以迴向淨土。著宗鏡錄一百卷。會天台賢首慈恩異同之旨。又著萬善同歸集。集中指歸淨土處。最為切要。其略曰。問。唯心淨土。周徧十方。何得托質蓮臺。寄形安養。而興取舍之念。豈達無生之門。忻厭情生。何成平等。答。唯心淨土者。了心方生。如來不思議境界經云。三世一切諸佛。皆唯心量。得隨順忍。或入初地。捨身速生極樂佛土。故知識心方生唯心淨土。著境祇墮所緣境中。既明因果無差。乃知心外無法。又平等之門。無生之旨。雖即仰教生信。其奈力量未充。觀淺心浮境強習重。須生佛國。以仗勝緣。忍力易成。速行菩薩道。十疑論云。智者熾然求生淨土。達生體不可得。即是真無生。此謂心淨故即佛土淨。愚者

為生所縛。聞生即作生解。聞無生即作無生解。不知生即無生。無生即生。不達此理。橫相是非。此是謗法邪見人也。問。心外無法。佛不去來。何有見佛及來迎之事。答。唯心念佛。以唯心觀。徧該萬法。既了境唯心。了心即佛。故隨所念無非佛矣。般舟經云。如人夢見七寶親屬歡喜。覺已追念。不知在何處。如是念佛。此喻唯心所作。即有而空。故無來去。又如幻非實。則心佛兩忘而不無幻相。則不壞心佛。空有無礙。即無去來。不妨普見。見即無見。常契中道。是以佛實不來。心亦不去。感應道交。唯心自見。如造罪眾生。感地獄相。唯識論云。一切如地獄。同見獄卒等。能為逼害事。故皆是罪人惡業心現。竝無心外實銅狗鐵蛇等事。世間一切事法。亦復如是。然彼遮那佛土。匪局東西。若正解了然。習累俱殄。理量雙親。問。觀經明十六觀門。皆是攝心修定。觀佛相好。諦了圓明。方階淨域。如何散心而能化往。答。九品經文。自有升降。上下該攝。不出二心。一定心。如修習定觀。上品往生。二專心。但念名號。眾善資薰。回向發願。得成末品。仍須一生歸命。盡報精修。坐臥之間。常面西向。當行道禮敬之際。念佛發願之時。懇苦翹誠。無諸異念。如就刑獄。若在狴牢。怨賊所追。水火所逼。一心求救。願脫苦輪。速證無生。廣度含識。紹隆三寶。誓報四恩。如斯志誠。必不虛棄。如或言行不稱。信力輕微。無念念相續之心。有數數間斷之意。恃此懈怠。臨終望生。但為業障所牽。恐難值其善友。風火逼迫。正念不成。何以故。如今是因。臨終是果。應須因實。果則不虛。聲和則響順。形直則影端也。如要臨終十念成就。但預辦津梁。合集功德。回向此時。念念不虧。即無慮矣。夫善惡二輪。苦樂二報。皆三業所造。四緣所生。六因所成。五果所攝。若一念心瞋恚邪婬。即地獄業。慳貪不捨。即餓鬼業。愚癡闇蔽。即畜生業。我慢貢高。即修羅業。堅持五戒。即人業。精修十善。即天業。證悟人空。即聲聞業。知緣性離。即緣覺業。六度齊修。即菩薩業。真慈平等。即佛業。若心淨。即香臺寶樹。淨剎化生。心垢。則邱陵阬坎。穢土稟質。皆是等倫之果。能感增上之緣。是以離自心原。更無別體。欲得淨果。但行淨因。如水性趨下。火性騰上。勢數如是。何足疑焉。又嘗作四料簡云。有禪無淨土。十人九錯路。陰境若現前。瞥爾隨他去。無禪有淨土。萬修萬人去。但得見彌陀。何愁不開悟。有禪有淨土。猶如帶角虎。現世為人師。當來作佛祖。無禪無淨土。鐵牀并銅柱。萬劫與千生。沒箇人依怙。開寶八年二月二十六日。晨起。焚香告眾。趺坐而化。年七十二。後有僧來自臨川。經年遶其塔。人問故。曰。我病入冥。見殿左供一僧像。王勤致禮拜。因詢其人。曰杭州永明

壽禪師也。已往生西方上上品矣。王重其德。故禮敬耳(樂邦文類萬善同歸)。

晤恩

晤恩。字修己。姓路。常熟人。年十三。聞人誦彌陀經。心有所感。遂投興福寺出家。後唐長興中。往崑山慧聚寺學南山律。既而聽習法華光明諸經。及止觀論咸造精微。終日一食。不離衣鉢。不畜財貨。臥必右脅。坐必跏趺。每布薩。必潛然流涕。徧誨人以西方淨業。及一乘圓旨。講演法華二十餘部。宋雍熙三年八月朔。夜覩白光自井而出。謂門人曰。吾報齡極於此矣。乃絕粒禁言。一心念佛。夢一沙門執金爐焚香。三遶其室。言是灌頂。吾已生淨土。嘉汝所修。故來相迎。夢覺。呼門人至。猶聞異香。二十五日。為眾說止觀指歸。及觀心大義。端坐面西而化。年七十五。寺眾聞管弦鈴鐸之音。嘹亮空中。久而漸遠。茶毗得舍利無算。恩弟子文備。洞明觀法。一室坐忘者三十年。雍熙二年。微疾。淨土見前。累足而逝(宋高僧傳佛祖統紀)。

文輦

文輦。永嘉平陽人。既受戒。徧學三乘。依縉雲明昭禪師法會。疑情頓決。後復依天台德韶禪師。重有悟入。閱藏經三周。宗說兼通。逍遙無滯。太平興國三年。伐梅檀。結成一龕。趺坐其內。自持火炬。誓曰。願舍此殘軀。上供十方諸佛菩薩。命眾唱佛。助我往生。須臾焰發。其煙五色。旋轉虛空。猶聞佛聲。頃之乃寂。火熄。收舍利無算。年八十四(宋高僧傳)。

義通

義通。字惟遠。姓尹。高麗國人。頂有肉髻。眉長五六寸。受具後。學華嚴起信。晉天福時。來遊中國。至天台雲居寺見韶國師。忽有契悟。及謁螺溪寂法師。聞一心三觀之旨。遂留受業。稱具體焉。開寶元年。漕使顧承徽。舍宅為寺。請通居之。太平興國七年。賜寺額為寶雲。通敷揚教觀。幾二十年。常呼人為鄉人。有問其故。曰。吾以淨土為故鄉。諸人皆當往生。即吾鄉中之人也。端拱元年十月二十一日。右脇而化。闍維。舍利盈滿。年六十二(佛祖統紀)。

有基

有基。字及賢。姓王。錢塘人。五歲出家。從天台壽昌法超為師。十歲受具。聞四明寶雲傳智者教。往事之。受法華止觀。隨言解義。曲盡其妙。端拱元年。郡人講演教於太平興國寺。學者數百人。每白黑月。必集眾誦菩薩戒法。勸道俗念佛。四十年。數至萬人。遇歲歉則持鉢以供聽眾。祥符八年六月。示疾。弟子令祥請曰。和尚西歸。可無留訓。基乃廣談圓旨。逾時。眾忽見西方現光。空中奏樂。基曰。西方三聖人來也。即右脅西向而化。有夢基具威儀往西方者。有夢基坐青蓮華對佛說法者。有夢阿彌陀佛為基授記者。法智聞而歎曰。臥病談禪。臨終見佛。信希有事哉。茶毗。出舍利無算(佛祖統紀)。

省常

省常。字造微。姓顏。錢塘人。七歲出家。十七受具戒。宋淳化中。住南昭慶。慕廬山之風。謀結蓮社。刻無量壽佛像。刺血書華嚴淨行品。於是易蓮社為淨行社。士夫與會者。一百二十人。皆稱淨行弟子。王文正公旦為之首。比邱及千人焉。天禧四年正月十二日。常端坐念佛。有頃。厲聲唱曰。佛來也。泊然而化。眾見地色皆金。移時方隱。年六十二(佛祖統紀)。

知禮

知禮。字約言。明州金氏子也。其父母禱佛求嗣。夢神僧攜一童[田/卅]之曰。此佛子羅睺羅也。未幾生禮。七歲喪母。號哭不絕。白父求出家。遂往太平興國寺。依洪選師得度。稍長。依寶雲寺義通法師學教觀。圓頓之旨。一受即了。淳化中。通既歸寂。受請主乾符寺。尋徙保恩院。敷揚教觀。學徒踵至。明州旱。禮與慈雲式公。修光明懺。約三日不雨。當自焚一手。如期果大雨。大中祥符三年。重建保恩。賜名曰延慶。六年。建念佛施戒會。親為疏文以勸曰。原夫一念本融。諸法無礙。遇熏既異。感報成差。是以順性而修。則顯諸佛淨土。隨情而作。則循五趣苦輪。所以處娑婆者。升出尤難。墮落者眾。經云。得人身者。如爪上土。失人身者。如大地土。直待三乘行備。方免四趣受生。蓋境界羸強。煩惱熾盛。自力求脫。實難其人。若夫生安養者。國土莊嚴。身心清淨。直至成佛。不墮三塗。經云。尚無惡道之名。何況有實。又云。眾生生者。皆是阿鞞跋致。若欲生彼。但當稱彼佛號。修彼佛

慈。必為彼佛本願攝取。捨此報身。定生彼國。具如經說。實非臆談。今結萬人以為一社。心心繫念。日日要期。每歲仲春。同集一處。同修供養。同聽法音。會彼萬心。以為一志。俾成淨業。誓取往生。況劫濁命光。其猶風燭。一息不至。三塗現前。何得自寬。不思來報。當依佛語。無順人情。頓息攀緣。唯勤念佛。自此二月望日。歲舉會以為常。嘗集十僧修法華懺三年。期以懺畢。焚身供養妙經。求生淨土。後為眾沮。不果。復集十僧修大悲懺三載。然三指供佛。天禧四年。駙馬李遵勗奏禮高行。賜號法智大師。勅令住世演教。禮以從上諸祖闡揚淨土者。多談事相。罕示觀門。暫被時機。未窮圓頓。因取天台觀無量壽經疏。研極理奧。曲暢元風。成妙宗鈔數萬言。其釋題略云。觀者。總舉能觀。即十六觀也。無量壽佛者。舉所觀要。攝十五境也。能觀皆是一心三觀。所觀皆是三諦一境。毗盧遮那徧一切處。一切諸法。皆是佛法。所謂眾生性德之佛。非自非他。非因非果。即是圓常大覺之體。故起信論云。所言覺義者。謂心體離念。離念相者。等虛空界。無所不徧。法界一相。即是如來常住法身。依此法身。說名本覺。故知果佛圓明之體。是我凡夫本具性德。故一切教所談行法。無不為顯此之覺體。故四三昧。通名念佛(一常坐即一行三昧二常行即般舟三昧三半行半坐即法華三昧四非行非坐亦名隨自意三昧詳見摩訶止觀)。雖俱念佛。而是通塗顯諸佛體。若此觀門及般舟三昧。託彼安養依正之境。用微妙觀。專就彌陀顯真佛體。雖託彼境。須知依正同居一心。心性徧周。無法不造。無法不具。若一毫法從心外生。則不名為大乘觀也。所言心性具一切法造一切法者。實無能具所具能造所造。即心是法。即法是心。能造因緣。及所造法。皆悉當處全是心性。是故。今觀若依若正。乃法界心觀法境界。生於法界依正色心。是則名為唯依唯正唯色唯心唯觀唯境。故釋觀字用一心三觀。釋無量壽用一體三身。體宗力用。義竝從圓。判教屬頓。寄語行者。觀雖深妙。本被初心。若能進功。何憂不就。縱未入品。為因亦強。生至彼邦。得預大會。所見依正。微妙難思。速入聖階。度生亦廣。況塵境羸強。誠為險處。故須外加事懺。內勤理觀。正助雙行。加願要制。必於寶剎。速證無生。今解觀門。其意在此。禮他所撰述。多指歸淨土。此其最切者。時方詔天下立放生池。禮歲遇佛生日。結放生會。集眾作法。縱諸魚鳥。有司以聞。勅樞密劉筠撰文。立碑院內。天聖六年正月元日。將示寂。建光明懺七日。至五日。結跏趺坐。召大眾說法畢。驟稱阿彌陀佛數百聲。奄然而逝。年六十九。露龕二七日。爪髮加長。闍維時。舌根不壞。若蓮華然(四明教行錄觀經疏鈔佛祖統紀)。

遵式

遵式。字知白。台州寧海葉氏子也。母夢嚙明珠而生式。稍長往東掖山依義全師出家。勤苦自厲。初學律部。繼入國清寺。然指普賢像前。誓傳天台教法。雍熙初。往四明寶雲寺事義通法師。常行方等三昧。積勞嘔血。兩足皮裂。以死自誓。忽見觀音垂手指其口。引出數蟲。又指端出甘露灌之。覺身心清涼。所患頓失。已而頂高寸許。聲如洪鐘。慧辯無礙。通示寂。式反天台。淳化元年。居寶雲。至道二年。結緇素專修淨業。作誓生西方記。咸平中。歸東掖。建精舍。率眾修念佛三昧。祥符七年。應杭人請主昭慶寺。尋赴蘇州講經開元寺。復反杭。主靈山。王欽若判杭州。奏復天竺寺舊名。賜式號曰慈雲。式嘗以天台智者放生故事語欽若。欽若因奏請以西湖為放生池。報可。先後依經撰集諸懺法。圓融三觀。以淨土為歸。又因知府馬亮問道。述往生淨土決疑行願二門。其決疑門略云。佛法有二。一者小乘不了義法。二者大乘了義法。大乘中復有了義不了義。今談淨土。唯是大乘了義中了義之法也。此教詮旨。圓融因果。頓足佛法之妙。經云。十方諦求。更無餘乘。惟一佛乘。斯之謂與。是則十方淨穢。卷懷同在於剎那。一念色心。羅列徧周於法界。竝天真本具。非緣起新成。一念既然。一塵亦爾。故能一一塵中一切剎。一一心中一切心。一一心塵復互周。重重無盡無障礙。一時頓現非隱顯。一切圓成無勝劣。我心既然。生佛體等。此則迴神億剎。實生於自己心中。孕質九蓮。豈逃乎剎那際內。信此圓談。則事無不達。昧斯至理。則觸類皆迷。故云諸佛如來是法界身。入一切眾生心想中。乃至是心作佛。是心是佛。今但直決疑情。令知淨土百寶莊嚴。九品因果。竝在眾生介爾心中。理性具足。方得往生事用隨願自然。免信常流。執此非彼。其行願門文多不載。別有論往生坐禪觀法云。欲修往生觀者。當於一處。繩牀西向。易觀想故。表正向故。跏趺端坐。頂脊相對。不昂不偃。調和氣息。定住其心。然所修觀門。經論甚多。初心凡夫。那能徧習。今從要易。略示二種。於二種中。仍逐所宜。不必併用。其有於餘觀想熟者。任便。但得不離淨土法門。皆應修習。所言二種。一者扶普觀意。坐已。自想即時所修。計功合生極樂世界。當便起心。生於彼想。於蓮華中結跏趺坐。作華合想。作華開想。當華開時。有五百色光來照身想。作眼目開想。見佛菩薩及國土想。即於佛前坐聽妙法。及聞一切音聲。皆說所樂聞法。所聞要與十二部經合。作此想時。大須堅固。令心不散。心想明了。如眼所見。經久乃起。二者直想阿彌陀佛丈六金軀。坐於華上。專繫眉間白毫一相。其毫長一丈五尺。周圍五寸。外有八楞。其毫中空。右旋宛

轉。在眉中間。瑩淨明徹。不可具說。顯映金顏。分齊分明。作此想時。停心注想。堅固勿移。然復應觀。想念所見。若成未成。皆想念因緣。無實性相。所有皆空。一如鏡中面像。如水現月影。如夢如幻。即空即假即中。不一不異。非縱非橫。不可思議。心想寂靜。則能成就念佛三昧。天聖中。別於寺東建日觀庵。送想西方。為往生之業。尋講維摩經畢。與眾訣別。以講席付弟子祖韶。作謝緣詩。示將歸寂。其明年為明道元年。十月八日。有疾。卻醫藥。仍為眾略說法要。令請彌陀像。或以觀音至。禮炷香祝曰。我觀觀世音。前際不來。後際不去。十方諸佛。同住實際。願受我一炷之香。諸佛證明。往生安養。或叩其所歸。對以寂光淨土。至晚坐脫。年六十九。人見大星隕於靈鷲峯。紅光赫然(樂邦文類佛祖統紀蓮宗寶鑑)。

義懷

義懷。姓陳。永嘉樂清人。遊京師。投景德寺為行童。天聖中。試經得度。徧參諸方。依明覺禪師於翠峯。偶汲水折擔。忽大悟。作偈呈覺。覺稱善。其後五坐道場。自鐵佛至天衣。化導甚廣。懷既了法原。仍密修淨土。嘗問學者云。若言捨穢取淨。厭此欣彼。則取捨之情。乃是眾生妄想。若言無淨土。則又違佛語。畢竟如何。復自答云。生則決定生。去則實不去。晚以疾居池陽松山庵。弟子智才住臨平佛日寺。迎歸侍奉。才往蘇州。懷促之歸。別眾而逝。年七十二(僧寶傳樂邦文類)。

本如

本如。明州句章人。少依法智法師。善詞翰。嘗請益經義。法智曰。為我作知事三年。卻向汝道。三年復請。法智厲聲一喝。復呼曰。本如。如豁然有省。以頌呈。法智肯之。祥符四年。主東山承天寺。大振法道。歷三十年。講法華涅槃光明觀無量壽等經。及天台教觀。至六七遍。嘗集百僧修法華長懺一年。瑞應屢見。寶歷二年。賜號神照法師。與丞相章得象諸賢結白蓮社。仁宗欽其道。賜名白蓮寺。皇祐三年五月十八日。微疾。升堂說法。與眾訣別。遂逝。年七十。時江上漁人見雲端有僧西向去。天氣盛暑。異香非常。明年。門人啟鑰貌如生。有大蓮華產於塔前(佛祖統紀)。

仁岳

仁岳。字潛夫。姓姜。雪川人。聞法智南湖之化。往而學焉。久之。豁然有得。又與十同志修請觀音三昧。宴坐靜室。恍如夢覺。後歷主杭州叢席。大宏法化。年老還鄉主祥符。賜號淨覺。晚年專修淨業。然三指供佛。持律至嚴。治平元年三月二十四日。謂門人曰。吾翌日午刻當行。及明日。留偈安坐而逝。嘗著彌陀經疏二卷。又作指歸記二卷以釋之。其後三十年。寺眾夢岳謂宜遷塔。及開龕。色身不壞。舍利盈滿。遂具禮葬焉(佛祖統紀)。

處謙

處謙。姓潘。永嘉人。母夢瑞雲入懷。娠三年始生。依常寧寺契能出家。祥符初得度。即往學於天竺。慈雲深器之。復謁神照如法師。大明圓頓之旨。未幾居首座。尋歸主常寧。歷慈雲妙果赤城慧林淨住南屏天竺。十坐道場。閱四十年。講唱不倦。登門者三千人。賜號神悟。熙寧八年四月十五日。晨興。沐浴更衣。集眾諷普賢行法。阿彌陀經。頃之升座。稱讚淨土功德。復告眾曰。吾得無生日用久矣。今以無生而生淨土。寂然而逝(佛祖統紀)。

慧才

慧才。姓王。永嘉樂清人。祥符初得度。年十三。受具戒。往學於四明。自恨昏鈍。常持大悲呪。忽夢一梵僧長數丈。脫袈裟被之。翌日臨講。豁然開悟。前後所聞。一時洞曉。後謁慈雲。北面服勤。旦夜不替。治平初。住法慧寶閣。賜號廣慈。未久。退居雷峯塔下。每翹足誦大悲呪百八為課。又翹足一晝夜。誦彌陀佛號。一夕夢至寶閣宮殿。有告之曰。淨土中品。汝所生也。元豐元年春。為道俗千人授大戒於雪峯。方羯摩。觀音像頂放光明。燈炬日光。皆為映奪。淨慈守一禪師為作戒光記。六年五月二十一日。更衣就座。書偈贊佛畢。曰。吾生淨土決矣。泊然而往。年八十六(佛祖統紀釋氏稽古略)。

靈照

靈照。姓盧。蘭溪人。出家寶慧寺。未朞月。通法華光明二經。數歲往錢塘依香巖湛師學教觀。復往吳興依淨覺岳師。台宗戶牖無不通曉。元豐中。主吳山解空寺。繼遷景德寺。熙寧中。遷華亭超果寺。先後數歲中。遇春首。必開淨業社。與者二萬人。輒多獲驗。嘗於夢中見三聖儀相。跪而問曰。靈照一生誦大乘經。期生安養。

克果願否。觀音指曰。淨土不遠。有願即生。又誦經深夜。忽夢普賢示身。遂發心造普賢像。誦經萬部。以嚴淨業。元祐五年冬。臥疾。謂侍者曰。吾安養之期已至。遂面西累足而化。闍維。異香襲人。舍利流迸(佛祖統紀)。

思義

思義。字和甫。姓凌。湖州武康人。試法華經第一得度。依明智韶法師學。悟解過人。修四三昧行。頸上生一肉瘻。夜夢功德天食之以桃。其疾即消。熙寧四年。賜紫服。號淨慧。丞相蘇頌帥杭。請師居天竺。大振道法。元祐三年二月十八日。中夜。忽跌坐別眾而逝。眾誦念久之忽蘇曰。適隨觀音大士行。見金色人長身垂臂。謂我曰。汝報緣未盡。過七日當來迎。至二十五日。復跌坐而化。瘞龕之日。有赤雲垂布。如引導狀。向西而沒(佛祖統紀)。

宗蹟

宗蹟。襄陽人。父早亡。母陳氏。鞠養於舅氏。少習儒業。博通世典。年二十九。禮真州長蘆秀禪師出家。深明宗要。元祐中。住長蘆寺。迎母於方丈東室。勸母雜染。持念阿彌陀佛。始終七載。母臨終無疾。念佛而逝。蹟自謂報親之心盡矣。乃遵廬山之規。建蓮華勝會。普勸僧俗。習西方妙觀。其次專持佛名。迴向發願。期生淨土。自為文以唱之曰。夫以念為念。以生為生者。常見之所失也。以無念為無念。以無生為無生者。邪見之所惑也。念而無念。生而無生者。第一義諦也。是以實際理地。不受一塵。則上無諸佛之可念。下無淨土之可生。佛事門中。不捨一法。則總攝諸根。蓋有念佛三昧。還原要術。示開往生一門。所以終日念佛而不乖於無念。熾然往生而不乖於無生。故能凡聖各住自位。而感應道交。東西不相往來。而神遷淨刹。此不可得而致詰也。故經云。若人聞說阿彌陀佛。執持名號。乃至是人終時。心不顛倒。即得往生阿彌陀佛極樂國土。夫如來世尊。雖分折攝二門。現居淨穢兩土。然本聖之意。豈直以娑婆國土。邱陵坑坎。五趣雜居。土石諸山。穢惡充滿。以是為可厭。極樂世界。黃金為地。行樹參空。樓聳七珍。華敷四色。以是為可欣。蓋以初心入道。忍力未淳。須託淨緣。以為增上。何則。娑婆國土。釋迦已滅。彌勒未生。極樂世界。阿彌陀佛。現在說法。娑婆國土。觀音勢至。徒仰嘉名。極樂世界。彼二上人。親為勝友。娑婆國土。諸魔競作。惱亂行人。極樂世界。大光明中。決無魔事。娑婆國土。邪聲撓亂。女色妖姪。極樂世界。

水鳥樹林。咸宣妙法。正報清淨。實無女人。然則修行緣具。無若西方。淺信之人。偏生疑謗。竊嘗論之。此方之人。無不厭俗舍之喧煩。慕蘭若之寂靜。故有捨家出家。則殷勤贊歎。而娑婆眾苦。何止俗舍之喧煩。極樂優游。豈直蘭若之寂靜。知出家為美而不願往生。其惑一也。萬里辛勤。遠求知識者。誠以發明大事。決擇死生。而彌陀世尊。色心業勝。願力洪深。一演圓音。無不明契。願參知識。而不欲見佛。其惑二也。叢林廣眾。皆樂棲遲。少眾道場。不欲依附。而極樂世界。一生補處。其數甚多。諸上善人。俱會一處。既欲親近叢林。而不慕清淨海眾。其惑三也。此方之人。上壽不過百歲。而童癡老髦。疾病相仍。昏沈睡眠。常居大半。菩薩猶昏隔陰。聲聞尚昧出胎。則尺璧寸陰。十喪其九。而未登不退。實為寒心。西方之人。壽命無量。一託蓮胞。更無死苦。相續無間。直至菩提。所以便獲阿惟越致。佛階決定可期。流轉娑婆促景。而迷於淨土長年。其惑四也。若乃位居不退。果證無生。在欲無欲。居塵不塵。方能興無緣慈。運同體悲。迴入塵勞。和光五濁。其有淺聞單慧。或與少善相應。便謂永出四流。高超十地。詆訶淨土。耽戀娑婆。掩目空歸。宛然流浪。竝肩牛馬。接武泥犁。不知自是何人。擬比大權菩薩。其惑五也。故經云。應當發願。願生彼國。則不信諸佛誠言。不願往生淨土。豈不迷哉。若夫信佛言而生淨土。則界繫之所不能拘。劫波之所不能害。謝人間之八苦。無天上之五衰。尚無惡道之名。何況有實。唯顯一乘之教。決定無三。歸依一體三寶。奉事十方如來。佛光照體。萬惑潛消。法味資神。六通具足。三十七品助道法。應念圓成。三十二應隨類身。徧塵刹土。周旋五越。普被諸根。不動一心。徧行三昧。灑定水於三千。引眾生於火宅。自利利他。皆悉圓滿。然則唯心淨土。自性彌陀。蓋解脫之要門。乃修行之捷徑。是以了義大乘。無不指歸淨土。前賢後聖。自他皆願往生。凡以度人。先須自度故也。嗚呼。人無遠慮。必有近憂。一失人身。萬劫深悔。故率大海眾。各念彌陀佛。百聲千聲。乃至萬聲。迴向同緣。願生彼國。竊冀蓮池勝會。金地法明。綺互相資。必諧斯願。操舟順水。更加櫓棹之功。十萬之遙。可不勞而至也。蹟一夕夢一烏巾白衣。風貌清美。可三十許。揖謂蹟曰。欲入蓮華會。求書一名。蹟乃取會錄問曰。何姓名。答曰。普慧。書已。白衣又云。家兄亦求書一名。曰令兄何名。答曰普賢。言訖遂隱。既覺。謂諸耆宿曰。華嚴經離世間品。有普賢普慧二菩薩。助揚佛法。吾今建會。共期西方。感二大士幽贊。乃以二大士為會首。於是遠近皆嚮化焉(蓮宗寶鑑樂邦文類)。

元淨

元淨。字無象。姓徐。杭州於潛人。十歲出家。稍長。就學於慈雲。慈雲沒。復事明智。聞講止觀。悟第一義。應太守呂臻請。住大悲閣。賜號辯才。遷主上天竺。尋退隱南山之龍井。時賢蘇軾趙忬輩。欽其德器。屢致褒詠。已復主靈山慈雲講席。說法晝夜無間。居常精修淨土。未嘗暫歇。焚指供佛。左三右二。嘗禱大士求放光。光即隨現。一日與僧熙仲同食。仲視淨眉間有光如螢。攬之得舍利數粒。後常有於臥處得舍利者。將示寂。乃入方圓庵晏坐。謝賓客。止飲食。語僧道潛曰。吾淨業已成。七日無障。所願遂矣。及七日。出偈示眾。右脅而化。年八十一。時元祐六年九月晦也(佛祖統紀樂邦文類)。

從雅

從雅。錢塘人。始從海月辯法師學止觀。後入南山天王院。誦法華經五藏。金剛般若經四藏。彌陀經十藏。禮舍利塔千徧。禮釋迦三十萬拜。彌陀百萬拜。佛號五千萬聲。禮法華一字三拜者三過。心期淨土。一生坐不背西。無為楊傑述安樂國讚三十首以贈。雅欲發起眾信。遂於淨住寺圖九品三輩。刻傑讚於石。或奏雅道行。賜號法寶。一日無病。面西趺坐而逝。天樂鳴空。室有異香(佛祖統紀)。

可久

可久。不詳其所出。居明州。常誦法華。願生淨土。人號為久法華。元祐八年。年八十一。坐化。越三日。還謂人曰。吾游淨土。見諸勝境。與經符契。此間修淨業者。蓮華臺上。皆已標名。標金臺者。一成都廣教院勳公。一明州孫十二郎。一可久。標銀臺者。一明州徐道姑。言訖。復化去五年。徐道姑亡。異香滿室。十二年。孫十二郎亡。天樂迎空。久言悉驗(淨土文)。

擇瑛

擇瑛。姓俞。嚴州桐江人。出家於杭州壽寧寺。熙寧中。參神悟法師。深悟止觀之道。閱不二門金鑰。不寢者數月。當湖魯氏創一院以迎瑛。大開法施。久之。遨遊杭秀蘇湖間。嘗作往生淨土十願文曰。願我永離三惡道。願我速斷貪瞋癡。願我常聞佛法僧。願我勤修戒定慧。願我恒隨諸佛學。願我不退菩提心。願我速見阿彌陀。願我決定生安養。願我分身徧塵刹。願我廣度諸眾生。元符二年

春。於杭之祥符寺示疾。俄奮身凭几西向。誦阿彌陀經。卷終而逝
(樂邦文類佛祖統紀)。

宗本

宗本。字無喆。姓管。常州無錫人。出家後。參天衣懷禪師。念佛有省。後居杭州淨慈寺。歲大旱。湖井皆竭。寺西隅忽湧甘泉。得金鱧魚。浚為井。寺僧千餘。賴以汲飲。張氏有女死。母夢女為蛇。既覺。得蛇棺下。持詣本為說法。俄有黑蟬翔棺上。而蛇失所在。母祝曰。若吾女者。可入籠中。當再持詣淨慈。如其祝。本復為說法。是夕。女見夢曰。二報已解脫矣。母因問生死輪迴。是信有之。何以得免。女曰。六道四生。如井上轆轤。無一人可免。唯修出世法。當得脫耳。盍問淨慈法主乎。其顯化類如此。本奉詔入東京慧林寺。召對稱旨。賜號圓照禪師。平時密修淨業。時雷峯才法師。神遊淨土。見一殿殊麗。人曰。以待淨慈本禪師耳。又資福曦公至慧林。禮足施金而去。人詰其故。曰。吾定中見金蓮華。人言以俟慧林本公。其他蓮華無數。云以待受度者。或有萎者。云是退墮人也。晚居蘇州靈巖寺。元符間。將示寂。沐浴而臥。弟子環擁請偈。本熟視曰。癡子。我尋常尚懶作偈。今日作甚麼偈。尋常要臥便臥。今日亦何須特地坐也。乃索筆書後事付守榮。擲筆而逝。若熟睡者然(佛祖統紀蘇州府志)。

有巖

有巖。姓胡。台州臨海人。六歲依靈鷲從師。十四受具。往東山學於神照。契一心三觀之旨。修法華三昧。旋主赤城寺。紹聖中。隱故山東峯。廬於檀木之旁。因自號檀菴。巖護戒律。一鉢之餘。不畜分寸。所修三昧。每現瑞應。專事淨業。其所論述。多激勸往生。或問生欲天者。十善為因。生色天者。禪定為因。生淨土者。必須修無生妙觀。乃可得耳。今之學者。都懵教旨。謂生天難而生淨土易。又孰信乎。答曰。法無難易。難易在人。難者疑情。咫尺萬里。易者信心。萬里咫尺。所云修無生妙觀得生者。此乃上品往生之一門耳。然不可關一門而塞多門。安樂集云。生淨土者有二種。一有相心。謂著相欣樂。二無相心。謂理觀相應。若今之世。中下鈍根。愚迷障重。待理觀相應方生者。或少矣。原夫佛慈接物。方便多門。有定散之善焉。有佛法之力焉。有事福而假願力迴向焉。有垂終劇怖而賴求救焉。如是等類。百千萬數。但藉其一。必得往生。定善者修心妙觀。首楞嚴定是也。散善者。如無量壽經

十念念佛。亦得往生。是也。佛力者。緣阿彌陀佛大悲願力。攝取念佛眾生。眾生承佛願力。即得往生。如劣夫從轉輪王。一日一夜。周行四天下。非其自力。輪王之力也。法力者。如佛告蓮華明王菩薩。令誦灌頂神呪。加持沙土。散亡者尸。或亡者墓。彼之亡者。或墮地獄餓鬼畜生中。承是真言。生極樂國。是也。事福假迴向者。慈心不殺。具諸戒善。受持秘呪。讀誦大乘。種種福善。迴向莊嚴。成淨土因。得生極樂。是也。垂終求救者。臨命終時。火車相現。稱佛力故。猛火化為清涼風。如僧雄俊及張鍾馗。一稱佛號。俱生淨土。是也。是故。經云諸小行菩薩及修小功德者。不可稱計。皆當往生。佛曰易往。子曰難生。乍可順教而談易往。開人解脫之門。不須執迷而說難生。塞彼菩提之路。建中靖國元年孟夏。一日天神降空中謂曰。師淨業成矣。又夢池中大蓮華。天樂圍繞。乃作自餞詩示眾。後七日跏趺而化(佛祖統紀樂邦文類)。

妙生

妙生。會稽人。習律學。勤修淨土之業。與大通本禪師。居潮山象塢。共明此道。一夕會門人諷彌陀經。就榻端坐。焚香合掌。嗒然而化(佛祖統紀)。

曇異

曇異。姓杜。餘姚人。皇祐間得度。習教觀於天竺明智。後入雷峯廣慈之室。孜孜叩擊。二十年無倦志。學成歸里。敷講故山。專勤淨業。誦法華至五千部。普賢彌陀各萬卷。崇寧元年秋。示疾。集眾告曰。吾生淨土時至。當乘金臺。隨佛西邁。即澡身端坐。結印而逝。火餘。舌根舍利。如貫珠然(佛祖統紀)。

善本

善本。姓董。開封人。母無子。禱佛乃生。及長。試華嚴經得度。為圓照本師弟子。時號大小本。奉詔住上都法雲寺。賜號大通。後歸杭州象塢寺。杜門卻掃。專修淨業。有僧定中見方丈彌陀佛示金色身。大觀三年十二月甲子。屈三指。告門人曰。止有三日在。至期。跏趺坐面西而化(佛祖通載佛祖統紀)。

宗坦

宗坦。姓申。潞州黎城人。年十六。落髮受具。少通義學。長而遍訪名師。垂五十年。名播講林。晚於唐鄧汝潁之間。講淨土觀經。勸人念佛。求生安養。聽者如雲。皆稟淨業。後於唐州青臺鎮。誓求安養。持名作觀。未嘗暫忘。政和四年四月二十七日。夢中見阿彌陀佛告曰。汝說法止六日。當生淨土。覺而白眾。次日講唱不輟。至五月四日後夜。自知時至。鳴鐘集眾。告曰。因緣聚散。固當有時。淨土勝緣。豈宜錯過。願眾念佛。助我往生。又曰。享年七十六。四大分離處。淨土禮彌陀。永超三界苦。言已坐脫。滿室雷鳴。白雲覆地。從西而來。三日方歇(蓮宗寶鑑)。

中立

中立。姓陳。明州鄞人。九歲。出家於甬東棲心寺。受諸經卷。過目不忘。治平中。試經得度。初依廣智學教觀。及神智繼主南湖。復依之。座下二百人。無出立右者。神智謝事。立繼其席。常以淨業誘人。命其徒介然創十六觀堂。以延淨業之士。已而謝去。未幾。重興寶雲寺。又退居白雲庵。日宣止觀法門。著述頗眾。應眾請重主南湖。升座說法。開牖無盡。前後誦淨名光明數十過。誦法華逾萬部。為人祈禳輒驗。政和五年四月辛亥夕。忽謂門人法維曰。聞異香否。即集眾含笑言曰。吾往生期至。面西坐逝(佛祖統紀)。

元照

元照。字湛然。姓唐。餘杭人。初依東藏慧鑒律師。專學毗尼。後從神悟謙師。講天台教觀。謙勗以究明法華為本務。復從廣慈才法師受菩薩戒。戒光發見。乃博究南山一宗。杖錫持鉢。乞食於市。晚主靈芝三十年。傳戒度僧及六十會。篤意淨業。每曰。生宏律範。死歸安養。平生所得。唯二法門。嘗集淨業禮懺儀。自為序曰。元照自下壇來。便知學律。但稟性庸薄。為行不肖。後遇天台神悟法師。苦口提誨。始知改跡。深求祖教。博究佛乘。於是發大誓願。常生娑婆五濁惡世。作大導師。提誘羣主。令人佛道。復見高僧傳慧市法師云。方土雖淨。非吾所願。若使十二劫蓮華中受樂。何如三塗極苦處救眾生也。由是堅持所見。歷涉歲年。於淨土門。略無歸向。見修淨業。復生輕謗。後遭重病。色力痿羸。神識迷茫。莫知趣向。既而病差。頓覺前非。悲泣感傷。深自克責。志雖洪大。力未堪任。仍覽天台十疑論。初心菩薩。未得無生忍。要須常不離佛。又引智度論云。具縛凡夫。有大悲心。願生惡世。救

苦眾生。無有是處。譬如嬰兒。不得離父母。又如弱羽。祇可傳枝。自是盡棄平生所學。專尋淨土教門。二十餘年。未嘗暫舍。研詳理教。披括古今。頓釋羣疑。愈加深信。復見善導和尚專雜二修。若專修者。百即百生。若雜修者。萬千一二。心識散亂。觀行難成。一志專持四字名號。幾生逃逝。今始知歸。仍以所修。展轉化導。盡未來際。洪贊何窮。方便多門。以信得入。如大勢至。以念佛心。獲悟圓通。入三摩地。復自思念。已前所造無量罪業。不信淨土。謗法毀人。業因既成。苦果必就。內懷慚恥。曉夕兢惶。於是躬對聖前。吐露肝膽。五體投地。苦到懺悔。仍發大願。普攝眾生。同修念佛。盡生淨土。欲常修習。須立軌儀。故集諸文。布成此法。從始至末。第列十門。竝準聖言。咸遵古式。事從簡要。法在精專。後賢披覽。知我志焉。又撰十六觀經小彌陀義疏。其外著述累數百卷。政和六年秋。命弟子諷觀經及普賢行願品。趺坐而化。西湖漁人。皆聞空中天樂聲(樂邦文類佛祖統紀西湖高僧傳事略)。

法宗

法宗。姓顏。錢塘人。十歲出家。依廣慈才法師。專研教觀。十九。從廣慧初法師。服勤十年。後歸侍廣慈。依止觀修大悲三昧。綿歷九載。凡有禱祈。悉獲靈應。嘗與天竺光明懺期。至五日。禪觀中。忽見慈雲法師。侍僧數十。宗作禮問曰。自昔同修者。皆得生淨土否。慈雲曰。元照已得往生。擇瑛尚欲宏經惡道。汝宜勤修以成本願。宗歸建淨土道場。刻西方三聖像。然五指供佛。每月集四十八人。同修淨業。名卿賢士。多預其會。政和七年春。微疾。夢彌陀聖眾。授手接引。後三日。沐浴易衣。盥口。寂然而逝(佛祖統紀)。

了然

了然。姓薛。臨海人。母患無子。禱於寺。夢僧授以蓮華。令食之。曰汝生子必出家。未幾生子。稍長。遂令出家。十六受具。從安國慧法師學教觀。慧解驟發。夢泛海。見觀世音。坐山上竹林間。因說百偈以讚。覺憶其半。自是頓發辯才。後住白蓮寺。講演天台教觀。二十餘年。日唯一食。常坐達旦。一夕夢二龍戲空中。一化為神人。從空中下。於衣袖出簡示云。師七日當行。既寤。搥鼓集眾說法。垂囑後事。已而大書曰。因念佛力。得生極樂。凡汝諸人。可不自勉。即沐浴更衣。與眾同聲誦阿彌陀經。至西方世

界。倏然而化。眾聞天樂盈空。祥光燭天表。弟子與咸有空二人亦修淨業。皆念佛坐脫(佛祖統紀明高僧傳)。

智仙

智仙。姓李。仙居人。幼不樂世俗。出家遊學至天竺。得三觀之旨於首座明義。還鄉依白蓮慧師聽講止觀。大有發明。竟嗣其席。常時繫念。唯在淨土。或曰。法華三昧。一土一切土。一身一切身。一佛一切佛。何不依止觀修法華三昧。而沾沾往生為。仙曰。荊溪云。分別功德品中。直觀此土。四土具足。故此佛身。即三佛身。此大眾。即一切眾。以惑未斷故。須修同居淨土。問者云。同居類多。何必極樂。仙曰。教說多故。宿緣厚故。令專住故。佛願攝故。仙住白蓮寺講道十三年。西向禮念。未嘗少廢。覺微疾。別諸外護。還寺易牀西向。設彌陀像。請觀堂行人誦彌陀經。卷未終而坐脫。比鄰能仁寺僧。皆聞念佛聲沸天。仙樂盈耳。黎明乃知仙亡(佛祖統紀)。

智深

智深。姓沈。嘉禾人。初依海月辯法師學教觀。既成。歸嘉禾崇福西寺。建光明期懺會。二十年如一日。行業上聞。賜號慈行。平居專志淨土。勸人稱佛號。從其教者。往往得顯驗。政和五年六日。示疾。客至。談論如常。客方出。已坐脫矣。人共見紫雲向西而沒。茶毗日。異香襲人。舍利無算(佛祖統紀)。

思照

思照。姓陽。錢塘人。十四歲。從淨住從雅聽法華方等於南屏。復往東掖參神悟。大有契入。刺血書法華經。一字一禮。如是十過。誦十六觀經五藏。彌陀經十藏。法華經一千部。禮華嚴梵網淨土七經等凡二百七十卷。專修念佛三昧。築小庵曰德雲。刻三聖像。每夜四更即起唱佛。懈怠比邱。聞聲悚愧。又於月二十三日。率道俗繫念三聖。常及千眾。凡三十年。一日語其徒曰。夜夢佛金身丈六。此往生之兆也。乃日請七僧助念。至七日晚。涌身合掌。厲聲唱佛。跌坐結印而化。時宣和元年春也。闔維。牙齒明瑩。如玉石然(佛祖統紀)。

若愚

若愚。姓馬。海鹽人。學教於辯才淨法師。居龍井久之。後於湖之仙潭。營室接待僧眾。建無量壽佛閣。勸道俗念佛。來者嘗數百人。三十年中。預會諸賢。臨沒時。多有瑞應。或奏愚道行。賜號法鑑。

釋則章與愚為友。同修淨行。章既歿。愚夢神人告曰。汝同學則章。得普賢行願三昧。已生淨土。彼方待汝。愚乃沐浴更衣。命眾諷觀無量壽佛經。端坐默聽。誦畢。忽云淨土現前。吾其往矣。遽書偈而化。偈曰。本自無家可得歸。雲邊有路許誰知。溪光搖落西山月。正是仙潭夢斷時。又曰。空裏千花羅網。夢中七寶蓮池。踏得西歸路穩。更無一點狐疑。時靖康元年九月也。年七十二。闍維。得舍利數百粒(佛祖統紀)。

仲閔

仲閔。衢州人。受業祥符寺。後依南文法師。以雄辯見稱。政和初。還鄉居浮石山。學者驟至。嘗言吾座下不五百眾。不講大部。故一生唯講光明觀音。順寂之日。集眾昇堂。登師子座。方趺坐。忽見銀臺自西至。閔曰。吾平生解第一義。願取金臺。今何不然。瞑目而化(佛祖統紀)。

介然

介然。明州鄞人。受業福泉山延壽寺。時明智立法師居南湖。從之學教觀。元豐初。專修淨業。三載期滿。謂同修者曰。念佛三昧。往生要法也。乃然三指。誓建十六觀堂。中設西方三聖像。環以池蓮。工竣。復然三指以報佛恩。建炎四年正月七日。金兵至明州。寺眾盡散。然獨不去。兵至。訶之曰。不畏死邪。然曰。貧僧一生願力。建此觀堂。今老矣。不忍舍去以求生也。金兵義之。謂曰。為我歸北地。當作觀堂。似此規制。遂強之行。後人以去日為之忌。尊之曰定慧尊者。立像於觀堂之側(佛統祖紀)。

淨土聖賢錄卷三

淨土聖賢錄卷四

往生比丘第三之三

齊玉

齊玉。姓莫。霽川人。早歲出家。日記數千言。始參祥符神智。後依慈辯。受一心三觀之旨。出居苕溪寶藏寺。每歲終。大興淨業社。遷橫山。立丈六像。率道俗修行。中夜告眾曰。我輩未念佛時。作諸不善。其罪無量。犯一吉羅。尚受九百千歲地獄之苦。況犯篇聚重罪乎。唯有一心念佛。則念念中能滅八十億劫生死之罪。庶得出離地獄。成就莊嚴。況父母生我。令我出家。唯望度脫。以報重恩。若破戒墮陷。何以為人。何以為子。大眾聞者。無不傾誠懺悔。舉身自撲。或損額失聲。宣和六年。遷居上竺。嘗中夜頂像行道。有僧失規。責之曰。汝無知。乃畜生耳。已而悔曰。彼雖不肖。呵以畜生。有玷三寶。自是對佛悔過者三年。建炎元年秋。謂首座修慧曰。牀前多寶塔現。非吾願也。所願見阿彌陀佛耳。可為我集眾念佛。首座鳴鐘集眾。僧至百餘人。玉舉首加敬曰。佛來也。端坐合掌而化(佛祖統紀)。

蘊齊

蘊齊。字清辯。姓周。錢塘人。幼試經得度。傳教觀於法明會賢師。嘗患疫。百藥不治。遂力課觀音尊號。夢一女人以鑿開其胸。易其心。以手摩之。患即愈。疇昔所覽靡不通曉。走筆成章。率歸典雅。歷主蘇杭諸方丈。晚歸常熟上方。建炎四年正月。集眾諷彌陀經。稱佛號而化。荼毗獲舍利。起塔上方(佛祖統紀)。

道言

道言。會稽人。靈芝元照之弟子也。專修淨業。臨終數日前。見二神人長丈餘。謂言何不繫念。於是大集道俗。稱佛名三晝夜。將畢。自昇座說法。為眾懺悔。至曉。即座而化(佛祖統紀)。

元肇

元肇。姓陸。明州人。蚤歲習律。閱大藏。誦蓮經萬部。又刺血書蓮經一部。律宗諸疏三部。建炎四年。金兵破明州。肇時住湖心

寺。金兵強之北行。至南徐。謂左右曰。吾將西歸矣。即聞笙歌聲。西望念佛而化(佛祖統紀)。

思淨

思淨。姓喻。錢塘人。受法華於德藏瑛法師。既悟厥旨。復潛心淨觀。專志念佛。日課觀經。大觀初。於府治北關創精舍。飯僧三百萬。因擴舍為寺。接待僧侶。宣和初。遇亂。直造賊壘。願以身代一城之命。賊悚然。為之少戢。素善畫佛。每畫。先於淨室念佛。注想久之。乃下筆。一日畫丈六像。忽見佛光。良久乃滅。眾皆瞻禮。世因呼為喻彌陀。或問淨何不參禪。答曰。平生只解念彌陀不解參禪可奈何。但得五湖風月在。太平不用起干戈。紹興七年冬。端坐想佛。經七日。忽起然香供佛。歸坐跏趺而化。頂上經七日猶暖。異香不散(佛祖統紀西湖高僧事略)。

如湛

如湛。姓焦。永嘉人。母夢見寶塔而湛生。幼試法華得度。依車溪卿法師。後參慧覺玉法師於橫山。晝夜體究。盡通教觀。初主車溪壽聖寺。講餘課法華經一部。佛號二萬聲。有求為知事者。不見用。其人懷憾。挾刃入室。見達官滿座。惶恐而退。次夜復入。則昏暗無路。又一夕復入。則見湛分身十餘。皆同一狀。遂駭走。其後私以告人。人亦以是神之。湛少睡。夏月坐草莽中。口誦法華。袒身施蚊。門人謂湛年高。宜少息。湛曰。翾飛之類。安得妙乘。所冀啜我血。開我經。以結淨緣耳。後人表其處為餒蚊臺。晚歲謝事。閒居小庵。日熏淨業。紹興十年七月。念佛如常。端坐而化。闍維。得五色舍利。著有淨業記釋觀經疏等書(佛祖統紀)。

宗利

宗利。姓高。會稽人。七歲。受業於天華。既具戒。往蘇州依神悟。即入普賢懺室。要期三載。忽夢亡母謝曰。蒙汝懺功。已生善處。又見普賢從空而過。懺畢。復往靈芝謁大智律師。增受戒法。嘗於定中神遊淨土。見寶池蓮華寶林境界。尋詣新城碧沼寺。專修念佛三昧。閱十年。復遊天台雁蕩天封。皆建淨土道場。晚歸天華。建無量壽佛閣。建炎末。入道味山。題所居曰一相庵。紹興十四年正月。謂弟子曰。吾見白蓮華徧滿空中。越三日。復曰。佛來矣。即書偈曰。吾年九十頭雪白。世上應無百年客。一相道人歸去

來。金臺坐斷乾坤窄。端坐而逝。是日近山人見異僧滿山。不知所自云(佛祖統紀)。

道琛

道琛。姓彭。溫州樂清人。年十八。受具戒。初學律儀。已而從淵師於法明寺。微言妙旨。一聞便領。尋主廣濟寺。遷廣慈。建炎三年。勅主資福院。賜號圓辯。專修念佛三昧。作唯心淨土說。略云。或問唯心淨土。本性彌陀。為當往生。為即心是。若往生者。何謂唯心。若即心是。何故經云過十萬億佛土邪。答曰。當知十界四土。若淨若穢。不離我心。此但直具而已。若達全具為徧。徧彼生佛。彼彼生佛。互徧亦爾。趣舉一法。是法界之大都。互具各具。互融互攝。參而不雜。離亦不分。一多自在。不相留礙。夫如是者。豈有娑婆釋迦樂邦彌陀而離我心邪。故輔行曰。學者縱知內心具三千法。不知我心徧彼三千。彼彼三千。互徧亦爾。苟順凡情。生內外見。應照理體。本無四性。心佛眾生。三無差別。今更以譬喻顯之。如彼帝釋殿上。千珠寶網。眾珠之影。映在一珠。一珠具足眾珠。彼彼千珠。互映亦爾。現前一心。即是千珠中一。彼彌陀佛土。亦是千珠中一。所有十界眾生。趣舉一界皆是千珠中一。既我一珠能映眾珠。我心之外無復眾珠。則離我心外無別淨土。何故爾邪。以釋迦亦是一珠。既舉一全收。豈心外有法。故曰唯心淨土。本性彌陀也。若爾唯心而已。何云淨土。須知體非因果。一念唯心。迷悟既殊。因果宛爾。彌陀果悟。我等因迷。忻厭心生。順佛勸往。故云唯心。又稱淨土矣。然則既有取捨忻厭。莫成虛偽邪。曰。當知圓人。捨則捨穢究盡。三土九界皆捨。取則取淨窮原。直取上品寂光。故妙宗曰。取捨若極。與不取捨。亦非異轍。良由寂光不離三土。十界只是四土耳。若以四眼二智觀之。則萬像森羅。三土九界須捨。若以佛眼觀之。則真空冥寂。非離三土九界。別有寂光。非寂光外。別有娑婆。如古德曰。只緣即心是佛。須假修行者。乃此意也。若了唯心本性。只一三千融妙之法。十萬遐方。皆不為礙。何以故。以心具故。以三千故。以融攝故。故得如斯。以上略提梗槩。若欲深證此理。須除情想。一日禪定中。見一老僧坐禪榻上。顧謂琛曰。吾四明法智也。琛驚喜作禮。問曰。道琛於一家法相。未能通達。乞垂指教。老僧首肯之。覺而心地豁然。慧辯日進。自是言教觀者皆稟焉。紹興十二年。主南湖。行法華三昧。感普賢放光。建淨土繫念會。於月二十三日。集道俗念佛至萬人。二十三年十二月十六日。集眾諷觀經。晝夜不絕。眾聞異香盈室。琛曰。佛來接我。即沐浴更衣。書偈曰。唯心

淨土。本無迷悟。一念不生。即入初住。令諷安樂行品。未終。嗒然坐逝。留龕彌月。貌如生(佛祖統紀樂邦文類)。

子元

子元。平江崑山人。茅氏子。母柴氏。夜夢一佛入門。次日生元。因名佛來。投延祥寺出家。習止觀。定中聞鴉聲大悟。自後棲心安養。自號萬事休。逆順境中。未嘗動念。慕廬山遠公蓮社遺風。勸人皈依三寶。受持五戒。念阿彌陀佛五聲。以證五戒。普結淨緣。欲令世人淨五根得五力出五濁也。乃集大藏要言。編成晨朝懺儀。代為法界眾生。禮佛懺悔。期生安養。後往澱山湖。創立白蓮懺堂。同修淨業。述圓融四土三觀選佛圖。開示蓮宗眼目。又作勸人發願偈云。萬法從心生。萬法從心滅。我佛大沙門。常作如是說。持戒無信願。不得生淨土。唯得人天福。福盡受輪迴。輾轉難脫離。看經無慧眼。不識佛深意。後世得聰明。亂心難出離。不如念佛好。現世無名利。行坐不多羅。則是阿彌陀。發願持戒力。迴向生樂國。如是各行持。千中不失一。釋迦金口說。彌陀親攝受。諸佛皆護念。諸天善護持。見此念佛人。與佛不相遠。應當坐道場。轉於大法輪。普度無邊眾。譬如貧家女。腹孕轉輪王。諸天常愛護。貧女自不知。腹中有貴子。今此念佛人。其意亦如是。憶佛常念佛。不久當成佛。諸佛善護持。其人自不知。我當生淨土。却要來後世。再得生人中。譬如貧人家。地內有伏藏。藏神常守護。不令其有失。貧人自不知。家內有寶藏。逐日趁客作。求衣食自濟。今此念佛人。其意亦如是。不知念佛人。具足如來藏。自說我無分。反要生人中。譬如病人家。自有真妙藥。不知妙藥性。不能自治病。每日牀枕邊。痛苦受無量。今此念佛人。其意亦如是。不知念佛心。能滅貪嗔癡。能為大醫王。能為大寶藏。利濟一切人。能為大法王。覆護一切眾。將謂是凡夫。不得生淨土。且自持齋戒。後世願為人。輾轉更修行。方可生彼國。多見修行人。常作如是說。不稱彌陀願。不合淨土經。邪見障覆心。畢竟難出離。非是他障。皆是自障心。今世不得生。一蹉是百蹉。勸汝修行人。信我如來說。佛無不實語。豈是虛誑言。但當自精勤。一心求淨土。因風吹於火。用力不消多。幸有念佛心。回願超三界。逢寶不取寶。遇食苦長飢。咄哉大丈夫。不見真實意。我今略勸讚。輾轉傳與人。代我廣流通。作於如來使。真是諸佛子。真名報佛恩。普願如說行。同生極樂國。乾道二年。詔至德壽殿。演說淨土法門。賜號慈照宗主。三月二十三日。於鐸城倪普建宅。告諸徒曰。吾化緣已

畢。時當行矣。合掌辭眾。奄然示寂。二十七日荼毗。舍利無數。嘗集彌陀節要行於世(蓮宗寶鑑)。

妙雲

妙雲。字慈室。姓楊。明州人。受業於清修久法師。通達教觀。紹興十九年。繼主清修。歷慈溪南湖。尋退處溪口吳氏庵。一旦往別吳君。歸而沐浴趺坐。謂侍人曰。吾有瓣香藏之三十年矣。擬臨終焚之。用報佛恩。今正其時。吾將有行矣。及香烟正熾。起白佛陳請求歸安養。合掌就座而化(佛祖統紀)。

晞顏

晞顏。字聖徒。明州奉化人。幼試經得度。從久法師受觀法。文藻高妙。後進愛慕。晚歲自省餘習未淨。乃住桃原厲氏庵。專志念佛十餘年。謂人曰。淨土之道。豈有一法可得。但於修中不見一法。則寂光上品。無證而證。扁所居小軒曰憶佛。嘗步菜畦。見諸蟲啣食。懼傷物命。不復茹蔬。唯買海苔以供朝夕。臨終預別道俗。沐浴更衣。西向作觀。忽稱佛來。合掌而化(佛祖統紀)。

道因

道因。字草庵。姓薛。明州人。十七受具戒。從學於明智立法師。已而徧歷講壇。屢參禪室。讀四明十不二門指要鈔。有省。遂遙禮法智為師。歷主永明寶雲廣受治平。晚主延慶。乾道三年四月十七日。別徒眾曰。華嚴世界。洞徹湛明。甚適我懷。今將行矣。乃令舉所述彌陀讚曰。無邊剎海海涵空。海空全是蓮華宮。蓮宮周徧徧空漏。空海獨露彌陀容。阿彌陀佛不生滅。難覓難拈水中月。絕非離句如是身。如是感通如是說。我與彌陀本不二。妄覺潛生忽成異。從今掃盡空有塵。父子天然兩相值。誓修三福勤六念。身口意業無瑕玷。我今以此念彌陀。不見彌陀終不厭。讚畢。隨眾唱佛數百。諷觀經至上品上生。即斂念坐脫。越三日。頂足皆暖(佛祖統紀)。

有朋

有朋。字牧庵。金華人。性強記。謁車溪卿法師。晝夜叩請。盡得其道。主仙潭。講止觀。時天衣持師分衛至境。入寺就聽。竦然

曰。我所未聞。設禮而去。湖人薛氏婦早沒。時見形於室。其家為齋千僧。誦金剛般若。請朋演說經旨。婦憑語曰。謝翁婆一卷經。今得解脫矣。翁問千僧同誦。何言一卷。答曰。朋法師所誦者是。徒能仁。晚主延慶。開講日盛。乾道四年十二月三日。坐青玉軒。請行人諷觀經。至真法身觀。令大眾唱佛名。留偈坐逝(佛祖統紀)。

惟月

惟月。不詳其所出。居諸暨化城。明律學。修淨業。一日有異僧來迎。後二日微疾。急呼同住僧道寧曰。吾見阿彌陀佛高八丈。駐空中。可以行矣。言訖而化(佛祖統紀)。

思敏

思敏。不詳其所出。依靈芝照律師。增受戒法。專心淨業。二十年如一日。偶疾。請眾諷觀經者半月。越三日。見化佛滿室。臨終唱佛。聲出眾表。酷暑留龕七日。異香郁然(佛祖統紀)。

慧亨

慧亨。字清照。不詳其所出。初依靈芝習律。已而住杭州延壽寺。專修淨業。閱六十年。每對人必以念佛為勸。建寶閣。立三聖像。最稱殊特。有江自任者。忽夢寶座從空而下。云亨律師當升此座。適社友孫居士。預啟別亨。即在家作印而化。亨往炷香問訊。歸而謂其徒曰。孫君已去。吾亦行矣。乃集眾念佛。為說偈曰。彌陀口口稱。白毫念念想。持此不退心。決定生安養。即端坐脫去(佛祖統紀)。

行詵

行詵。不詳其所出。受具時。誦四分戒本。三日而通徹。學律於大智法師。住明慶寺二十年。偶寢疾。即設西方佛像。命徒唱佛名。數日。忽起索三衣。自唱彌陀經。厲聲稱佛。跏趺而化(佛祖統紀)。

用欽

用欽。不詳其所出。居錢塘七寶院。依大智學律。聞大智示眾曰。生宏毗尼。死歸安養。出家學道。能事斯畢。即標心淨土。一志不

退。日課佛三萬。嘗神遊淨土。見佛大士種種異相。謂侍者曰。吾明日西行矣。即集眾唱佛。黎明合掌西向。跏趺而化(佛祖統紀)。

惟渥

惟渥。錢塘人。杜門謝事。閱大藏三過。華嚴法華諸經。總誦二萬卷。晚年誦彌陀經二十藏。一夕偶疾。西向端坐。作印而化(佛祖統紀)。

仲明

仲明。不詳其所出。居山陰報恩寺。素無戒檢。偶因感疾。謂同學道寧曰。心識散亂。何藥可治。寧云。但隨息念佛為上藥。明依法念之。至七日困甚。寧又令觀想佛像。久之。忽言二菩薩至。已而曰。佛來也。瞑目而化(佛祖統紀)。

冲益

冲益。不詳其所出。居錢塘淨光寺。刺血書淨土七經。復金書法華。刻西方三聖像。依止觀坐禪法。念阿彌陀佛。一日感疾。不服藥。拈香對佛懺悔。請大眾同唱佛名。諷彌陀經。至西方世界。奄然而化(佛祖統紀)。

本空

本空。字虞堂。姓徐。明州奉化人。母夢神光遶室而有子。空少時常蔬食誦經。年十四出家。從智涌然法師受教觀。淳熙中。主資教寺。後遷白蓮寺。大揚宗教。日以往生為正念。紹熙三年三月三日。別眾就座。書偈而化(佛祖統紀)。

法因

法因。字剗心。姓顧。明州慈溪人。學於草庵因法師。盡其旨要。時稱為小因。主廣壽寺三十年。冥心淨業。晝夜講演。未嘗一日詣族姓家。施者至。不得却。受其少分。所居室。或勸新之。曰此軀尚無常。何事外物為哉。紹熙四年八月示疾。於定中見淨土二菩薩。謂左右曰。吾覩法華道場。與平時所見異甚。吾將行矣。即集眾諷觀經。稱佛號。或請留偈。乃書曰。我與彌陀本無二。二與不

二竝皆離。我今如此見彌陀。感應道交難思議。挺身端坐。結印而化(佛祖統紀)。

智廉

智廉。不詳其所出。居上虞化度寺。稟性質朴。是非不挂唇吻。初徧參宗門。晚節一意西方。慶元元年秋八月。無病。忽別眾曰。我夢中見阿彌陀佛。身長七八尺。紫金相好。現白毫光。大眾圍繞而說法。佛言諸善人等。當起大信心。修諸善法。來生我國。說已即隱。我既見佛。往生必矣。乃書偈曰。雁過長空。影沈寒水。無滅無生。蓮華國裏。書畢。回身向西。結印而化。年八十二(樂邦文類)。

慧明

慧明。字無晦。杭州鹽官人。出家祥符寺。依上竺慧光二十年。了一心三觀之旨。晚居菁山常照寺。修淨業。日課法華全部。楞嚴圓覺等經。亦循環諷誦。持彌陀號日萬數。慶元五年春。示疾。召徒屬曰。吾學大乘。求生淨土。今必遂矣。弟子請作頌。斥曰。我臨死。豈更謎語乎。不得已。大書骨頭只煨過五字。即累足坐逝。眾聞天樂西來。徘徊頂上。有頃而息。茶毗。得五色舍利無數(樂邦文類)。

了義

了義。號木訥。鍾離少師之曾孫也。年十五。舉進士。過金陵。見保寧璣公。聞法開悟。即從剃染。隨所至處扁曰昨夢。念念西方。未嘗間斷。祥公赴黃蘗。挽之偕行。一夕祥夢義來別云。西歸矣。復見佛菩薩。授以金臺。越三日。炷香宴坐。含笑而化。嘗詣五臺。忽覺隨眾菩薩後行道。有紫綬金章二人從其後。義詰其名。一僧引至殿旁。觀玉牌金書王古葛繁二名字。二人俱修淨業。事具本傳中(佛祖統紀)。

慧誠

慧誠。不詳其所出。居錢塘資聖寺。誦金剛經。禮西方佛。嘗神遊淨土。親覩佛容。旋於山岫穢薪為龕。坐龕中。稱佛號。縱火自焚(佛祖統紀)。

祖南

祖南。不詳其所出。居南岳。刺血書阿彌陀經五百卷。金剛經一百卷。法華經十部。先後二十七年。長時念佛。期生安養。末後血乾骨立。念佛之聲不絕。一日至方丈。升座而化。體中迸出舍利。隨取隨生(佛祖統紀)。

晞湛

晞湛。山陰人。少為儒生。忽厭世出家。與瑩行人建無量壽佛殿於院社。專修淨業。坐不背西。久之。常見三聖相。一夕面西誦經。正坐作印而化(佛祖統紀)。

法持

法持。不詳其所出。居化度寺。修彌陀懺三年。燼二指。增受戒法。造西方三聖像。誦觀經彌陀經如意輪呪。願促閻浮之壽早生安養。一日小疾。哭禱佛前。願垂接引。唱佛之聲。聞於百步。忽見佛身丈六。立於池上。即自言曰。我已得中品生矣。端坐面西而化(佛祖統紀)。

了宣

了宣。姓潘。明州奉化人。肄業於南湖。精究三觀十乘之旨。閱大乘經。無不通曉。修法華懺法。二十七年。與釋善榮相善。凡所進修。必與榮偕。榮嘗金書法華楞嚴淨名圓覺等經。宣助成之。或施人手畫觀音像。二人結誓往生。隨方勸誘。於是從而念佛者日眾。一日宣詣榮室。曰歸期已迫。當重會淨土。榮笑曰。正欲見君作略爾。宣即集眾告別。命誦經唱佛號。書偈曰。性相忘情。一三無寄。息風不行。摩訶室利。合掌而逝。時正炎暑。停龕七日。顏色紅潤。口流微涎。異香噴人。時嘉泰元年五月十日也。闍維舍利無算。宣入寂三年。榮取經像分施故舊。諷普賢行法經。小彌陀經。令眾助稱佛號。乃跏趺曰。我赴宣公之約。言畢。蛻然而化(佛祖統紀明高僧傳)。

曇懿

曇懿。不詳其所出。居錢塘淨住寺。以醫為業。晚年禮法華經。修念佛三昧。出平時所蓄。供佛飯僧。造像設浴。如是二十年。後微疾。屏藥石。延七僧唱佛以助往生。次日見蓮華大如屋。又一日見梵僧臨榻問訊。夜半。眾聞唱佛聲漸微。視之。泊然逝矣(佛祖統紀)。

祖朗

祖朗。姓李。薊州人。九歲出家。禮燕京大聖安寺圓通國師為師。金大定中。歷住崇壽香林諸寺。真祐間。賜號圓通大師。日誦彌陀數萬聲。年七十四。將示寂。預告其徒曰。吾生緣盡矣。其徒訝之。後七日。口占偈曰。咄這皮袋。常為患害。繼祖無能。念佛有賴。來亦無來。去亦無礙。四大五陰。一時敗壞。且道還有不敗壞者麼。良久云。浮雲散盡月昇空。極樂光中常自在。遂跏趺而卒(湛然居士集)。

太微

太微。不詳其所出。兒時。投錢塘法安法師出家。初授彌陀經。便能背誦。及受具。發願扃門念佛。為不退僧。嘗縱步後山。忽聞笛聲。豁然開悟。因蓄一笛以自娛。有凌監簿者。亦修淨業。稱微為淨土鄉長。一日叩門曰。淨土鄉弟相見。微曰。可相見於淨土。今日誦佛正忙耳。翌朝。人怪其不赴粥。往視之。見笛鉢禪椅。先經火燼。跏趺地上而化(佛祖統紀)。

思聰

思聰。不詳其所出。居錢塘法安寺。少喜作詩。及讀大乘諸經。有會。遂息心淨土。日誦蓮經二部。兼持佛名。未嘗語及世事。一日忽謂弟子曰。夜見佛菩薩同來接引。弟子曰。或恐魔試。奈何。聰曰。吾去後。但視吾胸前。可驗也。越二夕。命聲磬唱佛名。喜曰。佛來矣。奄然而化。視胸前一掌許。有文紅潤。如蓮華(佛祖統紀西湖志)。

淨觀

淨觀。不詳其所出。住嘉興寂光庵。修淨土懺法十餘年。謂弟子曰。我後二十七日行矣。至期二日前。見紅蓮華。次日。又見黃華

滿空。有化童子坐於華上。三日入龕端坐。命眾唱佛。頃之脫去(嘉興縣志)。

利先

利先。不詳其所出。居新城法慧寺。日誦法華。兼持佛號。每至中夜。其聲哀切。願早脫娑婆。往生極樂。晚歲。屢感祥夢。忽示疾。命眾同唱佛名。西向凝望。端坐而逝(佛祖統紀)。

師安

師安。不詳其所出。受業烏鎮普靜寺。通華嚴宗旨。修彌陀懺。觀想淨土二十年。昕夕不廢。一生多病。臨終忽精爽異常時。謂弟子曰。佛菩薩已降。吾將行矣。即端坐而化(佛祖統紀)。

如寶

如寶。不詳其所出。受業霽川覺華寺。聞古德有以浴僧功德回向淨土者。遂治浴室。供眾僧。閱二十年。建西方佛像。誓求往生。年八十一。請眾啜茶言別。聞鐘鳴。眾方驚異。即向西跏趺。合掌凝望而化(佛祖統紀)。

顯超

顯超。博州人。受金總持三藏。持穢迹金剛呪法。濟病解冤。計所得施五萬緡。入永壽常住。後病中見佛菩薩前迎。蓮華徧滿。技樂雜奏。弟子哀懇。願留住世。救苦眾生。淨土變相。漸漸隱沒。乃復住十五年。行呪救人。一日忽聞天樂異香。佛及眾聖。竝現空中。即面西跏趺而化(佛祖統紀)。

有開

有開。不詳其所出。居霽川千步寺。專修淨業。旦暮不忘。於歲旦請眾唱佛諷經。至西方世界。即瞑目長逝(佛祖統紀)。

道生

道生。不詳其所出。居常熟興福寺。造丈六彌陀像。得縣令梅汝能施財莊彩。即集眾諷經唱佛。陳白慟哭辭佛歸臥房。書偈坐亡(佛祖統紀)。

若觀

若觀。不詳其所出。居烏鎮嘉會寺。結十萬人。同唱佛號。人各十萬聲。期先得生者。次弟汲引。觀誦法華光明二經。滿數十萬部。誓與羣生。莊嚴淨業。一日索筆書偈。趺坐而化(佛祖統紀)。

瑩珂

瑩珂。不詳其所出。受業霽川瑤山。酒炙無所擇。一日忽自念梵行虧缺。且墮惡道。向同住僧。取戒珠禪師所編往生傳讀之。大有感發。擇一室。面西設坐。絕食念佛。越三日。夢佛及大士告曰。汝壽尚有十年。且當自勉。珂白佛言。閻浮濁惡。易失正念。所願早生安養。承事眾聖。佛言。汝志如是。後三日當迎汝。至期。命眾誦阿彌經。曰佛及聖眾俱至。寂然而化(佛祖統紀)。

智印

智印。不詳其所出。居霽川祇園。常修淨觀。旦夜無間。病中集眾諷彌陀經。甫畢。跏趺合掌而化(佛祖統紀)。

戒度

戒度。不詳其所出。受業棲心寺。學四分律。晚住餘姚極樂寺。一意西歸。和陶淵明歸去來辭以見志。病中作書別士夫道舊。命眾誦觀經。至法身觀。厲聲唱佛。跏趺而化(佛祖統紀)。

祖輝

祖輝。不詳其所出。居明州城中之佛閣。逢人但云阿彌陀佛。鄞縣尉王用享夫婦敬事之。一日詣其家告別云。我明日行矣。明日送者俱會。即入龕端坐。求甘瓜啖盡一枚。唱佛而化(佛祖統紀)。

如鑑

如鑑。不詳其所出。居明州塔山。兩閱大藏。長誦蓮經。專志念佛。晝夜不懈。晚年庵居。忽示疾。請鄰庵諸僧唱佛。面西跏趺。含笑而化(佛祖統紀)。

祖新

祖新。不詳其所出。受業四明福原寺。布衣糲食。制行清苦。住方氏庵。別於禪原創淨土院。造三聖像。栽池蓮。月三八日。集道俗繫念。一日往別福原方丈曰。二月十五日將西歸。特來拜辭。欲索麪一碗以果枵腹。可乎。主人如其言。食訖。竟往淨土院像前作禮云。祖新將行。奉別尊像。即歸庵別眾。謂曰吾其去矣。願諸仁者勤心念佛。得蚤相會。即跌坐唱佛。遽云佛至。合掌而化(佛祖統紀)。

妙文

妙文。姓孫。蔚州人。九歲出家。二十一。抵燕京。依大德明公。學圓頓之道。後居薊之雲泉寺。勤儉節用。廩有餘粟。歲荒以賑饑民。薊人德之。累主講席。大宏方等。力唱圓宗。晚年退居逸老。專修念佛三昧。元延祐六年。示疾。令弟子高聲唱佛名。遽起跏趺。結三昧印。泊然而逝。年八十三(佛祖通載)。

善住

善住。字雲屋。蘇州人。掩關一室。六時念佛。病久不易。終時異香滿室。有安養傳谷響集行世(往生集)。

旨公

旨公。字別宗。杭州人。戒德甚嚴。創觀室於龍山之陽。修念佛三昧。雖經亂離。亦不暫廢。臨終無疾。沐浴端坐而化(往生集)。

性澄

性澄。字湛堂。姓孫。會稽人。母夢日輪墮空而生澄。四歲輒拈筆為佛像。授以佛經。即能成誦。至元十三年。投石門殊律師祝髮受具。後依佛鑿鈿公習天台教觀。大德九年。住杭之東竺。十一年吳越大旱。禱雨。雨立下。歲饑。民死無以斂。乃為掩其遺骸。作水

陸大會普度之。至治元年。驛召入京。命居清塔寺。校正大藏。賜號佛海大師。住上天竺。後歸佛果寺。篤志淨土。修一心三觀者七晝夜。屢感瑞應。月旦。眾前問訊。澄遽揖曰。老僧向非急於退步。幾至半塗而廢矣。今日則有。明日恐無。光陰可把玩乎。煩點示衣鉢。用表無常。眾為稱佛名。止之曰。佛須自念。明晨當來一別。黎明眾集。端坐而化。年七十八(明高僧傳)。

蒙潤

蒙潤。字玉岡。姓顧。海鹽人。年十四。出家白蓮寺。依古原法師。方禮伽藍神。像皆仆。古原授以天台止觀金剛錍十不二門諸書。即能了大意。古原歸寂。事竹堂傳法師。因苦學嬰疾。修請觀音懺七七。疾愈而心倍明利。尋主海鹽德藏寺。日講法華。遷南竺演福。既而退居於龍井白蓮庵。專修念佛三昧。依者日眾。復出主下竺。率眾修法華三昧。感普賢放光。現諸瑞相。居三年。一日呼弟子實法明策等。示止觀安心之旨。已而曰。吾生緣已盡。茲唯其時。驟稱佛號數百聲。泊然而化。潤生平力修。晝夜無間。常行般舟三昧。以九十日為期者七。修法華金光明大悲淨土諸懺。以七七為期者。不可悉數云(明高僧傳)。

明本

明本。姓孫。錢唐人。年十五。決志出家。禮佛然臂。誓持五戒。日課法華圓覺金剛諸經。夜常行不臥。已而參天目高峯妙公。遂從雜染。再三咨決。大徹法原。高峯既示寂。本棲泊江湖間。所至學者輻湊。尋還山。廬高峯塔下。元大德十年。出主師子院。學者稱為中峯和尚。尋謝去。諸達官多欲延主浙中諸名山。本固辭不就。仁宗欲致之不可。賜號佛慈圓照廣慧禪師。賜金襴袈裟。改師子院為師子正宗禪寺。本既單提向上。時復舉揚淨土。嘗言禪者淨土之禪。淨土者禪之淨土。有懷淨土詩一百八首。大行於世。又嘗作報恩院記曰。秉一心為禪。照萬法為觀。其為心也。圓湛虛寂。涉入無礙。不可以相求。不可以言詣。舒之則萬法即之而彰。卷之則萬法依之而泯。凡夫迷昧。引起輪回。苦樂升沈。莫之能釋。是故非禪那不足以契諸佛心。非妙觀不足以破眾生惑。圓覺以三觀互推為二十五輪。無量壽以一佛分觀於十六處。始則端坐靜室。注想一方。存注不休。與想俱泯。所以一輪見諦。妙觀澄明。一處功成。諸佛圓具。如當臺鏡。如帝網珠。萬象顯而無所照之功。千光聚而絕能收之跡。如是觀者。即見清淨願王。白毫亘天。紺目澄海。巍

巍光明。殊特相好。徧界光明。化為香臺寶樹。樓殿池沼。諸莊嚴具。是時三昧行人。即聞即見。即覺即知。一語一默。一動一靜。皆與無作清淨妙觀。昭然混合者矣。然後即斯妙觀於一切時。散作無邊莊嚴佛事。以之報國恩。則聖祚保無疆之永。以之報親恩。則劬勞超有漏之纏。乃至過現未來。一切冤親。同時解脫。其為報也。豈有量哉。又嘗率諸同事。歲遇佛誕。及三元日。於觀世音菩薩像前。發四十八願。其一願云。從我今生。盡未來際。臨命終時。無諸疾苦。正念現前。心不顛倒。生極樂國。見佛聞法。即悟無生。更往兜率內院瞻拜慈氏。然後退位。出生娑婆。廣度羣迷。同登彼岸。至治三年。止天目東岡。八月十三日。手書別諸外護法屬。明日晨起書偈云。我有一句。分付大眾。更問如何。無本可據。置筆安坐而逝。年六十一。其日白虹貫於山巔。露龕三日。貌如生(中峯廣錄行錄發願文)。

優曇

優曇。姓蔣。丹陽人。家世事佛。弱冠。出家廬山東林寺。後住丹陽妙果寺。元至大初。詔罷蓮宗。曇大懼曰。吾承其教將三十載矣。而亡於吾之世乎。即白佛發誓。必復其教。於是著蓮宗寶鑑十卷。今錄其尤警策者。一云。凡修淨土之人。灼然自要敵他生死。不是說了便休。當念無常迅速。時不待人。須是把做一件事始得。若也半進半退。似信似疑。到了濟得甚麼邊事。如何出離輪迴。若是信得及。便從今日去。發大勇猛。發大精進。莫問會與不會。見性不見性。但只執持一句南無阿彌陀佛。如靠著一座須彌山相似。搖撼不動。專其心。一其意。或參念觀念憶念十念。或默念專念繫念禮念。念茲在茲。常憶常念。朝也念。暮也念。行也念。坐也念。心念不空過。念佛不離心。日日時時。不要放捨。綿綿密密。如雞抱卵。常教暖氣相接。即是淨念相繼。更加智照。則知淨土即是自心。此乃上智人修進工夫。如此把得定。做得主。靠得穩。縱遇苦樂逆順境界現前。只是念阿彌陀佛。無一念變異心。無一念退惰心。無一念雜想心。直至盡生。永無別念。決定要生西方極樂世界。果能如是用功。則歷劫無明生死業障。自然消殞。塵勞習漏。自然淨盡無餘。親見彌陀。不離本念。功成行滿。願力相資。臨命終時。定生上品。一云。若念佛之人。塵垢未淨。惡念起時。須自檢點。或有慳貪心。瞋恨心。癡愛心。嫉妬心。欺誑心。吾我心。貢高心。諂曲心。邪見心。輕慢心。能所心。及諸逆順境界。隨染所生。一切不善之心。設或起時。急須高聲念佛。斂念歸正。勿令惡心相續。直下打併淨盡永不復生。所有深信心。至誠心。發願回

向心。慈悲心。謙下心。平等心。方便心。忍辱心。持戒心。喜捨心。禪定心。精進心。菩提心。及一切善心。常當守護。更要離非梵行。斷惡律儀。雞狗豬羊。慎勿畜養。畋獵漁捕。皆不應為。當知極樂國內諸上善人。良由捨棄惡緣。修行善業。獲生淨土。不退菩提。念佛之人。當隨佛學。應以去惡取善為務焉。一云。凡修念佛之人。欲生淨土。每念世間。一切無常。成必有壞。生必有死。若不親聞佛法。則捨身受身。輪轉三界四生六道。無解脫期。我今有緣。得聞正法。得修淨業。唯佛為念。捨此報身。當生淨土。入彼蓮胎。受諸快樂。永脫生死。不退菩提。此乃大丈夫平生之能事也。纔有疾病。正要向前。坦蕩身心。莫生疑慮。直須西向正坐。專想阿彌陀佛。與觀世音大勢至菩薩。及無數化佛。現在其前。一心稱念南無阿彌陀佛。聲聲不絕。於諸世間一切事務。不得思念。不得貪戀。若或心念起來。但要急稱佛號。於念念中除滅罪障。只此一念。決定往生淨土。命若未盡。自得安寧。慎勿妄起留戀世間之心。當存自存。當死須死。但辦往生。何須疑慮。若解此理。如脫敝服以著上衣。一捨凡身。便登佛地。豈不偉哉。一云。真信修行之事。端的是要生極樂世界。專意一念。持一句阿彌陀佛。只此一念。是我本師。只此一念。即是化佛。只此一念。是破地獄之猛將。只此一念。是斬羣邪之寶劍。只此一念。是開黑暗之明燈。只此一念。是渡苦海之大船。只此一念。是醫生死之良方。只此一念。是出三界之徑路。只此一念。是本性彌陀。只此一念。達唯心淨土。但只要記得這一句阿彌陀佛在念。莫教失落。念念常現前。念念不離心。無事也如是念。有事也如是念。安樂也如是念。病苦也如是念。生也如是念。死也如是念。如是一念分明不昧。又何必問人覓歸程乎。書成。徧證諸方。莫能易一字。上書仁宗。乞復其教。允之。命為教主。賜號虎溪尊者。至順初化去(鎮江府志蓮宗寶鑑)。

宏濟

宏濟。字同舟。姓姚。餘姚人。幼出家里之寶積寺。年十六剃染。持四分律甚勤。後依半山全法師習台教。久之悉通其旨。嘗修法華金光明淨土等懺。一日於定中覩四明尊者。授以犀角如意。自是辯才日溢。泰定元年。出住萬壽圓覺寺。明年。鹽官海岸毀。居民惴惴。丞相脫驩憂之。命濟即海岸。建水陸大齋。入慈心三昧。取海沙誦大悲呪。徧撒其處。足跡所及。岸復固。人稱神焉。後遷集慶顯慈圓通諸寺。晚歸寶積專修念佛三昧。俄疾作。即召弟子。示以

唯心淨土之說。或未達。濟厲聲曰。生死難處。遂逝。時至正十六年三月十日也。年八十六(護法錄)。

必才

必才。字大用。姓屈。台州臨海人。母趙氏。奉佛謹。夢梵僧入堂。覺而生子。年十二。依報恩寺瞿法師出家。未幾進具戒。後受業於玉岡潤法師。博覽羣經。深明教觀。玉岡歎曰。此子殆靈山會上人邪。泰定元年。繼玉岡主海鹽德藏寺。尋歷杭之興福演福。為人凝重沈默。精修觀行。至講演經義。縱橫無礙。聽者無不傾服。順帝賜號佛鑑圓照。一日頭目岑然。即謂眾曰。吾緣盡矣。乃焚香面西。高稱阿彌陀佛號。盡一晝夜。又告眾曰。汝等勿謂修持無驗。吾淨土緣熟。三昧現前矣。即索浴更衣。為書別相識。合掌而逝。年六十八。闍維。有五色光。自龕中發。火餘不壞者二。舌根如紅蓮華。齒牙如珂貝。舍利無算(明高僧傳)。

悅可

悅可。字中庭。不詳其所出。住嘉定西隱寺。築十六觀堂以修淨業。延祐間。賜號廣慧大師。至正中。無疾坐逝。茶毗。齒舌不壞(蘇州府志)。

維則

維則。字天如。姓譚。永新人。出家後。嗣法中峯本禪師。至正初。住蘇州師子林。屢召問。稱疾不赴。則既密契單傳。復推天台永明之旨。兼宏淨土之教。著淨土或問。破諸疑惑。策進修行。今錄其尤警切者。或問一生造惡。臨終念佛。帶業得生。又無退轉。然則我且做世事。待臨終念佛。可乎。答曰。苦哉苦哉。賺自己。又賺天下。僧俗男女。皆此言也。逆惡凡夫。臨終念佛。是夙有善根。故遇善知識而得念佛。此等僥倖。萬中無一。羣疑論云。有十種人。臨終不得念佛。一善友未必相遇。無勸念佛人。二業苦纏身。不遑念佛。三偏風失語。四狂亂失心。五遭水火。六遇豺狼。七惡友壞彼信心。八昏迷致死。九陳亡。十墜高巖。此皆尋常聞見。不論僧俗。人皆有之。宿業所招。現業所感。忽爾現前。不容迴避。忽然遭著一種。便做手脚不得了也。知識活佛。救不得了也。便隨業向三塗八難中受苦。到那時要聞佛名。不聞了也。直饒無此惡緣好病而死。未免風刀解體。四大分離。如生龜脫筒。痛苦

逼迫。怕怖惶惶。念佛不得了也。更饒無病而死。世緣未了。世念未休。貪生怖死。擾亂胸懷。又兼家私未明。後事未辦。妻啼子哭。百種憂煎。念佛不得了也。更饒未死以前。只些少病痛在身。未免忍疼忍苦。叫喚呻吟。問藥求醫。祈禱懺悔。雜念紛飛。念佛不得了也。更饒未病以前。只是年紀老大。衰相現前。困頓龍鍾。愁歎憂惱。向箇衰老身上。左安右排。念佛不得了也。更饒未老以前。正是少壯。稍或狂心未歇。俗務相關。東攀西緣。胡思亂想。業識茫茫。念佛不得了也。更饒清閒自在。有志修行。稍於世相照不破。放不下。把不定。坐不斷。些子境界現前。一箇主人翁隨他顛倒。念佛不得了也。你看老病之時。少壯清閒之日。稍有一事挂心。早是念佛不得。況臨終時哉。更道且做世事。你真癡人。說癡話。敢保你錯用心了也。且世事如夢。那有實效。那一件替得生死。縱饒造伽藍。增常住。攀名位。結官豪。將謂多做好事。殊不知犯了不體道本。廣造伽藍等戒。有為之功。多諸過咎。天堂未就。地獄先成。生死未明。皆成苦本。眼光落地。受苦之時。方知平日所為。盡是枷上添枷。鎖上添鎖。鑊湯下增柴炭。劍樹上助刀鎗。袈裟下失却人身。萬劫難復。鐵漢聞之。也須淚落。祖師如此苦口。曾許他臨終念佛乎。死心禪師道。世人財寶如山。妻妾滿前。日夜歡樂。爭奈前程有限。暗裏相催。符到奉行。不容住滯。閻羅老子。不順人情。無常鬼王。有何面目。且據諸人眼見耳聞前街後巷。親情眷屬朋友兄弟。強壯後生。死却多少。世人多云。老來念佛。豈不知廣泉路上無老少。古人云。莫待老來方念佛。孤墳多是少年人。死心如此。苦口勸人。曾許你且待臨終念佛乎。人生在世。能有幾時。石火電光。眨眼便過。趁未老未病。抖擻身心。撥棄世事。得一日光景。念一日佛名。得一時工夫。修一時淨業。由他命終。我之盤纏預辦。前程穩當了也。若不如此。後悔難追。或問定力未成。念頭無主。眨得眼來。千里萬里去了。又或惹著一毫世事。便是五日十日。半月一月。擺脫不去。當何策以治之。答曰。嗚呼。此天下學者之通患也。汝當間斷之時。若不痛加鞭策。則專修無間之念。永無成就之期。余聞古人有三種痛鞭之策。一曰報恩。二曰決志。三曰求驗。第一報恩者。既修淨土。當念報恩佛恩國恩。固未暇論。只如父母養育。師長作成。此恩豈非重大。你出家以來。便說要報重恩。離鄉背井。二三十年。父母師長。艱難困苦。你總不顧。父母老病。你又不看。及聞其死。你也不歸。如今或在三塗。受罪受苦。望你救他。望你度他。你却念念間斷。淨土不成。淨土不成。自救不了。如何救他。既不能相救。你是忘恩負義。大不孝人。經云。不孝之罪。當墮地獄。然則一念間斷之心。便是地獄業也。又且不織而衣。不耕而食。僧房臥具。受用現

成。你當勤修淨業。圖報信施之恩。祖師道。此是施主妻子分上。減刻將來。道眼未明。滴水寸絲。也須牽犁曳把。償他始得。你却念念間斷。淨土不成。淨土不成。酬償有分。然則一念間斷之心。便是畜生業也。第二決志者。若學專修。志須決定。你一生參禪。禪既不悟。及乎看教。教又不明。弄到如今。念頭未死。又要說幾句禪。又要寫幾箇字。做幾首詩。情挂兩頭。念分四路。祖師道。毫釐繫念。三塗業因。瞥爾情生。萬劫羈鎖。你却志無決定。情念多端。因此多端。間斷正念。然則一念間斷之心。便是三塗羈鎖業也。又且守護戒根。志不決定。或因身口。念念馳求。教中道。寧以洋銅灌口。不可以破戒之口。受人飲食。寧以熱鐵纏身。不可以破戒之身。受人衣服。況因諸戒不嚴。邪心妄動。因此妄動。間斷真修。然則一念間斷之心。何止熱鐵洋銅業也。又且斷除憎愛。志不決定。每於虛名浮利。自照不破。名利屬我。便生貪愛。名利屬他。便生憎妬。古人云。貪名貪利。同趨鬼類。逐愛逐憎。同入火院。你却因此愛憎。間斷淨土。然則一念間斷之心。便是餓鬼火院業也。第三求驗者。既學專修。當求靈驗。你如今髮白面皺。死相現前。知道臨終。更有幾日。須在目前。便要見佛。只如廬山遠法師。一生三度見佛。又如懷感法師。稱念佛名。便得見佛。又如少康法師。唱佛一聲。即有一佛從口飛出。此等靈驗。萬萬千千。你若心無間斷。見佛不難。間斷心生。決不見佛。既不見佛。與佛無緣。既無佛緣。難生淨土。淨土不生。必墮惡道。然則一念間斷之心。便是三塗惡道業也。如上三策。當自痛鞭。使其念不離佛。佛不離念。感應道交。現前見佛。既見樂邦之佛。即見十方諸佛。既見十方諸佛。即見自性天真之佛。既見自性天真之佛。即得大用現前。然後推其悲願。廣化一切眾生。此名淨土禪。亦名禪淨土也(蘇州府志淨土或問)。

善繼

善繼。字絕宗。姓婁。越之諸暨人。母夢神僧授以芙蕖。因而有身。生即能言。或見母舉佛號。便合掌和之。大德間剃染。明年進滿分戒。尋從天竺大山恢法師。習天台教。後往南竺謁湛堂澄公。澄深器之。至正中主天台薦福。又遷能仁。晚歲專修淨業。繫念彌陀。晝夜不輟。一日忽告眾曰。吾將歸矣。乃端坐而逝。年七十二。茶毗。舌根不壞(明高僧傳)。

子文

子文。字宗周。明州象山人。受業於北溪聞法師。出主寶雲寺。淹博教觀。律規甚嚴。與人言若不出口。至升座說法。滔滔莫之禦也。一日講十六觀經終。即就座別眾。將入滅。或啟和尚後事未曾囑付。何遽爾。文曰僧家要行便行。莫做俗漢技倆。眾懇益切。於是下座。復歸方丈。一一條畫之。即合掌稱西方聖號。迴向發願畢。遂逝。闍維。舍利無數。異香襲人。彌日乃止(明高僧傳)。

盤谷

盤谷。字麗水。海鹽人。志氣超邁。博通經史。講華嚴大意於杭之慧因寺。辯才無礙。七眾傾服。後至松江。構精舍。勤修淨業。日課彌陀佛號。年七十餘。無疾。預為期。端坐而寂(明高僧傳)。

文慧

文慧。不詳其所出。居嘉禾青龍寺。善作詩。已而專志淨業。至老益厲。一日有疾。聞空中聲云。中品中生。遂逝(佛祖統紀)。

妙叶

妙叶。明州鄞縣人。元明之際。出家為僧。精研台教。專修念佛三昧。著念佛直指上下卷。其直指心要一篇。斥妄顯真。最為精造。文曰。大雄氏觀娑婆有生老病死業繫諸苦。教人念阿彌陀佛。求生極樂國土。去聖逾遠。人世澆漓。錯解諸法在心。便認胸中六塵緣影。謂樂土在內。不求生彼。此六緣影。皆屬前塵。本無自體。前塵若無。此心即滅。云何有土在此內邪。或謂悟道便為佛土在心。既見性。豈有反執緣影之理。世無此見。最下劣矣。汝欲悟真實本心者。當觀所認六塵緣影之心。本在汝胸。胸住於身。身居國土。及一切淨穢剎海。悉在虛空。虛空無際。十界依正。一切在中。此空雖大。我不動真實本心。非大極大。彼空在我真心。如小片雲。點太清裏。云何淨穢剎海。不在本心中邪。然則佛說諸法在心者。非在胸中妄想緣影心內。乃在現前一念本真心內也。此心離知覺。超聞見。永斷一切生滅增減之相。既一切身土皆在此心。則知極樂娑婆等境。乃全我心。任意於中。捨東取西。厭穢忻淨。熾然著相而求。皆不離我心也。故極樂彌陀相好現時。即自心顯。自心顯時。即彼佛現。我心彼佛心。彼佛我心佛。一體無二。故云唯心淨土。本性彌陀。非謂西方無土無佛。不須求生。但在汝生滅緣影之中。名為唯心本性也。求彼佛即求自心。求自心須求彼佛。云何今

時破法散僧。閒道遊儒。與泛參禪理者。不知即境即心。求不礙真之理。反於不二法中。分內分外。辨境辨心。教人捨外取內。背境向心。使愛憎轉多。分別更甚。一分其境。便以極樂為外。教人不必求生。一分其心。便妄指六塵緣影虛偽妄想為心。謂極樂在內。又思此心無質。本無一切因果善惡修證之法。從是恣意妄涉世緣。教人不須禮佛燒香然燈誦經懺願等。謂之著相。而於天堂地獄。及樂土塵刹。雖曾聞名。因不見故。直說為無。反言快樂便是天堂。苦楚便是地獄。其見卑哉。如來說為可憐愍者。不知我心實與佛心同一理故。彌陀願力威德光明。在我心中。承我心愚癡之力。作一切佛事。無時不引導於我。我心亦於彌陀願心之內。修念佛求生一切善行。無行不具含佛德。了彼佛德。成我三昧。故知彌陀願力。始發心。終究竟。無一法不直趣我心。以我心即佛心故。我亦於無始至今。盡未來際。修一切三昧。無一法不攝歸佛海。成本來佛。以佛心即我心故。如是依正色心。因果淨穢。雖同一心。而實不妨一一自分。各住其位。以一心故。雖淨穢不同。所求不出於真心。以自分故。雖一心。而必捨穢取淨也。捨穢取淨。則感應道交。見彼本性彌陀。了悟一心。則淨穢自分。可悟唯心淨土。如是而修。如一滴投海。便同一味。方知大海即自己也。豈有一行虛棄。不成功德者哉。村愚夫婦。雖不識理。以信實有彼土故。於命終時。反得往生。畏有陷空之人。因認緣影為心。謂無外土故。雖修道行。還受生死。是故凡求生者。當深心起勝願行。或稱名持呪。或旋繞禮拜。燒香散華。六時懺悔。盡撥世緣。一心專注。觀白毫相。心不懈廢。命終便生彼國。更能孝養父母。奉事師長。慈心不殺。修十善業。受持三歸。具足眾戒。不犯威儀。深信因果。不謗大乘。勸進行者。修如此法。亦生彼也。如此念念求生。正是無念無求無生。何故。即精修是無修。非不修是無修也。人命無常。轉息來世。塵事連環。鈎鎖不斷。若不能於塵勞鬱結。及得志歇手不得處。一割割斷。起願力行。盡力一跳。焉得應念生彼。我今作禮。奉勸佛子。當一心而行也(念佛直指)。

淨土聖賢錄卷四

往生比丘第三之四

梵琦

梵琦。字楚石。姓朱。寧波象山人。母夢日墮懷而生琦。九歲出家永祚寺。十六得度。依晉翁詢師。閱楞嚴經。有省。詣徑山參元叟端公。不契。尋應詔書經。抵燕京。聞西樓鼓聲。豁然大徹。還徑山謁元叟。遂蒙印可。元泰定中。出主海鹽福臻寺。遷主永祚。歷嘉興本覺。賜號佛日普照慧辯禪師。再遷報恩光孝。尋退隱永祚。築室號西齋。一意淨業。定中見大蓮華充滿世界。彌陀在中。眾聖圍繞。作懷淨土詩傳於世。今錄其百韻詩曰。欲生安養國。承事鼓音王。合掌須西向。低頭禮彼方。觀門誠易入。儀軌信難量。佛願尤深廣。人心要久長。嬰兒思乳母。遠客望家鄉。鄭重迎新月。殷勤送夕陽。分明蒙接引。造次莫遺忘。飲啄齋稱首。熏修策最良。五辛全斬斷。十惡永隄防。勿用求名利。毋勞論否臧。布裘遮幻質。藜糝塞空腸。擺撥多生債。枝梧九漏囊。精神纔懶慢。喜怒便搶攘。水滴俄盈器。江流始濫觴。積來功行滿。趣取色身強。室置千華座。爐焚百種香。新衣經獻著。美饌待呈嘗。莫點殘油炬。宜煎浴像湯。形骸同土木。戒檢若冰霜。想念離諸妄。跏趺在一牀。剎那登淨域。方寸發幽光。骨肉都融化。乾坤極杳茫。太虛函表裏。佛剎據中央。蓮吐葳蕤萼。波翻瀲灩塘。鮮飈隨動蕩。綵仗恣搖颺。燦爛黃金殿。參差白玉堂。樓將四寶合。臺備七珍妝。鏡面鋪階砌。荷心結洞房。珊瑚裁作檻。碼碯製為梁。田地琉璃展。園林錦繡張。內皆陳綺席。外盡繞銀牆。覆有玲瓏網。平無突兀岡。瑤林連處處。琪樹列行行。果大琪如密。音清妙似簧。喬柯元自對。翠葉正相當。一一吟鸚鵡。雙雙集鳳凰。瑤池無晝夜。珠水自宮商。渠瑩金沙底。風輕寶岸旁。高低敷菡萏。深淺戲鴛鴦。異彩吞羣鳥。奇葩掩眾芳。千枝分赤白。萬朵間青黃。暫挹身根爽。微通鼻觀涼。頻伽前鼓舞。共命後飛翔。竟日鶯調舌。冲霄鶴引吭。悟空寧有我。知苦悉無常。大士談元理。聲聞會寶坊。經宣十二部。偈演百千章。直指菩提徑。俱浮般若航。挽回尋劍客。喚醒失頭狂。九品標羸妙。三乘互抑揚。鍊深終絕鑛。簸淨豈存糠。示現真彌勒。咨參妙吉祥。聖賢雲鬣鬣。天樂日鏗鏘。俊偉純童子。伊優絕女郎。語言工問答。進退巧趨蹌。火齊恒流燄。摩尼益耀芒。不須懸日月。何處限封疆。食是天餽饈。餐非世稻粱。挂肩如意服。擎鉢自然漿。脫體殊清淨。含暉更焜煌。袈裟籠瑞靄。瓔珞襯

仙裳。徧往微塵國。周遊正覺場。慈顏容禮覲。供具任持將。側聽能仁教。還令所得亡。及歸彈指頃。翻笑取塗忙。每受經行樂。誰云坐臥妨。普天除鬪諍。匝地息災殃。南北威靈被。東西德化彰。幾番經劫燒。四海變耕桑。此界無虧損。斯人但壽昌。戶丁休點注。年甲罷推詳。滿耳唯聞法。充飢不假糧。永懷恩入髓。且免毒侵瘡。試說娑婆苦。爭禁涕淚滂。內宗誰復解。邪見轉堪傷。忍被貪嗔縛。甘投利欲坑。賊同邨裏住。戈向室中戕。儘受錢堆屋。仍思米溢倉。山中搜雉兔。野外牧牛羊。奪命他生報。銜冤累世償。太平逢盜賊。離亂遇刀鎗。好飲耽盃酒。迷情戀市娼。心猿拋胃索。意馬放垂韁。逸志摧中路。英魂赴北邙。干戈消禮樂。揖讓去陶唐。戰伐愁邊鄙。烽烟徹上蒼。連邨遭殺戮。暴骨滿城隍。鬼哭聞陰雨。人悲弔國殤。歲凶多餓死。棺貴少埋藏。瓦礫堆禪刹。荆榛滿教庠。征徭兼賦稅。禾黍減豐穰。念佛緣猶阻。尋經事亦荒。素襟龍奮迅。高步鵠騰驤。載顧同羣鴈。毋為獨跳獐。聖胎吾已就。法侶爾相望。寶地同瀟灑。金臺共頡頏。翹勤山岌嶮。積德海汪洋。曠劫功彌著。纖毫過即禳。三心期遠到。十念整遙裝。必欲超魔界。從今奉覺皇。明洪武元年。詔入京師。說法蔣山。尋復應召者再。三年秋。詔問鬼神情狀。琦館天界等。集經論成書。將入奏。忽示微疾。越四日。具浴更衣。書偈曰。真性圓明。本無生滅。木馬夜鳴。西方日出。謂同召僧夢堂噩曰。吾行矣。問何往。答曰。西方。噩曰。西方有佛。東方無佛邪。琦厲聲一喝而化。年七十五。闍維。齒舌數珠不壞(護法錄西齋淨土詩)。

可授

可授。字無旨。姓李。台州臨海人。年十二出家。十九得度。受具戒。潛心參究。遇普覺明公於靈隱。問答之頃。疑情頓釋。至元間。出主大雄山安聖寺。閱五年。遷隆恩。又二年。遷真如。明年。行宣政院選主龍華。作休庵於西塢。日修念佛三昧。明洪武六年。復起主杭之淨慈寺。居二載。忽集眾申精進之戒。手搥鼓而退。示微疾。端坐西向曰。吾將逝矣。左右請書偈。麾之曰。吾宗本無言說。乃合爪稱佛號。聲漸微而寂(護法錄)。

慧日

慧日。字東溟。姓賈。台州赤城人。幼出家於縣之廣嚴寺。習教於柏子庭。既游上竺。依竹屋湛堂。尋出主吳山聖水寺。元至正四年。下天竺災。日應眾請。為葺新之。寺既成。遷上竺。順帝特賜

慈光妙應普濟之號。明洪武初。召入京。詔就天界開山復瓦官寺故蹟。復令說戒於鍾山。旋辭歸上竺。謝院事。修彌陀懺。十二年七月朔。謂弟子曰。吾夢青蓮華生方池中。清芬襲人。淨土之祥見矣。後四日。趺坐合爪而終。年八十九(明高僧傳)。

普智

普智。字無礙。姓褚。杭州人。出家龍井寺。依東溟日公。受天台性具之學。講說無礙。四坐道場。門風大振。晚年開演於松江延慶寺。遂終老焉。專修淨業。寒暑不輟。永樂六年正月二日。微疾。會眾。端坐面西。念佛而逝。嘗註阿彌陀經一卷(明高僧傳)。

景隆

景隆。字祖庭。號空谷。蘇州陳氏子也。幼不茹葷。好趺坐若禪定然。稍長。從弁山懶雲和尚。參叩大法。年二十八。出家虎邱。洪熙中。給牒為僧。依石庵和尚於杭州靈隱寺。尋往天目。刻苦研究。忽有省。馳詣懶雲。遂蒙印可。隆既提持向上。兼以淨業勸人。著淨土詩一百八首。或問永明四料簡之旨。答言。參禪人執守話頭。自謂守靜工夫。更無別事。念佛往生。寅夕禮誦。皆所不行。此所謂有禪無淨土也。此等參禪亦非正氣。是為守死話頭。不異土木瓦石。坐此病者十有八九。莫之能救。真得禪旨。如水上葫蘆。捺著便轉。活潑潑地。如此參禪。不輕念佛往生之道。寅夕禮誦。亦所遵行。左之右之。無不是道。此所謂有禪有淨土也。又云。念佛一門。修行捷徑。識破此身不實。世間虛妄。唯淨土可歸。念佛可恃。緊念慢念。高聲低聲。總無拘礙。但令身心閒淡。默念不忘。靜鬧閒忙。一而無二。忽然觸境遇緣。打著轉身一句。始知寂光淨土。不離此處。阿彌陀佛。不越自心。然若將心求悟。反成障礙。但以信心為本。一切雜念。都不隨之。如是行去。縱然不悟。沒後亦生淨土。階級進修。無有退轉。優曇和尚令人提云。念佛者是誰。或云那箇是我本性阿彌陀。謂是攝心念佛。參究念佛。今不必用此法。只用平常念去。隆年五十餘。嘗自作塔銘。其沒也無所考。

時又有琴公者。字古音。福建蔡氏子。嘗作念佛警策偈曰。一句阿彌陀佛。宗門頭則公案。譬如騎馬拄杖。把穩生涯一段。不拘四眾人等。持之悉有應驗。行住坐臥之中。一句彌陀莫斷。須信因深果深。直教不念自念。若能念念不空。管取念成一片。當念認得念人。彌陀與我同現。便入念佛三昧。親證極樂內院。蓮胎標的姓

名。極功之者自見。親見彌陀授記。便同菩薩作伴。自此出離娑婆。一路了無憂患。直至無上菩提。永劫隨心散誕。依得此道歸來。決定成佛不欠(名僧輯略空谷集)。

寶珠

寶珠。不詳其所出。嘗遊浙中杭嘉間。冬夏一衲。乞食自活。宿無恒居。念佛不絕口。人與之言。略酬一二語即連聲念佛。後於海門寺。忽若顛狂者將半月。一僧呵曰。爾平日實行。當與世人作眼目。何得乃爾。珠曰如是。吾行矣。索浴畢。安然而化(往生集)。

本明

本明。不詳其所出。居通州靜嘉寺。梵行清白。勤於講業。後輟講。專心淨土。六時禮念。歷年弗替。忽微恙。自知時至。告眾安然而化。異香七日(往生集)。

義秀

義秀。溫里人。嘉靖初。居蒲之讚歎庵。日課阿彌陀佛十萬餘聲。朝夕無間。歷五十餘年。經行之所。甃砌成坳。人試補之。久復成坳如故。初有貧子不能自活。來依秀。秀納之。久之不善其所為。呵曰。汝真賊也。無何。果約其黨。乘夜擊秀。初擊。秀稱佛聲猶洪。再擊。稱佛聲弗斷。然亦微矣。氣盡。佛聲乃寂(紫柏老人集)。

雪梅

雪梅。蘇州人。踪跡奇異。不拘戒律。好吟詩。嘉靖中遊南京。止報恩寺。每見法師講經。輒笑曰。亂說亂說。專修淨土。動靜無間。尋還蘇。住竹堂寺。年八十餘。忽辭眾剋日行。眾僧醪錢治龕。至期。送者雲集。梅笑曰。爾輩纔布施幾文錢。便欲逼取老僧性命。尚早尚早。眾廢然散去。越數日。端坐龕中。泊然而化(雪梅紀略)。

性專

性專。字守庵。姓張。蘇州崑山人。少薙髮。遍訪知識。謁妙峯受戒。預聽法華講席。後辭去。往峯頂行頭陀行。十二時中。唯誦法

華。行深禪定。嘗於空中見西方寶池成琉璃色。深廣無際。以白妙峯。妙峯曰。此觀行初成之相。不生取著。是善境界。專遂深秘不言。石城有百尺彌勒像。嘉靖間。經兵燹。金剝。專為新之。又構石殿與像稱。感佛放光。夜明如旦。二十三年秋。延法師傳燈講小本彌陀經。有講易彌勒上生經者。專曰。不然。吾聞彌陀與彌勒。一身一智慧。力無畏亦然。余將俾海眾同悟本性彌陀。即本性彌勒。先遊蓮華淨土。然後預龍華勝會也。二十五年仲冬。沐浴更衣。命眾椎鐘誦經。趺坐而化。前數日。衣褶中生靈芝一本。大於拳。色紅白(法華持驗)。

祖香

祖香。臨江新喻人。於山東龍潭寺。精修淨業。有居士王傑者。築庵延之。香語傑云。某日當歸家。眾苦留。香云歸安養家耳。及期敷坐西向坐逝。舉龕入山。火出自焚(往生集)。

圓果

圓果。字祇園。一字幻空。不詳其所出。少為鳳陽衛守陵指揮使。已而棄官。出家五臺山。淹貫經論。頓悟直指。東遊至蘇杭。登座說法。天華晝下。繽紛如雨。嘉靖三十四年。浙中倭亂。剽掠至北新關。果時在杭佛慧寺。巡撫胡宗憲。聞果道高。延請出山。商退賊之策。果辭曰。毋庸。三日後賊當自退耳。後三日。軍士見雲中有神兵數千。擊倭。倭退竄。皆以為果力也。臨化之日。囑弟子十年後茶毗。至期。舁棺至野。忽自起火。灰燼無遺。道俗觀者千人。咸見雲中現出西方境界。有七重欄楯。七重羅網。七重行樹。七寶池。金沙地。樓閣宮殿。竝是金銀琉璃玻瓈碑磬赤珠瑪瑙之所嚴飾。池中開出青黃赤白蓮華。白鶴孔雀鸚鵡舍利迦陵頻伽共命之鳥。種種奇妙。與佛經所說。無有差別。俄而天樂振空。移時方滅(猶園)。

真清

真清。字象先。姓羅。長沙湘潭人。少強記絕人。年十五。補諸生。十九遭家難。遂投南嶽伏虎巖。依寶珠和尚薙髮受具。看無字話。因舟觸岸。有省。珠化去。清駐錫覺皇寺。患背疾。夢關雲長授之藥。病愈。南遊天台。結茅居焉。遷華頂天柱峯。修大小彌陀懺六年。暇則開演十乘。闡明三觀。學者歸附日眾。應居士王太初

請。就永明禪室。講觀經妙宗鈔百日。居常日勤五悔。密持觀經及梵網心地品。一夕夢琳宮綺麗寶樹參差。見阿彌陀佛。觀音勢至二菩薩。方展拜間。旁有沙彌授以一牌。書曰。戒香熏修。寤知中品往生之象也。萬曆三十一年正月抱疾。盡出所儲。付五臺雲棲西興諸寺飯僧。有進藥石者。卻之曰。吾淨土緣熟。聖境冥現。不久辭世。果何為乎。正月七日。絕粒。唯飲檀香水。期於二十九日告終。與眾說無生法。誨諭甚切。至二十九日夜。起別眾曰。吾逝矣。眾請曰。和尚往生淨土。九品奚居。曰。中品中生也。眾曰。胡不上品生邪。曰。吾戒香所熏。位止中品。言畢。泊然而逝。延五日。顏色紅潤如生。茶毗日。香氣充郁。骨鏘鏘有聲。年五十七(明高僧傳)。

明證

明證。字無塵。姓魏。會稽人。性醇厚簡默。少不樂腥羶。常欲出家。弱冠過隣寺。遇五臺龐眉老僧。若舊相識者。願相依為弟子。老僧云。汝三年後。方可薙髮。當先行苦行。學諸經典。證遂往叢林作重務。學楞嚴呪。日止誦一字。夜禮觀音。徹曉不寐。三年而呪始畢。忽臥病七日。遍身發痛。若換骨者。病愈。夙慧頓開。而五臺僧復至。為祝髮受具戒。囑令終身誦法華經。遂展經朗誦無滯。已而華嚴涅槃諸經悉成誦。乃謂老僧曰。吾欲盡形乞食供養。以報師德。是夜老僧不知所往。證日誦法華一部。日惟二殮。三衣經鉢外。一無所蓄。人有施者。隨得隨捨。或與之言。止微笑而已。如是者三十年。一日誦經。艱然不憚。弟子問故。曰。吾持誦一生。求生淨土。豈將墮紅塵邪。於是更加勤誦。三年。一日撫案大笑曰。我今不到紅塵去矣。往謁雲棲宏公。還至澗中。謂侍者曰。汝往報眾徒。我明日當去。次日諸徒至。證問甚麼時。答云亭午。遂命具湯盥沐。端坐念佛。誦觀世音大勢至。至清淨大。即閉口。眾聞空中朗誦海眾菩薩。異香馥然。合掌而寂。如入禪定。七日後開龕。時值炎暑。儀容若生。年五十。時萬曆二十一年也。證弟子真定。字靜明。出家後。秉師之訓。精勤念佛。求生淨土。兼禮拜華嚴法華諸經。造像齋僧。行諸苦行。年七十二。預刻期。面西念佛而化(理安寺紀)。

明玉

明玉。字無瑕。姓劉。西蜀人。出家後。遍歷名山。參叩知識。苦行絕倫。禮華嚴法華經。一字一禮。萬曆二十三年正月。忽謂弟子

曰。吾業繫娑婆七十二年。今將歸矣。遂不食。念佛不絕者旬日。聲如洪鐘。臨終沐浴端坐。持珠念佛益哀促。已而大聲云。佛佛佛。倒駕鐵牛歸佛國。聲絕而逝(憨山夢遊集)。

法祥

法祥。字瑞光。姓周。紹興嵊縣人。少有出世志。參嘯巖老人。嘯巖示以念佛法門。遂出家。居南岳側刀峯。影不出山。專志念佛。以豆記數。日夜精勤。脅不至席。人稱為豆兒佛。未幾成叢林。萬曆三十八年。二月六日。索浴禮佛。告眾曰。瓜子熟也。正落蒂時。眾莫喻者。入室趺坐。令眾唱佛名。合掌而逝。峯前聞音樂聲(憨山夢遊集)。

袿宏

袿宏。字佛慧。號蓮池。杭州仁和沈氏子也。年十七。補諸生。以學行稱。鄰有老嫗。日課佛名數千。問其故。嫗曰。先夫持佛名。臨終無病。與人一拱而別。故知念佛功德。不可思議。宏自此棲心淨土。書生死事大四字於案頭以自策。年三十二。出家。謁徧融笑巖諸大老。參念佛者是誰。有省。隆慶五年。乞食雲棲。見山水幽絕居焉。山故多虎。為放瑜伽餒口。虎不為患。歲亢旱。居民乞禱雨。曰吾但知念佛。無他術也。眾固請。乃持木魚出循田塍行。唱佛名。時雨隨注。如足所及。眾悅相與庀材造屋。衲子日歸附。遂成叢林。宏主張淨土。痛斥狂禪。著阿彌陀經疏鈔。融會事理。統攝三根。至為淵奧。時有曹魯川者。致書雲棲。略曰。夫釋尊有三藏十二部教。所謂於廣大海。張眾多網。又所謂大困小困也者。祇宜談大以該小。詎可舉一而廢多。比吾黨中有唱為歷劫成聖。必漸無頓之說者。夫漸亦聖說。未嘗不是。而以漸廢頓。左矣。尊者內秘頓圓。而外顯淨土法門。諸佛有然。無足疑者。奈近來聽眾。直欲以彌陀一聖。而盡廢十五王子。以淨土一經。而盡廢三藏十二部。則不佞之所不願聞也。時雖末法。而斯人之機。豈無利鈍。有如釋尊為迦葉為憍陳如。其說如此。為善財為龍女。其說如彼。二十五聖各證圓通。文殊所稱又如彼。正所謂昨日定。今日不定。又所謂說我是空。且不是空。說我是有。且不是有。此所以為善無常主。活潑潑地。如水上按葫蘆然。倘釘椿守窟。焉利人天。所願尊者為大眾衍淨教。遇利根指上乘。圓融通達。不滯方隅。俾鵬鷲竝適。不亦盡善盡美哉。又佛華嚴乃無上一乘圓教。如來稱性之極談。尊者乃與彌陀經竝稱。已似未妥。因此遂有著論騰之。架淨土

於華嚴之上者。朱紫遞淆之謂何。亦願尊者為淨土根人說淨土。為華嚴根人說華嚴。毋相諂。亦毋相濫。乃為流通佛乘。乃為五教竝陳。三根盡攝。奈之何必刻舟而求劍。且彈雀而走鷄也。宏報書曰。夫華嚴具無量門。求生淨土。華嚴無量門中之一門耳。就時之機。蓋由此一門而入華嚴。非舉此一門而廢華嚴也。來論謂不肖以彌陀與華嚴竝稱。因此遂有著論駕淨土於華嚴之上者。此論誰作乎。華嚴如天子。誰有駕諸侯王大臣百官於天子之上者乎。然不肖亦未嘗竝稱也。疏鈔中特謂華嚴圓極。彌陀經得圓少分。是華嚴之眷屬流類。非竝也。又來論謂宜隨機演教。為宜淨土人說淨土。宜華嚴人說華嚴。此意甚妙。然中有二義。一者千機竝育。乃如來出世事。非不肖所能。故曹溪專直指之禪。豈其不通餘教。遠公擅東林之社。亦非止接鈍根。至於雲門法眼曹洞為仰臨濟。雖五宗同出一原。而亦授受稍別。門庭施設。理自應爾。無足怪者。況不肖凡品乎。若其妄效古人昨日定今日不定。而漫無師承。變亂不一。名曰利人。實悞人矣。何以故。我為法王。於法自在。平民號曰國王。不可不慎也。二者。說華嚴則該淨土。說淨土亦通華嚴。是以說華嚴者自說華嚴。說淨土者自說淨土。固竝行而不相悖。今人但知華嚴廣於極樂。而不知彌陀即是遮那也。又龍樹於龍宮而出華嚴。而願生極樂。普賢為華嚴長子。而願生極樂。文殊與普賢同佐遮那。號華嚴三聖。而願生極樂。咸有明據。皎如日星。居士將提唱華嚴以風四方。而與文殊普賢龍樹違背。此又不肖之所未解也。況方山列十種淨土。極樂雖曰是權。而華嚴權實融通。理事無礙。事事無礙。故娼房殺地。無非清淨道場。而況七寶莊嚴之極樂乎。婆須無厭。皆是古佛作用。而況萬德具足之彌陀乎。居士遊戲於華嚴無礙門中而礙淨土。此又不肖之所未解也。不肖與居士同為華藏莫逆良友。而居士不察區區之心。復欲拉居士為蓮胎骨肉弟兄。而望居士之不我外也。魯川復致書曰。諸不了義經論。別行普賢行願品。與起信等論。皆稱說淨土。此豈無因。然華嚴經中未嘗及之。即方山所列第十淨土更晰也。法華鱗差十六王子。內有彌陀。未嘗定為一尊。其贊持經功德。旁援安樂。實說女人因果。首楞嚴二十五聖證圓通。文殊無所軒輊。但云方便有多門。又云順逆皆方便。然繼以遲速不同倫。則於無軒輊中。又未嘗無指歸也者。故要極於普門。而不推諉夫勢至。更加貶剝。曰無常。曰生滅。若夫賢首清涼諸師。亟標小始終頓圓五教。僉為以允。而未嘗品及淨土。心宗家流。尤所蕩掃。如齊己禪師曰。唯有徑路修行。依舊打之邊。但念阿彌陀佛。念得不濟事。又曰。其或準前捨父逃去。流落他鄉。東撞西磕。苦哉阿彌陀佛。此等語言。或以為苛。然豈無謂而彼言之。亦必有道矣。所以達者亟道祇劫辛苦修行。不如一念得無生法

忍。又道一念緣起無生。超出三乘權學。況無論三乘一乘。要之無哉我所。今之往生淨土者。我為能生。土為所生。自他歷然。生滅宛然。欣厭紛然。所未及悉。顧從來談淨土者。必曰。華開見佛悟無生。蓋必往生而見彌陀。始從觀音。若勢至。抑或彌陀。誨以無生。此時方悟。似為迂遲。再華嚴性海所現全身。如人身中有八萬四千毛孔。東藥師。西彌陀。各各在一毛孔中。說法度生。倘拋撮全身。入一毛孔。不但海漚倒置。而蠅投牕紙。其謂之何。昨不佞手疏所云。為宜淨土人說淨土。為宜華嚴人說華嚴。自謂不悖諸佛法門。亦是為尊者赤心片片。尊者乃欲攜我入蓮胎。則昔人所云捉物入迷津。與夫棄金擔草之謂矣。尊者會下聽眾。自杭過蘇者。罔弗津津九品。閒與之言。稍涉上乘。則駭心瞠目。或更笑之。此其過在弟子邪。在師邪。大丈夫氣宇沖天。度生為急。既出世矣。開堂矣。敷座矣。不具大人作略。祇作閭巷老齋公老齋婆舉止。忽被伶俐人問著。明眼人拶著。擬向北斗裏潛身邪。抑鐵圍山裏潛身邪。佛法大事。非同小可。願尊者重厝意焉。宏又以書復曰。辱惠書。元詞妙辯。汪濊層疊。誠羨之仰之。然竊以為愛我深而詞太費也。果欲揚禪宗。抑淨土。不消多語。曷不曰。三世諸佛。被我一口吞盡。既一佛不立。何人更是彌陀。又曷不曰。若人識得心。大地無寸土。既寸土皆無。何方更有極樂國。只此二語。來論攝無不盡矣。茲擬一一酬對。則恐犯鬪爭。不對。則大道所關。終不可默。敢略陳之。來論謂不了義經。乃談說淨土。而以行願品起信論當之。起信且止。行願以一品而攝八十卷之全經。自古及今。誰敢議其不了義者。居士獨尚華嚴而非行願。行願不了義。則華嚴亦不了義矣。又來論謂法華記往生淨土為女人因果。則龍女成佛。亦只是女人因果邪。謂彌陀乃十六王子之一。則毗盧遮那。亦只是二十重華藏之第十三邪。居士獨尊毗盧。奈何毗盧與彌陀等也。又來論謂楞嚴取觀音。遺勢至。復貶為無常生滅。則僑陳如悟客塵二字。可謂達無常。契不生滅矣。何不入圓通之選。誠曰觀音登科。勢至下第。豈不聞龍門點額之喻。為齊東野人之語邪。又來論謂齊己禪師。將古人念佛偈。逐句著語。其曰唯有徑路修行。則著云依舊打之遶。其曰但念阿彌陀佛。則著云念得不濟事。居士達禪宗。何不知此是宗師家。直下為人解粘去縛。乃作實法會而死在句下邪。果爾。古人有言。踏毗盧頂上行。則不但彌陀不濟事。毗盧亦不濟事邪。此等語言。語錄傳紀中。百千萬億。老朽四十年前。亦曾用以快其唇吻。雄其筆筭。後知慚愧。不敢復然。至於今猶赧赧也。又齊己謂求西方者。捨父逃逝。流落他鄉。東撞西磕。苦哉阿彌陀佛。往應之曰。即今卻是如子憶母。還歸本鄉。捨東得西。樂哉阿彌陀佛。且道此語。與齊己所說。相去多少。又來論謂多劫修行。

不如一念得無生法忍。居士已得無生法忍否。如得。則不應以我為能生。以土為所生。何則。即心是土。誰為能生。即土是心。誰為所生。不見能生所生而往生。故終日生而未嘗生也。乃所以為真無生也。必不許生而後謂之無生。是斷滅空也。非無生之旨也。又來論以華開見佛。方悟無生。則為迂遲。居士達禪宗。豈不知從迷得悟。如睡夢覺如蓮華開。念佛人有現生見性者。是華開頃刻也。有生後見性者。是華開久遠也。機有利鈍。功有勤惰。故華開有遲速。安得槩以為迂遲邪。又來論喻華藏以全身。喻西方以毛孔。生西方者。如撮全身入毛孔。為海漚倒置。夫大小之喻則然矣。第居士通華嚴宗。奈何止許小入大。不許大入小。且大小相入。特華嚴十元門之一元耳。舉華藏不可說不可說無盡世界。而入極樂國一蓮華中。尚不盈華之一葉。葉之一芥子地。則何傷於全身之入毛孔也。又來論謂荒山僧。但問以上乘。便駭心瞠目。居士向謂宜華嚴者語以華嚴。宜淨土者語以淨土。今此鈍根輩。正宜淨土。何為不與應病之藥。而強聒之邪。又來論謂老朽既出世開堂。不具大人作略。而作老齋公齋婆舉止。被伶俐人問著。明眼人拶著。向北斗裏潛身邪。鐵圍裏潛身邪。老朽曾不敢當出世之名。自應無有大人之略。姑置弗論。而以修淨土者。鄙之齋公齋婆。則古人所謂非鄙愚夫愚婦。是鄙文殊普賢馬鳴龍樹也。豈獨文殊普賢馬鳴龍樹。凡遠公善導天台永明等諸菩薩諸善知識。悉齋公齋婆邪。劉遺民白少傅柳柳州蘇長公等諸大君子。悉齋公齋婆邪。就令齋公齋婆。但念佛往生者。即得不退轉地。亦安可鄙邪。且齋公齋婆。庸呆下劣而謹守規模者是也。愚也。若夫聰明才辯。妄談般若。喫得肉已飽。來尋僧說禪者。魔也。愚貴安愚。吾誠自揣矣。寧為老齋公老齋婆。無為老魔民老魔女也。至於所稱伶俐人明眼人者來問著拶著。則彼齋公齋婆。不須高登北斗。遠覓鐵圍。只就伶俐漢咽喉處安單。明眼人瞳子上敷座。何以故。且教伊暫閉口頭三昧。回光返照故。抑居士尚華嚴而力詆淨土。老朽業淨土而極贊華嚴。居士靜中試一思之。是果何為而然乎。又來論謂勸已求生淨土。喻如棄金擔麻。是顛倒行事。大相屈辱也。但此喻尚未親切。今代作一喻。如農人投刺於大富長者之門。延之入彼田舍。聞者皆笑之。農人更掃徑。謀重請焉。笑之者曰。主人向者不汝責。幸矣。欲為馮婦乎。農人曰。吾見諸富室。有為富而不仁者。有外富而中貧者。有未富而先驕者。有典庫於富人之門而自以為富者。且金谷郿塢。於今安在哉。而吾以田舍翁享太平之樂。故忘而為此。今知過矣。於是相與大笑散去。宏居常廣修眾善以資淨業。時戒壇久禁不行。宏令求戒者具三衣於佛前受之。為作證明。又定水陸儀文及瑜伽燄口。以拯幽冥之苦。開放生池。著戒殺文。從而化者甚眾。萬歷四十年六月

杪。忽入城。別諸弟子及故舊曰。吾將他往。還山設茶別眾。眾莫測。至七月朔晚入堂。曰。明日吾行矣。次夕入丈室。示微疾。瞑目坐。城中諸弟子畢至。復開目云。大眾老實念佛。莫捏怪。莫壞我規矩。向西稱佛名而逝。年八十一(雲棲法彙)。

如榮

如榮。字大賢。杭州海寧人。壯歲業屠。為豕所嚙。遂感悟。詣縣之北寺。薙染為僧。後歸雲棲。時年六十矣。晝隨眾操作。夜持佛名。精勤不怠。萬歷九年。生日。設齋飯僧。長跪佛座前。厲聲稱願生西方者三。眾環繞唱佛合掌而逝(雲棲紀事)。

如清

如清。字法原。姓阮。紹興上虞人。初出家於西湖龍井寺。後入雲棲。銳志念佛。誦法華經。六時禮拜。萬歷十一年。得疾。沈綿者數月。既革。聞堂中念佛聲。忽矍然起坐。中夜合掌。注視金容。翹仰而逝(雲棲紀事)。

廣製

廣製。字安廬。不詳其所出。少夢入金盤庵。拱立琉璃燈下。面西方三聖像。寂無人影。內心澄澈。覺而樂之。稍長。又夢入安隱庵。見觀音大士作思憶眾生相。自是發出世志。年二十出家。謁雲棲大師。聞西方淨土無輪回苦。即躍然曰。吾今而後知有歸泊處矣。於是精研淨土法門。作懷淨土詩。及諸詞賦。多清婉可諷。今錄其懷淨土賦。序云。清泰國者。蓋西方之珍域也。涉水則有瑤池玉沚。登陸則有寶街金道。皆法身大士之所遊化。諸上善人之所盤桓也。夫其都邑之華。宮室之美。越仙都之元虛。跨天宮之壯麗矣。所以交贊於十方。名載於羣典者。豈不以其土殊勝。其道捷徑哉。或名超於列剎。或體異於諸方。始離輪回之鄉。卒踐無生之地。非夫厭世惡欲怖無常者。焉能向慕而願樂之。非夫窮幽探蹟。信法篤者。何能遐想而好求之。予所以神馳思運。念結情存。興寐之間。若已往生者也。洗脫塵根。託心茲境。不任專想之至。聊寫景以寄懷。賦曰。真原寥廓。不變隨緣。有流穢濁而成泥沙。有結清淨而為金寶。猗極樂之所莊嚴。實行願之所扶持。蔭世王以發軔。託法藏以正基。或贊揚於秘典。或永調於淨詩。證以聖心之如語。莫以凡情而致疑。邈彼奇域。幽元窈窕。拘墟者守見而不信。

信淺者滯情而莫曉。斥鷃翱翔於蓬蒿。罔測搏風之矯矯。理微事而不彰。果微因而莫兆。慮亡羊而泣岐。守持名之一道。覩靈驗而西徂。忽吾生之將行。仍先聖之故轍。泊不死之壽庭。苟上善之可攀。亦何憚於疑城。釋生死之桎梏。暢無生之高情。被銖衣之拂拂。振金錫之鈴鈴。披寶葉之蒙龍。蹈珍萼之崢嶸。陟璇空而欲上。顧碧落而迅征。躡穹隆之飛觀。臨下界之元冥。搏空青以為蓋。指林翠而為屏。攬披風之綠條。捫含露之紫莖。雖未及於登堂。乃先得乎長生。既契心於幽旨。入重元而夷平。獲緩步於九達。路靡滯而不通。恣心目之曠朗。任來往之從容。蹴勾衣之忍草。蹂滅跗之落紅。覩鸚鵡之裔裔。聽迦陵之嚶嚶。過靈沼而試浴。水隨意以淪胥。滌八垢之污濁。洗五蓋之冥蒙。追遠公之芳軌。步善導之元蹤。唯茲聖境。空王所都。行樹夾以引路。蓮華結而成居。紺宇嵯峨於中林。朱閣玲瓏於方隅。流霞光於翼櫺。承曦影於綺疏。鳥晝啼而夜息。華夕合而晨敷。天樂同繁於風葉。契經合響於流渠。庭富藍田之玉。淵沈赤水之珠。舉衣襪以盛華。聽說法而凌虛。悅兮沒此而見彼。杳兮出有而入無。騁斯須之神變。同萬億之浮屠。體靜氣閒。心境都捐。肯綮未嘗。神遇無全。飲智海之洪濤。吸長鯨之百川。御風而行。衣角高褰。法鼓琅琅而振響。異香馥馥以颺煙。行道出林間之眾。散華來空外之仙。聆水鳥之法音。同石竇之迸泉。始兼空有之說。暢以聖諦之篇。深入即離之境。妙出有無之間。一空有以齊旨。亡真假而得元。既中道之不存。泯圓觀於三翻。談不二於毗邪。貴淨名之無言。合萬物以成己。歸同體之自然。後不詳其終(淨土雜詠并序)。

真緣

真緣。字慧廣。姓姚。常州無錫人。年三十出家。徧參老宿。歷十六年。得念佛三昧。萬曆二十二年。駐錫明州阿育王寺。親睹舍利放光。中現釋迦文佛。遂誓焚身供養。普請眾僧。求施薪藁。人與一束。累為高座。因取香油塗身。趺坐積薪上。合掌誦佛號。火然及身。俄成灰燼。眾見五色光。從緣頂門而出。光中現菩薩金身。長二尺許。晃然四照。久之方滅(獮園)。

傳記

傳記。寧波鄞縣人。性好獨居。日誦法華為業。數及九千七百餘部。世稱為法華和尚。萬曆十四年。司勛虞淳熙舉法華三昧懺。記禁足修長期者三。九歷寒暑。屢獲瑞應。後憩杭州西溪道上。肩水

負薪。行諸佛事或曰。和尚乃猶作此有為功德。記厲聲曰。無為豈在有為外乎。四十一年七月。辭諸弟子。稱佛名三千聲。唱妙法蓮華經題者數四。面西合掌而逝。越日。頂門猶暖。異香滿室(法華持驗)。

德清

德清。字澄印。晚號憨山老人。金陵蔡氏子也。母夢觀音抱送童子而孕。及誕。白衣重袍。年十九出家。專心念佛。一夕夢中見阿彌陀佛現身立於空中。當日落處。面目光相。了了分明。自此聖相炳然。時時在目。尋至五臺習定。發明本有。刺血書華嚴經。每下一筆。念佛一聲。久之動靜一如。萬歷十年。清居牢山。李太后命輸金造寺。賜額曰海印。時太后數遣中使修諸塔寺。權貴與中使有隙者。令道士擊登聞鼓。以侵占事聞。事連清。坐私造寺院。戍雷州。清隨所至。冠巾說法。又發宏經之願。疏論楞伽楞嚴諸經。四十二年。奉恩詔反僧服。還過廬山。結庵五乳峯下。效遠公六時刻漏。修淨業益精。時有海陽禪人。求授戒法。因問修淨土之要。清曰。佛說修行出生死法。方便多門。唯有念佛求生淨土。最為捷要。此之法門。乃佛無問自說。三根普被。四眾齊收。非是權為下根設也。經云。若淨佛土。當淨自心。今修行淨業。必以淨心為本。要淨自心。第一先要戒根清淨。以身三口四意三。此十惡業。乃三塗苦因。今持戒之要。先須三業清淨。則心自淨。於此清淨心中。厭娑婆苦。發願往生安養。立念佛正行。然念佛必要為生死心切。先斷外緣。單提一念。以一句阿彌陀佛為命根。念念不妄。心心不斷。二六時中。行住坐臥。拈匙舉筋。折旋俯仰。動靜閒忙。□一切時。不愚不昧。竝無異緣。如此用心。久久純熟。乃至夢中亦不妄失。寤寐一如。則工夫綿密。打成一片。是為得力時也。若念至一心不亂。臨命終時。淨土境界現前。自然不被生死拘留。感阿彌陀佛。放光接引。此必定往生之效驗也。然一心持名。固是正行。又必資以觀想。更見穩密。佛為韋提希說十六妙觀。便得一生取辦。今當於十六觀中。隨取一觀。或單觀佛及菩薩妙相。或觀淨土境界。如彌陀經說蓮華寶地等。隨意觀想。若觀想分明。則二六時中。現前如在淨土。臨命終時。一念頓生。如此用心。精持戒行。永斷惡念煩惱。以此淨心。觀念相繼。淨土真因。無外此者。又有淨心居士者。問念佛不能成片。請開示。清示之曰。修行第一要為生死心切。生死心不切。如何能念佛成片。且眾生無量劫來。念念妄想。情根固蔽。即今生出世。何曾一念痛為生死。日用念念循情。未嘗反省。今欲以虛浮信心。就要斷多劫生死。所謂杯水救

輿薪之火。有是理哉。若果為生死心切。念念若救頭然。只恐一失人身。百劫難復。要將此一聲佛咬定。定要敵過妄想。一切處念念現前。不被妄想遮障。如此下苦切工夫。久久純熟。自然相應。不求成片而自成片矣。此事全要自己著力。若但將念佛做面皮。如此驢年。無受用時。直須勇猛。更莫遲疑。居廬山數歲。之曹溪。天啟三年十月。示微疾。謂人曰。老僧世緣將盡矣。沐浴焚香。危坐而逝。有光燭天。年七十八(夢遊集)。

傳燈

傳燈。姓葉。衢州人。少從進賢映庵禪師薙髮。隨謁百松法師。聞講法華。恍有神會。次問楞嚴大定之旨。百松瞪目周視。燈即契入。百松以金雲紫袈裟授之。一生修法華大悲光明彌陀楞嚴等懺無虛日。卜居幽溪高明寺。先有上人葉祺葬親寺後。夢神云。此聖道場地。將有肉身菩薩。大作佛事。可速遷。祺不信。俄舉家病困。懼而徙焉。翌日燈至。即其地立天台祖庭。學侶輻湊。嘗於新昌大佛前登座豎義。眾聞石室中天樂鏗鏘。講畢乃寂。嘗著生無生論。融會三觀闡揚淨土法門。又有法語一篇。最為切要。曰。楊次公云。愛不重。不生娑婆。念不一。不生淨土。娑婆有一愛之不輕。則臨終為此愛所牽。矧多愛乎。極樂有一念之不一。則臨終為此念所轉。矧多念乎。夫愛有輕焉重焉。厚焉薄焉。正報焉。依報焉。歷舉其目。則父母妻子昆弟朋友功名富貴文章詩賦道術技藝衣服飲食屋宇田園林泉華卉珍寶玩物。不可枚盡。有一物之不忘。愛也。有一念之不遺。愛也。有一愛存於懷。則念不一。有一念不歸於一。則不得生。或問輕愛有道乎。曰輕愛莫要於一念。一念有道乎。曰一念莫要於輕愛。蓋念不一。由散心異緣使然。散心異緣。由逐境紛馳使然。娑婆有一境。則眾生有一心。眾生有一心。則娑婆有一境。眾緣內搖。趣外奔逸。心境交馳。紛若塵沙。故欲輕其愛者。莫若杜其境。眾境皆空。萬緣都寂。萬緣都寂。一念自成。一念既成。則愛緣俱盡矣。曰杜境有道乎。曰杜境者。非屏除萬有也。亦非閉目不覩也。即境以了其虛。會本以空其末也。萬法本自不有。有之者情。故情在物在。情空物空。萬法空而本性現。本性現而情念息。自然而然。非加勉強。楞嚴所謂見與見緣。并所想相。如虛空華。本無所有。此見及緣。原是菩提妙淨明體。云何於中有是非是。是以欲杜其境。莫若體物虛。體物虛則情自絕。情絕則愛不生。而唯心現。念一成。故圓覺云。知幻即離。不作方便。離幻即覺。亦無漸次。一去一留。不容轉側。功效之速。有若桴鼓。學道之士。於此宜盡心焉。曰輕愛既聞命矣。一念如何。曰一

念之道有三。曰信。曰行。曰願。求生極樂以敦信為始。必須徧讀大乘。廣學祖教。凡是發明淨土之書。皆須一一參求。悟極樂原是我唯心之淨土。不是他土。了彌陀原是我本性之自佛。非是他佛。二修行者。行門有二。一正。一助。正行復二。一稱名。二觀想。稱名如小本彌陀經。七日持名。一心不亂。有事一心。理一心。若口稱佛名。繫心在緣。聲聲相續。心心不亂。設心緣外境。攝之令還。此須發決定心。斷後際念。撥棄世事。放下緣心。使念心漸漸增長。從漸至久。自少至多。一日二日乃至七日。畢竟要成一心不亂而後已。事一心也。苟得此已。則極樂之淨因成就。垂終之正念必然。親見彌陀。垂手接引。得生淨土必矣。理一心亦無他。但於事一心。念念了達。能念之心。所念之佛。三際平等。十方互融。非空非有。非自非他。無去無來。不生不滅。現前一念之心。便是未來淨土之際。念而不念。無念而念。無生而生。生而無生。於無可念中。熾然而念。於無可生中。熾然求生。是為事一心中明理一心也。二觀想者。具如觀無量壽佛經。境有十六。觀佛最要。當觀阿彌陀佛丈六之身。作紫磨黃金色像。立華池上。作垂手接引狀。身有三十二種大人相。相有八十種隨形好。此二種正行。須相須而進。凡行住睡臥時。則一心稱名。凡趺坐。則心心作觀。行倦則跌坐以觀佛。坐出則經行以稱名。苟於四威儀中。修之不間。往生淨土必矣。二助行亦有二。一世間之行。如孝順父母。行世仁慈。慈心不殺。具諸戒律。一切利益之事。若能迴向西方。無非助道之行。二出世之行。如六度萬行種種功德。讀誦大乘。修諸懺法。亦須以迴向心而助修之。無非淨土行也。更有一種微妙助行。當歷緣境處處用心。如見眷屬。當作西方法眷想。以淨土法門而開導之。令輕愛以一其念。永作將來無生眷屬。若生恩愛時。當念淨土眷屬。無有情愛。何當得生淨土。遠離此愛。若生嗔恚時。當念淨土眷屬。無有觸惱。何當得生淨土。得離此嗔。若受苦時。當念淨土。無有眾苦。但受諸樂。若受樂時。當念淨土之樂。無央無待。凡歷緣境。皆以此意而推廣之。則一切時處。無非淨土之助行也。第三願者。淨土舟航。要以信為柁。行為篙櫓檣纜。願為風帆。無柁則無所指南。無篙櫓檣纜則不能運行。無風帆則不能破浪疾到。故次行以明願也。第願有通別。有廣狹。有徧局。通如古德所立迴向發願文。別則各隨己意。廣謂四宏。上求下化。狹謂量力決志往生。局如課誦有時。隨眾同發。徧則時時發願。處處標心。但須體合四宏。不得師心妄立。如此三法。可以期生淨土速覩彌陀。一切淨土法門。舉不外於是矣。燈每歲修四三昧。身先率眾。精進勇猛。註楞嚴維摩等經。凡染翰。必被戒衲。前後應講席七十餘期。

年七十五。預知時至。手書妙法蓮華經五字。復高唱經題者再。泊然而寂(法華持驗淨土法語)。

古松

古松。山西平陽人。幼出家於五臺山羅睺寺。得念佛三昧。山多虎。松為說戒。命以名。虎遂不復傷人。呼輒至。萬曆十三年。至京口。建淨業禪林。時潛深谷。坐樹下入定。居三十九年。一日合掌舉手。別眾而逝。入龕。未建塔也。崇禎四年四月八日。龕中忽現五色光。啟龕。見松趺坐端凝。貌如生。大清順治十五年十月二日。再現寶光。異香滿室。三日方止(鎮江府志)。

仲光

仲光。字法雨。號佛石山儂。錢塘戴氏子也。母夢僧以伽黎覆體而光生。自幼惡聞腥羶。年十四。投靜明師剃染。十八。受戒於雲棲。歷遊講肆。習天台教觀。深入一乘。萬曆二十二年。謁紫柏禪師於金陵。親承授記。還武林。至十八澗中。愛其林壑幽異。誅茅壘石。構一小舍。一日掘地得殘碑。知為古理安寺。因重建焉。衲子競集。遂成叢林。光隨機引導。於禪堂外別開念佛堂。會憨山清公至。相與商立規制。分十二時。人均六班。班各六時。經行唱佛。禮拜迴向。餘各靜坐。隨聞默念。或習觀門。動靜兩得。崇禎九年七月十五日。忽示微疾。謂弟子曰。今日晴朗。吾欲遠去。弟子曰。師病欲何往。光曰。汝謂我病邪。扶杖出寢室趺坐。集眾囑付後事。適有蔡居士至。光撫掌笑曰。居士證明。餘不及待也。因書偈曰。一句彌陀五十年。分明掘地討青天。而今好箇真消息。夜半鐘聲到客船。書畢。顧視左右。投筆而逝(淨土全書理安寺紀)。

金童廟僧

金童廟僧者。遺其名。廟在常熟北門。僧日持一版擊於街巷。高聲唱無常迅速。一心念佛。眾不甚異之。崇禎十三年三月。徧辭諸鄰舍曰。好念佛。老僧去矣。人莫解其故。次日拈香佛前。合掌稱佛名。端坐而逝(淨土約說後跋)。

海寶

海寶。不詳其所出。居常州天寧寺。貌甚樸。人與語不答片言。唯嘻笑而已。破衲滿蟣虱。暇則席地對佛。拈虱上下。不離其身。常募錢買蔬腐供寺僧。又積施金。懇眾誦經禮懺。已則念佛迴向。歷年如是。崇禎間。翰林鄭胙長。約寶朝南海。已而却之。發棹後。常見寶在陸前行。追之不及。迨登山入殿。寶又在焉。遣使要師同回。復不得。鄭抵郡。即詣寺候寶。弟子云。師沈臥一月餘。昨方起耳。鄭述其神異。郡人由此欽信。一日趺坐。念佛而化(淨土晨鐘)。

大雲

大雲。字萬安。姓郭。仁和人。出家永慶寺。受具於雲棲。居北郊。篤志淨業。相依者眾。募建吉祥寺。寮宇燦然。遂成叢席。共住規約。一秉雲棲之制。未幾示微疾。即絕飲食。專稱佛號。閱一月。或有往省之者。雲曰。彌陀不念。念我何為。臨終。語弟子智經曰。為我灑掃。佛來迎矣。趺坐念佛而逝。年五十九(靈峯宗論)。

無名僧

無名僧者。居湖廣黃州。專持阿彌陀佛。晝夜不輟。隨所見皆稱阿彌陀佛。崇禎十六年。總兵黃鼎守州城。僧大聲唱佛。衝其導。執之。適張獻忠攻黃州。僧坐城上。夜間高聲唱佛。軍士不得睡。恨之。縛投城下。俄而復在城上唱佛。如是四次。每東城下。西堂上。南城下。北城上。總兵聞之。始敬禮焉。黃州大饑。人相食。僧出城外。饑民持刀乞僧捨身。僧解衣示眾云。俟我念佛千聲。即食我。稱至三百聲。眾急欲加刃。忽有神兵從空中來。飢民驚散。而僧已在城中矣。山中獵人得一大虎。僧欲贖放之。獵人索三十金。僧止得四金。獵人云。汝能執虎耳三匝。則與汝虎。僧授記虎。執虎耳三匝。遂縱之。虎依僧不去。僧與虎同往黃麻山金剛洞中。巡撫盧象昇督兵過黃州。詣山訪之。欲見虎。僧語虎探頭窗外。盧欲見全身。虎乃大叫躍出。盧亦納贖稱弟子而去。僧一日行街中。見一雞。高聲唱佛。雞亦隨聲而唱。大清順治七年。欲之武林。道經白門。寓秦淮河房。端午。見遊船中有錢生者。其弟子也。遂呼云錢阿彌陀佛。錢登岸見僧。僧問同遊人。知為某某。放聲大哭曰。眾生以苦為樂。乃如是邪。錢懇示修行之要。僧云。一心念阿彌陀佛。復云。我行後。汝有所疑。可問覺浪。此明眼人也。後不知其終。覺浪。名道盛。歷主金陵天界杭州崇光諸處道場。宗風大振(淨土晨鐘)。

淨土聖賢錄卷五

往生比丘第三之五

智旭

智旭。字蕩益。姓鍾。吳縣人。父持白衣大悲呪。夢大士送子而生旭。少以聖學自任。著書闢佛。凡數千言。及閱雲棲竹窗隨筆。乃焚所著論。年二十。讀地藏本願經發出世志。日誦佛名。天啟元年。年二十四。聽一法師講經。疑情忽發。用心參究。已而豁然。尋掩關於吳江。遇疾且殆。始一意求生淨土。疾少閒。結壇持往生呪。七日。說偈曰。稽首無量壽。拔業障根本。觀世音勢至。海眾菩薩僧。我迷本智光。妄墮輪回苦。曠劫不暫停。無救無歸趣。劣得此人身。仍遭劫濁亂。雖復預僧倫。未入法流水。目擊法輪壞。欲挽力未能。良由無始世。不植勝善根。今以決定心。求生極樂土。乘我本誓船。廣度沈淪眾。我若不往生。不能滿所願。是故於娑婆。畢定應舍離。猶如被溺人。先求疾到岸。乃以方便力。悉拯暴流人。我以至誠心。深心迴向心。然臂香三炷。結一七淨壇。專持往生呪。惟除食睡時。以此功德力。求決生安養。我若退初心。不向西方者。寧即墮泥犁。令疾生改悔。誓不戀人天。及以無為處。仰願大威神。力無畏不共。三寶無邊德。加被智旭等。折伏使不退。攝受令增長。其後歷住溫陵漳州石城晟溪長水新安。廣宏台教。而歸老於靈峯。時諸方禪者。多以淨土為權教。遇念佛人必令參究誰字。旭獨謂持名一法。即是圓頓心宗。有卓左車者。嘗設問言。如何是念佛門中向上一路。如何得離四句絕百非。如何是念佛人最後極則。如何是淆譌處腦後一鎚。冀和尚將向來自性彌陀唯心淨土等語。撇向一邊。親見如來境界。快說一番。震動大千世界。旭答言。向上一著。非禪非淨。即禪即淨。才言參究。已是曲為下根。果大丈夫。自應諦信是心作佛。是心是佛。設一念與佛有隔。不名念佛三昧。若念念與佛無間。何勞更問阿誰。淨土極則事。無念外之佛。為念所念。無佛外之念。能念於佛。正下手時。便不落四句百非。通身拶入。但見阿彌陀佛一毛孔光。即見十方無量諸佛。但生西方極樂一佛國土。即生十方諸佛淨土。此是向上一路。若捨現前彌陀。別言自性彌陀。捨西方淨土。別言唯心淨土。此是淆譌公案。經云。三賢十聖住果報。唯佛一人居淨土。此是腦後一鎚。但能深信此門。依信起願。依願起行。則念念流出無量如來。徧坐十方微塵國土。轉大法輪。照古照今。非為分外。何止震動大千世界。又嘗示人云。夫念佛法門。別無奇特。只是深信力行為要。

耳。佛云若人但念彌陀佛。是名無上深妙禪天台云。四種三昧。同名念佛。念佛三昧。名為三昧中王。雲棲云。一句阿彌陀佛。該羅八教。圓攝五宗。可惜如今人將念佛看做淺近勾當謂愚夫愚婦工夫。所以信既不深。行亦不力。終日悠悠。淨功莫尅。或有巧設方便。欲深明此念佛三昧者。動以參究誰字為向上。殊不知一念現前之心。本自離句絕非。不消作意離絕。即現前一句所念之佛。亦本超情離見。何勞說妙說元。只貴信得及。守得穩。直下念去。或晝夜十萬。或五萬三萬。以決定不缺為準。畢此一生。誓無變改。而不得往生者。三世諸佛便為誑語。一得往生。則永無退轉。種種法門。悉得現前。切忌今日張三明日李四。遇著教下人。又思尋章摘句。遇著宗門人。又思參究問答。遇著持律人。又思搭衣用鉢。此則頭不了。帳不清。豈知念得阿彌陀佛熟。三藏十二部極則教理。都在裏許。千七百公案向上機關。亦在裏許。三千威儀。八萬細行。三聚淨戒。亦在裏許。真能念佛。放下身心世界。即大布施。真能念佛。不復起貪嗔癡。即大持戒。真能念佛。不計是非人我。即大忍辱。真能念佛。不稍間斷夾雜。即大精進。真能念佛。不妄想馳逐。即大禪定。真能念佛。不為他岐所惑。即大智慧。試自簡點。若於身心世界。猶未放下。貪嗔癡念。猶自現起。是非人我。猶自挂懷。間斷夾雜。猶未除盡。妄想馳逐。猶未永滅。種種他岐。猶能惑志。便不名為真念佛也。要到一心不亂境界。亦無他術。最初下手。須用數珠記得分明。刻定謀程。決定無缺。久久純熟。不念自念。然後記數亦得。不記數亦得。若初心便要說好看話。要不著相。要學圓融自在。總是信不深。行不力。饒你講得十二分教。下得千七百公案。皆是生死岸邊事。臨命終時。決然用不著。順治十年冬。有疾。遺命闍維後。屑骨和粉。分施禽魚。結西方緣。明年正月二十一日晨起。病良已。午刻。趺坐繩牀向西舉手而逝。年五十七。既寂二年。如法闍維。啟龕髮長覆耳。面如生。門人不忍從遺命。收其骨塔於靈峯(靈峯宗論)。

如會

如會。號妙圓。姓譚。順天人。少斷肉。二十九歲出家。誓行頭陀。脇不著席。前後共然六指以懺宿業。煉頂燒臂無算。初至南方。唯事苦行。後為道侶所感發。一心念佛。遂得豁忘身世。見一切緇素。不作寒溫語。誨人必猛厲懇切。單已獨行。不蓄長物。夏棄冬衣。冬盡捨夏。嘗在水草庵。謂劉道澂曰。一心念佛。專求上品上生。便是向上第一義。子等他日方信此言。順治五年秋。過淮安清江浦。眾共留之。未幾以一衲贈萬德庵主人。且囑之曰。吾不

久將去。特一事相託。主人曰。和尚方來。何遽言去。曰。西方去耳。可以遺身付江流中。普與魚蟲結淨土緣。主人辭不敢。會曰。然則茶毗後。以骨和麪粉。為我結緣何如。主人曰諾。因命購大燭好香。眾莫測其意。十月十九日。夜四鼓。大呼主人曰。速啟大門。燒香然燭。主人然燭竟。視之。寂然坐逝矣。遠近聞異香。遵遺命。茶毗粉骨送之江。年七十一(靈峯宗論)。

大勅

大勅。字冲符。姓邊。紹興諸暨人。髫年出家於邑之大雄寺。及長聞雲棲聲教。因渡江禮焉。機緣契合。遂傾心淨土。晚年。憩錫大善禪堂。雅好華嚴。日誦一函。著懷淨土詩一百八首。今錄其四首。一云。佛種從緣起大機。吾今活計掩吾扉。身輕煉得同仙鶴。極樂橫橫一直飛。一云。自笑山僧不奈何。乾坤浪蕩熱心多。逢人要說西方話。指示明明一剎那。一云。苦盡甘來屆晚年。佛聲念徹齒流泉。金臺少見庭槐兆。再著精勤勿怨天。一云。兀然起念念伽婆。平地無風自作波。念念消歸無念處。豈知無念亦為多。順治六年十一月。示疾。親書封龕記對。屬諸後事。至期起坐。著淨衣。面西稱阿彌陀佛而逝(冲符禪師淨土詩并跋)。

大真

大真。號新伊。姓周。常德武陵人。在襁褓中。即能合掌稱南無佛陀。逮就外傳。不伍羣兒。聚沙畫地為佛塔。或趺坐觀鼻。九歲詣蓮居紹覺師受歸戒。遂依座下。十五薙髮。二十入雲棲受具戒。真父母先後禮紹覺師出家。真就養無方。數十年如一日。師歿。真主蓮居。著唯識合響。兼授金剛寶戒。建大悲壇。兼修事理二懺。年七十一。秋示微疾。集居士弟子。囑以護持正法。越七日。沐浴更衣。趺坐持珠。與眾同稱佛號。頃之聲息俱寂。鼻垂玉筋。過尺許。踰時頂猶熱。先是優婆塞周氏。夢天樂迎真西逝。急偕戚屬數人來受皈戒。庵主道聲。預以元日夢真坐蓮臺上云(靈峯宗論)。

道樞

道樞。仁和人。通天台教。篤志淨業。不親世緣。順治十二年。夢偕神僧登玉屏峯頂。明年六月。微疾。二十六日。蚤起語眾曰。吾夜夢神僧來迓。豈即昔之登玉屏峯者邪。人靜時。忽見幡蓋盈空。

蓮華布地。即趺坐合掌。朗誦法華經題七徧。唱阿彌陀佛百餘聲。安詳而逝。顏色不變。龕几間。異香郁然(淨土全書)。

崇文

崇文。不詳其所出。受業雲棲宏公之門人。住常熟南洙村靜室。雙目失明。乃專心念佛。夜每登座施瑜伽食。三年不輟。順治十五年三月十四日。遣其徒行先報城中緇素曰。明日當西歸。特遣告別。明日凌晨眾集凡三十餘人。文坐於牀。命其徒誦彌陀經一卷。誦畢入寂。室中香氣。三日不散(淨土約說後跋)。

具宗

具宗。常州無錫人。講天台止觀。修念佛三昧。誨人不倦。順治十六年。示疾。具湯沐浴。著一履。誦彌陀經畢。唱佛十聲。大書八字云。廓落靈虛。無往來處。擲筆而逝。趺坐三日。顏色不變(淨土全書)。

讀體

讀體。字見月。姓許。其先江南句容人。從軍滇黔。以功襲指揮使。遂家於楚雄。體不欲襲官。去之劍州赤宕巖。修真三載。一日遇老僧授以華嚴經。披閱大悟。遂出家。受具戒於三昧光律師。三昧主寶華山。將示寂。授以衣鉢為寶華第二代祖。靜修般舟三昧。不坐不臥不依倚。晝夜壁立者九十日。四方緇素。翕然歸附。南北禮請開戒者無虛月。一日示微疾。曰。勿進湯藥。後七日吾當行矣。至期寂然而逝。年七十九。荼毗。見蓮華佛相騰於火中。獲五色舍利升餘(寶華山志)。

林谷

林谷。紹興人。住羅山之西南。破衲麻鞋。唯勸人念佛。一日見白雲中有佛來迎。遂化去。土人名其庵曰白雲(淨土全書)。

萬緣

萬緣。姓喬。湖州長興人。為人愚鈍。人詈之弗嗔也。譽之弗喜也。專持佛號數十年。康熙二年七月。忽自縛草龕。有殷任之者。

與緣善。謂曰。師既縛龕。我往蘇賣茶歸。當為置褥。緣曰。承汝好心。恐不及待耳。至九月一日。微疾。但飲白水。至六日方午。自入草龕。趺坐而逝(淨土全書)。

勝慈

勝慈。字與樂。姓楊。滁州北譙人。出家雞鳴寺。年十四。謁西竺大師。學唯識論。未契。時碧空大師講法華經於師子窟。慈往依焉。嘗以生死大事。啟發二親。二親感悟。俱出家。年二十九。西竺以衣鉢付之。明年。主雞鳴寺。後居上乘庵。唯以淨土為歸。未幾示疾。臨終謂母氏曰。彌陀舟航。能渡苦海。言訖而逝。時康熙二年十二月七日也。年五十七(賢首宗乘)。

成時

成時。號堅密。姓吳。徽州歙縣人。少為諸生。年二十八出家。於禪教二宗。參訪略徧。及見蕩益法師。遂終身依止。卒傳其道。歙人延時居仰山。山中猛獸皆馴伏。自撰齋天法儀。感天神現身。人多見者。後往江寧。駐錫天界半峯。宏靈峯之遺教。勤修淨業。日有定課。雖甚寒暑不少懈。刻淨土十要。為之序以暢其旨。其文曰。淨土法門者何。法界緣起也。何謂法界。吾人現前一念之心。不唯非塊然。亦復非倏爾。纔有能起。即屬所緣。非能緣者。不得已強名之曰無相。然虛空兔角。亦受無相之名。而虛空有表顯相。兔角有斷無相。非真無相。又不得已強名此無相曰真。唯其無相而真。故十方三世依正色心自他凡聖等法。皆在我現前一念無相真心中。炳然齊現。心無相而真。從心所現。一切諸法。莫不無相而真。是故於中隨拈一毫末。一一皆具十方三世依正色心自他凡聖等法。而無餘欠。乃至一欸一掉。一名一字。罔非自心之全體大用。而欸掉名字之外。更無一法可得。此所謂法界也。何謂法界緣起。聖凡皆此法界。非麤妙。無減增。不涉生死。不干迷悟。而悟順法界故。出生二種涅槃。迷逆法界故。妄現二種生死。迷逆生死。法界宛然。無奈眾生從未悟故。終不能了。諸佛菩薩愍之。從一真法界。起種種因緣。世出世間事類無算。一介螻蛄。萬聖互援。神力既同。慈心亦等。而眾生迷逆妄故。受化不齊。於諸佛菩薩平等光中。有有緣無緣。及緣中淺深久近之異。緣分差等。化辨從違。若或無緣。徒勞引領。此所謂法界緣起也。是故建化門中。只論繫珠一義。如法華妙典。廣談宿因。先聖以四釋闡明(因緣釋約教釋本迹釋觀心釋)。而必以因緣居首。由緣匪一。故教網弛張。由教無方。故

恩德貫徹。由恩不可窮盡。故得消歸自己。領納家珍。故知因緣即第一義。是旨也。精研藏教。備考羣宗。由忍土而遐攬十虛。從末流而曠觀三際。則求生淨土一法。誠法界第一緣起矣。說者謂阿彌願勝。駕越諸方。然諸佛願等。子等心等。法性海中。豈容優劣。而千經萬論。極口指歸樂邦。十方廣長。同聲勸讚光壽者。何哉。緣在故耳。緣何謂在。信也。何謂不在。不信也。信不在處。惡業障之。又諸佛四土。上三上容有橫義。至同居土。大抵有豎無橫。唯極樂同居。橫具四土。是故有情。以凡夫而例一生補處。國土即緣生而顯稱性法塵。佛身因應化而見法身真常。說法從眾鳥而聞梵音深遠。以要言之。法法圓融。塵塵究竟。教海無一名相可筌蹄。法門無一因果可比擬。然此等希有。十方罕聞。而唯在極樂者。何哉。緣深故耳。緣何謂深。信深也。緣何謂淺。信淺也。信根淺處。恒情域之。諸佛度生。皆經累劫。從凡階聖。不退為難。今求生極樂。但七日竭誠。十念傾注。雖陷惡逆。悉記往生。纔得往生。便圓踞三不退地。且見阿彌。即見十方諸佛。生極樂。即生一切剎海。乃至阿彌一光。極樂一塵。悉能於中頓證十方三世依正色心自他凡聖等法。而不出剎那際三昧。夫諸佛度生如彼難。阿彌度生如此易者。何哉。緣久故耳。緣何謂久。信久也。緣何謂近。信近也。信緣近處。時分限之。如上所論。專重有緣。緣深則境界難思。非十地等覺所能測。緣久則神力迅速。非三祇百劫所可倫。要之阿彌。非有加於吾心也。吾心一念離絕。故聖凡無在。吾心萬法頓融。故四土無在。吾心不屬時劫。故十世剎那無在。吾心不屬方隅。故微塵剎海無在。吾何歉乎哉。特仗增上因緣。一顯發之耳。故淨土一門。至簡至妙。唯以現前一念無明業識之心。專稱阿彌陀佛名號。無間一心。未有不親證親到者。但恐法門之戲論難忘。生死之天懷不切。或執摩尼而視同瓦礫。或以指爪而撮摩虛空。或抉醫而與眼以明。或傳經而苦舌之鳩。如此則揚之與抑。總莫暢乎本懷。而信之與疑。皆不成乎三昧。間有大智。知進知退。知存知亡。而未邁至人。未獲圓悟。未窮極致。未學要詮。欲升永明之堂。入楚石之室。居五濁之世。闡難信之宗。殊非聊爾。昔靈峯老人。選定淨土十要一書。剗刪未全。乙未以後。梨棗四散。成時竊念淨土諸書。唯此十種盡善盡美。爰加點評。稍事節略。自以觀經初門彌陀行儀二種附之。訂訖。倡募流通。而大心緇白共成焉。於是成時合掌稽首。重為告曰。淨土持名之法。有三大要焉。一者。六字洪名。念念之間。欣厭具足。如出幽獄。奔託王家。步步之間。欣厭具足。是故萬緣之唾不食。眾苦之忍莫回。高置身於蓮華。便訂盟於芬利。蛆蠅糞壤。可殺驚慚。二者。參禪必不可無淨土。為防退墮。寧不寒心。淨土必不可入禪機。意見稍乘。二門俱

破。果能專修淨業。不須更涉餘宗。冷暖自知。何容強諍。三者。一句彌陀。非大徹不能全提。而最愚亦無少欠。倘有些子分別。便成大法魔殃。只貴一心受持。寧羨依稀解悟。乞兒若見小利。急須吐棄無餘。棒打石人頭。爆爆論實事。已上三要頗切今時。尚能真實指迷。我願捨身供養。十方三世。共聞此言。康熙十七年十月十五日。卒於江寧半峯。三日前異香繞室(餘學齋集淨土十要序)。

行策

行策。字截流。姓蔣。父全昌。宜興老儒也。與憨山清公為友。憨山既示寂之三年。為天啟六年。一夕全昌夢憨山入室而生子。因名之曰夢憨。及長。父母相繼逝。發出世志。年二十三。投武林理安寺箬庵問公出家。脅不至席者五年。頓徹法原。問公化去。策住報恩寺。遇同參息庵瑛師。勸修淨業。又遇錢塘樵石法師。引閱台教。乃同入淨室。修法華三昧。宿慧頓通。窮徹教髓。康熙二年。結庵於杭州法華山西溪河渚間。專修淨業。因名所居曰蓮柝庵。九年。住虞山普仁院。唱興蓮社。學者翕然宗之。著勸發真信文曰。念佛三昧。其來尚矣。雖曰功高易進。而末世行人。罕獲靈驗。良由信願不切。未能導其善行以要歸淨土故也。今既廣邀善侶。同修淨因。若非諦審發心。寧知出苦要道。凡我同人。預斯法會者。須具真實信心。苟無真信。雖念佛持齋。放生修福。祇是世間善人。報生善處受樂。當受樂時即造業。既造業已必墮苦。正眼觀之。較他一闡提旃陀羅輩。僅差一步耳。如是信心。豈為真實。所謂真信者。第一要信得心佛眾生。三無差別。我是未成之佛。彌陀是已成之佛。覺性無二。我雖昏迷倒惑。覺性未曾失。我雖積劫輪轉。覺性未曾動。故曰一念回光。便同本得也。次要信得我是理性佛。名字佛。彌陀是究竟佛。性雖無二。位乃天淵。若不專念彼佛。求生彼國。必至隨業流轉。受苦無量。所謂法身流轉五道。不名為佛。名為眾生矣。次要信得我雖障深業重。久居苦域。是彌陀心內之眾生。彌陀雖萬德莊嚴。遠在十萬億刹之外。是我心內之佛。既是心性無二。自然感應道交。如磁石吸鐵。無可疑者。所謂憶佛念佛。現前當來必定見佛。去佛不遠也。具如上真信者。雖一毫之善。一塵之福。皆可回向西方。莊嚴淨土。何況持齋秉戒。放生布施。讀誦大乘。供養三寶。種種善行。豈不足充淨土資糧。唯其信處不真。遂乃淪於有漏。故今修行。別無要術。但於二六時中。加此三種真信。則一切行履。功不唐捐矣。又嘗起精進七期。作文以示眾曰。七日持名。貴在一心不亂。無間無雜。非必以快念多念為勝也。但不緩不急。密密持去。使心中句號。歷歷分明。著衣喫飯。

行住坐臥。一句洪名。綿密不斷。如呼吸相似。既不散亂。亦不沈沒。如是持名。可謂事上能一心精進者矣。若能體究萬法皆如。無有二相。所謂生佛不二。自他不二。因果不二。依正不二。淨穢不二。苦樂不二。忻厭不二。取捨不二。菩提煩惱不二。生死涅槃不二。是諸二法。皆同一相。一道清淨。不用勉強差排。但自如實體究。體究之極。與自本心。忽然契合。方知著衣喫飯。總是三昧。嬉笑怒罵。無非佛事。一心亂心。終成戲論。二六時中。覓毫髮許異相不可得。如是了達。方是真正學道人一心精進持名也。前一心似難而易。後一心似易而難。但能前一心者。往生可必。兼能後一心者。上品可階。然此兩種一心。皆是博地凡夫邊事。凡有心者。皆可修學。同堂緇素。各須勤策身心。近則七日內。遠則一生中。常作如是信。常修如是行。縱不克證。為因亦強。華宮托品。必不在中下矣。居普仁十三載。至康熙二十一年七月九日卒。年五十五。時有孫翰者。病死。一晝夜復蘇。曰吾為冥司勾攝。繫閻羅殿下。黑暗中忽覩光明燭天。香華布空。閻羅伏地。迎西歸大師。問大師何人。云截流也。吾以師光所照。遂得放還。同日有吳氏子病死。踰夕復活。具言所見。亦如翰言(餘學齋集淨土約說)。

海潤

海潤。字西一。淮安山陽人。康熙二十九年三月。至江寧華山。年僅二十餘。眾問作何行業。曰。念佛。問茲來何為。曰。吾為生死事故來。四月朔午刻便去。眾問何去。曰。到時自見也。至期眾忽見山頂火光燭天。亟趨視。見潤跏趺貴人峯。火從眼耳口鼻中迸出。然其軀。良久。全身端直。火盡不傾。時無錫長涇。有一庵僧。椎魯無他長。唯念佛而已。一日告眾曰。吾明日當去。至明日。問其徒曰日中否。徒曰未。曰。姑遲之。少頃。復問。徒曰。中矣。乃踞座跏趺。口自出火。焚其身(息廬剩言)。

指南

指南。蘇州常熟人。居東塔吳王庵。終日默坐念佛。人予之錢。即轉施與人。性坦率。於一切處無少繫戀。有芝塘里善士數人。素皈心焉。康熙三十年六月入城謁南。南謂曰。來月五日。與諸檀施別。眾如期往。南無他語。惟勸令專心念佛。跌坐而化(淨土約說後跋)。

超城

超城。字霞標。徽州人。姓汪。初禮師一寶。剃染於常州南岳寺。繼之杭州南潤。受具於天竺珍公。參父母未生前話。一日聞擊板聲。有省。作偈呈珍。珍頷之。自是機鋒迅利。信口說法。都成章句。後入華頂。開深雲庵故址潛修淨業。總兵藍公感異夢。輸金助之。既成。以授廣潤鏡。去之南潤。尋客金壇東禪寺。受縣人李尚巖請。開淨土寺。康熙三十四年秋。落成。即請虞山身葉萃繼其席。其年十月六日。萃至。城設茶別諸外護。激勸深切。積薪為座。將焚身供佛。詣大雄殿拈香。說偈云。漱口佛不喜聞。總是乞兒伎倆。直須念茲在茲。方為現大人相。據坐示眾曰。昔世尊於涅槃會上。以手摩胸。告眾云。汝等善觀吾紫磨金色之身。瞻仰取足。無令後悔。若謂吾滅度。非吾弟子。若謂吾不滅度。亦非吾弟子。時百萬億眾。悉皆契悟。諸仁者看這一隊隨邪逐惡漢。萬劫無有解脫之期。殊不知黃面老人。四十九年。說得天華亂墜。終是一場虛設。直到臨末稍頭。抵死命根不斷。城上座忍俊不禁。今且別資一格。使現前大眾。箇箇如龍得水去也。遂展兩手云。汝等善觀吾四大本空。五蘊非有。離這●滿子。畢竟恁處與諸人相見。若謂我滅度。是我同流。若謂我不滅度。亦是我同流。何以故。大海若不納。百川應倒流。起引眾繞佛。至積薪所。升座。復問眾云。高峯妙禪師道。盡大地是箇火坑。得何三昧不被燒卻。大眾試下一轉語。東禪格云。正是老弟受用處。城舉手笑曰。謝和尚證明。遂拊掌說長偈一首。以雙手擎兩燭臺云。這箇是金臺邪。銀臺邪。直下搆得。便知自性彌陀。共證藥王三昧。遂合掌三唱南無蓮池海會佛菩薩。舉燭然薪。須臾火大熾。眾環誦阿彌陀經。至今現在說法。城高聲曰住。頃之。復展兩手。剪開薪焰。出示全身。端坐而化。年三十有五。東禪格其同門也。書所見為之傳。諸方誦之(霞標禪師傳焚身說法記)。

明宏

明宏。字梅芳。杭州人。弱歲父為納婦。逃去。母哭之失明。後父母相繼而殂。始薙髮於紹興柯橋彌陀庵。尋事參訪。習天台教觀。坐禪有省。後閱藏於天台萬年寺。久之。兩目並勞損。曰。此吾違親慈念之報也。自是一心念佛。寒暑無間。嘗曰。我因失明。得大利益。平時一鉢一杖。居無常處。所得覓施。隨施貧乏。思齊賢公與宏交。嘗謂宏決生淨土。謂宏有三真。真解脫。真乾淨。真精進也。雍正五年九月。賢公於梵天寺。起念佛七期。招宏入社。時宏

患痢。而持名不少懈。七期畢。往無錫齋僧館。病轉劇。一日徧告檀越。期以明日將行。眾如期至。即起坐念佛。合掌而化(思齊大師遺稿)。

明德

明德。字聖眼。姓馬。杭州海寧人。四歲出家梵天寺。十六薙髮。性孤僻不好世務。年三十六。將詣律師求戒。忽得喘疾。日甚。有徒孫一葦。延數僧在寺開淨業堂。思齊賢公亦與焉。堂之左。即德臥室。日聞眾唱佛聲。恒默隨之。已而自知時至。命一葦延眾僧至牀前齊聲唱佛。少頃止之。謂賢公曰。願師開示。賢公曰。汝當盡捨萬緣。一心念佛。了生脫死。在此一時。急宜著力。德遂偕眾持佛名。復發四宏誓願。語極懇切。至夜半。佛聲方畢纔舉觀音聖號。即轉身垂目而逝。時雍正七年十二月二十六日也(思齊大師遺稿)。

實賢

實賢。字思齊。號省庵。常熟時氏子也。自少不茹葷。出家後參念佛者是誰有省。曰。吾夢覺矣。掩關真寂寺三年。晝覽藏文。晚課佛號。詣鄞山禮阿育王塔。嘗以佛涅槃日。大合緇白廣修供養。然指佛前。發四十八大願。卒感舍利放光。作勸發菩提心文。激厲四眾。誦者多為涕下。其文曰。嘗聞入道要門。發心為首。修行急務。立願居先。願立則眾生可度。心發則佛道堪成。苟不發廣大心。立堅固願。則縱經塵劫。還在輪回。雖有修行。徒勞辛苦。華嚴經云。忘失菩提心。修諸善法。是名魔業。忘失尚爾。況未發乎。故知欲學如來乘。必先具發菩提願。不可緩也。然心願差別。其相乃多。今為大眾略而言之。相有其八。所謂邪正真偽大小偏圓是也。世有行人。一向修行。不究自心。但知外務。或求利養。或好名聞。或貪現世欲樂。或望未來果報。如是發心。名之為邪。既不求利養名聞。又不貪欲樂果報。唯為生死。為菩提。如是發心。名之為正。念念上求佛道。心心下化眾生。聞佛道長遠。不生退怯。觀眾生難度。不生厭倦。如登萬仞之山。必窮其頂。如上九層之塔。必造其顛。如是發心。名之為真。有罪不懺。有過不除。內濁外清。始勤終怠。雖有好心。為名利之所夾雜。雖有善法。為罪業之所染污。如是發心。名之為偽。眾生界盡。我願方盡。菩提道成。我願方成。如是發心。名之為大。觀三界如牢獄。視生死如冤家。但期自度。不欲度人。如是發心。名之為小。若於心外見有眾

生及以佛道。願度願成。功勳不忘。知見不泯。如是發心。名之為偏。知自性是眾生。故願度脫。自性是佛道。故願成就。不見一法離心別有。以虛空之心。發虛空之願。行虛空之行。證虛空之果。亦無虛空之相可得。如是發心。名之為圓。知此八種差別。則知審察。知審察。則知去取。知去取。則可發心。云何審察。謂我所發心。於此八種中。為邪為正。為真為偽。為大為小。為偏為圓。云何去取。所謂去邪去偽。去小去偏。取正取真。取大取圓。如此發心。方得名為真正發菩提心也。此菩提心諸善中王。必有因緣。方得發起。今言因緣。略有十種。何等為十。一者念佛重恩故。二者念父母恩故。三者念師長恩故。四者念施主恩故。五者念眾生恩故。六者念死生苦故。七者尊重己靈故。八者懺悔業障故。九者求生淨土故。十者為令正法得久住故。云何念佛重恩。謂我釋迦如來。從初發心。為我等故。行菩薩道。經無量劫。備受諸苦。我造業時。佛則哀憐。方便教化。而我愚癡。不知信受。我墮地獄。佛復悲痛。欲代我苦。而我業重。不能救拔。我生人道。佛以方便。令種善根。世世生生。隨逐於我。心無暫捨。佛初出世。我尚沈淪。今得人身。佛已滅度。何罪而生末法。何福而預出家。何障而不見金身。何幸而躬逢舍利。如是思惟。向使不種善根。何以得聞佛法。不聞佛法。焉知常受佛恩。此恩此德。邱山難喻。自非發廣大心。行菩薩道。建立佛法。救度眾生。縱使粉骨碎身。豈能酬答。是為發菩提心第一因緣也。云何念父母恩。哀哀父母。生我劬勞。十月三年。懷胎乳哺。纔得成人。指望紹繼門風。供承祭祀。今我等既已出家。濫稱釋子。甘旨不供。祭掃不給。生不能養其口體。沒不能導其神靈。於世間則為大損。於出世又無實益。兩塗既失。重罪寧逃。如是思惟。唯有百劫千生。常行佛道。十方三世。普度眾生。則不唯一生父母。生生父母。俱蒙拔濟。不唯一人父母。人人父母。盡可超昇。是為發菩提心第二因緣也。云何念師長恩。父母雖生育我身。若無世間師長。則不知禮義。若無出世師長。則不解佛法。不知禮義。則同於異類。不解佛法。則何異俗人。今我等粗知禮義。略解佛法。袈裟被體。戒品沾身。此之重恩。從師長得。若求小果。僅能自利。今為大乘。普願利人。則世出世間二種師長。俱蒙利益。是為發菩提心第三因緣也。云何念施主恩。謂我等今者日用所資。並非己有。三時粥飯。四季衣裳。疾病所須。身口所費。此皆出自他力。將為我用。彼則竭力躬耕。尚難餬口。我則安坐受食。猶不稱心。彼則紡織不已。猶自艱難。我則衣服有餘。寧知愛惜。彼則葦門蓬戶。擾攘終身。我則廣廈閒庭。優游卒歲。以彼勞而供我逸。於心安乎。將他利而潤己身。於理順乎。自非悲智雙運。福慧二嚴。檀信沾恩。眾生受賜。則粒米

寸絲。酬償有分。泥犁餓鬼。惡報寧逃。是為發菩提心第四因緣也。云何念眾生恩。謂我與眾生。從曠劫來。世世生生。互為父母。彼此有恩。今雖隔世昏迷。互不相識。以理推之。寧無報効。今之披毛帶角。安知非昔為其子乎。今之蠕動蜎飛。安往不曾為我父乎。至其號呼於地獄之下。宛轉於餓鬼之中。苦痛誰知。飢虛安訴。我雖不見不聞。彼必求拯求濟。非經不能陳此事。非佛不能道此言。彼邪見人。何足以知此。是故菩薩觀於螻蟻。皆是過去父母。未來諸佛。常思利益。念報其恩。是為發菩提心第五因緣也。云何念生死苦。謂我與眾生。從曠劫來。常在生死。未得解脫。人間天上。此界他方。出沒萬端。升沈片刻。黑門朝出而暮還。鐵窟暫離而又入。登刀山則舉體無完膚。攀劍樹則方寸皆割裂。熱鐵不除飢。吞之而肝腸盡爛。洋銅寧療渴。飲之而骨肉都糜。利鋸解之則斷而復續。巧風吹之則死已還生。猛火城中。忍聽吽嗥之慘。煎熬盤裏。誰聞苦痛之聲。冰凍始凝。狀似青蓮藥結。血肉既裂。身如紅藕華開。一夜死生。地下每經萬遍。片時苦痛。人間已過百年。頻煩獄卒疲勞。誰信閻翁教誡。受時知苦。雖悔恨以何追。脫已還忘。其作業也如故。心無常主。類商賈而處處奔馳。身無定形。似房屋而頻頽遷徙。大千塵點。難窮往返之身。四海波濤。孰計別離之泪。峩峩積骨。過彼崇山。莽莽橫尸。多於大地。向使不聞佛語。此事誰見誰聞。未覩佛經。此理寧知寧覺。其或依前貪戀。仍舊癡迷。祇恐萬劫千生。一錯百錯。人身難得而易失。良時易往而難追。道路冥冥。別離長久。三塗惡報。還自受之。痛不可言。誰當相代。故宜斷生死流。出愛慾海。自他兼濟。彼岸同登。曠劫殊勳。在此一舉。是為發菩提心第六因緣也。云何尊重已靈。謂我現前一心。直下與釋迦如來。無二無別。云何世尊無量劫來。早成正覺。而我等昏迷顛倒。猶是凡夫。又我世尊具有無量神通智慧功德莊嚴。而我等但有無量業繫煩惱生死纏縛。心性是一。迷悟天淵。譬如無價寶珠。沒在淤泥。視同瓦礫。不加愛重。故宜以無量善法。對治煩惱。修德有功。性德方顯。如珠被濯。懸在高幢。洞達光明。映蔽一切。可謂不孤佛化。不負已靈。是為發菩提心第七因緣也。云何懺悔業障。經言犯一吉羅。如四天王壽五百歲墮泥犁中。吉羅小罪。尚獲此報。何況重罪。其報難言。今我等日用之中。一舉一動。恒違戒律。一食一水。頻犯尸羅。一日所犯。亦應無量。何況終身歷劫。所起之罪。更不可言矣。且以五戒言之。十人九犯。少露多藏。五戒名為優婆塞戒。尚不具足。何況沙彌比丘菩薩等戒。又不必言矣。若非自愍愍他。自傷傷他。身口併切。聲泪俱下。普與眾生。求哀懺悔。則千生萬劫。惡報難逃。是為發菩提心第八因緣也。云何求生淨土。謂在此土修行。其進道也難。彼

土往生。其成佛也易。易故一生可致。難故累劫未成。是以往聖前賢。人人趣向。千經萬論。處處指歸。末世修行。無越於此。然經稱少善不生。多福乃致。言多福莫若執持名號。言多善莫若發廣大心。暫持聖號。勝於布施百年。一發大心。超過修行歷劫。蓋念佛本期作佛。大心不發。則雖念奚為。發心原為修行。淨土不生。則雖發易退。下菩提種。耕以念佛之犁。道果自然增長。乘大願船。入於淨土之海。西方決定往生。是為發菩提心第九因緣也。云何令正法久住。謂我世尊無量劫來。為我等故。修菩提道。難行能行。難忍能忍。因圓果滿。遂致成佛。既成佛已。化緣周訖。入於涅槃。正法像法。皆已滅盡。僅存末法。有教無人。邪正不分。是非莫辨。競爭人我。盡逐利名。不知佛是何人。法是何義。僧是何名。衰殘至此。殆不忍言。每一思及。不覺淚下。我為佛子。不能報恩。內無益於己。外無益於人。生無益於時。死無益於後。極重罪人。非我而誰。由是痛不可忍。計無所出。頓忘鄙陋。忽發大心。偕諸善友。同到道場。述為懺摩。逢茲法會。發四十八之大願。願願度生。期百千劫之深心。心心作佛。畢此一形。誓歸安養。既登九品。回入娑婆。俾得佛日重輝。法門再闡。僧海澄清於此界。人民被化於東方。劫運為之更延。正法得以久住。此則區區真實苦心。是為發菩提心第十因緣也。如是十緣備識。八法周知。趣向有門。開發有地。唯願大眾。愍我愚誠。憐我苦志。同立此願。同發是心。未發者令發。已發者增長。已增長者今令相續。勿畏難而退怯。勿視易而輕浮。勿欲速而不久長。勿懈怠而無勇猛。勿因愚鈍而一向無心。勿以根淺而自鄙無分。譬如種樹。種久則根淺而日深。又如磨刀。磨久則刀鈍而成利。豈其因淺勿種。任其自枯。因鈍弗磨。置之無用。又若以修行為苦。則不知懈怠尤苦。修行則勤勞暫時。安樂永劫。懈怠則偷安一世。受苦多生。況乎以淨土為舟航。則何愁退轉。又得無生為忍力。則何慮艱難。勿言一念輕微。勿謂虛願無益。心真則事實。願廣則行深。虛空非大。心王為大。金剛非堅。願力最堅。大眾誠能不棄我語。則菩提眷屬。從此聯姻。蓮社宗盟。自今締好。所願同生淨土。同見彌陀。同化眾生。同成正覺。晚居杭州僊林寺。雍正七年結蓮社。為文誓眾。以畢命為期。判日課為二十分。十分持名。九分作觀。一分禮懺。其示禪者念佛偈曰。一句彌陀。頭則公案。無別商量。直下便判。如大火聚。觸之則燒。如太阿劍。撻之則爛。八萬四千法藏。六字全收。千七百隻葛藤。一刀齊斷。任他佛不喜聞。我自心心憶念。請君不必多言。只要一心不亂。十一年臘月八日。告弟子曰。明年四月。吾其去矣。遂掩關一室。日課佛名十萬聲。明年四月十二日。告眾曰。月朔以來。再見西方三聖。其將往生乎。遂書偈辭眾。明

日斷食飲。斂目危坐。五更具浴更衣。十四日將午。面西寂然。送者麀至。忽張目曰。吾去即來。生死事大。各自淨心念佛可矣。合掌連稱佛名。遂逝。年四十九(思齊大師遺稿僧素風述)。

明悟

明悟。字丙元。黃州人。早歲出家仁壽庵。受戒歸元寺。徧參諸方。了悟心法。受囑於臯亭佛日寺璿鑑和尚。歷主吳江長慶蘇州珠明石門崇慶臯亭佛日諸寺。而歸老於蘇之龍興。晚而精修淨業。晝夜無間。乾隆十七年正月九日。寺中齋天。悟語眾曰。諸公好住。吾於上元前當去矣。至十四日。作偈曰。山僧年望七。諸緣事已畢。自入涅槃門。不露真消息。遂取湯盥沐。易衣。命眾稱佛名。至午而寂。年六十九(僧鶴峯述)。

德峻

德峻。字廣聞。一字蒼巖。蘇州人。出家於城中妙隱庵。徧參諸方。承曹洞宗。住杭州回龍真寂寺。歸而閉關盤溪小靈隱。先後數年。精修淨業。定中兩度見佛。出關遂造丈六彌陀像。刻淨土或問。導人念佛。時赴眾請演瑜伽噀口。屢有徵應。所得覲施。未嘗啟封。每出所藏。廣修佛事。乾隆二十八年九月。微示喘疾。召諸學徒。環稱佛名者七日。其日午後。命眾詣殿焚香。沐浴易衣。端坐稱佛名而逝。年八十五(僧鶴峯述)。

聞言

聞言。字超然。姓費。嘉興桐鄉人。幼不喜茹葷。好跏趺坐。七歲。入靈隱山祇園庵出家。為人淳樸。受具於雲林寺碩揆志禪師。朝夕提策。言曰。某甲鈍根。不善參究。唯知念佛耳。師曰。念佛亦可了生死。言依教奉行。精嚴戒律。二六時中。唯持佛名。弗問他事。乾隆二年六月二日。忽召徒眾謂曰。我行矣。汝等念佛送我。即說偈曰。吾年七十七。世緣俱已畢。坐斷兩頭關。得箇真消息。且道如何是真消息。響。合掌端坐而逝(雲林寺志)。

道徹

道徹。錢塘人。出家於半山嶺安隱寺。初參崇福高旻諸老師。發明本有。已而專修淨業。居杭州北門外四十里打飯橋文殊庵中。結期

閉關。室無長物。唯一几一單而已。甫數日得疾。困甚。自奮曰。念佛正為生死。奈何以病輟邪。持佛名益切。俄而金光照室。光中佛為摩頂。病霍然愈。遂得念佛三昧。行住坐臥。了無異念。如是三年。以三月望出關。升坐說法畢。謂眾曰。吾將以七月望後西歸。汝等可來送。及期。眾咸集。徹方設盂蘭盆會。眾至。理前語。徹曰。有之。可止少待。明日。延所善崇福僧。屬以庵中住持。又明日。設齋別眾。方午。入龕瞑坐而逝。頃之復蘇。謂眾曰。與諸君遠別。可無一言。娑婆之苦。不可說。不可說。極樂之樂。不可說。不可說。倘蒙記憶。但念阿彌陀佛。不久當相見。錯過此生。輪轉長夜。痛哉痛哉。語訖而逝。年四十八。事在乾隆十九年(僧旅亭述)。

成註

成註。字杲徹。姓郭。徐州銅山人。少出家。年二十。受具戒於寶華山。徧參諸山。嗣法於天童石吼徹公。已而專修淨業。乾隆十二年。住蘇州獅林寺。上南巡。幸其寺。勅名畫禪。日率眾四會唱佛名。往往燭跋香燼。眾一一退散。註佛聲不絕也。時應眾請演瑜伽燄口。所得贖施。輒付監院充修造費。未幾堂廡煥然。日恢其舊。中夜修大悲懺法。脅不至席。一日方持佛名。木魚墮地忽有省。自是信口說偈。若夙習者。嘗示眾云。脚踏無生路。四面何回互。推出眾人前。分明絕舉揚。本來真面目。萬事皆具足。觸著與磕著。處處超佛祖。更有念佛親。西方勝境真。蓮胎保養處。不隔一毫塵。若人達此意。不勞向外尋。業識消磨盡。往生即此心。華開親見佛。萬象盡回春。見居士問法者。輒曰。娑婆苦。盍從我西方去乎。三十四年四月。下痢。臥病頃之。一日召侍者曰。扶我起坐。索橘餅湯飲之。正念而逝。年七十三(畫禪寺雜錄僧宏通述)。

了庵

了庵。不詳其所出。遊歷叢林。參究甚切。晚修淨業。至漢口。安單棲隱寺。居人嚴氏買園奉之。頃之得疾。謂嚴氏曰。可歸我江南。嚴氏具舟送至金山。復歸江寧某寺。一日積薪於庭。坐其上。連稱阿彌陀佛。召眾舉火。眾莫應。促之。或授以炷香。取向鼻間吹之。火從鼻出。然面門。肉片片落。唱佛聲不絕。而火益熾。隱隱聞佛聲向空西邁。頃之乃寂。遺令其徒磨骨為粉。飼江魚。結淨土緣。其徒從之(僧旅亭述)。

實定

實定。字聞學。姓張。松江上海人。年二十餘。出家天台萬年寺。徧參諸方。發明心要。尋主天目禪原寺。晚至蘇州。住文星閣。嘗言達本之人。功未齊於諸聖。得生淨土。果行方圓。故常提唱念佛法門。著淨土詩一百八首。又言諸佛法身。含裹十方世界。經云。云何是中更容他物。直是超諸限量。迴絕去來。是心作佛。是心是佛。念念佛出世。念念佛滅度。念念無生。念念往生。頭頭上明。物物上顯。都盧是一句阿彌陀佛。方是真實念佛人也。乾隆四十二年。歸江陰香山寺。十二月有疾。明年正月三日。病七日矣。向晨。謂弟子曰。何日立春。曰後四日。復問今日是何日。曰甲子。定曰。今日好。遂起坐。囑後事畢。就枕臥。至黃昏起。呼眾至。命具湯洗手者再。連稱阿彌陀佛。眾請說偈。口占曰。繼祖傳燈接虛響。開堂說法鬼打鑼。鼻孔今朝拈正了。蓮華池上見彌陀。偈畢。寂然。眾呼之逝矣。年六十七。法嗣際會。字旅亭。亦修念佛三昧。臨終作偈別眾。吉祥而逝(二林居後集)。

實圓

實圓。松江人。少有出世志。年十八九。父母將為娶妻有日矣。夜走一寺。求主僧為剃髮。已遂之寶華山受具戒。其家控僧於官。官遣僧跡之。圓以僧服還。曰吾髮已除矣。無及也。其父母閉之一室。日常趺坐。不食不寢。無已。乃聽出家。松江城有僧設關。拜華嚴經。未竟。化去。為終事焉。已而至金山。行般舟三昧。滿百日。乾隆二十五年。居常州天寧寺。入念佛堂。晝夜唱佛不絕。二十八年三月。示微疾。集眾唱佛名。盡出囊中錢為贖滿三日。沐浴具威儀。隨眾入堂。趺坐唱佛而逝(僧正琦述)。

恒一

恒一。字聖學。姓沈。常州武進人。出家於穹窿之茅篷。初參揚州高旻寺。已而習台宗。通其教。嘗止蘇州文星閣。得咯血疾。去之杭州半山顯義院。疾甚。尅日設齋筵。別諸道友。唱西方佛名而逝。一嘗言某庵僧。落拓不持戒。一同戒友規之。不聽。已而病甚。召其友曰。不聽子言故至此。今且奈何。友曰。西方阿彌陀佛。有本誓願。造業眾生。十念念佛。盡蒙接引。子能信否。僧曰。信。然力不支。奈何。友曰。無傷也。設像牀西。偏令注目勿

動。爇爐香。為唱佛名。執病者手。令諦聽。如是三晝夜。病者忽起坐。謝其友曰。蒙佛接引。得中品生矣。舉手而別(僧淨雲述)。

慧端

慧端。不詳其所出。居杭州理安寺。日課佛名數萬。後住紹興善福庵。一日要同參僧澄谷。與他僧五六人。至庵唱佛名。日方午。忽舉手。高唱數聲。屹然而化。年二十餘(僧澄谷述)。

法真

法真。字朗如。瑞州高安人。得度於灌溪元文和尚。受具後。遊方至嶺南。居丹霞最久。平時潛心淨土。一日偶與禪者論及無字公案。蓄疑久之。豁然有省。詣海幢禮正目老人。機語契合。遂受記莚。乾隆二十年。眾請主席海幢。提唱宗乘。兼宏淨業。晚年謝院事。掩關寺之東偏。專課佛號。寒暑不懈者八年。嘗有偈云。百八輪珠晝夜提。芙蕖漸漸出深泥。輪珠擲却芙蕖放。古佛元來不在西。三十八年九月初。示微疾。十一日黃昏。召弟子囑後事。翌日午時。集眾唱佛名。香過二寸餘。自舉小淨土文。未半而逝(僧杲堂述)。

佛安

佛安。字誓願。蘇州人。年三十餘。鄰家殺豬。出其腑。有文曰曹操。瞿然發心。投上津橋天竺庵為僧。已而住北濠大王廟。以念佛為課。得錢輒買香華供佛。放諸魚鳥。乾隆四十一年三月。有疾。遣徒往獅林寺。請僧禮淨土懺三日。演瑜伽噉口一壇。期滿。明日設齋筵召客為別。稱佛名。其徒和之。香三炷。日午。曰行矣。端坐而逝。平居偶為詩。勸人回向。其末後有詩云。西方世界妙蓮臺。觀裏分明一朵開。赤白青黃無異色。心心唯願見如來。又云。莫道西方路正遙。只今彈指上金橋。彌陀接引微微笑。讚爾娑婆戒行高(僧修學述)論曰。佛法入中國。自漢迄晉。多以傳經解義為先。至遠公始建白蓮社。修念佛三昧。自利利人。後之言淨業者歸焉。祖師西來。直指本心。曹溪說法。簡斥淨土。此乃最上一機。絕諸方便。至天台永明天如楚石諸師。既悟無生之旨。復開念佛之門。豈非圓融性相。兼攝三乘者哉。夫所謂出家者。非獨辭親割愛而已。誠欲出三界之家也。能生極樂是真出家。若諸公者。或由禪入

淨。或即佛明心。掉身汙泥之中。蟬蛻輪回之苦。斯亦極大丈夫之能事矣。

往生比丘尼第四

慧木

慧木。姓傅。年十一。出家。居梁郡築戈村寺。日誦大品。多諸靈異。嘗夢到西方。見一浴池有芙蓉華。諸化生人。列坐其中。已而請師受戒。忽於壇所。見天地晃然悉黃金色。一日與大眾共禮無量壽佛。伏地不起。或蹴而問之。云。當伏地時。覺身到安養國。佛為說小品。已得四卷。因被蹴而覺。甚追恨之。宋元嘉十四年時。本年已六十九。後不詳其終(法苑珠林)。

法盛

法盛。姓聶。清河人。宋元嘉十四年。年已七十許。出家於金陵建福寺。才識敏悟。謂同業曇敬曇愛曰。吾立身行道。志在西方。十六年九月二十七日。塔下禮佛。晚而不豫。病日加。其月晦夕。假寐。見如來從空而下。與二大士論二乘法。光明顯燭。寺眾咸驚。盛為具說所見。言訖而絕。年七十二(比丘尼傳)。

淨真

淨真。唐時人。居長安積善寺。衲衣乞食。誦金剛經十萬遍。篤志念佛。一日語弟子曰。五月內十度見佛。兩度見寶蓮華上童子遊戲。吾已得上品生矣。言訖跏趺而化。祥光滿寺(佛祖統紀)。

法藏

法藏。唐時人。居金陵。勤志念佛。夜見佛菩薩光明照寺。奄然而化(佛祖統紀)。

悟性

悟性。宋時人。居廬山。篤志念佛。求生西方。忽聞空中樂聲。謂左右曰。我已得中品生矣。見諸同志念佛精進者。皆有蓮華以待其生。言畢而逝(佛祖統紀)。

能奉

能奉。錢唐人。專修淨業。常見佛光照身。一日無疾。告其徒曰。吾往生時至。少頃。眾聞誦佛聲厲。往視之。已合掌面西坐逝矣。異香滿室。有樂聲隱隱西去(佛祖統紀)。

慧安

慧安。明州人。住小溪楊氏庵。專修西方。誦金剛經。寒暑不輟。常於室中見佛光下燭。一日示疾。端坐。戒眾勿誼。移時曰。佛至矣。令眾唱佛名。倏然脫去。年九十六(佛祖統紀)。

祿錦

祿錦。字太素。姓湯。杭州人。歸同邑沈生。即蓮池宏公是也。宏公出家時。錦年僅十九。或勸錦阻之。錦曰。熟聞渠稱生死事大。阻之。是悞渠也。不可。至年四十七。亦出家受具。制行謹嚴。虔修淨業。萬歷四十二年。得疾。垂絕時。忽語侍者云。經稱十念往生。亟扶我起。起則正坐念佛而逝。年六十七(孝義庵錄)。

廣覺

廣覺。姓龔。蘇州崇明人。年十二。即斷肉。受持經呪。朝夕禮佛唯謹。自誓不字。年二十八。剃染。至杭州。依孝義庵太素師居焉。精持梵行。純一不雜。質素弱。刻心苦躬。勞不自惜。俄得疾。卻醫藥。一心待盡。氣奄奄不振。忽起正面趺坐。庵主為設彌陀尊像。覺凝目諦觀。合掌歸命。已而盥手。著淨衣。持數珠。端身對佛。如入禪定。侍者慮其傾仆。以二枕掖之。揮手云。無用此。眾環繞念佛。復揮手云。吾自有主在。毋勞眾也。跏趺不動。凡二晝夜。微聲稱佛名。氣漸促。泊然而逝。時萬歷三十九年二月七日。年三十三(孝義庵錄)。

成靜

成靜。字實修。廣州東岡人。自幼即持齋戒。後出家進具。念佛不暫輟。嘗勸眾造栴檀千手眼大悲像。越明年。得微疾。預知時至。語弟子曰。千手千眼大悲觀世音菩薩。來此相接。吾往矣。即瞑目而化(觀音慈林集)。

潮音

潮音。姓金。蘇州常熟人。適龔氏。寡居守節。與子端吾同發心出家。端吾既為僧。音亦至蘇州。禮尼真如為師。既而還里。蹴屋焚修。晝夜六時。佛聲浩浩。一日示微疾。沐浴披衣。堅坐中堂。日晡時。計曰。亥時去矣。斂手入袖。端坐而化。年七十三。事在我朝順治中(潮音事略)論曰。余輯古比丘尼。修淨業有聞者。落落不過數人。意傳之者或逸歟。抑多浮沈隨俗。克自振厲者少歟。而其僅可傳者。大率能謹持誦。堅誓願。臨終現諸瑞相。錄而傳之。以為修行正軌云。

淨土聖賢錄卷六

淨土聖賢錄卷七

往生人王第五

烏菴國王

烏菴國王。雅好佛法。嘗謂侍臣曰。我為國王。雖享福樂。不免無常。聞西方淨土。可以棲神。我當發願求生彼國。於是六時行道念佛。每供佛飯僧。王及夫人。躬自行膳。三十年不廢。臨終容色愉悅。現諸瑞應(往生集)論曰。自佛教東來。有國之君深心宏護者。代不乏人。而往生瑞應。紀載罕聞。不可得而詳也。昔堯治天下之民。平海內之政。往見四子藐姑射之山。窅然喪其天下焉。夫誠能以淨土為歸者。其於天下。亦若是而已矣。

往生王臣第六

七萬釋種

佛在迦毗羅國尼居陀林。勅弟子迦盧陀夷。往化父王。迦盧陀夷至迦毗城。以神通力。於虛空中跏趺而來。為淨飯王讚歎如來希有功德。王起敬信心。率諸釋種。往詣佛所。佛既為天龍八部各授記已。因為王廣說三解脫門。復言。一切諸法。皆是佛法。王言。若一切法是佛法者。一切眾生。亦應是佛。佛言。若不顛倒見眾生者。即是其佛。所言佛者。如實見眾生也。如實見眾生者。即是見實際。實際者。即是法界。一切法無生。此是陀羅尼門。可於此法中而安其心。勿信於他。爾時淨飯王等七萬釋種。聞法解悟。得無生法忍。佛現微笑而說偈曰。釋種決定智。是故於佛法。決定心安住。人中命終已。得生安樂國。面奉無量壽。無畏成菩提(寶積經○按淨飯王涅槃經別記王生淨居天故不載此錄)。

劉程之

劉程之。字仲思。彭城人。少孤。事母孝。善老莊言。不委蛇於時俗。初為府參軍。公卿先後引薦。皆力辭。時慧遠法師止於廬山東林寺。修念佛三昧。程之往依之。遠曰。官祿巍巍。云何不為。程之曰。晉室無磐石之固。物情有累卵之危。吾何為哉。劉裕以其不屈。號曰遺民以旌之。同時清信士宗慤雷次宗周續之張野張詮畢穎之等。咸來廬山。乃於西方三聖像前。建齋立社。同修淨業。程之

鑿石為誓。其辭曰。夫緣化之理既明。則去來之兆顯矣。遷感之數既符。前善惡之報必矣。推交臂之潛淪。悟無常之期切。審三報之相催。知險趣之難拔。此其同志諸賢。所以夕惕朝勤。仰思攸濟者也。蓋神者可以感涉。而不可以跡來。必感之有物。則幽路咫尺。苟求之無主。則渺茫何津。今幸以不謀而感。僉心西境。叩篇開信。亮情天發。乃機象通於寢夢。欣歡百於子來。於是雲圖表暉。影侔神造。功由理諧。事非人運。茲寔天啟其誠。冥運來萃者矣。然其景績參差。功德不一。雖晨祈云同。夕歸攸隔。即我師友之眷。良可悲矣。是以慨焉胥命。整襟法堂。等施一心。亭懷幽極。誓茲同人。俱遊絕域。其驚出絕倫。首登神界。則無獨善於雲嶠。忘兼全於幽谷。然後妙觀天儀。啟心貞照。識以悟心。形由化革。藉芙蓉於中流。蔭瓊柯以咏言。飄雲衣於八極。汎香風以忘年。臨三塗而緬謝。傲天宮而長辭。紹眾靈以繼軌。指大覺以為期。究茲道也。豈不宏哉。程之度西林澗北。別立禪坊精研元理。兼持禁戒。著念佛三昧詩。居半載。即於定中見佛光照地。皆作金色。更十五年。於正念佛時。見阿彌陀佛。玉毫光照。垂手慰接。程之曰。安得如來為我摩頂。覆我以衣。俄而佛為摩頂。引袈裟以被之。他日又夢入七寶池。見蓮華青白色。其水湛湛。有人項有圓光。胸出卍字。指池水曰。八功德水。汝可飲之。程之飲水甘美。及寤。異香發於毛孔。乃語人曰。吾淨土之緣至矣。請僧轉妙法蓮華經。近數百周。程之對像焚香。再拜祝曰。我以釋迦遺教。知有阿彌陀佛。此香當先供養釋迦如來。次供養阿彌陀佛。復次供養妙法蓮華經。所以得生淨土。由此經功德。願與一切有情俱生淨土。即與眾別。臥牀上。面西合掌。泊然化去。時晉義熙六年。年五十九(東林傳出三藏記集)。

于昶

于昶。不詳其里居。唐天后朝。任并州錄事。晝決曹務。夜判冥司。每知災咎。陰為之備。凡六年。丁母憂。持金剛經為日課。更不復為冥吏矣。年八十四。將終。忽聞奇香。遽謂左右曰。西方聖人來迎我也。即向西連稱佛名而逝(報應記)。

馬子雲

馬子雲。不詳其里居。舉孝廉。任涇縣尉。充本郡租綱。督運入京。舟溺。沈米萬斛。繫獄中。子雲專心念佛。閱五年。遇赦得出。隱南陵山寺中。持一食齋。天寶十年。卒於涇。先謂人曰。吾

因數奇。遂精持內教。今西方業成。當往生安樂世界爾。明日。沐浴。衣新衣。端坐合掌。俄而異香滿室。子雲云。佛來矣。遂逝(紀聞)。

韋文晉

韋文晉。不詳其所出。仕於唐。位至觀察使。建西方道場。篤志淨業。求生西方。一日正持佛名。跏趺而化。異香滿室(佛祖統紀)。

張抗

張抗。不詳其所出。石晉朝。官翰林學士。課大悲呪十萬徧。求生西方。一日寢疾。唯持佛名。忽謂家人曰。西方淨土。祇在堂屋邊。阿彌陀佛坐蓮華上。翁兒在蓮華池金沙地上。禮拜嬉戲。良久。佛聲甫寂而化。翁兒者。抗之孫。時已先逝矣(佛祖統紀)。

文彥博

文彥博。字寬夫。汾州介休人也。歷仕宋仁英神哲四朝。出入將相。五十餘年。官至太師。嘗兼譯經潤文使封潞國公。素皈信佛法。晚向道益力。專念阿彌陀佛。晨夕行坐。未嘗少懈。發願云。願我常精進。勤修一切善。願我了心宗。廣度諸含識。居京師。與淨嚴法師集十萬人為淨土會。一時士大夫多從而化焉。年九十二卒(東都事略佛祖統紀佛法金湯)。

楊傑

楊傑。字次公。無為人。自號無為子。元豐中。官太常。初好禪宗。從天衣禪師遊。參龐公機語。及奉祠太山。覩日出如盤湧。忽大悟。熙寧末。以母憂歸。閒居閱藏經。遂歸心淨土。繪丈六阿彌陀佛。隨身觀念。平生著述。多指歸淨土。其天台淨土十疑論序云。愛不重。不生娑婆。念不一。不生極樂。娑婆。穢土也。極樂。淨土也。娑婆之壽有量。彼土之壽則無量矣。娑婆備諸苦。彼土則安養無苦矣。娑婆隨業。輪轉生死。彼土一往。則永證無生法忍。若願度生。則任意自在。不為諸業轉矣。其淨穢壽量苦樂生死。如是差別。而眾生冥然不知。可不哀哉。阿彌陀佛。淨土攝受之主也。釋迦如來。指導淨土之師也。觀音勢至。助佛揚化者也。是以如來一代教典。處處丁寧勸往生也。阿彌陀佛。與觀音勢至。

乘大願船。泛生死海。不著此岸。不留彼岸。不止中流。唯以濟度為佛事。是故。阿彌陀經云。若有善男子。善女人。聞說阿彌陀佛。執持名號。若一日乃至七日。一心不亂。其人臨命終時。阿彌陀佛與諸聖眾。現在其前。是人終時。心不顛倒。即得往生極樂國土。又無量壽經云。十方眾生。聞我名號。憶念我國。植諸德本。至心迴向。欲生我國。不果遂者。不取正覺。所以祇洹精舍無常院。令病者面西作往生淨土想。蓋彌陀光明。徧照法界念佛眾生。攝取不捨。聖凡一體。機感相應。諸佛心內眾生。塵塵極樂。眾生心中淨土。念念彌陀。吾以是觀之。智慧者易生。能斷疑故。禪定者易生。不散亂故。持戒者易生。遠諸染故。布施者易生。不我有故。忍辱者易生。不瞋恚故。精進者易生。不退轉故。不造善不作惡者易生。念純一故。諸惡已作業報已現者易生。實慚懼故。雖有眾善。若無誠信心無迴向發願心者。則不得生矣。噫彌陀甚易持。淨土甚易往。眾生不能持。不能往。佛如眾生何。夫造惡業。入苦趣。念彌陀生極樂。二者皆佛言也。世人憂墮地獄而疑往生者。不亦惑哉。元祐中。官兩浙提點刑獄。卒。臨終說偈曰。生亦無可戀。死亦無可捨。太虛空中。之乎者也。將錯就錯。西方極樂。先是有司士參軍王仲回者。與傑同鄉里。嘗從傑受念佛法門。問如何得不間斷。曰。一信之後。更不再疑。即是大間斷也。仲回躍然。明年。傑守丹陽。一夕夢見仲回云。向蒙以淨土為導。今得往生。特來致謝。再拜而出。已而得其子訃書。言仲回預知化期。徧別親友。逝矣。傑既卒。其後有荊王夫人。夢遊西方。見一人坐蓮華上。其衣飄揚。寶冠瓔珞。莊嚴其身。問何人。云楊傑也(東都事略樂邦文類)。

王古

王古。字敏仲。東都人。文正公旦之曾孫也。其先七世持不殺戒。古更發心放生命一百萬。遊江西。與晦堂楊岐諸老師。究宗門中事。既而作直指淨土決疑集。宏西方之教。閒居數珠不去手。行住坐臥修行淨觀無有間歇。又嘗著淨土寶珠集序云。眾生心淨則佛土淨。法性無生而無不生。有佛世尊。今現說法。在極樂國。號阿彌陀。緣勝劫長。悲深願大。無邊際光明攝受。不思議淨妙莊嚴。珠網麗空。瑤林轟地。淨含八德。華發四光。韻天樂於六時。散華於億剎。諸佛共讚。十方來歸。彌陀心內眾生。新新攝化。眾生心中淨土。念念往生。質託寶蓮。不離當處。神遊多剎。豈出自心。如鏡含萬象而無有去來。似月印千江而本非升降。被圓頓機。則皆一生補處。明方便門。則有九品階差。念本性之無量光。本來無

念。生唯心之安養國。真實無生。解脫苦輪。十念亦超於寶地。會歸實際。二乘終證於菩提。如大舟載石而遂免沈淪。若順風揚帆而終無留難。悟之則非遠非近。迷之則即近而遙。嗟夫學寡障多。疑深觀淺。斥為權小。閻若存亡。則以馬鳴龍樹為未然。天台智者為不達。不信當受菩提記。不肯頓生如來家。籠鳥鼎魚。翻然游戲。隙駒風燭。妄計久長。虛受一報身。枉投諸苦趣。豈知大雄讚勸。金口丁寧。侶聖賢於剎那。具相好於俄頃。樂受則永拋五濁。悲增則迴救三塗。於此不知。是為可憫。徽宗朝。官戶部侍郎。以黨禍落職。尋化去。

有僧神遊淨土。見古與葛繁在焉。繁。澄江人。官至朝散大夫。公第私居。必營淨室。設佛像。一日方禮誦時。舍利從空而下。後無疾。面西端坐而逝(宋史。樂邦文類。法喜志)。

鍾離瑾

鍾離瑾。會稽人。母任夫人。精修淨土。臨終。勉瑾修淨業。瑾自是感奮。日行利益二十事。後官浙西。與慈雲式公論往生指要。清修彌篤。任夫人故有栴檀佛像。常頂戴行道。及是瑾瞻禮間。眉間忽迸出舍利數粒。未幾。知開封府。方夜半。忽起。謂家人曰。夫人報我往生期至矣。即跣趺而逝。前一日。舉家夢瑾乘青蓮華。天樂圍繞。乘空西去。

子景融。官朝請大夫。常誦觀無量壽佛經。修念佛三昧。棄官。結茅儀真東園側。嘗曰。識得彌陀。彌陀彌陀。不識彌陀。奈何奈何。不識彌陀。彌陀更在西方外。識得彌陀。彌陀只在自己家。一夕。請僧妙應誦普賢行願品。炷香聽畢。兩手作印而化。曾孫松。寓居蘇州。與寶積寔公等。結社念佛。無疾忽端坐西向合掌而化(佛祖統紀)。

馬圩

馬圩。字仲玉。廬州合肥人。父忠肅公亮守杭州日。慈雲式公授以淨土法門。遂全家奉佛。元豐中。圩遇僧廣初。得天台十疑論。喜曰。吾今得所歸矣。遂依慈雲十念迴向法。行之二十餘年。後更與王古往還。益精進念佛。常以放生為佛事。歷守淄川新定。以慈惠為政。課誦經呪。觀想西方。日有常法。時荊王夫人夢遊蓮池。見有朝服而坐華上者。曰。此馬圩楊傑也。時傑已化去。而圩尚無恙。崇寧元年。得疾。盥沐易衣。端坐念佛而逝。有氣如青蓋。騰空而上。已而家人十數。同夢見圩曰。吾已得生淨土上品矣。其

秋。有婢臥疾。亦念佛而逝。子永逸。亦行十念法。習十六觀。閱三十餘年。已而得疾。見阿彌陀佛及二菩薩來接引。結印示寂。香氣滿室中。既殮。柩上產五色華。其光爛然(樂邦文類)。

江公望

江公望。字民表。嚴州人也。登進士第。建中靖國元年。拜左司諫。尋出知淮陽軍。蔡京為政。嫉諸言事者。編管安南。居常與妻俞氏。蔬食清齋。修念佛三昧。著念佛方便文曰。世出世間之法。欲得成辦省力。莫若繫心一緣。即如稱念阿彌陀佛。有巧方便。無用動口。不出音聲。微以舌根。敲擊前齒。心念隨應。音聲歷然。聲不越竅。聞性內融。心印舌機。機抽念根。從聞入流。反聞自性。是三融會。念念圓通。久久遂成。唯心識觀。若是利根之人。念念不生。心心無所。六根杳寂。諸識消除。法法全真。門門絕待。瞥爾遂成真如實觀。初機後學。一心攝念如來。乃至營辦家事。種種作務。亦自不相妨礙。都攝六根。淨念相繼。不過旬月。便成三昧。所謂自心作佛。自心是佛。自心見佛。有子早亡。見夢於其舅。乞公望就天寧寺轉寶積經。祈生善處。且言見冥中金字碑云。江公望身居言責。志慕苦空。躬事焚修。心無愛染。動靜不違佛法。語默時契宗風。名預脫乎幽關。身必歸乎淨土。後遇赦得歸。無疾而化(宋史樂邦文類佛法金湯)。

陳瓘

陳瓘。字瑩中。南劍州沙縣人。徽宗朝為左司諫。以直道不容。尋出補外。既而還為右司員外郎。權給事中。忤宰相曾布。出知泰州。崇寧中。編管袁州。已而移通州。復謫台州。初瓘好華嚴經。自號華嚴居士。及遇明智法師。叩天台宗旨。明智示以上根止觀不思議境。以性奪修。成無作行。深有契入。自入台州。捐書不復為文。專修念佛三昧。作天台十疑論後序云。人心無常。法亦無定。心法萬差。其本在此。信此則徧信。華嚴所以說十信。疑此則徧疑。智者所以說十疑。出疑入信。一入永入。不離於此。得究竟處。淨土者。究竟處也。此處有說法之主。名無量壽。此佛說法。未嘗間斷。疑障其耳。則聾而不聞。疑障其心。則昧而不覺。不聞不覺。安住惡習。讚歎不念。隨喜粗心。妄指蓮胞以為虛誕。終不自念此分段身。從何而得。自何而來。胎獄穢濁真實安在。信憑業識。自隔真際。於一幻境。非彼執此。生生不靈。永絕聖路。以如是故。釋迦如來起大慈憫。於穢濁中。發大音聲。讚彼淨土上妙之

樂。於生死中。為大船師。載以法船。令趨彼岸。晝夜度生。無有休息。然而彌陀之岸。本無彼此。釋迦之船。實非往來。譬如一燈。分照八鏡。鏡有東西。光影無二。彌陀說法。徧光影中。而釋迦方便。獨指西鏡。故已到彼岸者。乃可以忘彼此。未入法界者。何自而泯東西。於此法中。若未究竟。勿滯方隅。勿分彼此。但當正念諦信而已。此二聖之意。而智者之所以信也。信者萬善之母。疑者眾惡之根。能順其母。能勸其根。則向之所謂障緣眾生。聾可復聞。昧可復覺。未出生死。得出生死。未生淨土。得生淨土。順釋迦之誨。往面彌陀。隨彌陀之願。來助釋迦。在此而徧歷十方。即西而普入諸鏡。自二聖建立以來。如是之人。如河沙數。云何不信。云何而疑。能自信已。又作方便。令諸未信。無不信者。此則智者之所以為悲也。居五年。復承事郎。移楚州居住。過廬山家焉。嘗語所親曰。吾往年遭患難。所懼惟一死。今則死生皆置度外矣。尋卒。年六十五(東都事略佛祖統紀李忠定集)。

王衷

王衷。嘉禾人。居錢塘之孤山。政和間。舉隱逸。不起。後官至朝散大夫。嘗參小本禪師。未有所入。偶聞僧誦彌陀經。有感。遂專心淨業。日誦阿彌陀經七過。佛號萬聲。十九年未嘗間斷。即所居為蓮社。無問道俗貴賤。咸得與會。一日無疾。沐浴面西。跏趺而化(佛祖統紀樂邦文類)。

張迪

張迪。錢塘人。官助教。從圓淨律師受菩薩戒。專修淨業。佛前然臂香為誓。每稱佛名。其聲奮厲。至失音猶不已。嘗於靜室見白色頻伽飛舞於前。又有綠髮童子。合掌問訊。後三年。西向念佛名而化(佛祖統紀)。

胡闡

胡闡。字達夫。錢塘人。官宣義郎。晚年致仕。與清照律師遊。一日感疾。其子請清照過之。謂曰。達夫平生與慧亨相善。豈可不知末後大事乎。闡曰。將謂心淨則土淨也。清照曰。一切時中。無雜念染污否。曰。未能也。清照曰。如此安能心淨土淨邪。闡曰。經言一稱阿彌陀佛。能滅八十億劫生死之罪。何也。清照曰。阿彌陀佛。有大誓願。有大威德。光明神力。不可思議。具如經說。以是一稱

洪名。罪垢自消。如赫日正中。霜雪何有。闔大感悟。遂一心稱佛名。請僧為之助。累月。最後清照至。闔曰。此來何晚。已煩觀音勢至降臨甚久。清照與眾僧同舉佛名。闔安然而化(樂邦文類)。

馮楫

馮楫。字濟川。蜀遂寧人也。由太學登第。初參佛眼遠禪師。有省。復參大慧杲禪師。入山結夏。深有悟入。已而兼修淨業。作彌陀懺儀。紹興中。出帥瀘南。率道俗作繫念會。以西方為歸。時經建炎兵亂後。名剎藏經多殘燬。乃涓俸錢。造大藏經四十八所。小藏四大部者亦如其數。分貯諸剎。著發願文云。予之施經。一事而其二施。以貲造經。是謂財施。以經傳法。是謂法施。財施當得天上人間福德之報。法施當得世智辯聰蓋世之報。當知二報皆輪回之因。苦報之本。我今發願。願回此二報。臨命終時。莊嚴往生西方極樂世界。蓮華為胎。託質其中。見佛聞法。悟無生忍。登不退階。入菩薩位。還來十方界內。五濁世中。普見其身而作佛事。以今財法二施之因。如觀世音菩薩。具大慈悲。遊歷五道。隨類化形。說誦妙法。開發未悟。永離苦道。令得智慧。普與眾生悉得成佛。乃予施經之願也。後知邛州。二十三年秋。乞休。頂報親知。期以十月三日告終。至期。令後廳置高座。見客如平時。日將午。具衣冠。望闕肅拜。請漕使攝州事。著僧衣。據高座。屬諸官吏道俗。各宜向道。建立法幢。遂拈拄杖按膝。泊然坐化。漕使曰。安撫去住。如此自由。何不留一偈以表異蹟。楫復張目。索筆書曰。初三十一。中九下七。老人言盡。龜哥眼赤。有語錄頌古行世(五燈會元蓮宗寶鑑)。

吳秉信

吳秉信。字子才。明州人。紹興中。官於朝。與秦檜忤。斥為黨人。歸而築庵城南。日夕宴坐。制一棺。夜臥其中。至五更。令童子叩棺而歌曰。吳信叟。歸去來。三界無安不可住。西方淨土有蓮胎。歸去來。聞唱。即起習禪誦。久之檜死。以禮部侍郎召。尋出知常州。二十六年。復被召。至蕭山驛舍。坐頃之。令家人靜聽。咸聞天樂之音。即曰。清淨界中。失念至此。金臺既至。吾當有行。言訖而逝(佛祖統紀)。

張掄

張掄。不詳其所出。官浙西副都總管。虔修淨土。嘗請高宗書蓮社二字顏其居。為之記曰。臣嘗讀天竺書。知出世間有極樂國者。國有佛號阿彌陀。始享國履位。捐去弗居。超然獨覺。悟心證聖。以大願力。普度一切。其國悉以上妙眾寶莊嚴。地皆黃金。無山川邱谷之險。氣序常春。無陰陽寒暑之變。無飢寒老病生死之苦。無五趣雜居之濁。用是種種神通。方便善導。眾生忻樂起信。於日用中能發一念念彼佛號。即此一念。清淨純熟。圓滿具足。融會真如。同一法性。幻身盡時。此性不滅。一剎那頃。佛土現前。如持左契以取寓物。臣敬聞其說。刻厲精進。無有間斷。唯佛唯念。亦既有年。闔門少長。靡不從化。乃闢敞廬之東偏。鑿池種蓮。倣慧遠結社之遺意。日率妻子課佛萬徧。而又歲以春秋之季月。涓良日。即普靜精舍。與信道者共之。於是見聞隨喜。雲集川至。唱佛之聲。如潮汐之騰江也。天慧遠創為茲社。距今閱數百禩。其間緇素。景慕餘風。祖述其高致者。代不乏人。然率闕汶不章。與木石同寂。臣獨何幸。乃蒙太上。光堯壽聖皇帝。親灑宸毫。書蓮社二大字為賜。雲章奎畫。得未曾有。萬目共瞻。歡喜踊躍。不獨傳示雲林。侈千載之盛遇。寔願天下後世。凡歷見聞。普得念佛三昧。究竟成就無上菩提。其為饒益。詎可量已。謹刊之金石。用對揚丕顯休命焉(樂邦文類)。

李秉

李秉。不詳其所出。紹興末。為內廷官。歷三朝。爵武功大夫。管御藥院。乞宮祠以去。秉壯歲慕禪宗。參淨慈自得禪師。有省。已而歸心淨土。刻龍舒淨土文以勸世。持誦謹篤。逾三十年。子元長。偕諸同好。結淨業會於傳法寺。秉與焉。嘉泰四年秋。有疾。減食卻劑。神色逾警。及冬。夢中忽見彌陀現相。越七日。凌晨。見金華滿室中。呼二子掖起。別親友。索筆書曰。六十一年盡亂道。些兒見處卻也好。而今驀直往西方。萬劫長離生死老。置筆。整手結印而逝(樂邦文類○秉蓋武臣直內廷者往生集誤以為中官攷宋制中官無乞祠之例且又安得有二子邪)。

陸沅

陸沅。字子元。會稽山陰人。累官至太府寺丞。尋外轉歷提舉福建市舶。已而得罪閒居。家明州橫溪之上。居常持法華經。晨起。即澡浴焚香。首唱偈曰。盥手清晨貝葉開。不求諸佛不禳災。世緣斷處從他斷。劫火光中舞一回。然後開卷而讀。不緩不急。聲中貫

珠。日周一部。如是三十年。年登八十。增至三部。復誦彌陀佛號。一意西馳。年八十五。沐浴易服而化。口鼻間出蓮華香郁然。彌日方息。事在紹熙五年(渭南文集法喜志法華持驗記)。

錢象祖

錢象祖。字同伯。台州人。起家太常丞。開禧中。官參知政事。與史彌遠謀。共誅韓侂胄。天下賴之。嘉定二年。拜左丞相。尋罷歸。初象祖問道於此庵元公。參究大事。有省。既而歸心淨土。守金陵日。於鄉州建接待寺十所。皆以淨土極樂名之。創止庵。與高僧談處其中。自致政後。修持益力。嘉定四年。偶得微疾。書偈曰。菡萏香從佛國來。琉璃地上絕塵埃。我心清淨超於彼。今日遙知一朵開。僧有問起居者。答曰。不貪生。不怕死。不生天上。不生人中。唯當往生淨土耳。言訖。趺坐而化。時天鼓震響異香芬郁。郡人同聞空中聲云。錢丞相當生西方淨土。為慈濟菩薩(佛祖統紀續綱目往生傳台州志)。

咎定國

咎定國。號省齋。明州人。為州學諭。常修淨業。結西歸社。嘉泰初。於小江慧光建淨土院。結石塔於池。為鄉民藏骨之所。月二八日。集緇白誦觀經及佛號。為壁窠圖。勸人念佛。有鐵工計公者。年將七十。喪明。因從受念佛圖。誦至四圖。兩目瞭然。如是三載。滿十七圖。一日方念佛次。忽暝。半日復甦。謂其子曰。我已見西方佛菩薩矣。咎學諭是勸導之首。當分六圖與之。并為致謝也。西向坐逝。嘉定四年。定國夢青童告曰。佛今告君。三日當往生彼國。至日。沐浴更衣。連稱佛號端坐而化(佛祖統紀)。

梅汝能

梅汝能。常熟人。官縣令。有志淨業。一夕夢僧授以紙。有二八字。以問東靈照師。照曰。二八。十六也。豈十六觀經之謂乎。適一僧以經與之。忽不見。自是誦經念佛。取名往生以見志。破山僧道生。倡造丈六彌陀像。汝能施財百萬。設齋禮懺。殿前池中生雙頭白蓮。一華百葉。是年冬無疾而卒(佛祖統紀)。

朱綱

朱綱。不詳其所出。明順天貢士。官終府同知。專修淨業。日誦佛名三萬聲。積十五年。一日坐榻上。方提珠誦佛名。忽異香滿室。曰。佛來也。遂逝(往生集)。

陳瓚

陳瓚。字廷裸。江南常熟人。嘉靖三十五年進士。官刑科給事中。直言被斥。家居一意淨業。有客過之。呵曰。爾不聞大鑿之論唯心者乎。何厭垢而欣淨為。答曰。唯心淨土。發之大鑿。而非自大鑿始也。是心作佛。是心是佛。佛固先言之矣。蓋懼人以不淨之心。求淨土也。非曰土無垢淨也。且樂邦之可樂也。不獨華池珠閣鳥音風樹云爾也。吾幸而與羣聖人遊。被無量光。經無數劫。證無生忍。成無上道。濟無邊眾。誠樂矣。客以客之禪樂垢土。而我以我之禪樂淨土。禪無客無我。樂無垢無淨也。客無庸呵我矣。隆慶初。復起吏科。萬曆中。累官刑部侍郎。十六年七月。臥疾。誦佛名益虔。故事京師大臣三品以上。暑月賜冰。既置冰於榻前。眾見水中湧出七級浮屠欄楯鉤綴。窗格玲瓏。移時冰漸消。塔影漸瘦。頃之氣絕。而影沒矣。一時都人皆傳異之(明史樂邦文類序談薈)。

嚴澂

嚴澂。字道徹。常熟人。文靖公訥之子也。少有清節。以父蔭為中書舍人。官至邵武知府。晚而家居。奉雲棲之教。子樸。淳謹樂善。年二十五。得疾。將卒。澂謂曰。毋雜思。但一心念佛。樸曰。諾。澂又曰。從今以往。吾亦一心念佛。樸喜曰。審如是。兒無慮矣。正容合掌而逝。澂乃取樸所刻龍舒淨土文印之。廣遺親故。繫以書曰。澂一病幾殆。不意復生。雖則苟延。焉知來日。回首營生舊計。有同嚼蠟。一具皮囊。終須敗壞。六塵緣影。何處堅牢。不如換卻凡心。求生淨土。誦彌陀一句。消罪業無邊。聊奉勸文。用表誠意。卒年七十八(常熟志雲棲法彙淨土文跋)。

蔡承植

蔡承植。字槐庭。湖廣攸縣人。性孤迥。淡於聲利。年二十餘。長齋奉佛。嘗誦三千佛名。日記一名。至三年乃卒業。遂終身不忘。登萬曆十一年進士第。官嘉興太守。在官日誦金剛經。室無長物。爐香經案而已。重興古楞嚴寺。禁民間殺牲祀神。嘗問法於雲棲宏公。遂專修念佛三昧。已而官太常寺卿。乞休歸。晚歲結草庵為念

佛會。導諸賣菜傭。同迴向淨土。作偈謝客曰。安養思歸客。湘江一腐儒。不愁明日事。但覓往生符。斗室隨緣住。稀羹信口餬。胸中絕憎愛。一任馬牛呼。將逝之歲。自號為不久道人。及疾。昇詣佛寺。請僧祝髮。歸至臥室。見銀臺接引。連稱觀世音菩薩。遂逝。有淨土詩及因果書行世(金剛新異錄)。

虞淳熙

虞淳熙。字長孺。錢塘人。生而長臥不瞑。三歲。唱佛號不絕口。蓮華寶樹。現於室中。以告祖母。祖母曰。此西方瑞相也。因教之習定。遂時時垂目端坐。弟淳貞。字僧孺。少而相得。居母喪。共習天台止觀。長而為里中師。教羣兒習鼻觀。以是忤主人。弗恤也。已中鄉舉。尋授徒毗山。與同社友誦梁皇懺。至次日。雲光入楹。甘露霑壁。天雨金粟元黍沈水香。方冬。萬華盡吐。淳熙感其靈異。習定益堅。遂能前知。雲棲宏公聞而呵之曰。虞生墮魔網矣。萬歷十一年成進士。以父喪歸。廬墓三年。受戒於宏公。居山日以羹飯施諸獐兔。虎來輒叱去。服除。起職方司主事。頃之復告歸。上天目。坐高峯死關前。晝夜策厲。至三七日。倦甚。欲就枕。忽見高峯禪師。斬其左臂。豁然有省。馳證雲棲。宏公曰。凡寐而覺者。不巾櫛而復依衾枕。必復寐矣。迷而悟者。不莊嚴而復親穢濁。必復迷矣。火蓮易萎。新篁易折。子自為計。毋以一隙之光。自阻進修之路。因勸令回向淨土以續前因。淳熙遂終身行之。或有不信念佛者。告之曰。自覺覺他。覺滿曰佛。念佛者。念覺也。念念不常覺。而念念常迷。可乎。民止邦畿。鳥止邱隅。不止至善之地。而止不善之地。可乎。或問如何念佛。曰。提醒正念。相續不斷而已。百千方便。只一知字。念念無量光。何不可入佛知見。學人修道。專求出離生死。念念無量壽。有何生死可出離。已而還官。遷主客司員外郎。改司勳。復乞歸。與淳貞日遊湖上。時宏公方坐南屏。演圓覺經。募錢贖萬工池。立放生社。緇白數萬伽陀之音。震動川谷。一時清節之士。多與其會。寔淳熙倡率之。遂復三潭放生池。築堤架閣。縱諸魚鳥。頃之。入南屏山不出。淳貞亦隱靈鷲老焉(德園集附錄)。

唐時

唐時。字宜之。湖州人也。以諸生貢太學。出判壽陽。繼傳襄國。流賊破襄陽。時投端禮門左井中。家人掖之出。絕而復蘇。上書自訟。詔付三司究問。得白。放還家。時初參蓮池。授以念佛法門。

遂勤修淨業。諸眷屬皆能覆誦金剛經。及普門品。晝則各習所業。夜則共集佛前回向以為常。嘗言修淨土者。以觀門為要。須穿衣喫飯。常在觀中。或神遊蓮海。華中禮佛。或坐瞻寶剎。佛光照身。淨想既成。往生何待。遂專修佛觀。過南京長干寺。禮塔念佛次。見塔頂放白光。佛為現相。如黃金色。一日坐禪堂。推窗忽見大海中湧一山。佛坐其上。光明四徹。墻壁林木盡空不見。其精誠所感如此。時工文章。既皈心佛乘。每順世語言。說諸法要。著有蓮華世界書。如來香。頻迦音等書。刻行於世。嘗自營生墳。旋捨之棲霞寺中。遺言死後必用茶毗法。臨終。現諸瑞相。正念而逝(金剛持驗記淨土晨鐘)。

袁宏道

袁宏道。字中郎。號石頭居士。湖北公安人也。兄宗道。字伯修。弟中道。字小修。三人先後舉進士。皆好禪宗。萬歷中。宏道為吳江知縣。後為禮部主事。謝病歸。初學禪於李卓吾。信解通利。喜辯論。已而自驗曰。此空談非實際也。遂回向淨土。晨夕禮誦。兼持禁戒。因博采經教。作西方合論。圓融性相。入不二門。其論五種行門。尤為切要。略云。一信心行者。經云。信為道元功德母。一切諸行。信為正因。乃至菩提果滿。亦只完此信根。如穀子墮地。迨於成實。不異初種。如稚筍參天。本是原竿。初心菩薩。無不依信力成就者。蓮宗尤仗信為根本。一者信阿彌陀佛。不動智。根本智。與已無異。如太虛空。日映則明。雲來則翳。虛空本無是故。又雲日即虛空故。二者信阿彌陀佛那由他劫難行難忍種種修習之事。我亦能行。何以故。無始漂溺三塗生苦死苦。披毛戴角。鐵牀銅柱。一切無益之苦。皆能受之。況今菩薩萬行濟眾生事。豈不能為。三者信阿彌陀佛無量智慧。無量神通。及成就無量願力等事。我亦當得。如來自性方便具有如是不思議事。我與如來。同一自體清淨性故。四者信阿彌陀佛不去不來。我亦不去不來。西方此土。不隔毫端。欲見即見。何以故。一切諸佛。皆以法性為身土故。五者信阿彌陀佛修行歷劫。直至證果。不移剎那。我亦不移剎那。位齊諸佛。何以故。時分者是業收。法界海中。業不可得故。如是信解。是入道初心。信一切諸佛淨土之行。二止觀行者。台宗三觀。示一心之筌蹄。攝諸法之要領。西方十六觀。一一具此三義。妙宗鈔云。性中三德體是諸佛三身。即此三德三身。是我一心三觀。若不然者。則觀外有佛。境不即心。何名圓宗絕待之觀。亦可彌陀三身以為法身。我之三觀以為般若。觀成見佛即是解脫。舉一具三。如新[、 / (、 *、)]字。觀佛既爾。觀諸依正。理非異塗。

廣如疏鈔。不能具述。知此則知念佛。一聲具足三觀。了能念之心非肉團。非緣影。是空觀。了所念之佛。若依若正。各各主伴圓融。豎窮橫徧。是假觀。了能所絕待。雙亡雙照。是中觀。又能念即一心三觀。所念即一心三諦。能所不二。即諦觀不二。三諦即法身。三觀即般若。諦觀不二。念佛相應。即解脫。舉一即三。如新[、 / (*)]字。是則念佛一聲。能淨四土。如拈一微塵。變大地作黃金。是謂法界圓融不可思議觀門。三六度行者。起信論菩薩深解現前。所修離相。知法性體離慳貪故。隨順修行檀波羅蜜。法性無染。離五欲過故。隨順修行戒波羅蜜。法性無苦。離瞋惱故。隨順修行忍波羅蜜。法性無身心相。離懈怠故。隨順修行精進波羅蜜。法性常定。體無亂故。隨順修行禪波羅蜜。法性體明。離無明故。隨順修行般若波羅蜜。故修淨土者。不越一行。具此六義。念念離行於施。念念淨行於戒。念念寂行於忍。念念續行於進。念念一行於定。念念佛行於智。當知離淨寂續一。必有事相隨緣而起。而皆從念佛流出。正助不二。事理不二。是故。念佛一行。能該諸行。以念佛是一心法門。心外無諸行故。若廢諸行。即是廢心。四悲願行者。諸佛菩薩性海無盡。供養無盡。戒施無盡。乃至饒益無盡。故天親菩薩淨土五念門。以禮拜讚歎作願觀察四種。為成就入功德門。回向一切煩惱眾生。拔世間苦。為成就出功德門。菩薩修五念門。速得阿耨菩提。難曰。淨名經言。菩薩觀於眾生。如呼聲響。如水聚沫等。是則眾生本空。發願利生。將無眼見空華邪。答曰。智度論引佛云無佛者。破著佛想。不言取無佛相。當知無眾生者。破眾生想。不言取無眾生相。故淨名謂菩薩作是觀已。自言我當為眾生說無眾生法。是名真實慈也。故知菩薩種種度生。是深達無眾生義。若見有眾生。即有我。慈悲心劣。豈能行如是饒益之行。五稱法行者。法界海無量無邊。行海亦無量無邊。故菩薩一切行。皆稱自性非有非無。非行非不行。稱法自性。非初心得。非後心得。今當略出其相。一者菩薩度一切眾生究竟無餘涅槃。而生界不減。如登場傀儡悲笑宛然。唯一土泥。空無所有。二者菩薩行五無間而無惱恚。至於地獄。無諸罪垢。至於畜生。無無明憍慢等過。如女子離魂。乃至生子。而身常在母前。三者菩薩自身入定他身起。一身入定多身起。有情身入定無情身起。如猛虎起屍跪拜作舞。唯虎所欲而屍無知。四者菩薩於小眾生身中。轉大法輪。然大法炬。震大法雷。魔宮摧毀。大地震動。度無量無邊眾生。而此小眾生不覺不知。如天帝樂人。逃入小女子鼻孔而女不知覺。五者菩薩欲久住世。即以念頃衍無量無數百千億那由它劫。欲少住世。即以無量無數百千億那由它劫縮為念頃。如小兒看燈中走馬。計其多寡首尾。了不可得。若證如是不思議行者。一念中三世諸佛淨土。

攝入無餘。是謂菩薩莊嚴淨土之行。以無思智照之可見。非情量所能猜度。何以故。自性超一切量故。書成。宗道中道。同時發心回向淨土。已而宏道起故官。再遷至稽勳司郎中。復移病歸。抵家不數日。入荊州城。宿於僧寺。無疾而卒。中道官南禮部郎中。乞休老於家。居常勤於禮誦。萬曆四十二年望夕。課畢趺坐。形神靜爽。忽入定。神出屋上飄然乘雲。有二童子導之西行。俄而下至地。童子曰。住。中道隨下。見地平如掌。光耀滑潤。旁為渠。廣十餘丈。中有五色蓮芳香異常。金橋界渠。欄楯交羅。樓閣極整麗。揖問童子。此何地。卿何人。曰。予靈和先生侍者也。問先生為誰。曰。君兄中郎也。今方佇君。有所語。可疾往。復取道至一處。樹十餘株。池水汨汨。池上有白玉扉。一童子先入。一童子導。過樓閣二十餘重。至一樓下。一人下迎。其顏如玉。衣如雲霞。長丈餘。見中道喜曰。弟至矣。諦視之。則宏道也。上樓交拜。有四五人來共坐。宏道曰。此西方邊地也。信解未成。戒寶未全者。多生此。亦名懈慢國。上方有化佛樓臺。前有大池。可百由旬。中有妙蓮。眾生生處。既生則散處樓臺。與有緣淨友相聚。以無淫聲美色勝解易成。不久進為淨土中人。中道問兄生何處。宏道曰。我淨願雖深。情染未除。初生此少時。今居淨土矣。終以戒緩。僅地居。不得與大士升虛空寶閣。尚需進修耳。幸宿生智慧猛利。又曾作西方論。讚歎如來不可思議度生之力。感得飛行自在。遊諸剎土。諸佛說法。皆得往聽。此實為勝。遂攜中道上升。倏忽千萬里。至一處。光耀無障蔽。琉璃為地。界以七寶樹。皆栴檀吉祥。出眾妙華。作異寶色。下為寶池波揚無量。自然妙聲。池中眾寶蓮。葉五色光。池上隱隱危樓迴帶。閣道旁出。皆有無量樂器。演諸法音。宏道曰。汝所見者。淨土地行眾生依報也。過此為法身大士住處。甚美妙。千萬倍於此。神通亦千萬倍於此。吾以慧力遊其間。不得住也。過此為十地等覺所居。吾不得而知。過此為妙覺所居。唯佛與佛乃能知之。語罷。復至一處。無墻垣。有欄楯。光耀逾前。坐頃之。宏道曰。吾不圖樂之至此極也。使吾生時。嚴持戒律。尚不止此。大都乘戒俱急。生品最高。次戒急。生最穩。若有乘無戒。多為業力所牽。流入八部鬼神眾去。予所親見者多矣。弟般若氣分頗深。戒定力甚少。夫悟理不能生戒定。狂慧也。歸五濁。趁強健。實悟實修。兼持淨願。勤行。方便。憐憫一切。不久當相晤。一入他途。可怖可畏。如不能持戒。有龍樹六齋法見存。遵而行之。殺戒尤急。寄語同學。未有日啟鸞刀。口貪滋味。而能生此土者也。雖說法如雲如雨。何益於事。我與汝空王劫時。世為兄弟。乃至六道。莫不皆然。幸我得善地。恐汝墮落。方便神力。攝汝至此。淨穢相隔。不得久留。時宗道已卒。因問其生處。宏道

曰。生處亦佳。汝後自知。忽凌空而逝。中道起步池上。忽若墜水。躍然而醒。自為記如此。初。宗道有子曰登。年十三。病瘖。將終。語宏道曰。死矣。叔父何以救我。宏道曰。汝但念佛。即得往生佛國。此五濁世。不足戀也。遂合掌稱阿彌陀佛。諸眷屬同聲助之。頃之。微笑云。見一蓮華色微紅。俄而云。華漸大。色鮮明無與比者。俄而云佛至。相好光明充滿一室。頃之氣促。宗道曰。汝但稱佛字可也。登稱佛。數聲。合掌而逝(明史西方合論白蘇齋集。珂雪齋外集猶園)。

丁明登

丁明登。字劍虹。江浦人。萬曆中。受三皈於雲棲。自號曰蓮侶。四十四年。登進士第。官泉州推官。遷知衢州。所至輒以佛法勸人。法應杖者。聽納米以贖。贖諸獄囚。遇夏月。修獄舍。給諸囚香薺飲。葵扇。冬月與之椒薑。擇醫視病者。人與念珠一串。教令念佛。雲棲宏公。嘗稱其隣翁居常念佛臨終。與其友一請而逝。因繪一請圖懸齋中以自勗。崇禎中。受菩薩戒。我朝順治二年冬。病劇。十一月朔。具疏白佛。求生淨土。日焚一疏。至第十日。飲粥如常時。面有光艷然。徧勸戚友。俾修淨業。則身就枕而逝(淨土晨鐘)。

黃翼聖

黃翼聖。字子羽。太倉人。素服雲棲之教。精修淨業。崇禎中。以薦起為四川新都知縣。治民以慈惠。嘗飯僧縣堂。躬行匕箸。布餼施。繼以膜拜。張獻忠寇四川。過新都。新都千僧。感翼聖之德。相率登城稱佛號。夜中聲震天。賊相戒勿擾。寂然而去。以城守功。遷知吉州。明亡。棄官歸。修淨業益堅。所居樓曰蓮藥樓。自號蓮藥居士。營齋奉佛。日持佛號數萬。已而臥疾浹月。四壁張彌陀像。請晦山顯公授菩薩戒。顯公為極談唯心淨觀。翼聖曰。吾神明愈健。誓願愈堅。自信生西方必矣。明晨。顯公將別去。尅八日必行。已而果然(現果隨錄)。

金光前

金光前。我朝正黃旗人。起身戎伍。見善必為。戒諸兵士。毋得妄殺。不姪一婦。不攜一物。不燒一舍。妻龔氏。能識字誦經。順治十年。隨征福建。道出杭州。聞具德和尚說法靈隱。光前同妻往

參問。親承開示。自此念佛有得。十二年夏。北還。駐錢唐江干。光前忽示疾。龔為延醫。光前止之曰。我昔與爾親叩靈隱。今正欲作轉身之計。求和尚證明耳。何以藥為。龔大笑曰。不意公亦得到此地位。命造二棺。曰。妾與公偕行矣。稍遲。為公畢後事耳。光前聞之。即合掌而逝。龔遣使靈隱。求為兩人秉炬。併囑飯僧修懺。至七日畢。屏絕飲食。晝夜不臥。一心念佛。又七日晡時。視日早暮。倚棺而睡。少頃覺曰時至矣。端坐念佛而化(果報聞見錄)論曰。王臣入道。視居士較難。急功名者。以進取為先。耽逸樂者。以靜修為苦。非夫夙植善因。堅持正願者。其有不自崖而反乎。若此諸公。不捨塵勞。同皈淨域。斯可謂現宰官身而說法者矣。至如柳子厚白樂天蘇子瞻趙子昂諸公。讚歎皈依。淨因有在。而臨當捨識。瑞應罕聞。良由智惑於多岐。病生於有愛文人結習。自古固然。生死到來。決難僥幸。後之君子。當知鑒戒焉。

淨土聖賢錄卷七

淨土聖賢錄卷八

往生居士第七

差摩竭

迦維羅衛國城中。有釋種長者子。名差摩竭。行詣佛所。白佛言。菩薩何行。疾得無上正真之道。普具三十二相。從一佛國。到一佛國。臨壽終時。其心不亂。所生不墮八難之處。常知去來之事。悉成諸法。周滿達事。知一切法。無所罣礙。信解空行。得不起法忍。恒以至心欲作沙門。未曾犯戒。不樂居處。佛為說菩薩忍辱布施等行。終言無我無人。諸法如化。是時差摩竭得不起法忍。五百比丘。及五百清信士。二十五清信女。皆得住不退轉地。壽終悉當生於西方無量佛清淨國。常護持無數佛法。教化成就一切人民。使不退轉。如是無極恒沙邊劫。當於此土。以次作佛(菩薩生地經)。

關公則

關公則者。趙人也。晉武帝時。居於洛陽。蕭然恬放。日常誦正法華經。既卒。其友為設會於白馬寺。至夕轉經。忽聞空中有聲。仰見一人。形色光麗。曰。我關公則也。生西方安樂世界。與諸上人來此聽經。堂中人共見之。有汲郡衛士度者。受業於公則。其母常飯僧。是日將中。忽空中下鉢。正落母前。諦視之。乃公則常用鉢也。有飯滿中。其香充堂。食者七日不飢。支道林為之贊曰。大哉關公。歆虛納靈。神化西域。跡應東京。徘徊霄墟。流響耀形。豈欽一贊。示以匪冥(大唐內典錄。念佛寶王三昧論)。

張野

張野。字萊民。尋陽人也。性孝友。田宅悉推與弟。甘苦與九族共之。州郡屢辟不應。朝命拜散騎常侍。亦不就。入廬山白蓮社。為遠公門人。義熙十四年。與家人別。入室端坐而逝。年六十九(東林傳)。

張詮

張詮。字秀實。野之族子也。尚情高逸。好古樂道。荷鋤力田。帶經不釋。以散騎常侍徵。不起。庾悅薦為尋陽令。亦不應。已而入

廬山依遠公。研窮佛經。深有悟入。宋景平元年。西向念佛。無疾而卒。年六十五(東林傳)。

何曇遠

何曇遠。廬江人。宋御史中丞萬壽之子也。少奉法。持菩薩戒。年十八。居父喪。哀毀成疾。遂歸心淨土。請僧數人於家。懺悔宿業。久而益虔。一夕轉經竟。眾僧已眠。曇遠忽自歌誦。僧異而問之曰。見佛身黃金色。光丈餘。自西而至。幡華翼從。充滿虛空。佛熙怡微笑。詔曇遠速去。曇遠素羸弱。至是神色壯厲。便取香華散之空中。至五更。忽然而終。宅中芬香。數日乃歇(冥祥記)。

魏世子

魏世子。梁郡人。生當宋世。奉佛精進。率諸子女。修西方淨業。唯婦獨不信。其女病死。七日復蘇。即升高座誦無量壽經。下啟父言。兒去便往無量壽國。兒及父兄。池中各有大蓮華。當生其內。唯母獨無。不勝此悲。故歸啟報。語竟而暝。母自是亦奉法焉(冥祥記)。

庾詵

庾詵。字彥寶。新野人也。博通經史緯候之學。而性尚夷簡。特愛林泉。蔬食敝衣。不修產業。忍辱柔和。好行其德。梁武帝少與詵善。及起兵。署為平西府記室。不屈。普通中。詔以為黃門侍郎。稱疾不起。晚年於宅內建道場。六時禮懺。誦法華經。每日一遍。夜中忽見一道人。自稱願公。容止甚異。呼詵為上行先生。授香而去。中大通四年。晝寢。忽驚覺曰。願公復來。不可久住。言訖而逝。舉室咸聞空中唱云。上行先生。已生彌陀淨域矣。時年七十八(南史)。

宋滿

宋滿。恒州人。生當隋世。篤志淨業。每持佛名。以豆記數。滿三十石。設齋供佛。俄有三僧至會乞食。食已。香華布空。飛騰而去。未久。滿面西坐脫(佛祖統紀)。

鄭牧卿

鄭牧卿。滎陽人。舉家修淨業。唐開元中。病篤。或勸進魚肉。不許。手執香爐。一心西向。忽聞異香蔚然。遂逝其舅尚書蘇頌夢寶蓮華開。牧卿坐其上(佛祖統紀)。

高浩象

高浩象。東平人。杜門靜居。日誦無量壽經。嘗於定中坐紅蓮華。泛白玉池。初未見佛。即於華上傾心致敬。遙睇金容。光輝四映。一夕見眾菩薩來迎。寂然而化(佛祖統紀)。

李知遙

李知遙。長安人。篤志淨土。為五會念佛。導諸眾信。晚得疾。忽云和尚來也。洗漱著衣。然香爐中。出堂頂禮。聞空中說偈云。報汝李知遙。功成果自招。引君生淨土。將爾上金橋。却就牀坐。泊然而化。異香滿室。眾共聞之(淨土文)。

孫忠

孫忠。明州人。早慕西方。蔬食持戒。於府城東築庵。鑿二池。種白蓮臨池建閣。月集眾為念佛會。嘗見佛身現空中。趨出。呼其二子至。同拜禮焉。久之始隱。後人因名其地為駐佛巷。宋元祐八年。釋可久神遊西方。見金臺標孫忠名。久之。忠得疾。請道俗百人為念佛會。忽仰視虛空。合掌問訊。手結雙印。怡然而化。闔城皆聞天樂異香。漸向西沒。二子能繼其業。亦向西坐化(佛祖統紀)。

左伸

左伸。天台臨海人。從法師神照受菩薩戒。聞大乘法要。豁然開悟。自是嚴奉戒律。造西方三聖像。旦夕虔事。求生淨土。誦法華經三千四百部。金剛經二萬卷。紹聖二年秋。有疾。命其子沙門淨圓唱法華首題。已而夢三偉人立江臯。召伸登舟。瞥然西邁。伸知往生有期。乃請僧誦阿彌陀經。遽曰。我已見佛光。即沐浴更衣。戒左右勿哭。勿逼我前。端坐結印而化(法華持驗記佛祖統紀)。

孫良

孫良。錢塘人。隱居閱大藏。尤得華嚴之旨。嘗依大智律師。受菩薩戒。日課佛名萬聲。二十年不輟。忽令家人請僧唱佛名。方半日。望空合掌曰。世尊菩薩。已荷降臨。即退坐而化(佛祖統紀)。

賈純仁

賈純仁。湖州人。長齋修淨業。一日示疾。西向念佛。宴坐而逝。頂上有白光圓相。異香滿室(佛祖統紀)。

范儼

范儼。仁和人。居常蔬食。不牽世緣。曰。百年旅泊耳。尚何求哉。日誦法華經。手書一部。求生淨土。大觀中。忽見普賢乘六牙白象。放金色光。謂儼曰。汝嘗誦法華。念彌陀佛。得生淨土。故來相報。越一夕。覩眾聖授手。就座合掌而逝(佛祖統紀)。

孫忞

孫忞。錢塘人。號無諍居士。掩關晦迹。日閱華嚴金剛諸經。以淨土為歸。母龔氏。修淨業。偶得疾。請清照律師說法。端坐而化。未幾忞夢至蓮池。見清照在側。旁一人授以梵字帖。不識其人曰。請十三日齋耳。時方十二月。及期。忽得疾。有僧問疾。欲為祈禱。忞曰。生死已定。何必禱。即報清照云。當暫相違。遂跏趺作印。西向坐脫。翼日清照至。為說法封龕歸庵三日。亦逝(佛祖統紀)。

唐世良

唐世良。會稽人。持戒奉佛。日勤禮拜。老而得疾。未嘗就枕。誦彌陀經十萬過。一日謂家人云。佛來迎我。言訖作禮。即坐逝。時行者宗利。在道味山。夜夢西方有異光。旛華天樂。空中聲云。唐世良已歸淨土(佛祖統紀)。

陸浚

陸浚。錢塘人。少為吏。久之棄去。預西湖繫念會。以淨土為歸。每對佛前懺悔。聲淚并下。間與友人相見。說淨土因緣。未嘗不感慨嗚咽。恐此生之不度。淨業之難成也。臨終請圓淨律師說淨土法

門。諷觀經至上品上生章。圓淨語之曰。此時好去。浚曰。眾聖未齊。且待少時。起就竹牀。面西端坐。頃刻化去(佛祖統紀)。

王闡

王闡。字無功。明州慈溪人。再舉進士不第。布衣蔬食。徧參講席。晚年專修念佛三昧。述淨土自信錄。其序云。吾佛淨土法門。一言以蔽之曰。在凡夫獲不退而已矣。何則。此土修行。圓教初信。小乘初果人。邪見三毒永不復起。茲為斷惑發悟。創入聖流。越生不昧其所證。斯超四趣。不失人天。至於凡夫地中。雖伏惑發悟菩薩。一經生死非常之變。則忘其所證所修。是故遇緣或退。仍墮苦塗者有之。乃若凡聖同居淨土。如極樂國等。雖具三界。唯有人天。故一切含識獲生者。即長辭四趣。又助緣大備。壽數莫量。縱至鈍根。一生熏修。無不證聖果。寧復有退失事乎。如來讚勸之本意。不過如此。且圓機體道。是最上淨業。苟加願導之。即預優品。若夫愚朴輩。但能稱佛發願者。莫不往生。嗚呼。觀淨土一門。則知聖人無棄物矣。彼守癡空之徒。効無礙無修。起自障心。絕他學路。可不哀哉。紹興十六年四月丁卯之夕。忽聞異香滿室。謂弟子沙門思齊曰。此吾淨業所感也。乃沐浴更衣。面西趺坐而化。焚其軀。得舍利如粟者百八粒(佛祖統紀樂邦文類)。

王日休

王日休。字虛中。廬州人。宋高宗朝。舉國學進士。棄官不就。博通羣經。訓傳六經語孟數十萬言。一旦棄去。專修西方之業。布衣蔬食。日課千拜。著書名龍舒淨土文。自王公士大夫。下至屠丐僮奴皂隸優妓之屬。咸以淨土法門。勸引皈依。其文淺說曲喻。至詳至懇。若父兄之教子弟然。日休每晨起禮佛。祝願言。弟子日休。謹為盡虛空界一切眾生。然香敬禮盡虛空界一切諸佛。一切正法。一切諸大菩薩。緣覺聲聞聖眾。乞成就一切善願。濟度無量無邊眾生。臨命終時。一剎那間。見阿彌陀佛。證無生忍。了六神通。不出此間一歲。即來此間教化眾生。漸漸變此南閻浮提。盡娑婆世界以至十方無量世界。皆為清淨極樂世界。又祝云。弟子日休。為此南閻浮提無巨無細一切眾生。敬禮諸天天帝日月后土一切靈祇。為此等眾生。感謝覆載照臨生養衛護之恩。謹為此等眾生。念南無釋迦牟尼佛一百八遍。以種無上善根。念南無阿彌陀佛一百八遍。以結無上善緣。願此等眾生。常沐洪恩。歡喜相向。不相爭相殺。不相食相陵。進修佛法。脫離苦海。即變此南閻浮提為極樂世界。又

祝云。弟子日休。謹為盡虛空界一切眾生。敬禮西方極樂世界阿彌陀佛。觀世音菩薩。大勢至菩薩。聲聞諸上善人。仰惟大慈大悲。憫念眾生沈淪苦海。無有出期。特展威神。遞相勸勉。分身於此震旦國中。教化眾生。使不相爭相殺。不相食相陵。易世澆漓。共躋仁壽。及於此南閻浮提盡此娑婆世界及十方濁惡世界。身為國王大臣。百僚庶尹。教化眾生。同修佛道。脫離苦海。即變吾國以至十方濁惡世界。皆為清淨極樂世界。又祝云。弟子日休身在世網。宿業深重。願為平昔所殺眾生。所食眾生。及南閻浮提所殺所食一切眾生。日誦西方極樂世界三十六萬億一十一萬九千五百同名同號阿彌陀佛一百二十遍。仰惟如來。大慈大悲。以日休所誦如來名號。一聲一如來。度一眾生。盡其所誦之數。度一切眾生。同生極樂世界。其詳載淨土文中。乾道中。廬陵李彥弼有疾。垂死。夢一人自稱龍舒居士。謂曰。汝起飲白粥。疾當瘳。且汝尚憶闕仲雅教汝修行捷徑否。彥弼曰。每日念佛不輟。既覺。索粥飲之。立愈。彥弼初未識日休。既而見畫像。與夢合。使諸子往受學焉。日休將卒前三日。徧別道友。勗以精修淨業。云將有行。不復相見。及期。與生徒講書畢。禮誦如常時。至三更。忽厲聲稱阿彌陀佛數聲。唱言。佛來迎我。屹然立化。彥弼聞而感之。為刻日休像。并述其事傳遠近。自是廬陵人多供事之。咸祐中。呂元益重刻淨土文。至祝願篇。版中得舍利三顆。其叔父師說載其事於篇首云(樂邦文類淨土文)。

樓汾

樓汾。明州人。兄寶洲。好內典。每與沙門談道。汾從旁傾聽。信向日切。年二十二得疾。遂一志西歸。謂父母曰。但得生淨土。見佛聞法。世間勝事。何以過此。遂請僧諷觀經。設像對臥牀。注視久之。曰。吾已身在西方矣。遂稱佛名。向西而化(佛祖統紀)。

張元祥

張元祥。長安人。居常念佛不輟。一日謂家人曰。西方聖人來此。待我飯畢。同往淨土。及飯訖。焚香面西。跏趺而化(佛祖統紀)。

元子平

元子平。不詳其所出。依京口觀音寺。念佛誦經。一日忽聞空中音樂。即西向坐化。異香數日不絕(佛祖統紀)。

姚約

姚約。湖州仙潭人。潛心內典。覺海友公興淨業社。約實主其事。忽告友公曰。久厭浮生。不日西去。師可助我念佛。友遂日與誦佛名。一日就座而化。既而見夢於友曰。約已往生淨土。師之力也。友曰。欲從公遊。得乎。約曰。師世壽未盡。寺中景懿當先至。懿同社僧也。閱月便終(佛祖統紀)。

梅福

梅福。松江人。誦經持戒。繫念淨土。臨終。預知時至。即絕粒飲水。稱大勢至菩薩。至七日。澡浴更衣。端坐告眾曰。勢至菩薩。今來迎我。即座化去(佛祖統紀)。

胡嵩

胡嵩。湖州人。平時信向佛法。修諸功德。一夕忽夢佛語曰。汝可造屋迎我。嵩乃建閣以奉彌陀。臨終之夕。忽云佛光照我。言訖而化(佛祖統紀)。

陸偉

陸偉。錢唐人。初為州吏。中年厭世。勤修淨業。結法華華嚴二社各百許人。閱二十年。遂成大會。偉手書法華華嚴圓覺金剛金光明諸經。一日易衣端坐。唱佛而化(佛祖統紀)。

閻邦榮

閻邦榮。池州青陽人。中年嘗遇僧勸修淨業。持往生呪。遂斷葷血。每旦向西誦呪千遍。又率諸男女同聲誦之。積二十年。紹熙元年正月朔。閱大涅槃經。歎曰。人生夢幻耳。吾何戀乎。三月朔。聞異香芬馥。彌日不歇。其子夢阿彌陀佛。放大光明。徧照堂宇。皆作金色。越五日晨起。如常課誦訖。顧家人曰。我今日當行。慎勿相攪。遂面西瞑目。跏趺而坐。日過中。瞿然起曰。我去也。便起立。行數步。舒手結印。微笑而化(樂邦文類)。

吳克己

吳克己。字復之。自號鎧庵居士。居於婺之浦江。嘗苦目疾。或勸令持圓通大士號。從之。疾良已。遂起深信心。讀楞嚴至空生心內。猶雲點太清。豁如發蒙。既讀宗鏡錄。久之。有悟入。著法華樞鍵。回向極樂。曰。不讀法華。無以明我心本具妙法。不生安養。無以證我心本具妙法。如來諄諄示誨。智者懇懇宏經。佛祖垂慈。初無異轍也。乾道中。寓蘇州。與寶積實公為蓮社。命工繪十界九品圖於兩廡。一示萬法唯心。一指西方徑路。社友鍾離松為之記。嘉定七年冬。終於寶山。遺言以僧禮茶毗。壽七十五(佛祖統紀樂邦文類)。

陳君璋

陳君璋。黃巖人。生於元時。年四十。皈心佛法。與妻葉氏。誦法華經。迴向極樂。歷二十年。疾篤。命其子景星扶之坐。曰。吾歸去。景星曰歸何處去。曰。沒處去。令死後用桑門閣維法。合掌稱阿彌陀佛而逝(往生集)。

王九蓮

王九蓮。不詳其所出。亦元時人也。虔修淨業。依經作觀。然夜所夢佛。皆尚像。非活佛也。一日遇僧寂公。告以故。寂公曰。此易耳。子能憶先公容貌乎。曰。能。夢所見與生時有異乎。曰。不異也。寂公曰。佛本無相。因心有相。子欲見佛。即以先公作阿彌陀佛想。作眉間白毫光想。作面如真金想。作坐寶蓮華想。久久想成。漸見其身。日高日大。徧虛空界。則見活佛矣。九蓮如法修之。自後每夢見父。心輒謂是佛。久之。其父遂引坐蓮華。與說法要。九蓮心開。進修益篤。有父執馬生者。遠客歸。見九蓮言。某日得危疾。為冥吏所攝。歷諸地獄。正惶急。忽有金光照身。光中一人坐蓮華。呼我字。諦視之。乃尊公也。命吏送歸。遂復活。不識尊公何修至此。九蓮語以故。馬生亦感動。誓同修淨業云(瑯環記)。

楊嘉禕

楊嘉禕。字邦華。吉安泰和人。明萬歷中諸生也。少好學。於書無所不窺。已而潛心內典。年十三。持不殺戒。蚤虱無所傷。至二十餘。入南京國子監。俄疾作。夢遊地獄。見地藏菩薩於冥陽殿。覺而放諸生物。延僧誦經。唱佛號已而謂人曰。吾將逝矣。青蓮華現

吾前。非淨土境乎。遂晝夜唱佛號不絕。命侍者息燭曰。吾常在光明中。不須燭也。問何所見。曰。蓮開四色。問見彌陀否。曰。見彌陀現千丈身。問觀音。曰。身與彌陀等。唯不見勢至耳。言訖。忽躍起拈香曰。彌陀經功德。不可說。不可說。不可說。吾已得上品生矣。寂然而逝(往生集)。

陳道民

陳道民。法名明覺。吳江人。自幼蔬食。嘉靖二十六年。投祇園法師為弟子。受優婆塞戒。六時課誦。口不離佛。萬曆十五年九月。預知時至。別諸道友。十七日夜。其婦方篝火絡絲。道民向婦拱手作別。坐牀角上。脫鞵與襪。以帶并束之。曰。明朝著不成矣。歸亟呼兒女環視。中夜念佛聲寂。便化去(猶園)。

唐廷任

唐廷任。字體如。金華蘭溪諸生也。天性醇慤。躬孝友之行。已而覺世無常。傾心至道。參雲棲宏公。受念佛三昧。遂力行之。閱十三年如一日。年六十。當仲冬之旦。謂諸子曰。新春十有一日。吾行矣。至期。盥漱整衣端坐。手結印。口稱佛號。微笑而逝。事在萬曆三十一年(往生集)。

戈以安

戈以安。錢塘人。事雲棲宏公為師。法名廣泰。事親孝。好行陰德。晚歲奉佛甚虔。與僧元素結春秋二社。為念佛會。誦華嚴經。已而曰吾大限迫矣。當為西歸計。遂閉一室習禪誦。晨夕不輟。預尅歸期。前二日。家人來視。甚悲。以安曰。生必有滅。奚悲為。吾方凝神淨域。面覲彌陀。若等勿以情愛亂我正念。請元素至。共唱佛號。及期而化(往生集)。

孫叔子

孫叔子。安慶桐城人。父境吾居士。讀雲棲彌陀疏鈔。喟然歎曰。至哉妙用。旋乾轉坤。所謂十世古今。始終不離於當念。其唯念佛一門乎。鑄阿彌陀佛像。按四十八願以為莊嚴。像成。送之雲棲。因乞法名為廣寓。稱弟子。叔子年十二。從焉。遂受五戒。法名大圩。歸而斷葷血棄科舉業。修念佛三昧。勤苦不惜身命。俄見兩比

邱持蓮華立於前。曰。孺子善哉。一心淨土。復見化人誦金剛經一晝夜。乃瞿然起坐。曰。彌陀觀音。皆來迎我。結金剛拳印。唱阿彌陀佛數聲。泊然而寂。有淨土十二時歌傳於世。其室中歲產瑞芝。卒之歲。有大如斗者。其色或如金。或如赤白輪(往生集雲棲法彙)。

郭大林

郭大林。湯陰人。亦專志淨業。年七十六。一日謂其子曰。明午吾去矣。無疾而逝(往生集)。

劉通志

劉通志。順天人。精勤念佛。年五十二。得疾。念益切。其法侶李白齋先卒。通志絕而復甦。謂家人曰。白齋與我。當同生淨土。已維舟待矣。為我易衣。挂念珠於項從之。遂逝(往生集)。

郝熙載

郝熙載。錢塘諸生。為人忠信不欺。晚歸雲棲之教。法名廣定。居家禪誦無間。已而得疾。一日忽舉首視窗外。謂其子曰。今者別一乾坤矣。夜半云。佛坐蓮華臺現吾前。吾往矣。遂逝。事在萬曆三十九年(往生集)。

杜居士

杜居士。遺其名。順天宛平人。隱西山端光寺側古齋堂中。三十年專志念佛。對人唯合掌稱佛號。預知將終。禮懺九日。誦至懺中懇切語。輒流涕哽咽。遂絕食日飲水少許。懺畢坐脫。浹旬始殮。顏色如生。有五色雲盤屋上。山中人傳異之(往生集)。

吳大恩

吳大恩。仁和人。仁慈好施。恤孤窮。護生命。鄉里稱之。已而皈心佛法。晨夕誦經。唱佛號。一日別眾。跏趺而逝。神色煥然。室有香氣。事在萬曆四十年(往生集)。

吳繼勛

吳繼勛。字用卿。江南徽州人。性沈毅。嗜善若渴。晚修淨業。持往生呪。唱佛號。日有定課。嘗失足墮江中。有物籍之。流十里。躍而登舟。眾以為神。已而患背疽。持誦自若。俄而正念示寂(往生集)。

華居士

華居士。杭州江干人。醇樸無偽。與人不欵曲。中年獨處一室。不涉世事。唯孜孜念佛而已。及將卒。自知時至。更衣正寢。手整冠。端坐。別眾而逝(往生集)。

顧原

顧原。字清甫。號寶幢居士。應天人。嘉靖間諸生也。少豪雋。工詩。善書畫。年及四十。盡棄所習。斷酒肉。構小樓。獨坐其上。精修禪觀。豕人女子。絕不見其面。每夜五更起。擊大木魚。高聲唱阿彌陀佛。其舍旁有屠兒。每聞木魚聲即起屠家。一日遲起。恚而責其妻。妻曰。爾不聞彼道人日打木魚念佛邪。自不知罪。乃責我。何也。屠兒愕然即折刀不復屠。一時屠兒從而徙業者甚眾。原與棲霞雲谷禪師善。結西方社。憨山清公一日至棲霞寺。望見一道者。閒閒如孤鶴。即之。其目不瞬。脫若遺世。已而入殿門。禮舍利塔。瞻拜良久。塔頂忽現五色光。赭如寶錯。清公異之。以語雲谷。雲谷曰。此寶幢也。方作西方觀耳。頃之。示微疾。請名僧數人相對唱佛號。已而內人走報曰。滿宅聞蓮華香。眾驚喜。原恬然如平時。徐語僧曰。我坐蓮華中半月餘。見彌陀法身。徧虛空世界。世界皆金色。佛視我微笑而挈我。又以袈裟覆我。我決定往西方矣。諸子涕泣請曰。父即往。奈兒輩何。原笑曰。汝將謂我生邪。死邪。而獨不觀於日乎。日出於東而沒於西。是果沒乎。遂尅期。沐浴更衣。端坐而逝。蓮香三日始歇(憨山夢遊集)。

朱元正

朱元正。海鹽諸生也。平生有志聖學。律身甚嚴。年六十餘深入禪悅。居宅後敞屋中。閉關不問家事。每日晨誦法華經一卷。日過中則靜坐。其門人陳則梁訪之曰。先生年高。盍少開酒禁。元正曰。子謂我須調養血氣邪。不知我於生死已畫得斷。則梁竦然。其年七月語其子曰。吾在此無事。可行矣。問何處去。曰。西方去。子及孫固留。至十二月朔。示微疾。不食。家人蒼黃治殮具。元正曰。

勿忙。此後八日半夜事也。及期。端坐欲逝。復曰。吾生平秋毫不負人。今冬舍後匠人。為我平後門一片地。欲待明年元日。便老人出關行步。其好意未報。因取紙作詩謝之。寂然而逝。時方雞鳴。預戒家人。臨行勿令婦女來。過二三時乃來。來亦勿哭。比天明。眷屬至。皆哭。元正復張目搖頭。令婦女去。去盡乃瞑(法華持驗紀事)。

周廷璋

周廷璋。號楚峯。雲南人也。生於正德嘉靖間。為人淳朴。治家不計有無。有輒散之貧者。人與之語。輒笑。或謔之詈辱之。亦笑而已。素向佛法。晨起必誦金剛彌陀觀音諸經各一卷。充然自得。曰。吾不離日用。不涉貪愛。如是而已。年八十七。以清明日上冢。決辭祖考。還謂其婦曰。吾將行矣。彌陀迎我。觀音勢至俱來也。已而曰。觀音謂我絕葷五日。可西行。遂日食一粥一蔬。至期。沐而冠。令子弟誦七如來名而已。誦經既畢。端坐而逝。翼日。有香發於體。貌如生(金剛靈應錄)。

程見山

程見山。以字傳。遺其名。天性孝友。少為賈。已而棄去。家居精研佛理。禮誦有定程。雖冗不廢。晚年益靜默。日以禪觀為業。疾革。家人方蒼黃。見山云。汝等無出聲。我方澄念。以西方為歸。平時所願。今克從矣。遂卒。年七十六(劉子威禪悅小草)。

張守約

張守約。浙江秀水縣人。貧而好施。倡諸同志。廣行利益事。以百千種計。晚乃盡謝世事。一蔬一飯。日誦西方佛名。嘗擬寒山詩三百首。激勸緇素。一以淨土為歸。一云。淨土大法門。彌陀大願力。千生萬劫來。今朝始識得。當生難遭想。慎勿更錯失。念佛求往生。貴在心專一。一云。物外寄閒身。諸緣任運歇。不染半默塵。唯念一聲佛。性使軟如綿。心要硬如鐵。肯作無益事。水底去撈月。一云。昨日入蓮社。口佛心亦佛。今日火宅中。事雜念亦雜。若非根器深。未免塵勞汨。是以古哲人。山中修淨業。一云。上品見佛速。下品見佛遲。雖有遲速異。終無退轉時。參禪病著相。念佛貴斷疑。實實有淨土。實實有蓮池。一云。七十古來稀。前面無多日。急急辨盤纏。猶恐來不及。橫也任他橫。直也任他

直。安得閒工夫。與之分皂白。妻陶氏。自歸守約。亦課誦無間。守約詣普陀禮大士。陶氏謂二子曰。吾平日參是心作佛。至今始悟。娑婆緣盡。吾其行矣。尅期端坐而逝。次日守約歸。成殮。俄而棺上出青蓮華。其數五(擬寒山詩并序往生集)。

莊廣還

莊廣還。字復真。嘉興桐鄉人。少為儒。已而學醫。年四十餘。頗厭世事。遂從事養生術。久之致疾。乃喟然曰。吾獨不能為天地間一閒人乎。遂搆小園。疊石樹華木。嘯歌其中。一日覩華開落。悟身無常。即毀園。閉關坐禪。取金剛諸經誦之。偶出遊杭州。遇一翁。與之語學佛。翁曰。子學佛。誰所師。曰。未也。翁曰。子不讀柳子厚服氣書乎。雲棲有蓮池禪師者。近在此。盍往師之。應曰。諾。遂徒步詣雲棲。謁蓮池。蓮池授以念佛法。遂受五戒。歸家日課阿彌陀佛五萬聲。未半載。心地寂然。年八十。再詣雲棲。受菩薩戒。歸老於家。居常病其鄉人。不知正法。多宗邪教。閱淨土諸經論。掇其語要。名曰淨土資糧集。以導眾信。鄉人從而化焉(淨土資糧集)。

鮑宗肇

鮑宗肇。字性泉。紹興山陰人。家世信佛。宗肇既冠。斷葷酒。能覆誦法華楞嚴二經。每日一周。其父命鬻楮於嘉興。怒其折閱。罰之跪。良久起。則已默轉楞嚴竟矣。嘗從紫栢散木諸老師遊。晚而歸心雲棲。篤志淨業。兼肆力於方山合論永明宗鏡錄諸書。信解通利。自號天鼓居士。著書曰天樂鳴空。臨終囑其子治齋。邀法侶王季常等緇衣數人至。同聲誦西方佛號。日西時。忽合掌謝眾曰。與諸君永別矣。遂趺坐而化(天樂鳴空集)。

莊嚴

莊嚴。字平叔。松江華亭人。深達佛法。導諸同事。衣履所餘。常以施人。家有一子一壻。視之泊如也。閒作詩。及小詞。皆清遠有致。嘗調滿庭芳一闕云。六十餘年。片時春夢。覺來剛熟黃粱。浮華幻影。有甚好風光。冷眼輕輕覷破。急翻身蹬斷絲韁。兒孫戲從他搬演。何必看終場。青山茅一把。殘生活計。別作商量。但隨緣消遣。洗鉢焚香。先送心歸極樂。恣逍遙。寶樹清涼。堪悲也。回頭望處。業海正茫茫。天啟四年。卒於其友胡子灝之園。崑山王弱

生錄其詞。以為數年中所見學道人。以平叔為第一也(王弱生河渚集)。

黃承惠

黃承惠。字元孚。杭州錢塘人。為人耿介。不合俗。不能治生產。事大母母盡孝。好施與。隣人寒無衣者。解衣衣之。無食者。傾其囊中錢與之。妻弟聞啟初。奇其清苦。導往雲棲宏公所。以弟子禮見。宏公名之曰淨明。其後得嘔血疾。積三歲弗瘳。且亟。啟初教之念佛。承惠方苦痛。弗省。啟初厲聲曰。汝眼光墮地。即今知痛者。畢竟落在何處。承惠悚然曰。將奈何。啟初曰。莫如念佛。承惠曰。爾教我念自性彌陀邪。念極樂彌陀邪。啟初曰。汝將謂有二邪。承惠遽有省。請慧文法師至。設佛像。為說淨土因緣。承惠欣然。請法師為剃髮。受沙彌戒。屏家屬。唱佛號。默轉蓮華經七日。家人皆聞蓮華香。忽微笑說偈曰。一物不將來。一物不將去。高山頂上一輪秋。此是本來真實意。乃命家人治齋供佛。請僧唱佛號。讀雲棲發願文。至云阿彌陀佛。放光接引。垂手提攜。歡然起坐。諦觀佛像而逝(憨山夢遊集)。

聞啟初

聞啟初。字子興。法名大賊。與承惠同鄉里。少善病。志欲出生死。乃往雲棲受念佛法門。雲棲示寂。憨山清公來弔。啟初作禮白言。願薙髮為弟子。清公曰。佛性四大不能拘。豈毛髮能為礙乎。況子有親在。未可也。啟初乃已。俄而疾作。啟初曰。吾當直往西方耳。疾無傷也。及疾甚。神志瞽亂。不能自持。大懼。亟命家人請僧至。唱佛號。越一日。瞽亂如故。復瞿然曰。生死根株。非他人所能拔也。立起。盥沐著衣。對佛焚香煉臂。哀苦懺悔。徹夜無少倦。及還坐。神安志定。淨土現前。乃薙髮披袈裟。別眾而逝。憨山清公聞而歎曰。勇哉聞生。其可謂烈丈夫矣(憨山夢遊集)。

沈咸

沈咸。字稚咸。吳江人。少穎異。弱冠補諸生。性純孝。父母相繼歿。哀毀骨立。偶閱彌陀楞嚴諸大乘經。有省參謁雲棲大師歸。乃除葷腥。屏居邑之水西庵。專修淨土。日誦佛號五萬聲。寒暑無間。復莊書楞嚴經以薦母。嘗與僧淵鑑結淨土會。邑中人多從而化焉。忽一日謂其子婦曰。吾世緣已盡。西方佛來接引。吾隨之歸

矣。頃之。面西趺坐而逝。時萬曆三十九年也。子宏。亦修淨業。嘗血書金剛經(章夢易撰沉居士傳)。

朱鷺

朱鷺。字白民。吳江諸生也。少有俊才。親亡。棄諸生。學長生術。已而參雲棲宏公。探求法要。宏公化去。鷺因禮塔作偈曰。我昔初謁師。問參禪念佛。可用融通得。師答隨口出。若然是兩物。用得融通著。快哉此一語。令人心膽悅。時時舉向人。諸方徧傳說。念佛人無盡。是指亦無盡。靈山會未散。蓮池舌長活。短偈作供養。合掌無縫塔。與王在公同遊徑山。闢一軒居之。閱般若經。晚居蘇州蓮華峯下。偕山僧修念佛三昧。自號西空居士。年八十。作辭世偈。沐浴更衣而逝(雲棲法彙吳江志憨山夢遊集)。

吳瞻樓

吳瞻樓。遺其名。太倉人。晚年以家事付二子。篤修淨土。一意西邁。日持佛號萬聲。誦大小彌陀經。及往生呪。兼作西方觀。不雜餘業。閱十二年如一日。西方聖境。累見目前。牀前時湧白蓮華。大如日。童稚皆見之。年七十餘。怡然坐脫。子孫以事佛世其家焉(現果隨錄)。

吳鳴珙

吳鳴珙。字叔寶。太倉人。家素饒。好施。然不甚通佛法。年六十餘。忽別眾沐浴。延隆福寺印初法師。授三皈五戒。大呼出去者再。合掌逝矣。頃復開目語人曰。吾纔發永絕塵世願。勇猛念阿彌陀佛。蓮華世界。忽已現前。自省平日何善。乃獲此報。傳語諸公。各須努力。言訖索水自照。恍悟曰。今生吳叔寶。前生徐和尚。復大呼快哉而逝。異香發於室(現果隨錄)。

王醇

王醇。字先民。揚州人。徧遊吳越山水。參一兩禪師。受優婆塞戒。居山日誦蓮華經。已而歸揚州。居慈雲庵。虔修淨業。顏其居曰寶藥栖。臨終。預知時至。結跏趺坐。請僧環誦佛名而逝(王先民傳)。

陳至善

陳至善。字用拙。常熟人。孩時聞祖母誦佛號。啼輒止既入塾。讀論語。至朝聞道。夕死可矣。人問母曰。人死安歸。母不能答。以告其父。父曰。汝意云何。至善曰。欲知生死。其必聞道乎。父曰。是兒他日定入無生法。及長。聞雲棲之風。慕之。篤志淨業。放諸生命。有寂公者。嗣法雲棲。已而結茅藤溪。至善為募金構禪院。一日寂公夢至善緇衣黃縑。含笑言別。亟走視之。見至善方誦佛號。右脇而逝(常熟志)。

張光緯

張光緯。字次民。無錫人。年十四。補諸生。明亡。棄舉業。家居課生徒。年五十餘。妻子盡喪。孑然獨處。因究心內典。自號息廬居士。奉雲棲之教。所著文率以淨土為歸。日課佛名萬計。兼觀佛像。每夕禮佛。雙燈結華。或如珠。或如粟。或如瓔珞。如鬘雲。一夕左燈忽現蓮華。有佛跏趺其上。峩峨金容。相好畢具。良久方滅。光緯拜籲。願得再見。越三日夕。左燈之上。現佛立像。右燈之上。亦湧蓮華。佛斜坐其上。家人咸見之。光緯受優婆塞戒。尤以戒殺為第一義。一蚊一蟻咸所護念。晚而長齋。祭先祀神。悉用菜果。食飲無所擇。有珍味。輒以餉人。冬夏一冠。二十年不易也。年七十三時。自為終制。不受人弔。不立木主。殯不過七七。自謂無營無戀。無瞋恚。泊然待盡而已。未幾卒。有淨土剩言。刻行於世。其念佛說三篇尤切於學者。略言。經云。執持名號。一心不亂。執持云者。若可把捉而非把捉。儒家所謂拳拳服膺。朱子訓以恭敬奉持者是。下文弗失。便是不亂義。儒家又言顧諟。朱子釋以常日在之。即是觀佛義。亦即是不亂義。口誦佛名。眼觀佛像。耳還自聽。聲從舌流。禪味悅心。鼻聞香氣。如是念佛。反六還一。云何得亂。吾今念佛。作一方便。自視此心。如淨寶瓶。佛名如穀。逐字逐句。如穀投瓶。貫珠而下。穀既無盡。瓶亦不滿。不放一粒。拋向瓶外。顧念此瓶不滿徑寸。中藏三千大千世界百億微塵數佛。三十六萬億一十一萬九千五百同名同號阿彌陀佛。安住其中。我亦與之俱會一處。游樂宴息。方是我安身立命處也。又曰。石南和尚偈曰。念佛切莫貪多念。且念一百心不亂。九十九聲一念差。捋轉數珠都不算。如是一百百至千。從千至萬如珠貫。箭射不入刀不侵。百萬魔軍皆退竄。吾向來念佛。亦只囫圇念過。今始知須字字從心裏出。還須字字入心裏去。當念佛時。先要閉目端坐。凝神定慮。不可有一毫雜亂心。躁競心。昏惰心。開口出聲。務令

聲從心發。心籍口傳。息調聲和。不徐不疾。字字分明。句句相續。分之則一字可作一句。貫之則百千句直如一句。緜緜密密。自一聲以至千萬聲。自一刻以至十二時。無斷無續。不缺不漏。久之純熟。華開見佛。到時自驗。決不賺人。又云。念佛之至。須兼作觀。瞑目向西。端坐默想。神與形離。驀直西去。漸見樹林。及諸水鳥。金繩界道欄楯交羅。取次遡行。寶池勝蓮。香臺樓閣。種種在目。儼然如來現身丈六。觀音侍左。勢至侍右。放眉間光。垂手接引。我及海眾。同攝光中。隨引而上。禮足悲懇。于時忽見金掌摩頂。甘露灑身。此心廓然。獲大安隱。徐徐神返。若出定然。於彼世界中。日遊一遍。往生路熟。時至不迷。願以此告諸念佛人。須知心念。莫但口念。入此門時。去佛不遠(淨土剩言)。

袁列星

袁列星。字垣三。崑山人。嘗寓杭州西溪。因自號西溪居士。成童時習舉業。一日聞外祖母誦金剛經無四相句。即有契入。既而遇悅山禪師。參求向上。日加精進。會白嵩老人自雪峯來崑。列星再三叩擊。言下洞然。遂受記莚。已而道風日播。隨機接引。慧辯無礙。提唱一乘。兼宏淨土。時諸同輩好修僊術。兼慕枯禪。多有不信淨土者。列星曉之曰。淨土法門。圓通廣大。我向來密修密證。不敢輕以語人。非秘而不言也。時節未至。恐言之無益耳。諸佛甚深法藏。二乘聲聞辟支佛聞之。尚是不信。蓋彼住在涅槃清淨。已證神通妙用。不知淨土大莊嚴海。處處現成。故諸佛呵二乘為邪。謂其墮無為院。飲三昧酒。可歎今之禪者。尚未能到涅槃清淨二乘境界。便空腹高心。未得為得。未證為證。於六根未動時。認著一箇光影。以為既悟。便爾莽莽蕩蕩。呵斥淨土。真可憐憫。就使真正大徹大悟摸著娘生鼻孔。還能逃得寂光淨土否。又曰。知是般事。便撥向一邊。密雲老人云。你要撥向那一邊。真正癡人前不可說夢也。古德云。今時禪者。以透過法身為極則。不知透過後又作麼生。假饒透後有甚麼消息。亦是病。真實語言。所宜痛省。今時禪者尚不出微細所知魔。反指修淨土者為愚。亦甚惑矣。夫盡空虛有十法界。淨土是第一法界。故九界同歸。但修淨土者。人道為易。蓋地獄餓鬼。眾苦煎逼。并不知有佛名。諸佛日以威神法力。清淨光明。哀憐救護。彼盲然聾然。不一知也。如或業盡心開。一聞佛名。地獄餓鬼。立變清涼法界矣。畜生癡迷罔覺。修羅嗔根熾盛。難覩慈光。而最不肯修淨土者。尤莫如天僊道。彼非不知淨土之為美也。但已得神通妙用。飛騰變化。出有人無。亦能放現金光。幻出諸菩薩形像。幻出種種莊嚴勝具。以為淨土之樂。不過如

是。而不知其墮於幻識也。都是自己精氣神團聚幻成。吾佛所呵不修正覺。未是無為。報盡還墮者也。吾人本來一切現成。旋天轉地。不待安排。更無他物。並非鍊而成者。若曰修鍊而得。都是魔說。吾前所謂不生不滅。惟不生者不滅。若修鍊而成。即是有生。無有不滅者也。元精元氣。不出元神。元神者識之別名也。大丈夫要復本來。方將洗淨神識。斬斷命根。奈何反修成一箇神識。愈膠愈固。難以驟拔。久之中心力衰敗。有未至劫火而先壞者。縱能堅持牢固。劫火一到。同歸於盡。蓋劫火不唯破有形。亦能破無形。無自安慰曰。吾道如虛空。永不能壞也。須知虛空亦是神識幻出。無上道眼方能覷破。天僊現種種勝境。畢竟不十分光明。不十分正大。豈如淨土一切如來。同其光明徧徹。一切菩薩聲聞。同共光明徧徹。一切水鳥樹林華香音樂。同共光明徧徹。於一毫端。建寶王剎。坐微塵裏。轉妙法輪。非天僊法界所可擬其萬一者也。誠能深信淨土。專而行之。已超過百億天僊。倘猶不能斷除學僊之念。是未明乎大小之分也。蓋淨土法門。乃一切聖賢所歸宿地也。得生淨土。福慧雙足。來返娑婆。遇僊度僊。遇魔度魔。遇人度人。遇鬼度鬼。遇恩度恩。遇仇度仇。方是大丈夫事。君今決定信修淨土。永不退轉。池中蓮華。便已舒條吐萼。一切諸佛光明。塞滿汝眼。一切法音。塞滿汝耳。一切妙典。塞滿汝心。一切妙香妙味。塞滿汝口汝鼻。如是加護。一絲不露。勝境盡絕。便是一尊古佛矣。有不天地皆歸。僊魔畢度者哉。康熙五十九年二月。卒於寶樹庵。年六十二。門人輯其言。為西溪居士集(西溪集)。

皇甫士坊

皇甫士坊。字子儀。錢塘人。世業醫。士坊少讀龍舒居士淨土文。惕然深省。與思齊大師為方外交。篤修淨業。平居作淨土詩。積百餘首。今錄其尤切要者。一云。大哉淨土門。至簡亦至易。持名願往生。無人不果遂。凡夫根器薄。輾轉生疑貳。自疑積習深。宿業難捐棄。復慮念力微。勝境莫能致。不知無始來。罪性本虛偽。但能持佛名。速滅生死罪。如風掃雲霧。如燈除暗昧。雲暗本非真。心空滌陳穢。況此萬德名。感應難思議。如石性本沈。得舟終不墜。如人犯官刑。皇恩能赦庇。佛力妙難思。自力亦奇異。勿謂念力微。念力必如意。念比金石堅。念比鋒刃利。念西決生西。念佛佛必至。先聖有格言。匹夫難奪志。一云。二乘見偏空。執理而廢事。遂謂無淨土。心淨即土義。不知心與土。非一亦非二。諸土唯心生。一心眾土備。極樂心之淨。娑婆心之穢。極樂是虛名。娑婆亦應偽。愛重生娑婆。念專自西去。淨穢既生心。土亦隨所與。譬

如一輪月。映入諸水內。水清月自明。水濁月晦昧。月比本來心。水比諸世界。一心含萬剎。莫作有無解。無實亦無虛。事理兩無註。又作十二時頌曰。平旦寅。常時佛課在凌晨。一刻工夫十聲號。能超生死出沈淪。希有法。妙難論。往生全以信為因。君能聽受無疑惑。便是多生受記人。日出卯。朝露易晞人易老。試將親友細尋思。眼前多少埋芳草。要修行。須及早。一寸光陰無價寶。閒時不肯念彌陀。直待臨終空懊惱。日高辰。人世遷居必擇鄰。莫向人天求福報。壽終難免再沈淪。生忉利。作轉輪。暫時快樂未為真。勸君念佛求西去。永作逍遙自在人。禺中巳。食時處處炊烟起。自餐飽飯自充飢。自己修持了生死。子憶娘。母憶子。到底工夫全在己。拚捨身心見願王。十萬餘程近如咫。日南午。佛日當空日不覩。一條直路少人行。反向長途受辛苦。不談禪。不揮塵。念念彌陀常作主。雖然身未出娑婆。棲神已在蓮華土。日昃未。六蛇共室真堪畏。出沒閻浮是幾遭。多生還不分涇渭。猛回頭。滌塵胃。人命無常須不諱。死字常將挂在眉。纔覺西方有滋味。晡時申。歎息人身似轉輪。此身不向今生度。更向何生度此身。休錯過。莫因循。幾多帶角與披鱗。千佛慈悲難救度。塵沙劫數自沈淪。日落西。返照餘光不悠久。堪笑愚人顧目前。死生大事君知否。臭錢財。閒茶酒。賺得凡夫終日走。波波不暇念彌陀。臘月到來空束手。黃昏戌。一盞孤燈明夜室。上牀別了襪和鞵。魂夢冥冥黑如漆。歎人身。容易失。要出輪迴須念佛。無邊罪障一時消。佛光皎似千輪日。人定亥。富貴功名不常在。枕上黃粱夢未醒。癡情猶自憂千載。略因循。成懈怠。一息不來窮劫悔。孤負西方老願王。遙垂金臂恩如海夜。半子。淨穢相形分彼此。不是娑婆苦折磨。誰肯灰心厭生死。既厭離。要知止。黃金地上樂無比。眼前煩惱為誰來。都是西方促裝使。雞鳴丑。君願往生誰掣肘。煩惱場中正好修。念佛須教心應口。離是非。無可否。凡事隨緣我何有。但看蓮華不陸生。結根偏在泥中藕。後不詳其終(儒齋淨土詩)。

羅允枚

羅允枚。太倉人。父夢一僧求寄居。及旦而允枚生。四五歲時。猶能憶前生事。一日繞柱走。頭暈仆地。自後遂失所憶。及長。以多病棄舉業。參檠巖老人。了徹向上。復回心淨土。康熙四十年秋。病且革。忽聞空中聲云。勝蓮居士。尚餘壽一紀。已而頓痊。因自號勝蓮。時州人罕知修淨業者。允枚首倡念佛社。三四處。蓮風大振。五十二年秋病復作。人以為憂。允枚絕不介意。一夕夢神告曰。汝勸人修淨業功甚大。今延汝壽矣。允枚性慈善。凡放生育嬰

賑饑諸善事。咸樂成之。年七十一。其年六月二日。徧別親友云。將於初六日辭世。至期沐浴端坐說偈曰。七十一年。拖著皮袋。今日撇下。何等自在。偈畢寂然。頃之家人哭喚不已。忽張目曰。累我更遲七日。十四日晨起曰。今日吾必行矣。亟請乾行長老暨道友某某。來助我念佛。眾至。唱佛名。至辰刻。忽聳然曰。大士來矣。合掌向西。稱佛而脫(周安士文稿)。

周夢顏

周夢顏。一名思仁。字安士。崑山諸生也。博通經藏。深信淨土法門。自號懷西居士。嘗以眾生造無量罪。唯淫殺二業。實居大半。因著戒殺戒淫二書。其戒殺書。名萬善先資。言多懇切深痛。自言每過一切神祠。必祝願云。唯願尊神。發出世心。勿受血食。一心常念阿彌陀佛。求生淨土。思仁自今二十四歲。直至壽盡。中間若殺一小魚蝦。乃至家中眷屬。若有一人傷一蚊蟻。唯願尊神是糾是殛。迅雷擊碎所著書板。思仁自今二十四歲。直至壽盡。臨河見魚。仰面見鳥。不思救度。反萌殺機。亦同此誓。思仁自今二十四歲。直至壽盡。若夢寐中見人殺生。不能至心稱佛名號。發救度心。而反歡喜贊成其事。亦同此誓。其戒淫書。名慾海回狂。勸諸淫者。先觀胎獄。了種種苦。是謂息淫原始方便。次觀此身諸蟲蝟集。宛轉遊行。食人腦髓。是為初開不淨方便。次觀男女膿血洩唾。惡露中滿。猶如溷廁。糞穢所都。是為息淫對治方便。次想死人正直仰臥。寒冰徹骨。黃水流出。臭不可聞。徧體生蟲。處處鑽嚙。皮肉漸盡。骨節縱橫。乃至冢破骨出。人獸踐踏。而我此身。終亦如是。次念法華所說因緣生相滅相。與不生滅。是為斷淫窮原方便。次觀自身。在極樂世界七寶池內蓮華之中。蓮華開敷。見阿彌陀佛。坐寶蓮華。及諸種種莊嚴瑞相。亦見自身禮拜供養於佛。作是觀時。發願往生極樂世界。永脫淫奔。是為究竟解脫方便。又嘗輯西歸直指四卷。乾隆四年正月。與家人訣云。將西歸。家人請以香湯沐浴。卻之曰。我香湯沐浴久矣。談笑而逝。異香郁然滿一室。年八十四。

初有王孟隣者。與夢顏交。其年十一月朔。謂夢顏曰。十七日為彌陀聖誕。吾將行矣。至十六日。問夢顏曰。云何決定得生淨土。夢顏曰。當於念佛時。發四宏誓願。則淨因堅固。決無退轉。孟隣以為然。十七日。念佛坐逝。顏色不變。

又有余鶴亭者。見夢顏所著書悅之。因問往生之訣。夢顏為指示法要。鶴亭歡喜奉行。未幾徧別親友。遺偈而逝(慾海回狂。萬善先資。安士文稿)。

沈中旭

沈中旭。字啟白。吳縣人。少豪宕。急人之難。既而以醫名。益喜施。貧者不取藥直。或與之錢粟。年二十五喪偶。不復娶。虔修淨業。所過僧坊街頭橋下。徧書西方佛名。及警策語。勸人念佛。遇有危疾。輒蹙然曰。孽深矣。吾力不能救汝。奈何。病者涕泣。固以請。則曰無已。其必念佛乎。西方極樂世界。阿彌陀佛。能至心稱念一聲者。滅八萬億劫生死之罪。汝能信否。其人唯唯。曰。汝能念否。其人復唯唯。曰誠如是。疾可為也。乃下藥焉。亦往往有奇驗。從而歸佛者甚眾。中旭年七十餘有疾。其嗣子戒門者。屏人勿通。其逝也。無知狀者。然至今城西人論數十年來。白衣中修淨業者。必以中旭為首稱云(二林居後集)。

楊廣文

楊廣文。字道原。吳縣人。少孤不娶。皈心淨業。歲饑。道有棄兒。輒收養之。至十數。長而後遣之。門有乞者。教令唱佛名。即予之錢。由是乞者踵至。每語人曰。一心念佛。求生西方。只此八字。是無上法門。更無他說。乾隆三十五年得疾。其友沈炳往省之。唱佛名不絕口。明日遂逝。年六十餘(二林居後集)。

顧天瑞

顧天瑞。蘇州城西。大邨人也。中年長齋。為念佛會。妻陸氏。亦長齋。日誦佛名甚虔。年六十三。得微疾。預知將終。沐浴易衣就寢。

其姒俞氏。別室居。忽聞陸氏遙語云吾先去。姆早晚好來也。俞氏亟遣子視之。逝矣。俞氏故長齋修淨業。居半載無疾而逝。天瑞後數年。別諸親故。沐浴唱佛名。亦無疾而逝。事在乾隆三十五年(二林居後集)。

姜見龍

姜見龍。字元標。吳縣人。嘗倡設義冢。埋諸暴骼。歲饑。捐金以賑。家遂中落。習眼科以自活。初好長生術。一夕夢至一所。巉崖幽谷。陰風颯然。急覓路行數里。忽見天日。幢幡蔽空。寶輿中一人趺坐。身金色。見龍請曰。夙生罪障。悞入險塗。願見救拔。輿中人言。汝能發願否。見龍稽首曰。願從今日。作佛家奴。輿中人

言。甚善。明日當有比丘。導爾修行。慎勿錯過。言畢。頓失所見。及旦。果有一僧款門而入。為言修行之要。無過念佛。能念佛者。決生西方。能念佛者。得不退轉。能念佛者。疾成正覺。見龍大喜。日持佛名萬餘。聲徹里巷。乾隆四十三年八月。示微疾。謂諸子曰。吾一心求生西方。無他戀也。其月既望。書偈曰。脫卻五濁苦。往生極樂土。七寶蓮胎圓。一念成正果。明日將午。寂然而逝。年七十五(姜崑成述)。

沈炳

沈炳。字敬孚。長洲人。年十五。得喘病。過三十而劇。因發出世心。持佛名頗切。至年五十病益甚。自正月至五月。一息僅屬。遂矢願長齋。其友楊廣文往省之。勸持金剛經。扶起授之讀。盡卷。居三日。加持至三卷。半月而病愈。自後日以三卷為常。持佛名不輟。夜坐輒至曉。喘病遂除。而身微偃。閱五年。夜坐頃。自誓不取正覺。終不休歇。脊梁忽聲振。挺豎如平人。尋受五戒於旅亭會公。炳常言世間萬法。生滅不停。唯有一句阿彌陀佛。是大休歇處。又自謂念佛工夫。尤於病中得力。諸苦煎熬。獨一念炯然。不曾打失耳。乾隆四十六年十一月。示微疾數日。其月晦。晨起盥沐畢。喘甚。回身向西。結跏念佛。其妻在旁。揮之去。已而寂然。則坐逝矣。遺言以龕殮。用茶毗法。其妻亦長齋。修淨業。已而出家為尼(二林居後集)。

王恭

王恭。字禮言。太倉人。為人恬澹寡嗜慾。少棄舉子業。好為詩。所居南園。故宗老文肅公別墅。竹石蕭涼。偕諸羣從。觴詠自得。年五十餘。輟詩不復為。長齋修淨業。自號破有居士。一夕夢遊淨土。覺而志以詩曰。無多些子沒商量。夢入蓮邦大歇場。諸上善人譚法性。各天帝釋雨華香。鳥音樹樂無停響。珠閣金臺盡放光。咫尺僊原曾不隔。莫教迷路歎漁郎。又曰。雪山老子最多情。指點歸家路甚明。不住直須這裏住。無生恰好箇中生。投將種後芽旋發。培得根來果自成。領取臺山驀直去。何勞萬里訪蓬瀛。時年七十二矣。其明年夏。臥疾園之潭影軒。軒前有蓮池。華未放。一蓮藥傍崖石。獨對榻而開色鮮好。滿二日。恭課佛名如常時。手結印而逝。而華亦萎。時乾隆四十七年五月八日也。亡何。劉河人有以乩降神者。恭子冲往叩之。乩大書曰。我破有主人也。問今居何處。答幸登蓮界。問頗憶家否。答何思何慮。問家事。答南無佛。固

問。又書南無佛。如是者三。遂寂(顧成志。許培秀述)論曰。余少聞輪回往返之說。輒自悲流浪五濁。俛俛然靡所依也。既長。觀庾彥寶王虛中諸公行事。遺棄世榮。一心西邁。誠慕之。夫百年須臾耳。身家妻子之謀日固。悲歡得失榮辱之數日出。而死已隨其後矣。昔人謂念佛一門。於居士尤為喫緊。置身烈火之中。浸心煩惱之海。一息不來。而鐵牀銅柱隨之。非仰賴佛力。何以敵此。其有覽諸君子之遺蹟。而奮然興起者乎。是皆蓮胎骨肉也。余願執鞭以隨其後。

淨土聖賢錄卷八

淨土聖賢錄卷九

往生雜流第八

張鍾馗

張鍾馗。唐時人。居長安。殺雞為業。臨死。見緋衣人驅羣雞至。唱言啄啄。雞輒向上啄。兩目血流。痛不可忍。有沙門宏道見之。為設像。勸令念佛。忽覺香氣滿室。羣雞散去。即端坐而化(佛祖統紀)。

張善和

張善和。亦唐時人。屠牛為業。臨終。見牛數十頭。作人言曰。汝殺我。善和告妻。急延僧為我念佛。僧至。謂云。經言。若有眾生。作不善業。應墮惡道。至心具足十念稱阿彌陀佛者。除八十億劫生死之罪。即得往生極樂世界。善和云。地獄至急。取香爐來。即以左手擎火。右手拈香。向西厲聲稱佛。未滿十聲。遽云。佛來也。已與我寶座。言訖而終(佛祖統紀)。

金爽

金爽。不詳其所出。以漁為業。已而改行。斷葷血。持佛名。日萬聲不輟。一日忽告家人曰。我見阿彌陀佛與觀音勢至矣。我將歸淨土也。次日又曰。有金蓮華來迎我。焚香安坐。以手結印而化。天樂異香。終日不散。事在宋政和六年(淨土文)。

馮氓

馮氓。上虞人。少事遊獵。有巨蛇為鄉民患。氓殺之。慮蛇為怨。乃皈心佛法。回向西方。修懺誦佛名。如是十年。一夕請淨業友數人。同誦阿彌陀經。唱佛號。次誦普賢懺罪往生偈已。即端坐合掌而終(佛祖統紀)。

吳瓊

吳瓊。不詳其所出。先為僧。已而返俗。作庖人。當切肉時。口中稱佛名不輟。每教邨中人。誦經修懺。念阿彌陀佛。後眼郭生瘤。

大如雞子。乃惶怖。分遣妻子。造一草庵。晝夜焚修。紹興二十三年秋。告邨中人曰。瓊來日。戌時去也。人皆笑之。次日晚。報諸道友曰。時至矣。好來念佛相助。復將布衫質酒飲盡。即寫頌曰。把盞空空。問甚禪宗。今日珍重。明日清風。端坐合掌稱佛名。忽大聲曰。佛來也。即化去(淨土文)。

李彥通

李彥通。會稽人。為鍛工。偶入邑中繫念會。忽悟身世無常。歸心淨土。一日得疾。云。我夢遊淨土。見二門扃鎖甚固。適遇僧宗利。開門引入。見樓閣中佛與菩薩。吾將去矣。遂請晞經道果二僧至臥榻前。策發淨業。令舉家齊誦佛號。西向坐逝(佛祖統紀)。

黃生

黃生。潭州人。以鍛鐵為生。每打鐵時。口稱阿彌陀佛不絕。一日占一頌。令隣人書之。曰。叮叮璫璫。久煉成鋼。太平將近。我往西方。且云我去後。可將此頌流布。廣勸人念佛也。即化去(佛祖統紀)。

徐六公

徐六公。嘉興農夫也。長齋念佛。設像瞻禮。如是四十年。屢夢遊淨土。預作一龕。臨行之日。易布衣草屨。入龕端坐。頃之。即曰。佛來迎我。泊然而逝(佛祖統紀)。

沈三郎

沈三郎。臨安賈人也。晚而奉佛甚謹。一日臥病。請僧講彌陀經。設像。日夕西顧。易衣而終。頃之。膝微屈。如欲起坐者。二子曳脛直之。忽瞿然起坐。遂易龕。茶毗。有白鶴翔雲西去(佛祖統紀)。

師贊

師贊。雍州人。為行童。年十四。念佛不絕。忽遇疾而亡。俄復甦。白父母曰。阿彌陀佛來此。兒當隨行。隣人見空中寶臺。五色異光。向西而沒(佛祖統紀)。

倪道者

倪道者。仁和人。棄家。建小庵。專意念佛。欲焚身代一切眾生供養諸佛。於是集眾唱佛名。來者至萬人。焚身前一夕。其地忽有金光大半尺許。語人曰。我焚身時。必有紫青二色雲。從東北過西南。是我往生之相也。已而發炬。端坐其中。二色雲現。火盡乃滅(佛祖統紀)。

大善寺行童

大善寺行童。常隨師善輝。持誦佛名。一夕。夢婦人持數珠示之。童曰。欲得一串。恨無錢買耳。婦人曰。我當與汝。汝可開口。即以數珠投口中。童寤以告師。輝曰。此是大勢至菩薩。授汝念佛三昧也。過數日。童見二大士。持華座與之。曰。更過七日。當乘此來生淨土也。童即語人云。我七日當行也。至期。忽自唱曰。菩薩來矣。即座而化(佛祖統紀)。

張愛

張愛。明萬歷間中官也。晚持金剛經。閱數年。病死。至一王者所。謂曰。汝合向人間受胎。答曰。愛持金剛經。願生淨土。不願受胎。王者曰。汝持經功少。奈何。愛曰。曾聞十念成就。況其久乎。王者曰。且放還。聽持經去。既甦。遂去之西山碧雲寺。專誦金剛經。又十一年。一日集眾曰。我以持經力。今西去矣。沐浴更衣。端坐而逝(金剛新異錄)。

吳澆燭

吳澆燭。居蘇州婁門。以澆燭為業。因以得名。子身無偶。長齋晝夜念佛。為人不欺。賣燭家爭迎澆燭。吳傾油一杓。必稱佛數聲以為常。年七十餘。忽語主人曰。吾積有薄貲。本為身後計。今念佛功成。某日吾當去。往生善處。無用此矣。敬以相贈。主人請為作福事。吳喜。乃引至一窖。出千金。主人為分給諸大寺。盡以飯僧。至期。吳合掌念佛。端然坐逝。用遺言以龕殮。及闔維日。送者千萬人。事在崇禎七年(現果隨錄)。

吳毛

吳毛。青陽吳氏僕也。平時持齋。誦佛名。兼修眾善。左良玉兵渡江。吳氏合家避去。毛獨居守。兵至。被七鎗而死。亂定家主反。毛復甦曰。我以宿業。當受豬身七次。因今生齋戒念佛。以七鎗散冤。今佛來接引。往生西方矣。語畢合掌而逝。事在順治元年(果報聞見錄)。

王仰泉

王仰泉。杭州人。以屠羊為業。所殺無算。後疾病。見羣羊索命。心甚懼。病愈。遂幡然改業。長齋事佛。誦金剛經滿三藏數。晚又禮拜法華。晝夜無倦。年八十一。忽見符使來追。抗聲拒云。我待佛來纔去。閱五日。果見佛現大身。垂手接引。怡然而逝(現果隨錄)。

梁維周

梁維周。紹興[邱-丘+乘]縣人。在龍潭庵為行者。年四十而瞽。無所得食。欲求死。僧雲麗止之曰。毋徒死也。西方有佛。曰阿彌陀。子能至心稱念。不難橫截生死。瞽豈足患乎。從之。雲麗為募飯供之。維周念佛甚切。三年。目復明。居半月告眾曰。吾將去矣。越三日。方午。向西坐脫。事在乾隆三十八年(僧雲麗述)論曰。修淨業者。不論貴賤。不擇賢愚。信深則入。誠積而通。如鍾馗善和諸人。皆販夫屠戶耳。一念回光。頓超彼岸。故知心力不可思議。佛力亦不可思議。

往生女人第九

韋提希夫人

韋提希。舍衛國王頻婆娑羅夫人也。有太子名阿闍世。隨順調達惡友之教。收執父王。置七重室內。制諸羣臣。一不得往。時韋提希恭敬大王。澡浴清淨。以酥蜜和麩。用塗其身。諸瓔珞中。盛葡萄漿。蜜以上王。王得不死。阿闍世聞之。即執利劍。欲害其母。為二大臣諫止。遂閉母深宮。不令復出。時韋提希被幽閉已。愁憂憔悴。遙向耆闍崛山。為佛作禮。而作是言。如來世尊。在昔之時。恒遣阿難來慰問我。我今愁憂。世尊威重。無由得見。願遣目連尊者阿難與我相見。作是語已。悲泣兩淚。遙向佛禮。爾時世尊在耆闍崛山。知韋提希心之所念。即勅大目犍連。及以阿難。從空而

來。佛從耆闍崛山沒。於王宮出。時韋提希禮已。舉頭見世尊釋迦牟尼佛。身紫金色。坐百寶蓮華。目連侍左。阿難侍右。釋梵護世諸天。在虛空中。普雨天華。時韋提希號泣向佛白言。世尊我宿何罪。生此惡子。唯願世尊。為我廣說無憂惱處。我當往生。不樂閻浮提濁惡世也。此濁惡處地獄餓鬼畜生盈滿。多不善聚。願我未來。不聞惡聲。不見惡人。今向世尊。求哀懺悔。唯願佛日教我觀於清淨業處。爾時世尊。放眉間光。其光金色。徧照十方無量世界。還往佛頂。化為金臺。十方諸佛淨妙國土。皆於中現。時韋提希見已。白佛言。是諸佛土。雖復嚴淨。皆有光明。我今樂生極樂世界阿彌陀佛所。唯願世尊。教我思惟。教我正受。佛告韋提希。阿彌陀佛。去此不遠。汝當繫念。諦觀彼國。我今廣為汝說。亦令未來凡夫修淨業者。得生西方極樂國土。欲生彼國者。當修三福。一者孝養父母。奉事師長。慈心不殺。修十善業。二者受持三歸具足眾戒。不犯威儀。三者。發菩提心。深信因果。讀誦大乘。勸進行者。如是三事。名為淨業正因。佛又為韋提希說十六觀法已。韋提希與五百侍女。聞佛所說。應時即見極樂世界廣長之相。得見佛身。及二菩薩。心生歡喜。歎未曾有。豁然大悟。逮無生忍。五百侍女。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願生彼國。世尊悉記。皆當往生。生彼國已。獲得諸佛現前三昧(觀無量壽佛經)。

樂音老母

佛在維邪羅國。所止處名曰樂音。有貧窮老母。來白佛言。生老病死。從何所來。去至何所。乃至六識六根五大。從何所來。去至何所。佛言。生老病死。無所從來。去亦無所至。乃至六識六根五大。無所從來。去亦無所至。譬如兩木。相鑽出火。火還燒木。木盡火便滅。諸法亦如是。因緣合會乃成。因緣離散即滅。無所從來。去亦無所至。因為廣說諸譬。老母聞法開解。即得法眼。佛言。我前世發菩薩心時。曾為其子。今此老母。壽終當生阿彌陀佛國中。供養諸佛。却後六十億劫。當得作佛。字扶波鞞。其國名化作(佛說老母經)。

紀氏

紀氏。句容葛濟之妻。劉宋時人也。濟之為葛洪之後。世學僊術。紀氏獨心樂佛法。存誠不替。一日方織。仰首見雲日開朗。空中清明。忽有寶蓋幡幢。自西方來。中擁一如來。金色晃耀照徹雲表。紀氏停梭諦觀。中懷踊躍。曰。經說無量壽佛。此其是邪。便頭面

作禮。仍引濟之。指示佛處。濟之但見半身。及諸幡蓋。俄而隱沒。於時鄉里老幼。咸共覩聞。從而歸佛者甚眾(冥祥記)。

魏氏女

魏氏女。梁郡人。其父兄皆修淨業。女亦篤志往生。無何化去。七日復甦。即升高座。誦無量壽經。既畢。下啟父言。兒去便往無量壽國。此寶池中。兒及父兄各有一大蓮華。當生其內。唯母獨無。不勝此悲。故來相報。語訖而暝。母自是亦奉法焉(冥祥記)。

獨孤皇后

獨孤皇后。河南雒陽人。周大司馬河內公信之女也。隋文帝未貴時。娶為夫人。及受禪。立為皇后。性賢明。朝廷政事。多所匡益。然頗妬忌。後宮希得進御。帝宏護佛法。勅諸州郡。徧造靈塔。安置舍利。多感瑞應。后亦敬慕大乘。常持佛名。當持名時。必先易淨衣。嚼沈水香盥口。以為常。仁壽二年。八月甲子。崩於永安宮。年五十。于時異香滿空。天樂振響。帝問梵僧闍提斯那。是何祥也。對曰。淨土有佛。名阿彌陀。皇后往生。故現斯瑞耳(隋書。續高僧傳。佛祖統紀)。

王氏

王氏。隋時人。薛翁妻。僧頂蓋母也。讀誦諸經。勤修懺法。志求淨土。唐貞觀十一年。有疾。勤懇彌至。俄見牀前有赤蓮華。大如五斗甕。已又見青蓮華。充滿一室。阿彌陀佛觀音勢至。降臨空中。其孫大興侍側。見佛身高大。迴出二菩薩上。良久乃隱。而王氏逝矣(續高僧傳)。

姚婆

姚婆。上黨人。與范婆善。范婆勸令念阿彌陀佛。姚婆從之。遂屏息家緣。一心念佛。臨終見阿彌陀佛降臨空中。二菩薩侍左右。姚婆白佛。不遇范婆。安得見佛。請佛少住。與渠作別。及范婆至。佛猶儼然。姚婆遂立化(淨土文)。

溫靜文妻

溫靜文妻。并州人。久病臥牀。靜文教念阿彌陀佛。妻從之。默誦佛名。二年不絕。一日忽告靜文言。吾已見佛。後月中定去。前歿之三日。蓮華現前大如日輪。及期。具食獻父母。云。今幸得生淨土。願父母與夫。專念阿彌陀佛。便當相見於淨土。言訖而終(淨土文)。

任氏

鍾離夫人任氏。宋知開封府會稽鍾離瑾之母也。平生篤志淨業。刻栴檀為彌陀佛像。常頂戴行道。年九十八。起居如常時。一日忽戒瑾曰。人人有箇彌陀。奈何拋去。處處無非極樂。不解歸來。予將行矣。汝其念之。翼日晨起焚香持佛名。頃之合掌而化(佛祖統紀)。

王氏

越國夫人王氏。哲宗從父荆王之妻也。專修淨土。晝夜無間。導諸妾婢并志西歸。中有一婢獨懈慢。夫人曰。不可以爾一人。壞我規矩。擯之。婢悚悔。遂發憤精進。久之弗倦。一日謂同事曰。吾其行矣。夜聞異香滿室。無疾而逝。越宿。同事者告夫人言。夜夢化去之婢。令致謝夫人。幸蒙訓責。得生西方。感德無量。夫人曰。彼能入我夢。乃可信爾。其夕。夫人夢婢致謝如前。夫人曰。西方可至乎。婢曰。可。遂導夫人行。頃之。見一大池中有蓮華。大小間錯。或榮或悴。夫人問其故。婢曰。世間修西方者。纔發一念。此中便生一華。勤惰不同。榮悴亦異。精進者榮。怠廢者悴。若歷久不息。念熟觀成。形消神謝。決生其中。中有一人朝服而坐。寶冠瓔珞。莊嚴其身。夫人問曰。何人也。婢曰。楊傑也。又一人朝服而坐。其華頗悴。夫人又問何人。曰。馬圩也。兩人俱修淨業。事具本傳。夫人曰。我當生何處。婢導之行。可數里。望見一華臺。金碧晃耀。光明洞然。婢曰。此夫人生處。乃金臺上品上生也。既覺。悲喜交至。其年遇生日。晨起。秉爐爇香。望觀音閣而立。諸眷屬方趣前為壽。眡之則已化去矣(樂邦文類)。

陳媪

陳媪。錢塘人。從靈芝律師受菩薩戒。專心念佛。日課千拜。經案間迸出舍利。臨終。見佛來迎。顧旁人言未竟。寂然而化(佛祖統紀)。

袁媪

袁媪。錢塘人。從靈芝受菩薩戒。即斷葷酒。篤修淨業。家人皆化之。如是二十年。一日示疾。請圓淨律師說法。俄見佛菩薩眾。現前接引。端坐而化(佛祖統紀)。

陳媪

陳媪。長蘆蹟禪師之母也。蹟嘗作蓮華勝會錄。普勸緇白求生西方。其住廣平普會寺。迎母居方丈東室。朝夕持佛名。已而有疾。集眾唱佛。盡二日。忽合掌瞻像。泊然而化。前一日。蹟夢母謂曰。吾見尼師十餘。來相召。蹟曰。此往生之祥也。言已坐滅。面如珂玉。既卒之明日。頂微溫。面白。如夢所見然(佛祖統紀)。

于媪

于媪。錢唐秦氏女也。其夫販魚為業。有子遭官事破家。媪愁苦。欲沈身於江。遇淨住寺照師。勸之曰。夙世業緣。總宜順受。枉自沈江。不如念佛。媪猛省。即然一指佛前。誓長齋。日稱佛名。十年不怠。見一切人皆稱為佛子。一日請僧。誦觀無量壽佛經。而已持珠誦佛名。至觀像章。寂然而化(佛祖統紀)。

王氏

王氏。合肥馬永逸妻也。永逸世修淨業。事載本傳。王氏亦持佛名。行天竺十念法。又嘗持破地獄偈。偈出華嚴經云。若人欲了知。三世一切佛。應觀法界性。一切唯心造。一夕夢地獄。主者來謝云。幸蒙持偈功德。獄中眾生。出生善道者多矣。其後寢疾。持佛名不絕口。既逝。諸親屬及其侍女。皆夢王氏報云。吾已得生淨土矣(樂邦文類)。

馮氏

廣平郡夫人馮氏。名法信。贈少師珣之女。鎮洮軍承宣使陳思恭之妻也。少多病。及歸陳。病日劇。時慈受深禪師居王城。唱導佛法。夫人造其室。求却病方。慈受教以持齋。誦西方佛名。夫人信受。還家未踰月。遂屏葷血。却膏沐。衣埽塔衣。修西方淨觀。自翻經行道。及起居動靜。一以西方為歸。頃之。病良已。理家事如

初。亦不廢淨業。如是十年。無惰容。無矜色。心安體舒。神氣日王。一日索筆書偈曰。隨緣任業許多年。枉作耕牛大可憐。打疊身心早脫去。免將鼻孔被人牽。見者怪之。夫人曰。清淨界中。失念至此。支那緣盡。行即西歸。適我願兮。何怪之有。其年九月示疾。至十二月。一夕語侍者云。吾已神遊淨土。面禮慈尊。觀音左顧。勢至右盼。百千萬億清淨佛子。稽首慶我得生其國。至如宮殿林沼。光明神麗。與十六觀經所說無二無別。到者方知。非可以語汝曹也。侍者呼思恭至。語其故。乃相與合掌誦佛名至明晨。右脇而逝。三日而殮。家人輒聞妙香。及茶毗。啟視。面如生時。年三十六(樂邦文類)。

吳氏

吳氏。都官員外郎呂宏妻也。宏素明佛理。與吳氏合志清修。有二侍女亦絕葷血。其一頗好禪。俄而得疾。談笑坐逝。如委蛻然。其一奉戒刻苦。或終日不食。但日飲吳氏所呪觀音淨水一盞而已。一日忽見金蓮華現前。其上雙趺隱然。數日見膝。又數日見身。又數日。頭面悉見。相好具足。其中阿彌陀佛。左右則觀音勢至也。已而宮殿樹林。皎若指掌。清淨男子。經行其際。如是三年。瞬息不隔。或問曾聞佛說法否。曰。我但得天眼。未得天耳。佛所說法。未得聞也。頃之。自言往生時至。遂化去。吳氏事觀音甚虔。室中列瓶數十。注以淨水。日誦大悲呪。輒見觀音放光入瓶中。有病者飲水輒愈。其水積歲。色味不變。雖大寒不凍。故世號吳氏為觀音縣君(淨土文)。

龔氏

龔氏。錢塘人。孫忭之母也。誦彌陀經。常持佛名。一日有疾。請清照律師至。稱說淨土諸莊嚴事。語未及終。端坐而化。老妾于氏亦常持佛號。頃之。夢龔氏告曰。吾已生淨土。却後七日。汝當來也。及期亦逝(佛祖統紀)。

孫氏女

孫氏女。錢塘人。常持佛名。兼習梵呪。已而有疾。請清照律師至。告曰。久病厭世。安得脫離五濁。受諸妙樂乎。師為稱說淨土因緣。女大喜。其夜夢師授藥一盞。服之。脫然病愈。後三日。語

侍人曰。迦葉尊者在此。大好金蓮華座。吾其行矣。結印而化(佛祖統紀)。

郭氏

郭氏。名妙圓。仁和人。清照律師之妹也。長齋。誦佛名。課法華彌陀二經。兼行方等懺法。每諦觀落日。注想西方。忽聞空中聲云。郭妙圓決生淨土。嘗往律師所。作繫念會。齋百僧。臨終。請師說法。即時坐脫(佛祖統紀)。

施氏

施氏。錢塘沈銓妻也。與夫同修淨業。請照律師依觀經繪九品往生圖。以資觀想。平居供佛飯僧。印施般若經。建徑山天寧諸寺殿。所有善功。悉迴向淨土。與夫先後化去。皆見化佛垂手。面西而逝(佛祖統紀)。

姚婆

姚婆。不知何許人。專修淨業。觀念無間。一日方向西念佛。忽見日輪中現阿彌陀佛。相好具足。因請僧思淨圖其像。僧法怡為之讚曰。極樂世界有方所。祇在尋常日沒處。所以佛教韋提希。諦觀落日如懸鼓。善哉姚氏一老嫗。能以是心求淨土。暮觀朝想無歲年。行持坐念忘寒暑。彌陀忽從心想生。恍惚之間明了覩。是時虛空絕纖雲。桑榆尚駐羲和御。佛日晃耀奪陽輝。紺目玉毫妙相具。目駭心驚喜且悲。走告導師彌陀喻(思淨號喻彌陀)。具陳所見實希有。願寫金容託毫素。我聞勝事歎善哉。為說偈言開未悟。當知去佛本不遠。闡提那得明其故。雖過刹土十萬億。一念超越如跬步。若有迷人問路頭。向道恁麼驀直去(樂邦文類)。

王氏

王氏。明州人。日持金剛經。懷孕二十八月。羸瘦日甚。偶倚門立。一異僧過之。謂曰。汝有善根。何不印施金剛經千卷。王氏從之。又齋千僧。誦金剛經千卷。至夜三更。見金剛神以杵指王氏腹。及覺。已生二男在牀矣。王氏遂持齋誦經不輟。年六十一。暴卒。二使者引見冥王。自言從幼持金剛經。王賜金牀。命坐殿側。朗誦一遍。王問何不念呪。答云。世間無本。勅鬼吏於藏中取呪本

付王氏。囑曰。汝至陽間。展轉流通。切勿遺墜。汝向後壽終。徑生極樂世界。不復來此處矣。王氏遂還。後至九十一歲。無疾坐化。其補闕真言曰。唵。呼嚧呼嚧。社曳穆契莎訶。事在紹興九年(金剛證果)。

王百娘

王百娘。明州人。少孤。既嫁而寡。依其舅舍人陳安行。從之官舍。紹興二年夏。忽病瘖聾。有所欲。但書之紙上。安行教令歸誠觀音大士。百娘遂晨夕禮拜。一日假寐。忽覩大士現身。示以修行捷徑。令日向西方。作禮阿彌陀佛。因授以偈曰。淨土周沙界。云何獨禮西。但能回一念。觸處是菩提。又云。可普勸人持誦。未踰月。二病頓愈。安行謂其念力純至。應答如響。為鐫其事以廣其傳(夷堅志)。

朱氏

朱氏。名如一。明州薛生妻也。年二十餘。即素服齋居。虔修淨業。嘗以黃絹請善書者寫法華經。繡以碧絨。針鋒綿密。點畫較然。閱十年而成。中間唱禮佛名。至八萬四千。復繡阿彌陀佛觀世音像。習法華經。三月成誦。次閱華嚴般若楞嚴圓覺。俱能通利。又鋟木為圖。勸人念阿彌陀佛。受圖者滿十萬聲。為迴向西方。所化至二十萬人。尋結廬墓旁。一室奉佛。一室宴坐。一室書經。給侍唯一婢子。甘苦共之。紹熙四年春。盡斥賣奩具。為三日會。飯千比丘。合緇白萬人。共唱西方佛名。建寶幢。裝所繡經七軸。並書會者姓名。送羅睺羅道場僧堂供奉。十二月。示微疾。垂暝。輒起趺坐。薛生曰。我家無是法也。請就寢。遂右脅而逝。年三十七(樂邦文類)。

陸氏

王宜人陸氏。錢塘人。朝請王璵妻也。常誦法華。篤意淨土。禮懺一會。唱佛萬聲。如是三十年。偶感微疾。忽聞天鼓自鳴。即面西端坐。兩手結印而逝(佛祖統紀)。

蔡氏

蔡氏。錢塘人。早歲寡居。持經念佛。日禮佛像。逾二十年。忽見金蓮華現空中。遽索平時修行課目內之懷。安坐而逝(佛祖統紀)。

項氏

項氏。名妙智。鄞縣人。夫歿後。奉法甚勤。常持佛名。有女二人。悉令為尼。嘗預治一棺。及將逝。謂其女曰。吾欲坐脫。如此棺何。女曰。佛用金棺。無嫌也。遂諷觀經上品章。轉身西向。兩手結印。微笑而逝。事在紹定六年(佛祖統紀)。

沈氏

沈氏。名妙智。慈溪人。歸章氏。幼而長齋。日課佛號。既嫁篤志不變。憐憫有情。周其凍餒。已而得微疾。念佛益切。忽見阿彌陀佛。踴現虛空。菩薩聖眾。左右圍繞。放白毫光。至行者所。若長虹駕空。千燈普照。頃之吉祥而逝。事在端平二年(佛祖統紀)。

鍾婆

鍾婆。嘉禾人。日誦阿彌陀經。兼持佛號。垂二十年。一日語其子曰。西方眾聖。徧於虛空。大白蓮華。光明普耀。吾其行矣。端坐聳身。合掌而化(佛祖統紀)。

梁氏女

梁氏女。汾陽人。少而盲。遇一沙門。教持阿彌陀佛。越三年。兩目忽明。女持佛名不輟。一日見空中旛蓋下臨。佛及菩薩同來接引。遂化去(佛祖統紀)。

黃婆

黃婆。潮山人。專持佛號。兼誦法華金剛二經。偶病下痢。自知時至。便却食日飲水數盂。一夕鄰庵僧善修。夢婆來別云。將往西方。越二日。西向念佛。端坐而逝。紅霞爛然。覆其屋上。里人皆見之(佛祖統紀)。

崔婆

崔婆。淄州人。東平梁氏之乳媪也。為人朴愿。早斷葷血。主母晁氏留意禪學。婆在旁。唯日誦阿彌陀佛。未嘗有閒。亦莫計其數。年七十二。下痢。持念益力。忽唱一偈曰。西方一路好修行。上無條嶺下無阬。去時不用著鞋襪。為有蓮華步步生。或問婆何時當去。曰。申時。已而果然。茶毗時。舌獨不化。若蓮華然(往生集)。

陶氏

陶氏。常熟人。喪偶獨居。常持普門品。夢白衣大士以蓮華授之。又夢梵僧授經一卷。啟之。乃阿彌陀經也。既覺取經誦之。宛如夙習。一夕室中有光。朗然若晝。阿彌陀佛現身立經函上。由是持誦益虔。經卷上舍利迸出。積至合餘(佛祖統紀)。

李氏

李氏。上虞胡生之妻也。夫喪後。日誦佛名。及阿彌陀經。夜以繼晝。聲徹內外。凡十餘年。一日方端坐念佛。有僧現前。覆以緋蓋。曰。十五日子時。汝當往生。問師何人。曰。汝所念者。李氏遂別諸親故。至期異香鬱然。光明照室。端坐而逝。七日茶毗。齒舌目睛皆不壞。舍利無數。次日茶毗處生一華。色白。周圓二寸餘。莫知其何名也(佛祖統紀)。

盛媪

盛媪。錢塘人。日誦佛名。兼課觀無量壽佛經。無何得病。一日起命左右具湯浴畢。面西端坐。問左右曰聞磬聲乎。淨土眾聖且至。已而合掌笑曰。佛菩薩已至。金臺現前。吾其行矣。言訖而化(佛祖統紀)。

黃氏

黃氏。明州人。早喪夫。還家依父。精修淨業。臨終。見佛來迎。結印徐行。屹然立化。家人篩灰於地。晨起驗之。生蓮華一孕(佛祖統紀)。

王氏女

王氏女。吉安人。少慕淨業。日誦彌陀觀音金剛諸經。母病亡。將殮。流血被體。女誓曰。若我孝心真實。願母體不生臭穢。誓已。流血即止。及殮。即之。絕無穢氣。已而父娶繼室。與同修淨業。一日女得疾。請僧說淨土觀門。俄起索衣。吉祥而臥。手攬觀音像前寶幡。奄然示寂。將殮。繼母篩灰於室。出蓮華數朵(佛祖統紀)。

樓氏

樓氏。名靜慧。寺簿周元卿妻也。嘗閱傳燈錄。發明見地。已而皈心淨土。念佛不輟。晚年得疾。忽見蓮臺現前。化佛無數。異香滿室。頃刻而化。有女名妙聰。因母發心。亦篤志念佛。病中請僧行懺。恍惚見已身著新淨衣。升七寶樓閣。繞佛作禮。謂家人曰。勤修淨業。西方現前。西向右脅而逝(佛祖統紀)。

周婆

周婆太平人。早修淨業。至老益虔。一夕胡跪稱佛名。泊然而化。鄰人見數僧振錫而行。婆在其後。須臾之間。冉冉騰空。向西而沒(佛祖統紀)。

朱氏

朱氏。霽川人。持佛名者三十年矣。兼持金剛經。開卷時。每謂眾聖監臨。不敢踞坐。忽斷食。日飲水數盂。閱四旬。夢三比丘手執蓮華。謂媪曰。吾先為汝種此華。今日當開。故來迓汝。既覺。請僧同唱佛名。端坐而化(佛祖統紀)。

裴氏女

裴氏女。汾陽人。清淨自居。專志念佛。臨終。索火焚香。言佛來迎我。我當往生。已而天華飛墜。安坐而化(佛祖統紀)。

孫媪

孫媪。明州人。孀居三十年。日常念佛。兼手製衣衾襪履。施諸比丘。一日微疾。夢至懺堂。身挂縵衣。隨諸比丘經行繞佛。既覺。沐浴更淨衣。請僧行懺。親詣佛前。誦阿彌陀佛經。至一心不亂。左手結印。寂然坐逝。空中奏天樂聲。聞於遠近(佛祖統紀)。

秦媪

秦媪。名淨堅。松江人。志慕大法。厭惡女身。與夫別處。嚴持戒法。晨夕修淨土懺儀。禮佛千拜。兼閱華嚴般若法華光明諸大乘經。日無虛晷。一日方端坐室中。忽有光明照空。逾於皎日。面西而逝(佛祖統紀)。

蔣十八妻

蔣十八妻者。海鹽人。中歲與其夫合志修行。斷除愛慾。日誦大乘經。歷四十餘年。一日各洗漱更衣。炷香唱佛名。並書一頌而逝。蔣頌曰。這箇幻身。四大合成。今日分散。各歸其根。諸幻既滅。灰飛烟絕。如空中風。猶碧天月。既無障礙。又能皎潔。一切永斷。無有言說。四十年來。脫離嗜慾。惟闡大乘。朝誦暮讀。今朝撒手西歸。自有現成果足。其妻頌曰。看過蓮經萬四千。平生香火有因緣。西方自是吾歸路。風月同乘般若船(開憲括異志)。

沈媪

沈媪。錢塘人。持佛號十餘年。日益精進。嘗屬畫師繪八尺阿彌陀像。及有疾。安設牀前。晨夕繫念。並請僧同持佛號。忽語眾曰。有一大僧授我金座。吾當乘之。遂聳身前席。眾唱佛益力。媪曰。念佛功德。已登蓮臺。吾其往矣。遂暝(佛祖統紀)。

孟氏

孟氏。醴泉人。既嫁。得痼疾。有僧教以專持佛名。行之三年。忽謂夫曰。可急報諸親屬。吾將去矣。已而送者畢集。孟氏焚香與眾唱佛名。頃之。見一沙門振錫空中。曰。汝當往生。俄而旛蓋翻翻。佛與菩薩同時俱至。遂化去(佛祖統紀)。

陳氏

陳氏。吳興人。受持齋戒。以禪誦為樂。持佛名者三十年。兼誦法華經五干部。金剛彌陀二經。各五千四十八部。一日不食。家人問何故。曰欲求見佛耳。遂右脇而化(佛祖統紀)。

胡媪

胡媪。名淨安。會稽人。專修淨業。禮阿彌陀佛八萬四千相好。每一相好。各禮一拜。如是者四度。偶得微疾。見佛來迎。安詳坐逝。略人皆聞空中樂聲。隱隱西去(佛祖統紀)。

周氏

周氏。嘉禾人。適孫氏。與舅姑同修淨業。感室中佛像現光。香華盈案。或空中現諸佛菩薩。時聞天樂。或聞空中誦經聲(佛祖統紀)。

鄭氏

鄭氏。名淨安。錢塘人。常持佛名。偶得疾。聞空中聲曰。汝西行有期。毋得自怠。已而佛現在前。身真金色。即起面西端坐。有子義修。已出家矣。召之。令誦阿彌陀經。安然而化。其女夜夢母報曰。吾已得生淨土矣(佛祖統紀)。

周婆

周婆。鄞縣人。精修淨土。遇歲首。常持不語戒。晝夜端坐。盡月而止。暑月則施茶湯。歷久不廢。一夕夢大蓮葉。徧覆市衢。已手執數珠。經行葉上。既而微疾。鄰人夜見寶蓋旛幡自空中來。入其門內。黎明。合掌唱佛而逝(往生集)。

張夫人

張夫人者。不詳其里居。晚而長齋。日誦西方佛名。年七十九矣。每夜坐息燭。四壁放光。現諸繚絡。臨終。焚香案上。篆烟宛轉。結成佛像。須臾之間。作真金色。眉目若畫。一手下垂。若接引狀。篆烟甫消。而夫人寂矣(淨土節要)。

薛氏

薛氏。武塘世家女也。母夢長庚入懷而薛氏生。後歸周。生子五人而寡。專心淨業。好施不倦。室中供觀音大士。香烟吐藥。結成蓮華。人皆見之。萬曆十五年五月。得疾。醫進乳糜。却之。遂斷食。至九月六日。延僧禮懺。曰。四日足。吾事畢矣。設西方佛像。晝夜繫念。令諸子同唱佛名。婦女毋得入。至第五日。晨起。索水盥手。誦甘露真言。著新淨衣。戴誌公帽。長跪佛前。唱然香

讚佛偈。及三自皈依。禮三拜。誦佛名一百八聲。方午。趺跏結印而化。神氣熙然。家人聞蓮華香滿室中。遺令具龕。毋用棺槨。毋迎眚神。毋燒紙錢。毋殺牲以祭。諸子皆從之(往生集)。

方氏

方氏。桐城諸生吳應賓妻也。年三十而寡。秉節自誓。專修淨土。一老嫗亦持戒。晨夕隨侍。萬曆十三年。方氏年五十矣。有小疾。呼老嫗相對唱佛名。晨夕無間。既而具浴更衣。晨起然香禮佛。還坐一榻。泊然而化(往生集)。

徐氏

徐氏。嘉定陸生妻也。夫亡。篤志淨業。舊有千金貸人。焚券不問。篋中服物。悉用布施。朝夕佛前禮誦。如是十年。一夕忽呼侍者曰。看東方光發否。吾往生時至矣。遂高聲唱佛。合掌而化(往生集)。

許氏婦

許氏婦。杭州人。為人謹厚。日課佛名。久而彌篤。一日呼家人與訣曰。吾將去矣。著淨衣端坐。取天目白華簪之。安然而逝(往生集)。

于媪

于媪。昌平于貴之母也。專修淨業。至老彌篤。一日取所著衣。浣濯甚潔。謂其子曰。將以某日往生淨土。子未之信。及期。置几庭中。坐几上化去。空中隱隱有天樂聲。鄉人皆聞之(往生集)。

潘氏

潘氏。名廣潭。工部主事餘杭李陽春之妻也。陽春故好施。晚常誦西方佛名。既逝踰年。見神於潘氏。登樓啟窗。作洪語曰。要修行。要修行。潘氏通古今。初好排舐釋教。晚而皈禮雲棲。斷葷血。習禪定。夜常跏趺達旦。兼修諸功德。散錢粟不訾。萬曆三十九年冬。得疾。明年正月。自知不起。遺囑家財。已而謂人曰。吾

三世梵僧。今且偕大士而西矣。稱佛名不絕口。屈三指而化。及斂。支體輕軟。貌如生(虞德園集)。

朱氏

朱氏。仁和諸生孫標妻也。平生奉持齋戒。專修淨土。嘗然燈禮佛。燈光爛然。化成五彩。有佛跏趺其上。及將終。端坐合掌。稱佛名。不輟。及斂。貌如生(學佛考調)。

祝氏

祝氏。公安龔仲淳婦也。甥袁宏道兄弟。好談佛法。祝氏聞淨土法門。信之遂專持佛名。兼誦金剛經。一日語諸子曰。佛言三日後當來迎我。及期。沐浴坐堂上。諸眷屬拱列。良久。自言佛至。眉間放白毫光。長數丈。又言見一僧相好莊嚴。自稱須菩提。俄化為百餘僧。或從旁謂曰。經中凡一百三十八須菩提。即此是也。諸眷屬共焚香誦佛名。祝氏微笑而逝。閣中一九歲婢。方臥地。忽大呼起立。言見數金甲巨人。執旛幢為夫人導。其幢柄拂面過。不覺痛失聲。察之。傷痕宛然。既殮。棺中時發異香(袁中郎集)。

張太宜人

張太宜人金氏。隰州人。普安知府張懷麓妻也。家世貴盛而自奉甚薄。中年失偶。教諸子有法度。子正道正學。皆以科名顯。太宜人晚得淨土書讀之。遂注心極樂。晨夕禮誦。一夕戒諸孫曰。爾輩好讀祖父書。吾其去矣。呼侍女焚香。端坐而逝。數日後。見夢於孫曰。適從西方來。始知太宜人實生淨土云(白蘇齋集)。

楊選一妻

楊選一妻。南昌人。客居南京。年三十生子。即與夫別居。聽夫置妾。自是長齋念佛。閱十五年。其年八月。疽發於背。痛入骨。見一惡鬼持刀逼之。有大力神驅之去。其痛頓息。旋謂夫曰。吾將行矣。有童子四人相迎。可以清茶供之。問將何往。曰往西方。合掌唱佛名而逝(淨土晨鐘)。

鍾氏

鍾氏。仁和張後溪繼室也。年四十。喪夫。遂長齋。日誦西方佛名。歷四十餘載。居常每聞天樂鳴空。及唱佛聲。泰昌元年十二月。臥病。數日飲湯一盞。明年元旦為家人言。蓮華布地旛蓋懸空。爾曹亦見之乎。口中唱佛名不輟。及暮。吉祥而化(淨土全書)。

吳氏女

吳氏女。太倉人。生時趺坐而下。稍長。皈心佛乘。事親孝。不願有家。人或勸之。輒指天為誓。初從昆弟析諸字義。已而誦佛經。悉通曉大意。朝夕禮拜甚虔。俄夢神授以梵書準提呪。有病瘡者。以梵字治之。立愈。嘗於夢中得通宿命。自言曾為宋高僧。此來專為父母。年二十三當成道果。崇禎四年。年二十三矣。閉關一室。專修淨土。仲冬之末。示微疾。作偈辭世。勉親堅修勿懈。日方午。索玉戒指佩之。右脅而逝。將殮。紅光溢於面。母為理髮。異香從頂中出。達於戶外。經夕不散。居四年。茶毗。骨瑩如玉。頂作黃金色。為起塔以奉之(續往生集)。

盧氏

盧氏。名智福。徽州程李清妻也。晚遷湖州。季清奉佛甚虔。力營福業。盧氏竭資為助。長齋。日課佛名二三萬。約已惠下。未嘗詈人。崇禎五年。得危疾。請古德法師。授五戒。咨淨土法要。遂一意西歸。季清為誦華嚴經。至入法界品五十三門。為一一講說。盧氏悉領解。季清復策之曰。百劫千生。在此一舉。努力直往。毋猶豫也。遂高聲唱佛。夜以繼晷。如是半月。其母及女來問視。悉謝遣之。曰。毋亂人意。十一月八日。忽覩蓮華現前。化佛垂手。身心踊躍。急索香水沐浴。西向叉手。連稱佛名。右脅而逝。時方午。及暮捫其頂。熱可灼手。年三十九。藕益法師為之傳。系以贊曰。哀哉三界。愛欲為根。根株不拔。奚望西生。蓮華國土。永離塵情。此緣能斷。彼質斯成。勇矣智福。女中之英。一日一夜。淨念功殷。華臺接引。眼識分明。子母恩愛。枯木寒水。吉祥善逝。長辭苦輪。我今隨喜。願共羣倫。頓除愛網。證入元門(靈峯宗論)。

費氏

費氏。湖州雙林鎮沈春郊妻也。少寡。織紡自饒。持齋數十年。供養三世佛畫像。及檀香大士。日誦金剛經一卷。佛名千聲。寒暑不輟。崇禎十一年。大疫。壻張世茂迎費氏往居其家。止攜大士以

行。費氏居一樓。日課回向。祝願此香直達佛所。如是三載。忽空中有香繞樓數日。粉牆上湧現三世佛像。莊嚴精妙。遠邇詫傳。瞻禮日眾。或以淨巾擦之。色逾光明。又四年。一日告壻曰。吾欲返故居。入門。即灑掃焚香。參佛誦經。至第三日早。沐浴更衣。端坐念佛。午刻。大呼佛來也。我行矣。別眾而逝。年七十有三(巾馭乘續集)。

李氏

李氏。劉道隆之母也。年四十。長齋奉佛。除靜室一間。供奉觀音大士。朝夕禮拜。唱佛名千聲。雖大寒暑不輟。刻金剛經以施人。每遇誕日。誡子婦毋置酒。唯禮懺一日。或三日。如是二十五年。將終前一歲。延僧誦經七晝夜。夢所奉大士持數珠一串示之曰。以此授汝。珠數乃汝往生淨土之期。數之。得五十三。覺而識之。至明年五月十三日。忽告家人曰。吾今日往西方矣。可為我同聲唱佛名。助我西行。子婦輩坐榻前唱佛。李氏面西端坐而逝。道隆述其事為世勸焉(金剛持驗記)。

李氏

黃太宜人李氏者。南京儀制主事建昌黃端伯之母也。賢明仁慈。信樂佛法。晚歲誦金剛經地藏經日虔。一夕夢趺坐山巔。佛光照身。覺謂其子曰。西方之期至矣。無何。示微疾。端坐而逝(建昌志。縣榻編)。

陳嫗

陳嫗。常熟人。居於城南。以紡為業。篤信佛法。隨紡車聲唱阿彌陀佛。終日不絕口。如是三十年。一日忽呼其子謂曰。而不見空中寶蓋幡幢乎。吾其逝矣。因拍手大笑。取湯沐浴竟。即合掌化去。事在順治十年。翁尚書叔元。方微時。聞其事。親往視之。見嫗凝然危坐。室中香氣襲人。晚著淨土約說。書其事以證焉(淨土約說書後)。

張寡婦

張寡婦。常熟人。居小東門外。安貧守節。專持佛號。不擇淨穢。未嘗少間。以下痢終。遺一破裙。臭不可近。棄之中流。忽見蓮華

交發五色燦然。散布水面。見者驚異。乃取裙還送一庵。作佛座前案圍。事在順治間(果報聞見錄)。

陸寡婦

陸寡婦。常熟人。年二十。夫亡。持齋戒佛。與人無競。至六十七而終。焚其衫裙。火氣既絕。忽見金光迸出。灰中儼然有佛像在焉。共數十。閭里聚觀。皆焚香膜拜。事在康熙三年(果報聞見錄)。

楊氏

楊氏。張秩斯之妻也。父次弁。虞山嚴氏出。嚴家世學佛。故楊氏自幼即歸心大法。既適張。尋禮僧德真。受三皈五戒。斷除愛慾。年二十七。病劇。發願求生西方。室中供接引佛像。高唱佛名五日。室中聞梅檀香。至七日。瞑目頃之。見觀音大士謂曰。蓮華種子。已有半功。其半看汝手段。問從何處著力。答曰。撒手便行。即合掌唱佛趺坐而逝(續往生集)。

江氏

江氏。餘杭嚴訥公繼室也。訥公故雲棲弟子。奉西方之教。江氏自歸嚴。奉教甚篤。鷄鳴起。跪佛前唱佛千聲。次及諸經呪。凡爇香炳燭盥飲之事。胥自為之。不以役侍婢。康熙七年三月六日。晨課畢。俄而體憊。復就寢。移時。忽大聲曰。觀世音菩薩來矣。趣具湯洗沐畢。就枕而逝。及殮。顏色紅潤。手足柔軟。若委蛻者然(淨土全書)。

徐太宜人

徐太宜人。錢塘徐浩軒之母也。平生奉佛甚謹。誦西方佛名。繪像為圖。旁累數千圈。記所誦數。每一圖畢。即納黃布囊中。如是數歲。康熙三十四年卒。卒之日。家人焚囊於盆。忽聞盆內爆然。視之。見五色光起。布成緇色。其上現樓閣欄楯。重疊周匝。中湧蓮華數十。華上各有一佛合掌趺坐。復現諸天女恭敬圍繞。一一皆如粉色畫本。見者莫不驚歎。明日掇灰。視囊背所現諸形象。與囊面無異。惟佛後又有一老母執拂隨行。浩軒為之記如此(信徵錄)。

凌氏

凌氏。法名善益。吳人張廷表之妻也。母葉氏。長齋四十年。禮古潭和尚為師。日拜華嚴經。周而復始者三。年八十一。夢羅漢現金色身。遂逝。凌氏年四十餘亦長齋。禮古潭為師。日夜六時。行大悲懺法。拜華嚴經。凡再周。常以五更起入佛堂。廷表為煑湯果餉之。晚而專誦大悲呪。阿彌陀佛號。求生西方。一日觀音大士現像。遂示疾。謂其女曰。佛光滿室。吾行矣。遂逝。年六十九。事在乾隆三十四年。女適朱氏。奉法亦虔。課法華經。持西方佛號。其家人。多從而化焉(善女人傳)。

余媼

余媼。徐州宗氏女。昭月和尚之母也。和尚既主揚州高旻寺。迎媼至寺。闢一室居之。媼初入室。思家頗切。與和尚言。輒道家事。和尚為說苦空無常無我之法。勸母一心念佛。求生西方。弗省。和尚遂匿弗見。媼召之。亦弗往。媼無可奈何。遂勉強持佛名。苦不能繼。居三年。稍益熟。遂發深信心。受菩薩戒。晨夕禮拜甚虔。和尚往見媼問頗思家否。媼曰。念佛好。不思家也。一日坐庭前。面塔唱佛名。忽光開。見金色世界。光耀無際。墻壁樹林。廓然摧滅。媼大喜。躡身即之。倏無所覩。自此六根悄然。動靜起居。不生一念。久之。夢至一人家。有婦坐草。媼驚曰。何為至此。吾方求生西方。入胎出胎。大可畏也。急走出。瞿然而覺。晨起以告和尚。曰。吾生緣殆盡矣。其為我集僧唱佛名。送我西行。從之。遂西向坐逝。事在乾隆二十七年(善女人傳)。

楊媼

楊媼。杭州人。居北門外石灰壩。年五十餘。得風疾。僵臥。呻吟徹晝夜。有旅亭師者。自京師還天目。過其居。其子為設齋。請入視母。媼頻顙曰。病甚。師莫有好方能愈我否。師曰。有之。恐汝不肯服耳。媼曰。誠有之。安肯不服。師曰。病從身起。身從假合。汝能捨身。病自去矣。媼曰。捨身奈何。師曰。汝但將身放下。一心西向。繫念阿彌陀佛。阿彌陀佛是大醫王。能除一切眾生之病。但能至誠念佛者。阿彌陀佛自來救汝。媼曰。佛果來乎。師曰來。但患汝念不切耳。既別去。媼遂持佛名。默觀西方。日益懇至。居五月。語其子曰。阿彌陀佛至矣。四日後吾當西歸。為我諸旅亭師作別。師時在天目。不至。及期。別請僧十人。共唱佛名。媼起坐向西而化。事在乾隆三十六年(善女人傳)。

余氏

余氏。法名真修。吳人朱穎符妻也。年三十二而寡。至三十六。長齋奉佛。晚年以家事付兒婦。專修淨業。年七十。夏秋之交。夢遊一池畔。池中有船。載比丘尼優婆夷十數人。中有一人招余氏云。西方去。余氏自念言。此時不去。待歲晚可耳。招者遽云。且待後船。至九月六日。夢阿彌陀佛現身接引。既覺。自知時至。請所事文岐師作別。師至。索蓮華不得。以蓮葉與之。余氏欣然。念佛彌切。內外俱聞異香。至十一日清晨。索水沐浴。更新衣。趺坐稱佛名。有頃。右脅而逝。事在乾隆三十六年(僧正琦述)論曰。十方嚴淨國土。純一化生。無有女人。而韋提希夫人。因子惡逆。起心厭離。即得見阿彌陀佛。受記往生。又蓮華經明受持之利。偏記女人往生極樂。故知娑婆女人。於西方淨土。有大因緣。自蓮宗盛行。閨閣諸賢。往往能專志勤業。一生取辦。彼具丈夫之形者。視此能無愧乎。

往生物類第十

鸚鵡

唐河東裴氏家。有鸚鵡。以其名載梵經。常狎而敬之。告以六齋之禁。比及辰後。非時之食。終夕不視。或教以持佛名號者。當自有念以至無念。則仰首奮翼。若承若聽。其後或俾之念佛。則默然而不答。或謂之不念。即唱言阿彌陀佛。每虛室戒曙。發和雅音。穆如笙竽。念念相續。聞者莫不灑然。貞元十九年七月。悴而不懌。馴養者知其將盡。乃鳴磬告曰。將西歸乎。為爾擊磬。爾其存念。每一擊磬。一稱阿彌陀佛。暨十擊磬而十念成。斂羽委足。不震不仆。奄然而絕。闍維。得舍利十餘粒。節度使韋臯為之記(佛祖通載)。

鸚鵡

宋元祐間。長沙郡人。養一鸚鵡。俗呼為八八兒者也。偶聞一僧念阿彌陀佛。即隨口稱念。旦暮弗絕。其家因以與僧。久之鳥亡。僧具棺以葬之。俄口中生蓮華一枝。或為題曰。有一靈禽八八兒。解隨僧口念阿彌。死埋平地蓮華發。我輩為人豈不知。又天台黃巖正等寺觀師。畜一鸚鵡。常隨人念阿彌陀佛。一旦立死籠中。乃穴土而葬之。舌端生紫蓮華。大智律師為偈頌之(佛祖統紀)。

白鸚鵡

白鸚鵡。嶺南一士人所畜也。晨朝必誦觀音號。白衣呪。兼能誦歸去來辭。赤壁賦。及李白諸詩。或晨課未畢。導以詩文。不應也。一日謂士人曰。我從西方來。還從西方去。其夕奄然而化(見聞錄)論曰。一切眾生。具有如來藏性。乃至三惡道中。但有能繫念阿彌陀佛者。即得往生彼國。見佛聞法。觀鸚鵡鶴鵠事。豈不信然。經云。寧受地獄苦。得聞諸佛名。不受無量樂。而不聞佛名。幸得為人。六根完具。不知念佛。甚者誣且毀焉。亦可謂自暴之尤者矣。豈不惜哉。

淨土聖賢錄卷九(終)

[CBETA 贊助資訊](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

[.\(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

CBETA 成立於 1998 年，於 2023 年 8 月 7 日轉型成為基金會。成立多年來，一部部佛典在嚴謹控管中轉換為數位典藏，不只數量龐大，而且文字校訂精確可信，又加新式標點方便閱讀。「CBETA 電子佛典集成」不僅獲得國際學界的重視及肯定，也成為大眾廣為運用的公共資源，如此成果都是在廣大信眾及有識之士的支持下才得以實現。

對一個從事佛法志業的非營利團隊，能夠長期埋首理想、踏實耕耘是非常不容易的。如今，CBETA 運作經費日漸拮据，但「佛典集成」仍有許多未竟之功。因此，懇請大家慷慨解囊、熱情贊助，讓未來有更多更好的電子佛典。

您的捐款本會皆會開立收據，此收據可在年度中申報個人或企業的綜合所得稅減免。感恩諸位大德的善心善行，以及您為佛典電子化所做的一切貢獻。

信用卡線上捐款

本線上捐款與 netiCRM 及 NewbPay 藍新金流合作，資料傳送採用 SSL (Secure Socket Layer) 傳輸加密，讓您能夠安全安心地進行線上捐款動作。

不管您持有的是國內或國外卡，所有捐款最終將以新台幣結算，所以我們所開立的捐款收據也將以新台幣計。

線上刷卡支持定期定額與單筆捐款。(銀聯卡不支援定期定額)

[前往捐款](#)

劃撥捐款

郵政劃撥帳號: 5 0 4 6 8 2 8 5

戶名: 財團法人佛教電子佛典基金會

欲指定特殊用途者, 請特別註明, 我們會專款專用。

線上信用卡 / PayPal 捐款

PayPal 是一個跨國線上付款機制的公司, CBETA 引用其服務, 提供網友能在線上使用信用卡或 PayPal 帳戶贊助 CBETA 。

PayPal is an online system of a global payment solution. CBETA uses its service to provide the uses to donate by using the credit cards or PayPal account to support the CBETA project.

相關收據開立事宜, 由於付款幣別為美元, 我們除了會依您所贊助之美元金額開立收據外, 另我們會依捐款當日公告匯率開立台幣收據, 此收據為國內正式合法報稅憑證。

Since the donation made is in US currency, hence all the receipts will be issued in the US dollars consequently. However for the domestic donators, a Chinese official receipt will also be made according to the foreign exchange rate for the purpose of tax deduction.

[線上信用卡 / PayPal 贊助](#)

支票捐款

支票抬頭請填寫「財團法人佛教電子佛典基金會」。

For donations by check, please write the check to
"Comprehensive Buddhist Electronic Text Archive
Foundation".
